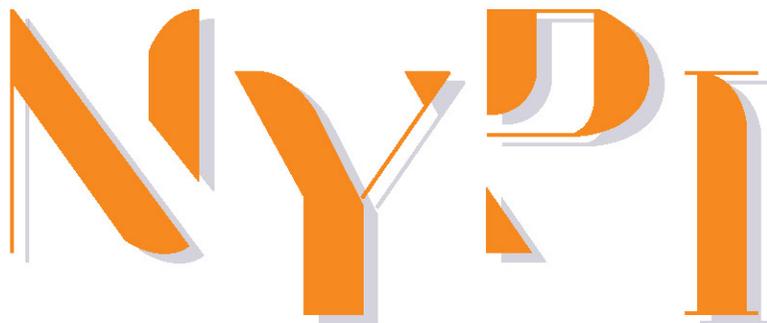


연구보고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최정원 변금선 이종원 이민정 정지희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정원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금선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명예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정 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지희 부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 중 보호 및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인프라와 관련해 청소년 지도자와 전달체계 부분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87년)로, 2단계는 청소년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로, 3단계는 청소년정책 전환기(1998~2007년)로,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로 정의하였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 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육성, 수련, 지도 등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 역시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모아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청소년지도자와 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효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청소년 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며 청소년정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동안 성장해왔음. 그렇지만 25년 이상을 경과한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을 되돌아보면, 초기의 정책 방향과 과제의 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청소년정책 가운데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라는 인프라가 확충돼 왔으나 청소년정책이 독립된 정책으로 분리되던 1990년 초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
-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 역시 청소년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핵심 축을 형성해오고 있으나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사업들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중앙 기관에서 중복적, 산발적으로 기획 및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정책의 주무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이를 조정하거나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 중 보호 및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인프라와 관련해 청소년지도자와 전달체계 부분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청소년활동정책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인 육성, 수련, 지도의 적절성과 타당성,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함. 이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인프라 중 청소년활동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청소년참여정책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중장기적인 참여 정책의 방향과 청소년특별회의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체계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고자 함. 먼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연수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어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다루어 보고자 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정책동향 관련 행정문서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음. 이어서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등의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문서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음.
- 설문 조사 : 이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 및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1,500명, 청소년 전문가 패널 500명 등 총 2,000여명의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정책, 참여정책, 보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음. 전문가 패널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구축한 패널리스트를 활용하였음.

- 지역사회 사례연구 : 이 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인프라, 정책참여자(주요행위자 :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담당공무원 등) 구조를 분석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정책 관련 조직체계 관련 행정문서, 현장조사 자료 등을 청소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재구조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이 연구에서 선정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이며 기초 지자체는 서대문구임.
- 전문가 포럼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참여, 청소년활동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여 각 정책 영역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음.

4. 연구결과

- 2장에서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행정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는 해방이후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 정책의 형성기로 정의하였음. 이어서 2단계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가 생기고 중단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시기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정책의 성장기로 정의하였음. 3단계는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복지·보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던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정책 전환기로 정의하였음.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이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 가족, 여성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진 2008년 이후로 청소년정책의 확장기로 정의하였음.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 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3장에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먼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연령 정의에 따라 9세에 24세를 대상으로 1,180명을 온라인 조사하였음. 이어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취업과 대학입시, 학업성적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음.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율을 보면, 전문가들은 91.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들은 37.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청소년이든, 참여기구 청소년, 전문가 모두 50%를 넘지 못했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청소년정책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청소년과 전문가 모두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라고 응답하였음. 전문가들에게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8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63.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다음으로 참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청소년의 경우 4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51.8%)보다 낮았음. 전문가들은 64.8%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음. 이어서 활동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일반 청소년 응답자의 7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35.2%에 그쳤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DOVOL에 대해서도 24.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인지도는 9.7%,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0.6%, 청소년 국제교류는 4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6.9%, 상상학교 14.7%, 청소년활동 안전법률 상담 서비스 18.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30.0%,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5.7% 등으로 나타나 50%가 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들은 활동 시간 보장을 최우선으로 뽑았고 참여기구 청소년도 활동시간 보장을 1순위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음.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사례연구로 정한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시였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대문구였음.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청년 정책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통념과 일치하는 연령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청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정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한 연령 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청소년 정책 개념에 대해서는 청소년 참여와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육성, 수련, 지도라는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청소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사업 운영에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참여예산제 운영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만족도 역시 높았음. 청소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역 사회 단위로 가면 결국 전달체계가 모여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접근이 필요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편, 청소년지도자 역량 증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전문가 포럼과 함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는 작업도 병행하였음. 청소년들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증을 통합하는 유스페이(youth pay)를 비롯하여 청소년 안전을 위한 심야버스(올빼미) 운영, 학생회(학생참여위원회) 운영 개선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되었음.

5.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음. 여기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2가지와 접근 방식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음.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였음.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법은 실효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었음.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와 활동, 정책 추진체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음. 청소년 참여 영역에서는 1-1.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확대, 1-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1-3. 청소년의회 활성화, 1-4.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등임.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2-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2-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2-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2-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등 4개 과제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는 3-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과 3-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 2개 과제임.
- 1-1.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 참여기구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대표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식은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청소년 참여 포털인 위드 유스(with youth)를 진정한 의미의 참여 포털로 확장한다면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1-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 청소년 관련 정부위원회나 지자체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여성

가족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원회 중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들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 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미국 보스턴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부처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1-3. 청소년의회 활성화 : 현재 청소년참여기구는 여성가족부에 추진 중인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를 비롯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참여기구가 다른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에도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부 외에 입법부에도 청소년참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의회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아동의회나 아동·청소년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이나 주로 교육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유럽연합의 청소년의회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증진뿐만 아니라 유럽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1-4.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 청소년특별회의는 정책 제안과제 발굴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청소년 여론 동향 및 이슈를 발굴하는 원탁회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소통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행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정책제안팀과 의제기획팀, 그리고 온라인소통팀으로 개편함.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정기간 운영된 ‘청소년 참여포털(youth.go.kr/ywith)’ 정책 제안 시스템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상시 자문체제를 구축해 제안과 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청소년특별 회의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청소년정책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기구와의 연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 청소년육성은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념화한 것으로 육성이라는 특정 방향으로의 지향성을 갖는 용어보다 청소년성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수련은 청소년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활동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음. 시설 유형에서 수련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청소년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굳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활동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통합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음.
- 2-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 수련활동은 활동유형이 아니라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소 개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일관성도 없는 상태임. 이에 대해 활동 영역을 굳이 법령에 제시해 혼란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활동 유형을 법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음. 또 다른 개선 방안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있음.
- 2-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 청소년시설 유형에 대한 재구조화는 먼저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각 시설별로 설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경우 기존 설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유공간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제공 및 문서 작성을 위한 전달체계를 갖추면서도 자유로운 청소년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

- 2-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 청소년시설 평가는 시설 유형에 대한 개편과 맞물려 현행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평가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시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지표 상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 및 미 조치 시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술지 등급제도와 같은 등급화 적용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제도는 신고 대상에서 청소년시설을 제외하거나 혹은 간소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수련시설을 수련활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활동 인증을 통하여 걸러내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 :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관련, 무시협 전형 제도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활용가치가 낮은 자격제도로 격하되는 문제점을 가져왔음.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사 수급에 대한 걱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인구 급감이 예상되고 있어 인력수요 및 공급 기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수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는 청소년지도사 역시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임. 청소년 위기개입 증가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이나 실습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3-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 전달체계 구축 방향은 4차 기본계획의 틀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앙전달체계의 경우 이원화하되 지역사회에 내려갈수록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종합지원 센터 방식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 중심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정책 대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같이 특정 기능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없음.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는 지역사회 전달체계는 교육, 취업,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축 되어야 함.

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주요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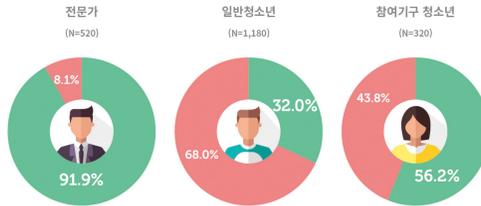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낮아

- 전문가 패널(N=520) 10명 중 적어도 9명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알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정책의 최종수혜자(end-user)인 청소년들은 기본계획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일반 청소년(N=1,180)의 68%, 참여기구 청소년(N=320)의 43.8%가 기본계획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지도 역시 청소년 응답자들 사이에서 낮게 나타나. 일반청소년의 71.9%, 참여기구 청소년의 45.6%는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해.
- 더 나아가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실제 여성가족부가 해당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29.2%,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84.5%에 달해. 일반청소년의 51.5%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교육부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8.2%(=97/1,180),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45.9%(=147/320)에 불과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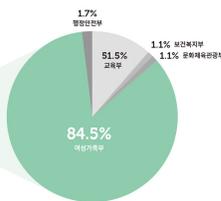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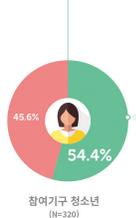
■ 알고있음
■ 모름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 알고있음
■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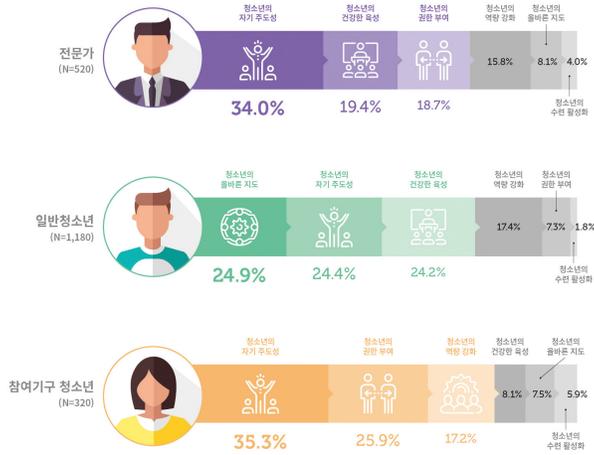


2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로 일반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및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보다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임. 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N=520)의 36.2%와 33.3%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그리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우선시 되어 할 정책목표라고 응답함.
- 참여기구 청소년의 38.4%와 30.9%도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그리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선택해.
- 반면 일반청소년은 앞의 두 집단과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반청소년의 44.2%는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그리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선택한 경우는 각각 21.1%, 22.5%에 그쳐.
- 전문가 패널과 참여기구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보장 및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반청소년은 자립과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일반청소년들이 전문가 및 참여기구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육성' 또는 '지도'를 더 많이 선호하는 조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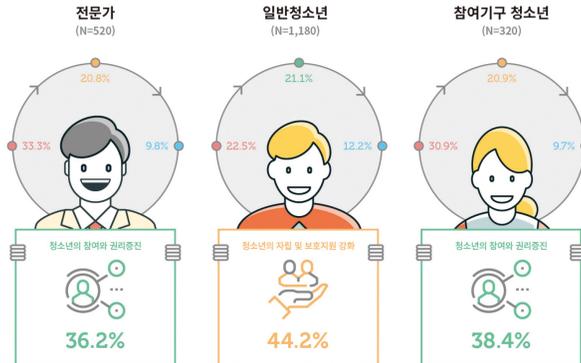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필요)한 개념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는 해당 정책 목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 비율)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3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 전문가 패널 10명 중 5명은 임금 인상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 또한 전문가 패널 10명 중 6명은 현행 '지도자' 명칭 변경에 대해 찬성해.

- 청소년지도자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공통의 책무를 담당해. 지도자들이 이러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우수한 실무 역량을 구비해야.
- 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의 50%는 현행 임금 처우의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가 가장 실효 있는 방안이라고 응답해.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나 미래역량 중심의 전문교육을 선택한 경우는 각각 19.6%, 18.7%에 불과해. 이러한 설문결과는 현재 양질의 전문교육 부재 또는 정부의 종합 지원책 부재보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취약한 경제적 처우가 양질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해.
- 또한 전문가 패널의 63.7%는 현행 청소년지도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수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청소년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수직적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 역시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하기 쉽지 않아.
- 전문가들은 지도자라는 용어 대신 '동반자', '활동가', '전문가' 등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선호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전체 전문가
응답자 규모(N=520)

일급기준 상향으로 양질의 인력은 유인하고, 인제 유출은 방지

50.0%



해당 분야의 중장기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19.6%

미래역량 중심의 전문교육 확대



18.7%

지역별 특성 분야별
강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10.6%

기타

1.2%

현행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

전체 전문가
응답자 규모(N=520)

■ 찬성
■ 반대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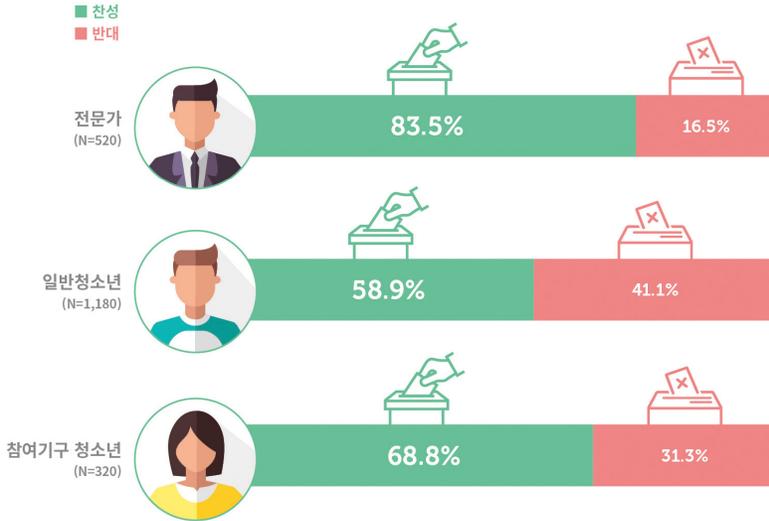
36.3%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현행 선거권 연령 하향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일반청소년, 그리고 참여기구 청소년의 과반수가 찬성해. 이들은 현행 만 19세에서 만 17.37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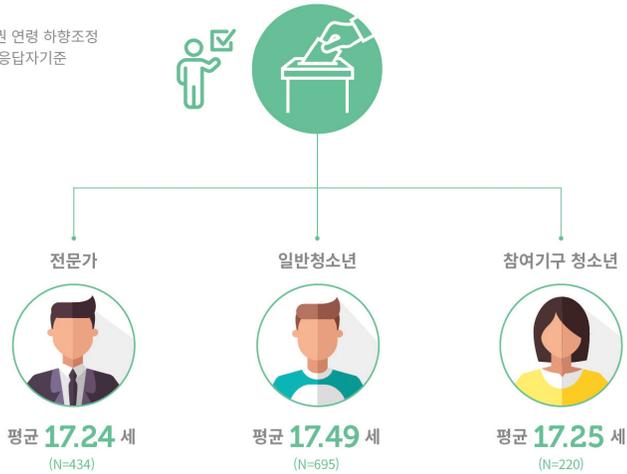
-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부터 교육감,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의 83.5%, 참여기구 청소년의 68.8%,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58.9%가 찬성해.
- 이들이 제안한 선거권 인정 하한 연령의 집단별 평균은 각각 17.24세, 17.25세, 그리고 17.49세로 통상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임.
- 세 집단 모두에서 찬성 의견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일반청소년이 전문가 패널과 참여기구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집단 간 태도 차이는 선거권 인정 하한 연령의 평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찬성/반대



선거권 인정 하향연령(집단별 평균)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찬성 응답자기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일반청소년들의 인지도와 참여 경험은 매우 낮아. 청소년참여기구에서의 활동 경험에 대한 평균 만족도 역시 3점 (=만족하는 편임)에 못 미쳐. 또한 일반청소년 가운데 소수만이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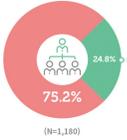
-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청소년운영위원회(청운위), 그리고 청소년특별회의(청특위), 학급회의는 대표적인 청소년참여기구임. 이 가운데 학급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기구에 대해 인지도가 있거나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일반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아.
- 청참위, 청운위, 그리고 청특위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일반청소년 기준으로 각각 24.8%, 36.9%, 13.6%에 그쳐. 각 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일반청소년 가운데 실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20.8%, 14.0%, 16.3%에 그쳐.
- 청참위, 청운위, 그리고 청특위에서의 활동 경험에 대한 평균 만족도(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한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는 각각 2.54점, 2.74점, 2.58점으로 3점에 못 미쳐.
- 이러한 참여기구들이 청소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관련해 일반 청소년은 전문가 패널이나 참여기구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일반청소년 중 청참위, 청운위, 그리고 청특위가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12.4%, 12.9%, 9.4%에 불과해. 이는 전문가 패널의 57.7%, 44.2%, 38.7%, 참여기구 청소년의 53.1%, 68.8%, 41.6%에 비해 크게 낮음.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인지도, 활동경험, 참여 만족 상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인지도

■ 알고 있음
■ 모름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기구에서의 활동경험

(기구를 인지하고 있는 일반청소년 기준)

■ 활동경험 없음
■ 활동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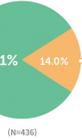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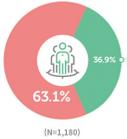
청소년참여기구에서의 활동경험에 대한 만족도

(기구를 활동경험한 일반청소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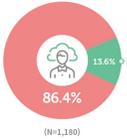
평균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2=충분하지 못함, 3=충분하다는 의미, 4=매우 만족함)



청소년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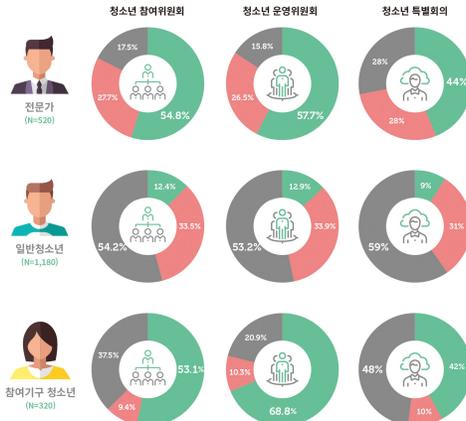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청소년참여기구의 기여 여부

■ 기여함 ■ 기여하지 못함 ■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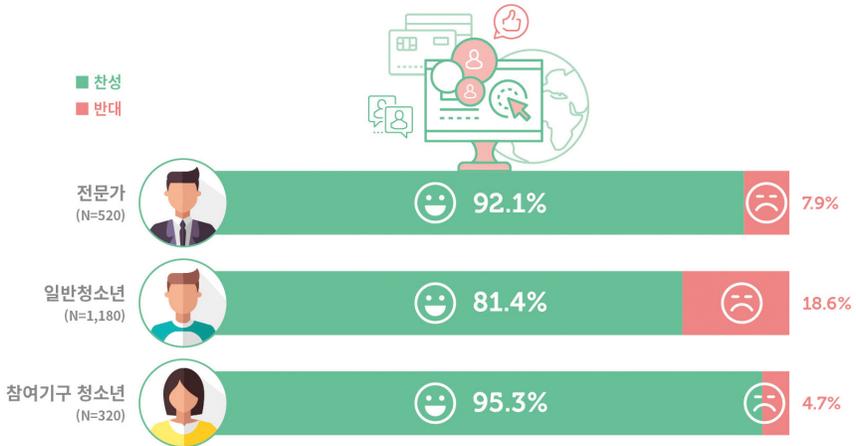


6

전문가, 일반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의 대다수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찬성해. 찬성한 청소년들 가운데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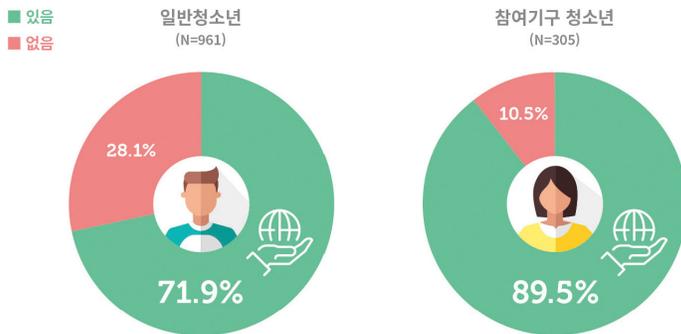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92.1%, 일반청소년의 81.4%, 참여기구 청소년의 95.3%는 찬성 의사를 보여.
- 찬성 의사를 보인 일반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 중 실제 그러한 포털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준 경우는 각각 71.9%, 89.5%에 달해.

온라인 참여 포탈 제작에 대한 찬성/반대



온라인 참여 포탈에서의 적극적 활동 의향

(온라인 참여 포탈 제작에 찬성한 응답자 기준)



다양한 유형의 활동 중 청소년들은 '문화 및 예술 활동'에 가장 높은 참여 욕구를 느껴, 특히 청소년 가운데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더 높은 참여 욕구를 보여줘. 그러나 어떤 유형의 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지는 않아. 청소년의 행복 증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활동으로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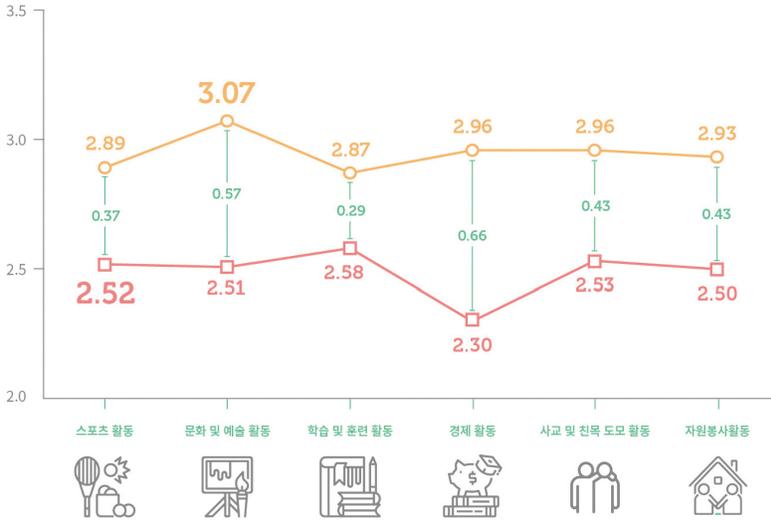
- 스포츠 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 학습 및 훈련 활동, 경제 활동,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6가지 유형의 활동 가운데 청소년들은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해 가장 높은 참여 욕구를 보여줌. 4점 척도(1점=전혀 없음, 2점=없는 편임, 3점=있는 편임, 4점=매우 있음)를 기준으로 평균 3.07점을 기록함.
- 또한 청소년 가운데 참여기구 청소년이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균 참여 욕구를 보여주었음. 특히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욕구 차이는 .554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여줌. 반대로 가장 적은 격차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로 .201점의 격차가 남.
- 그러나 활동 유형별 평균 참여 욕구와 일상에서의 평균 충족 정도를 비교하면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는 어떤 유형의 활동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는 활동 유형은 경제 활동으로 -.652 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은 문화 및 예술 활동으로 -.567만큼의 격차가 남.
- 청소년의 행복 증진에 가장 기여하는 활동으로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선택한 경우가 2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20.5%), 스포츠 활동(18.3%), 경제활동(16.2%), 학습 및 훈련 활동(10.3%), 자원봉사활동(6.3%)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음.

청소년의 활동 참여욕구와 충족 실태



청소년 응답자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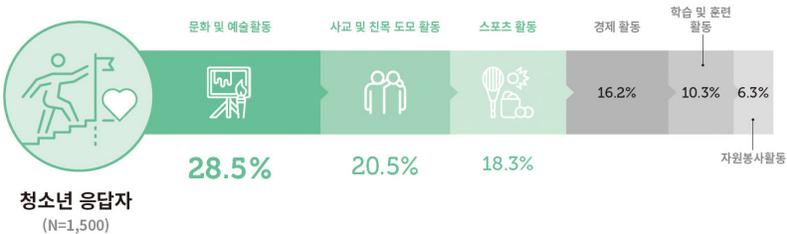
○ 참여욕구 □ 일상 충족 정도 - 욕구와 충족 사이의 과거



* 참여 욕구 측정 스케일 (1점=전혀 없음, 2점=없는 편임, 3점=있는 편임, 4점=매우 있음)

* 충족 정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2점=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점=충족되는 편임, 4점=매우 충족되고 있음)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기여도가 큰 활동



대표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일반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서, 반대로 가장 높은 인지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나타나.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청소년자원봉사 DOVOL'로, 반대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상상(相翔)학교(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로 나타나. 각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를 이용해 본 청소년들이 가장 만족도를 느낀 것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로 나타나.

-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청소년활동인증서비스, 청소년자원봉사 DOVOL,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상상(相翔)학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공공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등)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9.7%의 인지도를 기록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21.9%의 인지도를 기록한 '상상(相翔)학교'임. 반대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46.9%의 인지도를 기록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84.4%의 인지도를 기록한 '청소년자원봉사 DOVOL'임.
- 청소년들이 실제 이용 및 경험해 본 활동사업과 제도 가운데 만족도(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평균 2.90점을 기록한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평균 3.18점을 기록한 '청소년국제교류'로 나타남. 전체 청소년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청소년자원봉사 DOVOL'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07점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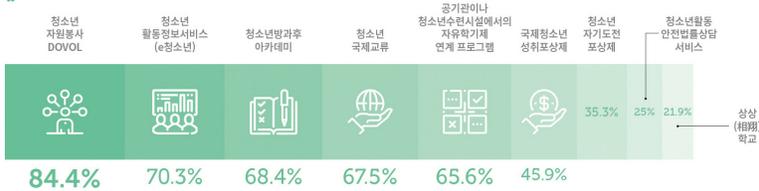
대표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는 해당 사업 및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일반청소년 (N=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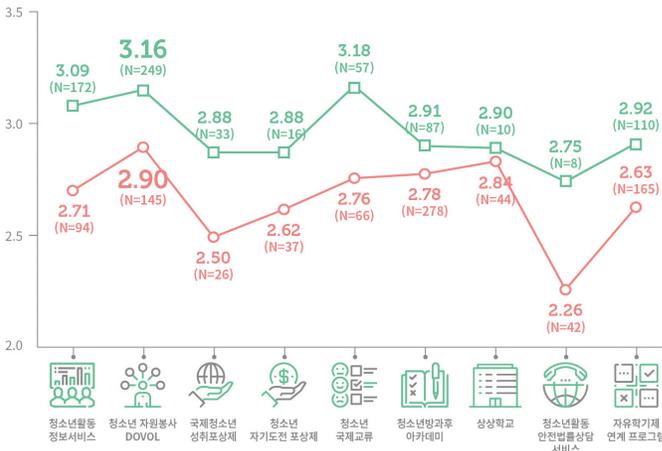
참여기구 청소년 (N=320)



대표 청소년 활동사업 및 제도에 대한 참여 및 이용만족도

(실제 참여 및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기준)

○ 일반청소년 □ 참여기구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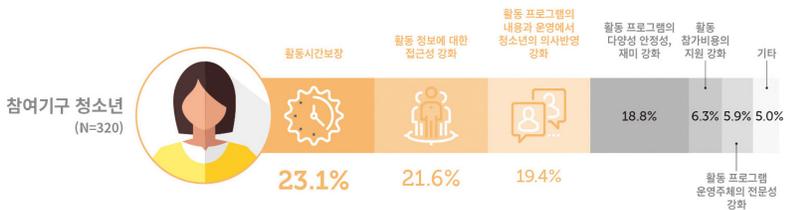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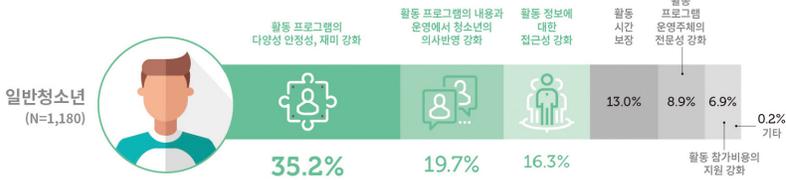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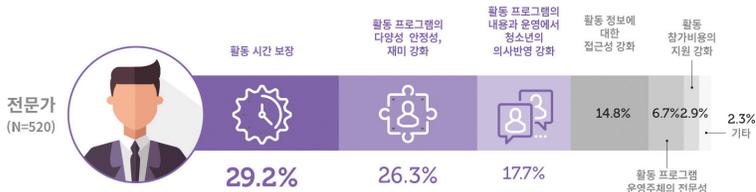
* 만족도 측정 스키말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

9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 패널과 참여기구 청소년은 '활동시간의 보장'을, 일반 청소년은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아.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전문가 패널의 29.2%와 26.3%는 '활동 시간 보장'과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함.
-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활동 시간 보장'과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1, 2위로 각각 23.1%와 21.6%의 점유율을 차지함.
- 일반청소년의 경우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가 가장 높은 점유율인 35.2%를 기록함. '활동 시간 보장'이나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각각 13%, 16.3%에 그쳐 참여기구 청소년들과는 상이한 문제의식을 보여줌.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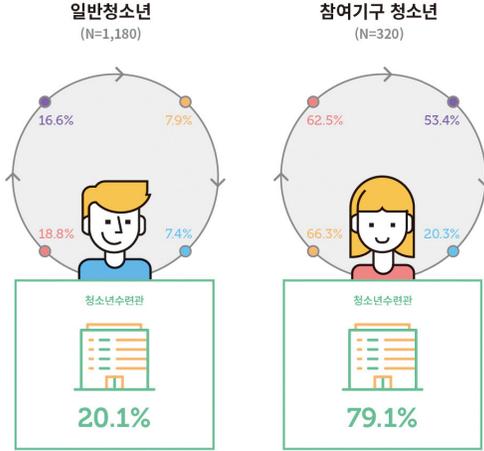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은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험을 크게 밀돌아. 수련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평균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균만족도가 가장 높아.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권을 비롯하여 자연권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은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2018년 한 해 동안)으로 일반청소년의 경우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20%를 밀돌고 있는 반면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높게는 79.1%(청소년수련관), 낮게는 20.3%(청소년야영장)로 집계돼 일반청소년들의 수련 시설 이용 경험이 참여기구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각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이용 만족도(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가 가장 높게 집계된 시설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평균 2.73점을 기록한 '청소년문화의집'이었고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평균 3.26점을 기록한 '청소년수련관'이었음. 전체 청소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08점으로 가장 높았음.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

(%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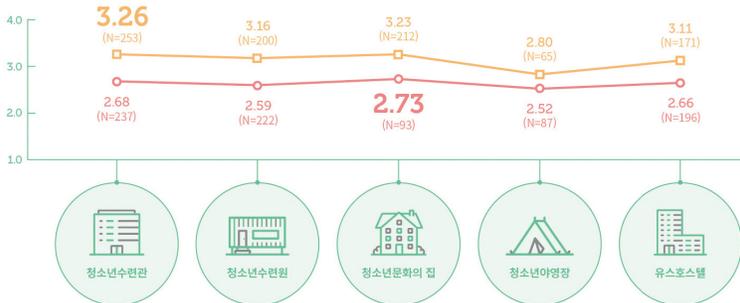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 야영장
- 유스호스텔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만족도

(각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기준)

- 일반청소년
- 참여기구 청소년



* 만족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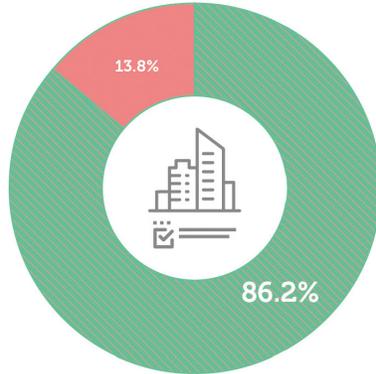
전문가 패널의 대다수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해. 반대로 변경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가장 많은 반대 이유로는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를 꼽아

- 현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해 청소년활동의 종합 시설(허브)로 개편하자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86.2%는 찬성하고 13.8%는 반대함.
- 명칭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가 66.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시설 간 통폐합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축소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활동 위축'이 두 번째로 높은 20.8%의 점유율을 차지함.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동의 여부

 전문가 집단 기준
 (N=520)

■ 동의
■ 비동의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비동의 이유

 전문가 집단 기준
 (N=72)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

66.7%



시설 간 통합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축소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활동 위축



20.8%

시설 간 통합에 따른
기존 시설 종사자의 정원 감축
(구조조정)

8.3%

시설 간 통합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삭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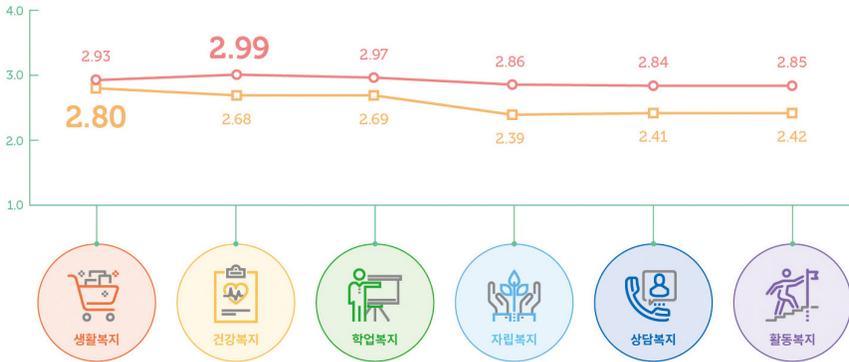
활동 복지를 비롯하여 학업,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등의 영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갖는 복지욕구의 수준은 비슷하나 이 가운데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 그러나 어떤 복지욕구도 기대 수준만큼 일 상에서 충족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의 행복 증진에 기여도가 가장 큰 복지영역으로는 생활복지가 가장 많이 선택돼.

- 활동복지, 학업복지, 생활복지, 건강복지, 자립복지, 상담복지 등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복지 가운데 청소년의 복지욕구가 가장 큰 영역은 평균 2.99점을 기록한 '건강복지'임(1점=전혀 없음, 2점=없는 편임, 3점=있는 편임, 4점=매우 있음). 그러나 영역 간 평균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영역별 평균 복지욕구와 일상에서의 평균 충족 정도(1점=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2점=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점=충족되는 편임, 4점=매우 충족되고 있음)를 비교하면 청소년들의 복지욕구는 어떤 영역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는 복지 영역은 자립복지(취업과 진로 결정을 위한 서비스)로 .48 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은 활동복지와 상담복지로 각각 .44, .43만큼의 격차가 남.
-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도가 가장 큰 복지영역으로 청소년들은 생활복지(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를 가장 많이 꼽아. 전체 청소년응답자의 27.8%가 이를 선택함.

청소년의 복지 욕구와 충족실태

청소년 응답자 기준
(N=1,500)

○ 복지 욕구
□ 일상 충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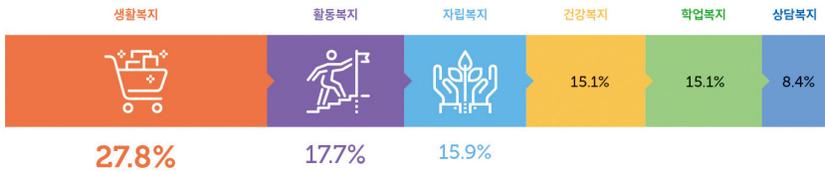


* 복지 욕구 측정 스케일 (1점=전혀 없음, 2점=없는 편임, 3점=있는 편임, 4점=매우 있음)

* 일상 충족정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2점=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점=충족되는 편임, 4점=매우 충족되고 있음)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도가 가장 큰 복지영역

청소년 응답자 기준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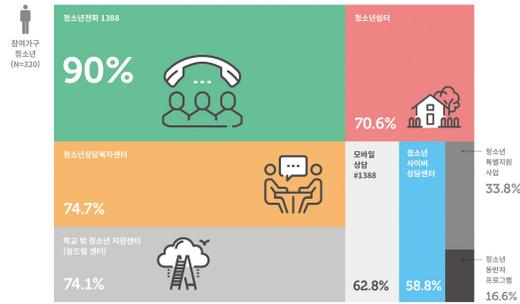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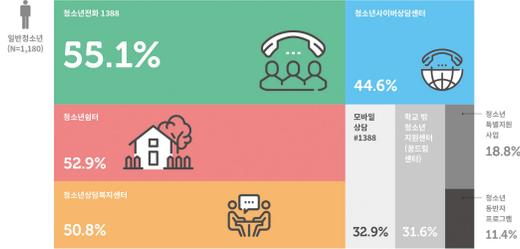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서비스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었고 반대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청소년전화 1388'로 나타나. 2018년 한 해 동안 실제 각 서비스를 이용해 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서비스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참여기구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인돼.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업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일반청소년의 11.4%, 참여기구 청소년의 16.6%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일반청소년의 경우 18.8%,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33.8%에 그침.
- 반대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청소년전화 1388'로 일반청소년의 55.1%, 참여기구의 청소년의 90%가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었음. 이와 더불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일반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 사이에서 모두 50% 이상을 기록해.
- 2018년 한 해 동안 각 서비스를 이용해 본 청소년들이 체감한 만족도와 관련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서비스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평균 2.95점을 기록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등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2.85점으로 높게 집계됨.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평균 3.32점, 3.30점으로 높게 집계됨.)

1) 여기서 비교대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국민행복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음.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여성청소년에게만 해당하며 실제 이용자도 9명에 불과해 여타 서비스와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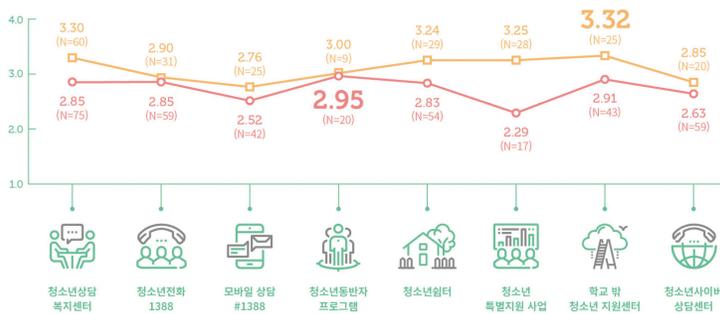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는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각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응답자 기준)

○ 일반 청소년

□ 참여지구 청소년



* 만족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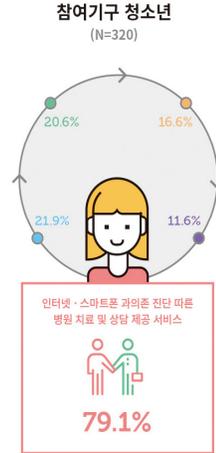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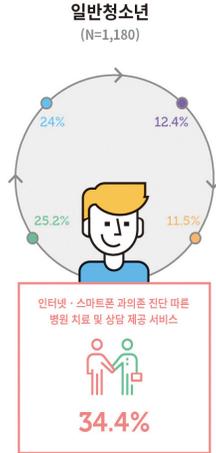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청소년의 일상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이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하게 생각해. 또한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수준이 위협의 심각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협은 평균 2.73점을 기록한 '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임(1점=심각하지 않음, 2점=보통, 3점=심각함). '온·오프라인 상의 영화, 게임, 음악, 공연, 방송, 잡지, 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의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안전사고 등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도 평균 2.70점을 상회해.
-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들이 청소년에게 가하는 위협을 전문가 패널에 비해 덜 심각하게 여겨. '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평균 2.26점에 불과해. 여타 위험이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전반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청소년들에 비해 위협의 수준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각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 정도가 위협의 심각성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함.

청소년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는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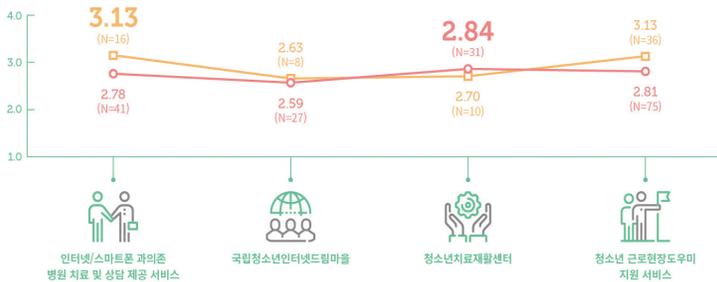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응답자 기준)

- 일반청소년
- 참여기구 청소년



* 이용 만족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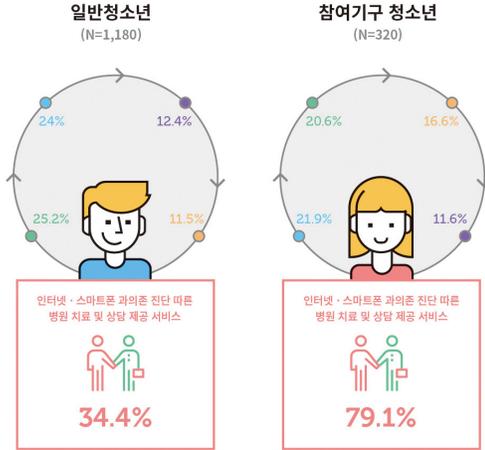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서비스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서비스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로 나타나. 반대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로 확인돼. 실제 각 서비스를 이용해 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재활치료센터’가,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및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가장 점수가 높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서비스는 일반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모두에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로 나타남. 반대로 두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로 일반청소년의 34.4%, 참여기구 청소년의 44.7%가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었음.
- 각 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평가한 시설별 이용만족도와 관련해 일반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집계된 것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로 평균 2.84점이 나왔고, 참여기구 청소년 사이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서비스’가 평균 3.13점을 기록했음. 그러나 집단 구분 없이 각 서비스에 대한 전체 이용자의 만족도를 보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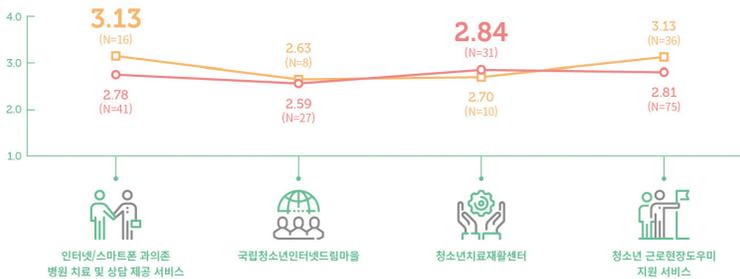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해당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응답자 기준)

- 일반청소년
- 참여기구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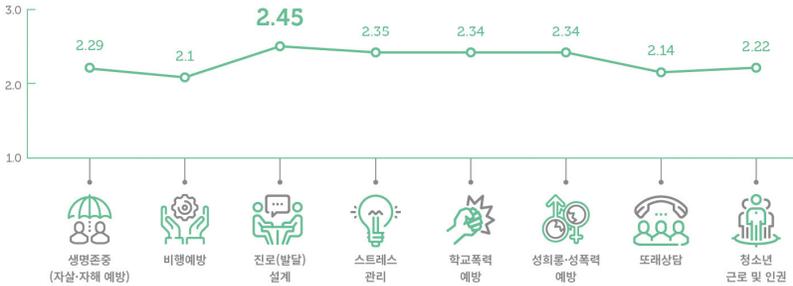
* 이용 만족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 2점=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점=만족하는 편임, 4점=매우 만족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프로그램 주제는 진로(발달) 설계임.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의 주제는 비행예방임.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이고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임.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생명존중(자살·자해 예방), 비행예방, 진로(발달) 설계, 스트레스 관리, 학교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또래상담, 청소년 근로 및 인권 등 여러 주제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들의 관심 정도가 가장 높은 주제는 '진로(발달) 설계'로 평균 2.45점을 기록함(1점=전혀 관심 없음, 2점=보통, 3점=매우 높음). 여타 주제에 대한 관심도 모두 평균 2점을 상회하나 이 가운데 '비행예방'과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 수준은 각각 평균 2.1점, 2.12점으로 가장 낮게 나옴.
- 실제 이러한 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주제의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으로 전체 응답자의 64%가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그 다음으로는 62.3%를 기록한 '진로(발달) 설계', 59%를 기록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56.7%를 기록한 '학교폭력 예방' 등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정도

청소년 응답자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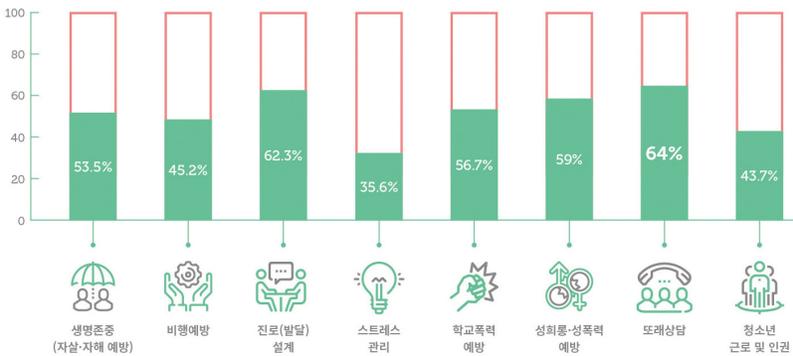
* 관심도 측정 스케일 (1점=전혀 관심 없음, 2점=보통, 3점=매우 높음)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전문가 패널 (N=520)

■ 성과 있음

■ 성과 없음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연구보고 19-R52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3
2. 주요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기대효과	9
II. 한국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동향	11
1. 청소년정책의 형성기 : 1945~1987년	14
2. 청소년정책의 성장기 : 1988~1997년	16
3. 청소년정책의 전환기 : 1998~2007년	20
4. 청소년정책의 확장기 : 2008년 이후	24
III.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제안	29
1.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31
2. 지역사회 사례연구 : 세종시 · 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326

Ⅳ.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369
1. 청소년활동 재구조화 방안	371
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 방안	381
3. 청소년지도자 재구조화 방안	386
V. 정책제언	407
1.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409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415
3.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	417
참고문헌	435
부록	443
1. 청소년 대상 정책 제안 공모와 결과	445
2. 설문지 전문가용	450
3. 설문지 청소년용	462
ABSTRACT	575

표 목차

표 I - 1	설문조사 개요	7
표 I - 2	전문가포럼 추진 실적	8
표 I -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9
표 III - 1	전문가 응답자 특성	32
표 III - 2	일반 청소년 응답자 특성	33
표 III - 3	참여기구 청소년 응답자 특성	34
표 III - 4	조사내용	35
표 III - 5	청소년 고민 문제	39
표 III - 6	청소년 삶의 만족도	40
표 III - 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	42
표 III - 8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	43
표 III - 9	청소년정책 담당 업무기관	44
표 III -10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45
표 III -11	중요한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47
표 III -12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48
표 III -13	청소년 수련활동 중요도	49
표 III -14	청소년육성 중요도	50
표 III -15	청소년 지도 중요도	51
표 III -16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53
표 III -17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의 중요한 정책과제	53
표 III -18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중요한 정책과제	53
표 III -19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의 중요한 정책과제	53
표 III -20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54
표 III -21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55
표 III -22	'청소년지도자' 용어 대체 단어	56
표 III -23	청소년 연령 정의 적정성	57
표 III -24	청소년 적정 연령	58
표 III -25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59

표 III -26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60
표 III -27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반대	62
표 III -28	선거권 인정 하향 조정 연령	62
표 III -29	교육감 선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	63
표 III -30	청소년참여위원회 인지도	65
표 III -31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경험	66
표 III -3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67
표 III -3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	68
표 III -34	청소년참여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69
표 III -35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필요성	70
표 III -36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71
표 III -37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72
표 III -38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73
표 III -39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	75
표 III -40	청소년운영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76
표 III -41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필요성	76
표 III -42	청소년특별회의 인지도	77
표 III -43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경험	78
표 III -44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만족도	79
표 III -45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80
표 III -46	청소년특별회의 향후 참여 의향	81
표 III -47	청소년특별회의 확대 필요성	82
표 III -48	학급회의 인지도	83
표 III -49	학급회의 참여 경험	84
표 III -50	학급회의 참여 만족도	85
표 III -51	학급회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86
표 III -52	학급회의 향후 참여 의향	87
표 III -53	학급회의 확대 필요성	88
표 III -54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탈 찬성/반대	89
표 III -55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탈 활동 의향	90
표 III -56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참여 경험	91
표 III -57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향후 참여 의향	92
표 III -5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참여 경험 ..	93
표 III -5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향후 참여 의향	94

표 III -60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경험	95
표 III -61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향후 참여 의향	96
표 III -62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경험	97
표 III -63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향후 참여 의향	98
표 III -64	항의 전화하기 참여 경험	99
표 III -65	항의 전화하기 향후 참여 의향	100
표 III -66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101
표 III -67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102
표 III -68	스포츠 활동 참여 욕구	103
표 III -69	스포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4
표 III -70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 욕구	105
표 III -71	문화 및 예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6
표 III -72	학습 및 훈련 활동 참여 욕구	107
표 III -73	학습 및 훈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8
표 III -74	경제 활동 참여 욕구	109
표 III -75	경제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0
표 III -76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참여 욕구	111
표 III -77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3
표 III -78	자원봉사활동 참여 욕구	114
표 III -79	자원봉사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5
표 III -80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활동	116
표 III -81	가장 활성화돼야 할 활동	117
표 III -8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인지도	118
표 III -83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119
표 III -8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만족도	120
표 III -8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1
표 III -86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인지도	122
표 III -87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경험	123
표 III -88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만족도	124
표 III -89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5
표 III -9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지도	126
표 III -9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경험	127
표 III -9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만족도	128

표 III - 9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9
표 III - 9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인지도	130
표 III - 9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경험	131
표 III - 9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만족도	132
표 III - 97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33
표 III - 98	청소년국제교류 인지도	134
표 III - 99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경험	135
표 III -100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만족도	136
표 III -101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137
표 III -10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도	138
표 III -10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경험	139
표 III -10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만족도	140
표 III -10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1
표 III -106	상상학교 인지도	142
표 III -107	상상학교 참여 경험	143
표 III -108	상상학교 참여 만족도	144
표 III -109	상상학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5
표 III -11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인지도	146
표 III -111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참여 경험	147
표 III -112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	148
표 III -113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9
표 III -1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지도	150
표 III -1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51
표 III -11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인지도	152
표 III -117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153
표 III -118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154
표 III -119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55
표 III -120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	156
표 III -121	청소년수련관 참여 경험	157

표 Ⅲ-122	청소년수련관 이용 만족도	158
표 Ⅲ-12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59
표 Ⅲ-12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60
표 Ⅲ-125	청소년수련관 향후 이용의향	161
표 Ⅲ-126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162
표 Ⅲ-127	청소년수련원 이용 만족도	163
표 Ⅲ-128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64
표 Ⅲ-129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65
표 Ⅲ-130	청소년수련원 향후 이용의향	166
표 Ⅲ-131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167
표 Ⅲ-13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만족도	168
표 Ⅲ-13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69
표 Ⅲ-134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70
표 Ⅲ-135	청소년문화의집 향후 이용의향	171
표 Ⅲ-136	청소년야영장 이용 경험	172
표 Ⅲ-137	청소년야영장 이용 만족도	173
표 Ⅲ-138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74
표 Ⅲ-139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75
표 Ⅲ-140	청소년야영장 향후 이용의향	176
표 Ⅲ-141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	177
표 Ⅲ-142	유스호스텔 이용 만족도	178
표 Ⅲ-143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79
표 Ⅲ-144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80
표 Ⅲ-145	유스호스텔 향후 이용의향	181
표 Ⅲ-146	청소년증 인지도	182
표 Ⅲ-147	청소년증 발급 경험	183
표 Ⅲ-148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은 이유	184
표 Ⅲ-149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필요성	185
표 Ⅲ-150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연령	186
표 Ⅲ-151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	186
표 Ⅲ-152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187
표 Ⅲ-153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	188
표 Ⅲ-154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189
표 Ⅲ-155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190
표 Ⅲ-156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반대 이유	191

표 III-157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192
표 III-158	청소년의 생활복지 욕구	193
표 III-159	일상에서의 청소년 생활복지 충족 정도	194
표 III-160	청소년의 건강복지 욕구	195
표 III-161	일상에서의 청소년 건강복지 충족 정도	196
표 III-162	청소년의 학업복지 욕구	197
표 III-163	일상에서의 청소년 학업복지 충족 정도	198
표 III-164	청소년의 자립복지 욕구	199
표 III-165	일상에서의 청소년 자립복지 충족 정도	200
표 III-166	청소년의 상담복지 욕구	201
표 III-167	일상에서의 청소년 상담복지 충족 정도	202
표 III-168	청소년의 활동복지 욕구	203
표 III-169	일상에서의 청소년 활동복지 충족 정도	204
표 III-170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청소년 복지	205
표 III-17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206
표 III-17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207
표 III-1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208
표 III-17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09
표 III-1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10
표 III-17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여도	211
표 III-17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인지도	212
표 III-178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여도	213
표 III-179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214
표 III-180	청소년전화 1388 이용 경험	215
표 III-181	청소년전화 1388 이용 만족도	216
표 III-182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17
표 III-183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218
표 III-18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전화 1388의 기여도	219
표 III-185	모바일 상담 #1388의 인지도	220
표 III-186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경험	221
표 III-187	모바일 상담 #1388의 이용 만족도	222
표 III-188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223
표 III-189	모바일 상담 #1388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24

표 III-190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모바일 상담 #1388의 기여도	225
표 III-19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지도	226
표 III-19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경험	227
표 III-19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228
표 III-19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29
표 III-19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30
표 III-19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기여도	231
표 III-197	청소년쉼터 인지도	232
표 III-198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233
표 III-199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234
표 III-200	청소년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235
표 III-201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36
표 III-202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기여도	237
표 III-20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지도	238
표 III-20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여도	239
표 III-20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인지도	240
표 III-20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경험	241
표 III-20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242
표 III-208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43
표 III-209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44
표 III-210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기여도	245
표 III-2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246
표 III-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247
표 III-2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248
표 III-2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49
표 III-2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50
표 III-21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여도	251
표 III-21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인지도	252
표 III-21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여성청소년 기준)	253
표 III-21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254

표 III -22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55
표 III -22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인지도	256
표 III -22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경험	257
표 III -22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258
표 III -22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59
표 III -225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60
표 III -22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61
표 III -227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2
표 III -228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63
표 III -229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4
표 III -230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	265
표 III -231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6
표 III -232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67
표 III -233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8
표 III -234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	269
표 III -235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70
표 III -236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71
표 III -237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72
표 III -238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73
표 III -239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74
표 III -240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75
표 III -24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지도	276
표 III -242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기여도	277
표 III -24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인지도	278
표 III -24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경험	279
표 III -24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280

표 III-24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기여도	281
표 III-24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지도	282
표 III-24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경험	283
표 III-249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만족도	284
표 III-25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85
표 III-25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인지도	286
표 III-25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경험	287
표 III-25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만족도	288
표 III-25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여도	289
표 III-255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인지도	290
표 III-256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291
표 III-257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292
표 III-258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기여도	293
표 III-259	생명존중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4
표 III-260	생명존중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5
표 III-261	비행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6
표 III-262	비행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7
표 III-263	진로 설계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8
표 III-264	진로 설계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9
표 III-265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0
표 III-266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1
표 III-26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2
표 III-26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3
표 III-269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4
표 III-270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5
표 III-271	도래상담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6
표 III-272	도래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7
표 III-273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8
표 III-274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9
표 III-275	생명존중 프로그램 중요도	310
표 III-276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성과	311
표 III-277	비행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12

표 III-278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13
표 III-279	진로 설계 프로그램 중요도	314
표 III-280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성과	315
표 III-28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요도	316
표 III-28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317
표 III-28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18
표 III-28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19
표 III-285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20
표 III-286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21
표 III-287	도래상담 프로그램 중요도	322
표 III-288	도래상담 프로그램의 성과	323
표 III-289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중요도	324
표 III-290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의 성과	325
표 III-291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자료 구성	330
표 III-292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 자문 개요	331
표 III-293	세종시 청소년정책사업 영역별 예산 현황 (2019년 예산)	338
표 III-294	세종시 청소년정책사업 현황	339
표 III-295	세종시 청소년정책 관련 시설 현황	341
표 III-296	서대문구 주민의 청소년 관련 서비스 욕구(2014)	348
표 III-296	서대문구 청소년정책사업 영역별 예산 현황 (2019년 예산)	350
표 III-297	서대문구 청소년정책사업 현황	351
표 III-298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현황	352
표 III-299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편성 현황	355
표 III-300	지역사회 현장전문가 자문 추진 개요	356
표 III-301	청소년 연령 조정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58
표 III-302	청소년정책 주요 개념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60
표 III-303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62
표 III-304	청소년정책 통합전달체계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63
표 III-305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65
표 III-306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366

표 IV-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390
표 IV-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391
표 IV- 3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392
표 IV-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등록 현황	393
표 IV-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2013) 요약	394
표 IV- 6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요약	395
표 IV- 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2017) 요약	397
표 IV- 8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3) 요약	398
표 IV- 9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6) 요약	399
표 IV- 10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9) 요약	400
표 IV- 1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변경(안)	405
표 V- 1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안)	417
표 V- 2	청소년활동 개념 및 유형	424
표 부록-1	정책제안 공모 현황	446
표 부록-2	세부 정책제안 현황	446

그림 목차

그림 III- 1	청소년 고민 문제	38
그림 III- 2	청소년 삶의 만족도	40
그림 III- 3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	41
그림 III- 4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	43
그림 III- 5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45
그림 III- 6	중요한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46
그림 III- 7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48
그림 III- 8	청소년 수련활동 중요도	49
그림 III- 9	청소년육성 중요도	50
그림 III-10	청소년 지도 중요도	51
그림 III-11	청소년정책목표 중 중요한 과제	52
그림 III-1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	54
그림 III-13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55
그림 III-14	청소년 연령 정의 적정성	57
그림 III-15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59
그림 III-16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60
그림 III-17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반대	61
그림 III-18	교육감 선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	63
그림 III-19	청소년참여위원회 인지도	64
그림 III-20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경험	65
그림 III-21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66
그림 III-2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	68
그림 III-23	청소년참여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69
그림 III-24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필요성	70
그림 III-25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71
그림 III-26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72
그림 III-27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73
그림 III-28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	74

그림 III-29	청소년운영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75
그림 III-30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필요성	76
그림 III-31	청소년특별회의 인지도	77
그림 III-32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경험	78
그림 III-33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만족도	79
그림 III-34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80
그림 III-35	청소년특별회의 향후 참여 의향	81
그림 III-36	청소년특별회의 확대 필요성	82
그림 III-37	학급회의 인지도	83
그림 III-38	학급회의 참여 경험	84
그림 III-39	학급회의 참여 만족도	85
그림 III-40	학급회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86
그림 III-41	학급회의 향후 참여 의향	87
그림 III-42	학급회의 확대 필요성	88
그림 III-43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탈 찬성/반대	89
그림 III-44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참여 경험	91
그림 III-45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향후 참여 의향	92
그림 III-46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참여 경험	93
그림 III-47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향후 참여 의향	94
그림 III-48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경험	95
그림 III-49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의향	96
그림 III-50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경험	97
그림 III-51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의향	98
그림 III-52	항의 전화하기 참여 경험	99
그림 III-53	항의 전화하기 참여 의향	100
그림 III-54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101
그림 III-55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102
그림 III-56	스포츠 활동 참여 욕구	103
그림 III-57	스포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4
그림 III-58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 욕구	105
그림 III-59	문화 및 예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6
그림 III-60	학습 및 훈련 활동 참여 욕구	107
그림 III-61	학습 및 훈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08
그림 III-62	경제 활동 참여 욕구	109
그림 III-63	경제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0

그림 III-64	사교 및 친목 도모 활동 참여 욕구	111
그림 III-65	사교 및 친목 도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2
그림 III-66	자원봉사활동 참여 욕구	113
그림 III-67	자원봉사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114
그림 III-68	가장 행복 기여도가 큰 활동	115
그림 III-69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	116
그림 III-70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인지도	117
그림 III-7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118
그림 III-7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만족도	119
그림 III-73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0
그림 III-74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인지도	121
그림 III-75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경험	122
그림 III-76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만족도	123
그림 III-77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4
그림 III-7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지도	125
그림 III-7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경험	126
그림 III-8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만족도	127
그림 III-8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28
그림 III-8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인지도	129
그림 III-83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경험	130
그림 III-8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만족도	131
그림 III-8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32
그림 III-86	청소년국제교류 인지도	133
그림 III-87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경험	134
그림 III-88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만족도	135
그림 III-89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136
그림 III-9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도	137
그림 III-9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경험	138
그림 III-9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만족도	139
그림 III-9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0
그림 III-94	상상학교 인지도	141

그림 III- 95	상상학교 참여 경험	142
그림 III- 96	상상학교 참여 만족도	143
그림 III- 97	상상학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4
그림 III- 98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인지도	145
그림 III- 99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참여 경험	146
그림 III-10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	147
그림 III-101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48
그림 III-10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지도	149
그림 III-10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50
그림 III-104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인지도	151
그림 III-105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152
그림 III-10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153
그림 III-107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54
그림 III-108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	155
그림 III-109	청소년수련관 참여 경험	157
그림 III-110	청소년수련관 이용 만족도	158
그림 III-1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59
그림 III-11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60
그림 III-113	청소년수련관 향후 이용의향	161
그림 III-114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162
그림 III-115	청소년수련원 이용 만족도	163
그림 III-116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64
그림 III-117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65
그림 III-118	청소년수련원 향후 이용의향	166
그림 III-119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167
그림 III-120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만족도	168
그림 III-121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69
그림 III-12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70
그림 III-123	청소년문화의집 향후 이용의향	171
그림 III-124	청소년야영장 이용 경험	172
그림 III-125	청소년야영장 이용 만족도	173
그림 III-126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74
그림 III-127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75

그림 III-128	청소년야영장 향후 이용의향	176
그림 III-129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	177
그림 III-130	유스호스텔 이용 만족도	178
그림 III-131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179
그림 III-132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180
그림 III-133	유스호스텔 향후 이용의향	181
그림 III-134	청소년증 인지도	182
그림 III-135	청소년증 발급 경험	183
그림 III-136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은 이유	184
그림 III-137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필요성	185
그림 III-138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	186
그림 III-139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187
그림 III-140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	188
그림 III-141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189
그림 III-142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190
그림 III-143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반대 이유	191
그림 III-144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192
그림 III-145	청소년의 생활복지 욕구	193
그림 III-146	일상에서의 청소년 생활복지 충족 정도	194
그림 III-147	청소년의 건강복지 욕구	195
그림 III-148	일상에서의 청소년 건강복지 충족 정도	196
그림 III-149	청소년의 학업복지 욕구	197
그림 III-150	일상에서의 청소년 학업복지 충족 정도	198
그림 III-151	청소년의 자립복지 욕구	199
그림 III-152	일상에서의 청소년 자립복지 충족 정도	200
그림 III-153	청소년의 상담복지 욕구	201
그림 III-154	일상에서의 청소년 상담복지 충족 정도	202
그림 III-155	청소년의 활동복지 욕구	203
그림 III-156	일상에서의 청소년 활동복지 충족 정도	204
그림 III-157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청소년 복지	205
그림 III-15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206
그림 III-15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207
그림 III-1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208
그림 III-1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09
그림 III-16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10

그림 III-16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여도	211
그림 III-16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인지도	212
그림 III-165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기여도	213
그림 III-166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214
그림 III-167	청소년전화 1388 이용 경험	215
그림 III-168	청소년전화 1388 이용 만족도	216
그림 III-169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17
그림 III-170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218
그림 III-17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전화 1388의 기여도	219
그림 III-172	모바일 상담 #1388의 인지도	220
그림 III-173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경험	221
그림 III-174	모바일 상담 #1388의 이용 만족도	222
그림 III-175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223
그림 III-176	모바일 상담 #1388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24
그림 III-177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모바일 상담 #1388의 기여도	225
그림 III-1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지도	226
그림 III-17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경험	227
그림 III-18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228
그림 III-18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29
그림 III-18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30
그림 III-18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기여도	231
그림 III-184	청소년쉼터 인지도	232
그림 III-185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233
그림 III-186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234
그림 III-187	청소년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235
그림 III-188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36
그림 III-189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기여도	237
그림 III-19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지도	238
그림 III-19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여도	239

그림 III-19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인지도	240
그림 III-193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경험	241
그림 III-19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242
그림 III-19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43
그림 III-19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44
그림 III-197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기여도	245
그림 III-1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246
그림 III-19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247
그림 III-2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248
그림 III-2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	249
그림 III-2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50
그림 III-20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여도	251
그림 III-20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인지도	252
그림 III-20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여성청소년 기준)	253
그림 III-20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54
그림 III-20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55
그림 III-20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인지도	256
그림 III-20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경험	257
그림 III-210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258
그림 III-21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259
그림 III-21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260
그림 III-21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61
그림 III-214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2
그림 III-215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63
그림 III-216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264
그림 III-217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65
그림 III-218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	266
그림 III-219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	267

그림 III-220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268
그림 III-221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269
그림 III-222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270
그림 III-223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271
그림 III-224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272
그림 III-225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273
그림 III-226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274
그림 III-227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275
그림 III-22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지도	276
그림 III-229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기여도	277
그림 III-23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인지도	278
그림 III-23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경험	279
그림 III-2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280
그림 III-23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기여도	281
그림 III-23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지도	282
그림 III-23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경험	283
그림 III-236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만족도	284
그림 III-23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285
그림 III-238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인지도	286
그림 III-23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경험	287
그림 III-24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만족도	288
그림 III-24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여도	289
그림 III-242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인지도	290
그림 III-243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291
그림 III-244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292

그림 III-245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기여도	293
그림 III-246	생명존중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4
그림 III-247	생명존중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5
그림 III-248	비행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6
그림 III-249	비행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7
그림 III-250	진로 설계 프로그램 관심 정도	298
그림 III-251	진로 설계 프로그램 참여 의향	299
그림 III-25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0
그림 III-253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1
그림 III-25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2
그림 III-25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3
그림 III-256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4
그림 III-257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5
그림 III-258	또래상담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6
그림 III-259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7
그림 III-260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관심 정도	308
그림 III-261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참여 의향	309
그림 III-262	생명존중 프로그램 중요도	310
그림 III-263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성과	311
그림 III-264	비행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12
그림 III-265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13
그림 III-266	진로 설계 프로그램 중요도	314
그림 III-267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성과	315
그림 III-268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요도	316
그림 III-269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317
그림 III-27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18
그림 III-27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19
그림 III-272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320
그림 III-273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321
그림 III-274	또래상담 프로그램 중요도	322
그림 III-275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성과	323
그림 III-276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중요도	324
그림 III-277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의 성과	325
그림 III-278	지역사회 평가방법을 적용한 연구 추진 절차	327

그림 III-279	단계별 연구내용	328
그림 III-280	세종시의 지리적 위치	332
그림 III-281	9세~24세 청소년 인구 현황 : 전국 및 세종시 비교	334
그림 III-282	청소년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대상 : 세종시	336
그림 III-283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및 세종시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 조직	337
그림 III-284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	343
그림 III-285	서대문구의 지리적 위치	344
그림 III-286	9세~24세 청소년 인구 현황 : 전국 및 서대문구 비교	347
그림 III-287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및 세종시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 조직	349
그림 III-288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추진 절차	354
그림 III-289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총회	355
그림 V- 1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409
그림 V-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안)	416
그림 V- 3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홈페이지	418
그림 V- 4	보스턴 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 (Youth Lead the Change) 홈페이지	419
그림 V- 5	유럽의 청소년의회(EYP: European Youth Parliament) 홈페이지	421
그림 V- 6	청소년정책 개념의 재정립(안)	423
그림 V- 7	청소년활동 핵심 8대 역량(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25
그림 V- 8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정방향 (4차 수정·보완 기본계획)	429
그림 V- 9	일본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430
그림 V- 10	독일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430
그림 V- 11	프랑스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431
그림 V- 1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지역사회 종합문서정보센터 구축(안)	432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2. 주요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기대효과
- 5. 연구일정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청소년정책은 개인으로 보면 24세인 청소년 연령을 넘어섰다.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며 청소년정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동안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25년 이상을 경과한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을 되돌아보면, 초기의 정책 방향과 과제의 틀이 거의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정책 가운데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라는 인프라가 확충돼 왔으나 청소년정책이 독립된 정책으로 분리되던 1990년 초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 역시 청소년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핵심 축을 형성해오고 있으나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여전히 일반 청소년들의 참여 환경과 기회는 취약하며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 역시 제한적이다.

2)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미진한 상태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구축돼 온 많은 인프라들은 기존의 시설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 전문 인력의 양성 과정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의 자질과 역량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관련 학과에서의 양성과정, 보수 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프로그램도 전통적인 수련활동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사업들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중복적, 산발적으로 기획 및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정책의 주무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이를 조정하거나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하여 5년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실제 기본계획에 담겨진 내용은 부처 간의 사업이 치밀하게 조율되고 연계된 진정한 범부처 중장기 계획이라기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단순 나열한 것에 가깝다. 청소년정책의 주무기관이 여성가족부라 할지라도 동일한 행정 지위를 갖는 여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소관 부처의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고 산발적,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사업들의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지금의 청소년정책은 앞서 소개한 현안들로 인해 일정정도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청소년정책은 그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춰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무 행정기관이 산발적, 중복적으로 기획·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사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영역을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구 과제가 추진되는 초기에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시군구에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 방안이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영역의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 분야를 다루지 않았다.

2. 주요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제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청소년활동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인 육성, 수련, 지도의 적절성과 타당성,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인프라 중 청소년활동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스템의 재구조화 방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참여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제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청소년참여정책이다. 청소년참여정책의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중장기적인 참여 정책의 방향과 청소년특별회의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달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연수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우리는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모색을 위해 문헌연구,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역 사례연구, 전문가 포럼, 그리고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각 연구방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정책동향 관련 행정문서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등의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문서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설문 조사

이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 및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1,500명, 청소년 전문가 패널 520명 등 총 2,020여명의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 정책, 참여정책, 보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센터에서 구축한 패널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개요

	내용	비고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전국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 1,180명	조사업체의 청소년 패널 활용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320명	청소년특별회의 및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활용
	청소년 전문가 패널 520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전문가 패널리스트 활용
조사방법	이메일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시기	2019년 10월~11월	

3) 지역사회 사례연구

이 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인프라, 정책참여자(주요행위자 :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담당공무원 등)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 조직체계 관련 행정문서, 현장조사 자료 등을 청소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재구조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이며 기초 지자체는 서대문구이다.

4) 전문가 포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참여, 청소년활동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여 각 정책 영역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다.

표 1-2 전문가포럼 추진 실적

차수	주요내용	장소	일시	비고
1회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시립서울청소년센터 3층 늘솔길	9월 19일 13:30-16:00	
2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위한 포럼	서울 여성프라자 3층 다목적실	11월 12일 14:00-18:00	
3회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방안	서울 하자센터 별관 4층 하하허허홀	11월 19일 14:00-17:00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현안과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포럼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 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고
1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 추진방향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8월 2일	
2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포럼 진행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8월 14일	
3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및 수련시설 개편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8월 27일	
4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포럼 진행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9월 10일	
5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및 수련시설 개편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10월 2일	
6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포럼 진행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0월 15일	

4.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첫째, 정체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의 혁신을 통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둘째, 현행 청소년 단체 및 운동의 역동성 회복, 그리고 셋째, 청소년정책 전달 체계의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체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의 혁신이란 곧 기존 청소년정책의 낡은 패러다임의 쇠퇴를 의미하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해 우리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 또는 공급자 중심의 청소년정책 기획 및 집행 방식에서 탈피해 상향식(bottom-up) 또는 현장 중심의 의사 결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정책의 최종 소비자(end-user)인 청소년 당사자들의 니즈와 목소리가 정책의 기획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환경은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들의 운동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기획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 교육청들이 산발적,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과 사업들을 조율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행 정책 전달 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II. 한국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동향

- 1. 청소년정책의 형성기 :
1945~1987년
- 2. 청소년정책의 성장기 :
1988~1997년
- 3. 청소년정책의 전환기 :
1998~2007년
- 4. 청소년정책의 확장기 :
2008년 이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관하기로 한다. 청소년 행정과 청소년정책은 일상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명확하게 개념 규정하기 어려운 포괄적 개념이다. 여기서는 김광웅 외(2009, p.56)의 정의에 따라 청소년 행정을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관련된 국가 통치 작용”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청소년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목표 추구를 위하여 정부가 계획을 세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과 주요 법령을 다루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는 단선적인 발전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정책의 시기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김광웅 외, 2009; 김호순, 변윤언, 2006; 김희순, 2003; 조영승, 1998; 천정웅, 김정주, 2009), 여기서는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교체과정에 중점을 둔 김광웅 외(2009)의 방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 이후에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아동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어 가는 시기로서 청소년정책의 ‘형성기’로 명명하였다.

3) 이 장은 이종원 명예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두 번째 단계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중단기 청소년 정책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시기이다. 1988년 체육부 청소년국이 설치된 이후 체육청소년부를 거쳐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1997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청소년정책의 '성장기'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8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2007년까지의 기간이다.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한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시기로서 청소년정책의 '전환기'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2008년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정책은 보육, 아동, 가족, 여성 정책과 통합되거나 유기적인 연계하에 추진되어 청소년정책의 '확장기'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구분에 기초하여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정책의 형성기 : 1945~1987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시설수용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호, 생계 해결 차원에 머물렀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였다.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보호대상 청소년

(아동)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아동복지법(1961)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종래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장하였고, 아동을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미성년자보호법(1961)은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흡연, 음주, 사행행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김광웅 외, 2009, p.60).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은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었다(김광웅 외, 2009, p.61).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내무부 장관과 차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공보부, 법원 행정처의 차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여 국무총리 등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범국민 운동의 전개, 단체활동 지원, 시설 설치 확대 등이었다.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는 1977년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 구성이 격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업무 전담 부서의 부재, 각 부처로 분산된 청소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 미흡 등으로 청소년정책에서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종합정책의 수립, 부처의 시책 종합조정, 시설 설치와 관리, 단체 지원, 국제교류 등이었다.

1982년에는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후 1983년 대구와 1984년 서울의 유흥업소 화재사건으로 많은 청소년이 사망함에 따라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문교부 등이 참여한 청소년종합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대책반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4. 11)과 세부추진계획(1985. 3)을 발표하였다(김광용 외, 2009, p.64). 종합대책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여 기본방향으로 청소년 대책 기구 개편과 기획조정 기능확대, 청소년보호윤리 형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여건 조성, 가정과 학교 기능 강화, 유해환경 정화, 비행청소년 선도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이 설치되는 한편, 청소년 대책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청소년복지관계법의 입법, 청소년 보호운동의 전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이용교, 1995, p.56). 특히 종합대책에 따라 입안된 청소년육성법(1987)은 이후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 법령의 모태가 됨으로써 종합대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정책의 성장기 : 1988~1997년

1) 청소년 행정

올림픽을 앞둔 1988년 최초의 청소년업무 전담부서인 청소년국이 체육부에 설치(1988. 6)되면서 청소년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이전에도 중앙 행정부서에 청소년 담당 조직은 존재했지만 실·국 단위에 못 미치는 과 수준의 행정단위로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청소년국의 설치는 당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신생 행정부서인 체육부의 독자적인 업무영역 확보 노력에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국은 하부조직으로 청소년심의관과 함께 청소년정책과, 지도과, 교류과, 시설과 등 4개과를 두었다.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청소년 지도과는 청소년 단체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교류과는 청소년 국제

교류와 청소년육성 홍보, 청소년시설과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체육부, 1989, p.419). 이와 같은 조직구성은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과거의 선도·보호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의 청소년업무 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지방 청소년 업무의 통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부처에서 지역사회까지 전달되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는 체육부 내 청소년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서 청소년국은 1990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한 단계 부서 위상이 높아졌다. 청소년정책조정실은 2개 심의관과 6개 과로 구성되어, 청소년기획관 밑에 청소년기획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를 두었고, 청소년협력관 밑에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홍보협력과를 두었다(체육청소년부, 1991, p.559). 이와 함께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1990. 12)하여, 중앙정부에서 높아진 청소년 부문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서의 명칭으로 '청소년'을 사용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아있다.

청소년정책의 부처간 협의 및 심의기구인 청소년대책위원회는 1988년에 명칭과 위상을 바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장관과 체육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17개 중앙행정부서 장관 과 서울특별시장, 청소년계 인사 19명이 위원이 되었다(체육부, 1989, p.413).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거하여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시책 조정 및 협조, 시설 설치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 인격 형성, 국제교류 등을 심의하였다(체육부, 1989, p.412).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1993. 6)되어 청소년

업무는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이관되었다. 청소년정책실은 기존의 체육 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과 비교하여 조직과 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2) 청소년정책

체육부는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1990년 대통령의 청소년육성 장기계획 수립 지시에 의거하여 체육부 내에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회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명칭을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1991년 6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pp.11-13).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보람 있고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영역과 과제를 설정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p.14)

- 청소년활동 : 수련거리, 수련터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단체, 활동 동기 부여
- 청소년복지 : 사회환경 개선, 어려운 청소년 지원
- 청소년교류 : 국제교류,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 법제 보강 : 청소년 배려제도 보장, 청소년 수련활동 중추기구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정, 청소년관계 법령 개정 및 정비 추진
- 재정확충 운영 : 재원조달의 원칙 및 규모, 청소년재원 확충방안

기본계획은 당초 10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1993년 청소년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으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청소년업무 전담

부서가 의욕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청소년육성 관련 종합계획으로서, 이후 중단기 청소년정책계획 수립의 모델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문제청소년 대책에서 전체 청소년 대상 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 2008). 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한 법률로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4조)됨을 명시하여, 청소년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통괄·조정하는 상위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총칙과 보칙을 포함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9개 장으로 이루어져, 기본계획의 구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10개년 계획(1991~2000)으로 구상되었던 기본계획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그 시행이 중지되고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은 수련활동 위주의 청소년정책 편제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청소년 보호와 선도, 국민 참여 부문을 반영하고(문화체육부, 1993, p.557), 문화, 체육, 청소년 시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하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문화체육부, 1993, p.555).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 확대·강화,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수련활동의 비중을 축소하였다(문화체육부, 1993).

3. 청소년정책의 전환기 : 1998~2007년

1) 청소년 행정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정책과 행정은 다시 큰 전기를 맞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 및 유해약물의 유통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제한하여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문화체육부, 1997, p.456)된 법률로서, 청소년육성 중심의 청소년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재발족하게 되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체물, 약물, 업소의 3개 부문별 위원회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었다. 위원회는 준사법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문화관광부, 1998a, pp.373-374).

- 청소년보호 기본계획 수립·추진·평가
- 청소년유해환경(매체물, 약물, 업소)으로부터 청소년보호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 청소년유익환경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한편, 기존의 청소년업무는 1998년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서 부처 명칭을 바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옮겼다. 청소년국은 하위조직으로 청소년기획과와 청소년수련과, 청소년교류과의 3개 부서를 두어 이전과 비교하여 조직 규모와

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청소년정책은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이 이원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곤란하였고 청소년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청소년육성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청소년위원회, 2005, p.301).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4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명칭이 중앙행정조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이며, 위원은 상임 1명과 비상임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무처는 정책홍보관리관, 청소년정책단, 활동복지단, 청소년보호단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 산하에 중앙점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363).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이전 문화관광부의 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365).

- 청소년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
-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권익보호·증진
-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및 예방
-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시민운동 지원

청소년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소년정책 관계 기관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부처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2개 이상의 행정기관 간에 업무 조정과 협의를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371).

2) 청소년정책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소년정책계획에 있어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1998년부터 시작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간주하여 보호·선도·교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 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 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문화관광부, 1998b, pp.2-3).

- 미래의 주인공으로 권리 유보 →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권리 보장
- 성인주도·정책대상의 청소년 → 청소년참여·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
- 소수 문제청소년의 지도·보호 →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 공급자·시설 위주의 양적 성장 →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 중앙 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 →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2차 5개년계획은 정책 추진 영역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 참여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 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강조하였다(문화관광부, 1998b).

1998년에 도입된 청소년위원회 제도와 청소년현장의 개정은 청소년을 주체로 참여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청소년 단체·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문화관광부, 1998b, p.21)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후 중앙·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 단위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분화되었다. 한편,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현장은 미래의 주역임과 동시에 현재 삶의 주체인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1998. 10).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은 제2차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상황, 주5일 근무(수업)제의 도입, 정보화의 가속화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파트너십을 정책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정책 추진과제로 1)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3)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4)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5)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의 다섯 과제를 제시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p.13).

3차 5개년계획 시기에 이루어진 청소년 관련 입법 동향으로는 청소년 관련 주요 3법의 제·개정 작업을 들 수 있다. 2003년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제정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4. 청소년정책의 확장기 : 2008년 이후

1) 청소년 행정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다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88년 체육부 청소년국의 출범 이래 약 20년 간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아동업무, 여성부의 보육업무와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소관업무가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p.380).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에 정책과, 권리와, 역량개발과, 교류과를 두었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복지과, 상담자활과, 보호과, 매체환경과, 보호과를, 보육정책관은 정책과, 재정과, 지원과 등을 두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정책은 3 정책관 12개 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상시 점검단속을 위한 중앙점검단을 별도로 두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p.38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업무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육정책관으로 이전·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포괄적 아동정책이 시작되었고,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분리되었다.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은 체육부에서 시작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p.2). 연령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정책대상을 두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아동·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출범을 계기로 처음으로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통합으로 유아-아동-청소년에 이르는 생애 단계별 종합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법령과 정책의 조정을 통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을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새롭게 제1차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본법은 국회에 계류되고 기본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소년업무는 가족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이관되었다.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정책관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청소년정책관 아래 정책과, 역량개발과, 교류과, 자립지원과, 보호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이후 청소년역량개발과가 청소년활동진흥과(2011)로, 청소년보호과가 청소년보호환경과(2015)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교류과는 폐지(2011)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과(2015)와 청소년활동안전과(2016)가 신설되는 등의 조직 변동이 있었다. 청소년활동지원과 외에 별도로 청소년활동안전과가 신설된 것은 2013년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 등 연이은 청소년 안전 관련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2019년 현재 청소년업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정책관 아래 정책과, 활동진흥과, 활동안전과, 자립지원과, 보호환경과를 비롯하여 신설된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등 6개 과로 분장되어 추진되고 있다.

2) 청소년정책

2008년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안은 보류되었다. 아동, 보육 업무와의 통합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청소년계와 아동계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제1차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p.41)되었지만 2010년 청소년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으로 1년 만에 폐기되었다. 이에 그동안 보류되었던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재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통합적, 보편적, 수요자 중심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0, p.25). 통합성·보편성의 강조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육성계획’이라는 명칭을 ‘정책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조혜영, 2018, p.132). 4차 기본계획은 4대 정책분야, 12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는데, 정책분야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10, p.25).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 가족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유익한 환경 조성,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청소년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이루어진 청소년 관련 주요 입법동향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0. 1. 1)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아동도 성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p.44).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정책 비전으로 하고, 정책 추진방향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미리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정책, 정책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균형적 정책, 실제로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5대 정책영역,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영역과 중점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12,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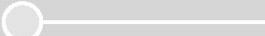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5차 기본계획 기간 중 제정된 주요 청소년 법령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5년에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신설되었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2015. 5. 22)이 발표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문재인 정부의 청소년 관련 국정 과제인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12).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관계 부처 합동, 2018, p.13).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Ⅲ.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제안

- 1.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 2. 지역사회 사례연구 :
세종시·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⁴⁾

1) 설문개요

(1) 조사 목적

본 설문의 목적은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있다.

(2) 조사개요

① 조사 대상 : 전문가 520명, 일반 청소년 1,180명, 참여기구 청소년 320명

조사 대상은 전문가 520명, 일반 청소년 1,180명, 참여기구 청소년 320명으로 총 2,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청소년 전문가 패널에서 추출하되 집단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적정 인원을 표집틀에 안배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조사 업체의 청소년 패널을 활용하되 부모 동의를 필요한 9~15세 청소년은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는 성인 패널을 활용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4) 이 절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019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통계(목표 모집단)를 참조해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목표 모집단의 시도별, 연령별 성별 구성 현황에 비례해 표본을 설계하였다.

참여기구 청소년 집단은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 중인 위원회 대표 청소년 집단으로 구성하고 대상별 표본수는 각 목표 모집단의 시도별 분포 현황에 비례해 결정하였다.

- ② 조사 방법 : 이메일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③ 조사기간 : 2019년 10월~11월
- ④ 응답자 특성

표 III-1 전문가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직군	대학교수	54	10.4
	연구원	74	14.2
	청소년지도자	392	75.4
소속	대학	56	10.8
	연구기관	66	12.7
	준정부기관	24	4.6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 시설	110	21.2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252	48.5
	청소년 관련 연맹 또는 재단	7	1.3
	기타	5	1.0
청소년 관련 경력	5년 미만	140	26.9
	5~10년 미만	133	25.6
	10~15년 미만	112	21.5
	15~20년 미만	68	13.1
	20년 이상	67	12.9
성별	남자	230	44.2
	여자	290	55.8

	구분	사례수	비율(%)
연령	20대	70	13.5
	30대	143	27.5
	40대	193	37.1
	50대	105	20.2
	60대 이상	9	1.7
	전체	520	100.0

표 III-2 일반 청소년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서울	209	17.7
	부산	68	5.8
	대구	55	4.7
	인천	68	5.8
	광주	40	3.4
	대전	37	3.1
	울산	29	2.5
	세종	10	0.8
	경기	319	27.0
	강원	33	2.8
	충북	35	3.0
	충남	46	3.9
	전북	44	3.7
	전남	38	3.2
	경북	56	4.7
	경남	77	6.5
제주	16	1.4	
성별	남자	616	52.2
	여자	564	47.8
연령	9~12세	214	18.1
	13~18세	517	43.8
	19~24세	449	38.1
	전체	1,180	100.0

표 III-3 참여기구 청소년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서울	35	10.9
	부산	23	7.2
	대구	11	3.4
	인천	11	3.4
	광주	3	0.9
	대전	13	4.1
	울산	8	2.5
	세종	2	0.6
	경기	66	20.6
	강원	32	10.0
	충북	12	3.8
	충남	26	8.1
	전북	8	2.5
	전남	9	2.8
	경북	20	6.3
	경남	34	10.6
	제주	7	2.2
성별	남자	125	39.1
	여자	195	60.9
연령	9~12세	1	0.3
	13~18세	271	84.7
	19~24세	48	15.0
	전체	320	100.0

(3) 조사내용

조사 영역 및 영역별 세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III-4 조사내용

구분	항목	조사대상	
		전문가	청소년
응답자 선정 질문	위원회 여부, 거주지역, 가정형편, 학업성적		○
	직군, 소속기관, 청소년 관련 경력	○	
	성별, 연령, 교육 수준(재학상태)	○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 고민 문제	○	○
	청소년 삶의 만족도	○	○
	청소년 기본계획 인지	○	○
	청소년정책 총괄 기관 인지		○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 인지 기관		○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	○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중요한 청소년정책목표	○	○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	○
	청소년정책 관련 개념 중요도	○	
	중요한 청소년정책과제	○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을 위한 실효성이 큰 방안	○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	
	청소년지도자 적정 용어	○	
	청소년 지정 연령 적정성	○	○
청소년 적정 연령	○	○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참여)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	○
	청소년 집회/결사 자유 보장	○	○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의견	○	○
	선거권 조정 연령	○	○
	선거권 인정 연령 만 16세 이상 조정 의견	○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	○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경험		○

구분	항목	조사대상	
		전문가	청소년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참여)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만족도		○
	청소년참여기구 기여도	○	○
	청소년참여기구 향후 참여 의향		○
	청소년참여기구 확대 필요성	○	
	온라인 참여 포탈 찬성/반대	○	○
	온라인 참여 포탈 활동 의향		○
	의견 제시 방법 참여 경험		○
	의견 제시 방법 향후 참여 의향		○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여부		○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여부		○
	청소년활동 참여 욕구		○
	청소년활동 충족 정도	○	○
	가장 기여도가 큰 활동		○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	○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 인지도	○	○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 참여 경험		○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 참여 만족도		○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 실질적 기여도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	○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활동)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경험		○
	청소년수련시설 만족도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접촉 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
	청소년수련시설 향후 이용의향		○
	청소년증 인지		○
	청소년증 발급 여부		○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은 이유		○
	현행 발급 대상자 연령 조정 필요성	○	
	발급 대상자 조정 연령	○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추가 기능)	○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	

구분	항목	조사대상	
		전문가	청소년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활동)	청소년사업 추진 여부	○	
	청소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의견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반대 이유	○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
	청소년복지 욕구		○
	청소년복지 충족 정도	○	○
	가장 기여도가 큰 청소년복지	○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인지도	○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만족도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청소년상담사와 접촉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기여도	○	
	청소년 위험 요인의 심각성	○	○
	청소년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정도	○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	청소년보호 서비스 및 시설 인지도	○	○
	청소년보호 서비스 및 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보호 서비스 및 시설 만족도		○
	청소년보호 서비스 및 시설 기여도	○	
	청소년 프로그램 관심 정도		○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 프로그램 중요도	○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과	○	

2) 설문결과⁵⁾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① 청소년 고민 문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 결과, '진로'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입시' 16.1%, '학업성적' 15.7%, '취업' 1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민 문제로 '진로'(37.9%), '학업성적'(21.0%), '친구와의 관계'(16.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일반 청소년은 '진로'(20.4%), '취업'(19.8%), '대학입시'(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구 청소년은 '대학입시'(24.7%), '진로'(24.1%), '학업성적'(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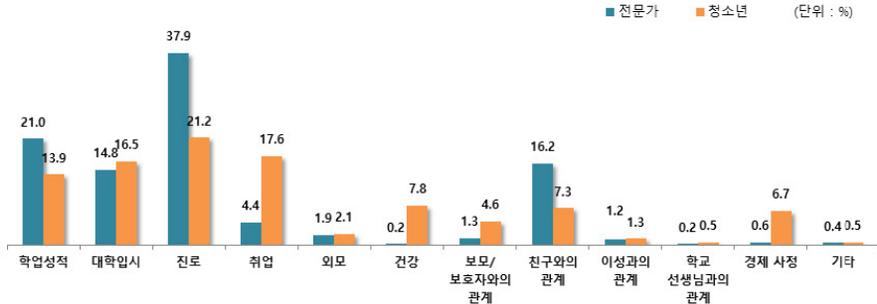


그림 III-1 청소년 고민 문제

청소년의 연령별로 보면, 9~12세는 '친구와의 관계'(2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18세는 '대학입시'(27.8%), 19~24세는 '취업'(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이하 설문결과에 수록된 모든 그래프와 그림 내 구성비(비율)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 청소년 고민 문제

구분	사례수	진로	대학 입시	학업 성적	취업	친구와의 관계	건강	경제 사정	
전체	(2,020)	25.5	16.1	15.7	14.2	9.6	5.8	5.1	
전문가	(520)	37.9	14.8	21.0	4.4	16.2	0.2	0.6	
청소년	(1,500)	21.2	16.5	13.9	17.6	7.3	7.8	6.7	
일반 청소년	(1,180)	20.4	14.3	11.8	19.8	7.6	9.3	7.4	
참여기구 청소년	(320)	24.1	24.7	21.9	9.4	5.9	2.2	4.4	
성별	남자	(741)	22.5	15.0	13.9	17.0	6.9	8.4	7.4
	여자	(759)	19.9	18.1	14.0	18.2	7.6	7.2	6.1
연령	9~12세	(215)	14.0	4.7	11.2	4.7	22.3	16.7	9.3
	13~18세	(788)	25.9	27.8	19.2	4.3	5.5	6.9	3.2
	19~24세	(497)	16.9	3.8	6.8	44.3	3.6	5.4	11.3

* 주: 1) 상위 7개 항목만 제시

② 청소년 삶의 만족도

청소년들의 일상(삶)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함' 0점, '보통' 5점, '매우 만족' 10점으로 하여 산출한 만족도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5%는 만족(6~10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7.6%는 불만족(0~4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 점수는 5.42점으로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4.62점으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았고, 청소년 중 일반 청소년은 5.63점, 참여기구 청소년 5.93점으로 나타나 참여기구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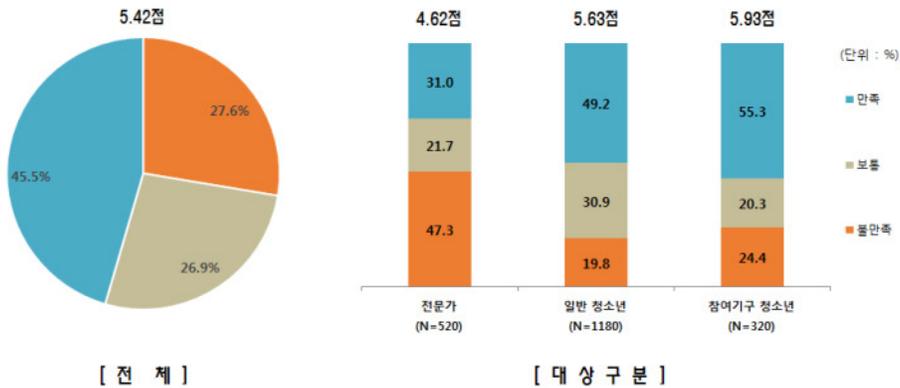


그림 Ⅲ-2 청소년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성별로 보면, 남자가 5.84점으로 여자 5.55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9~12세가 6.06점, 13~18세가 5.82점, 19~24세가 5.3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6 청소년 삶의 만족도

구분	사례수	불만족 (0~4점)	보통 (5점)	만족 (6~10점)	평균 (점/10점)
전체	(2,020)	27.6	26.9	45.5	5.42
전문가	(520)	47.3	21.7	31.0	4.62
청소년	(1,500)	20.8	28.7	50.5	5.69
일반 청소년	(1,180)	19.8	30.9	49.2	5.63
참여기구 청소년	(320)	24.4	20.3	55.3	5.93
성별					
남자	(741)	18.1	28.2	53.7	5.84
여자	(759)	23.5	29.1	47.4	5.55
연령					
9~12세	(215)	10.7	28.8	60.5	6.06
13~18세	(788)	19.5	27.0	53.4	5.82
19~24세	(497)	27.2	31.2	41.6	5.34

③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제6차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3%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8.7%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율이 91.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들은 37.2%(일반 청소년 32.0%, 참여기구 청소년 56.3%)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중 참여기구 청소년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율이 56.3%로 일반 청소년 32.0%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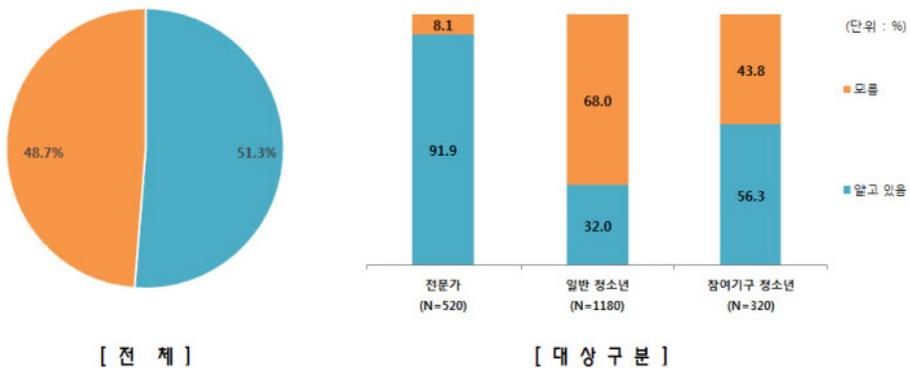


그림 III-3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

표 III-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인지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전체	(2,020)	51.3	48.7	
전문가	(520)	91.9	8.1	
청소년	(1,500)	37.2	62.8	
일반 청소년	(1,180)	32.0	68.0	
참여기구 청소년	(320)	56.3	43.8	
성별	남자	(741)	36.3	63.7
	여자	(759)	38.1	61.9
연령	9~12세	(215)	36.3	63.7
	13~18세	(788)	40.2	59.8
	19~24세	(497)	32.8	67.2

④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

정부의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3.7%는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6.3%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구 청소년은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율이 54.4%로 일반 청소년 2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8세가 3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9~12세 33.5%, 19~24세 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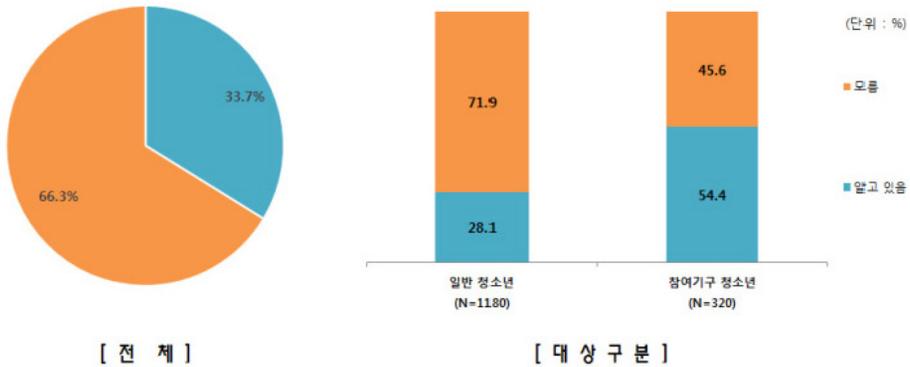


그림 Ⅲ-4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

표 Ⅲ-8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 인지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전체	(1,500)	33.7	66.3	
일반 청소년	(1,180)	28.1	71.9	
참여기구 청소년	(320)	54.4	45.6	
성별	남자	(741)	33.5	66.5
	여자	(759)	34.0	66.0
연령	9~12세	(215)	33.5	66.5
	13~18세	(788)	37.3	62.7
	19~24세	(497)	28.2	71.8

가.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기관

정부의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문의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8.2%는 '여성가족부'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84.5%가 '여성가족부'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29.2%)보다 '교육부'(51.5%)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청소년정책 담당 업무기관

구분	사례수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전체	(506)	37.7	6.7	5.1	48.2	2.2	
일반 청소년	(332)	51.5	9.6	7.2	29.2	2.4	
참여기구 청소년	(174)	11.5	1.1	1.1	84.5	1.7	
성별	남자	(248)	37.9	5.6	5.6	48.4	2.4
	여자	(258)	37.6	7.8	4.7	48.1	1.9
연령	9~12세	(72)	59.7	12.5	5.6	18.1	4.2
	13~18세	(294)	35.4	6.1	3.4	53.4	1.7
	19~24세	(140)	31.4	5.0	8.6	52.9	2.1

⑤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전혀 기여하지 못함' 0점, '보통' 5점, '매우 기여하고 있음' 10점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3%는 청소년정책들이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6~10점) 있다고 응답하였고, 34.9%는 기여하지 못하고(0~4점)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기여도 점수는 4.87점으로 보통(5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의 기여도를 평균 4.98점으로 평가해 보통 정도 수준으로 보았고, 청소년 중 일반 청소년은 4.73점, 참여기구 청소년 5.19점으로 평가해 참여기구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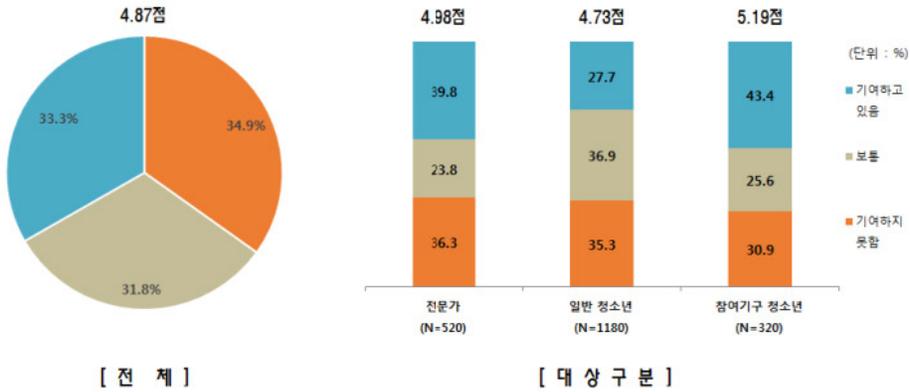


그림 Ⅲ-5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청소년의 연령별로 보면, 9~12세가 5.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3~18세가 5.00점, 19~24세가 4.3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정책의 행복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청소년정책 삶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지 못함 (0~4점)	보통 (5점)	기여하고 있음 (6~10점)	평균 (점/10점)
전체	(2,020)	34.9	31.8	33.3	4.87
전문가	(520)	36.3	23.8	39.8	4.98
청소년	(1,500)	34.4	34.5	31.1	4.83
일반 청소년	(1,180)	35.3	36.9	27.7	4.73
참여기구 청소년	(320)	30.9	25.6	43.4	5.19
성별					
남자	(741)	36.7	34.0	29.3	4.74
여자	(759)	32.1	35.0	32.8	4.92
연령					
9~12세	(215)	23.7	37.7	38.6	5.30
13~18세	(788)	30.3	34.8	34.9	5.00
19~24세	(497)	45.5	32.8	21.7	4.36

(2)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① 중요한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청소년들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27.7%,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6.6%,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1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36.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3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44.2%)가 가장 높았으며, 참여기구 청소년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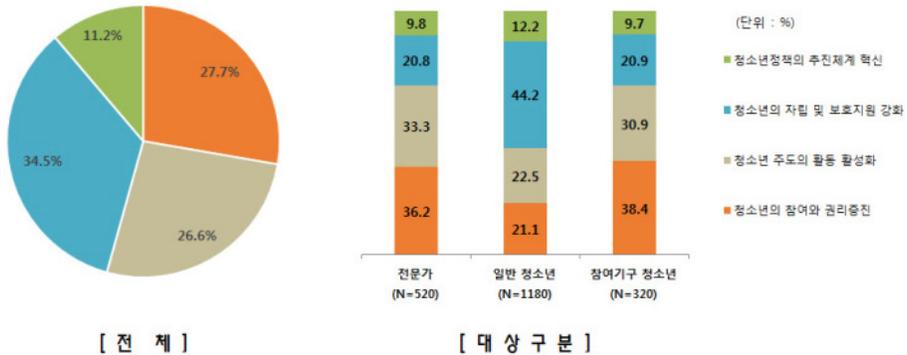


그림 III-6 중요한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표 Ⅲ-11 중요한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구분	사례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전체	(2,020)	27.7	26.6	34.5	11.2	
전문가	(520)	36.2	33.3	20.8	9.8	
청소년	(1,500)	24.8	24.3	39.3	11.7	
일반 청소년	(1,180)	21.1	22.5	44.2	12.2	
참여기구 청소년	(320)	38.4	30.9	20.9	9.7	
성별	남자	(741)	23.6	25.8	38.3	12.3
	여자	(759)	26.0	22.8	40.2	11.1
연령	9~12세	(215)	14.4	31.2	47.4	7.0
	13~18세	(788)	29.1	23.5	35.2	12.3
	19~24세	(497)	22.5	22.5	42.3	12.7

② 가장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청소년정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20.4%,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17.8%, ‘청소년의 역량 강화’ 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장 필요한 개념으로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34.0%),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21.2%),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20.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일반 청소년은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24.9%),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24.4%),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구 청소년은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35.3%), ‘청소년의 권한 부여’(2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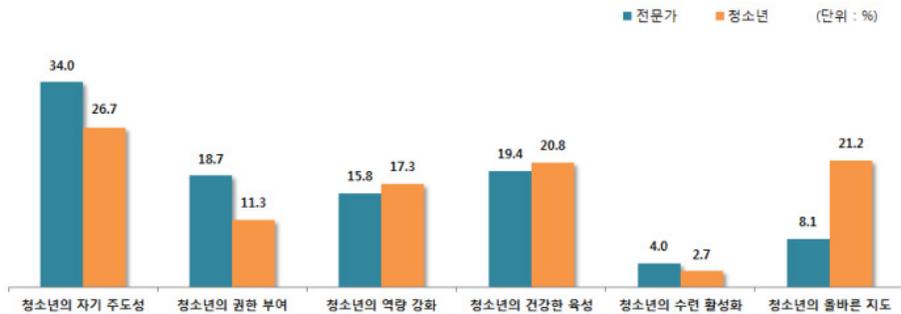


그림 III-7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청소년의 연령별로 보면, 9~12세와 13~18세에게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이 각각 28.4%,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24세에게는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2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중요/필요한 청소년정책 개념

구분	사례수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청소년의 권한 부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청소년의 수련 활성화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전체	(2,020)	28.6	13.2	16.9	20.4	3.0	17.8
전문가	(520)	34.0	18.7	15.8	19.4	4.0	8.1
청소년	(1,500)	26.7	11.3	17.3	20.8	2.7	21.2
일반 청소년	(1,180)	24.4	7.3	17.4	24.2	1.8	24.9
참여기구 청소년	(320)	35.3	25.9	17.2	8.1	5.9	7.5
성별	남자 (741)	27.7	10.1	18.5	20.5	2.3	20.9
	여자 (759)	25.8	12.4	16.2	21.1	3.0	21.5
연령	9~12세 (215)	28.4	1.9	18.1	26.5	1.4	23.7
	13~18세 (788)	29.2	14.2	16.6	18.8	3.3	17.9
	19~24세 (497)	22.1	10.7	18.1	21.5	2.2	25.4

③ 청소년정책 개념별 중요도

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5.8%는 중요하다고(매우 중요함+중요한 편임) 응답하였으며, 14.2%는 중요하지 않다고(전혀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편임)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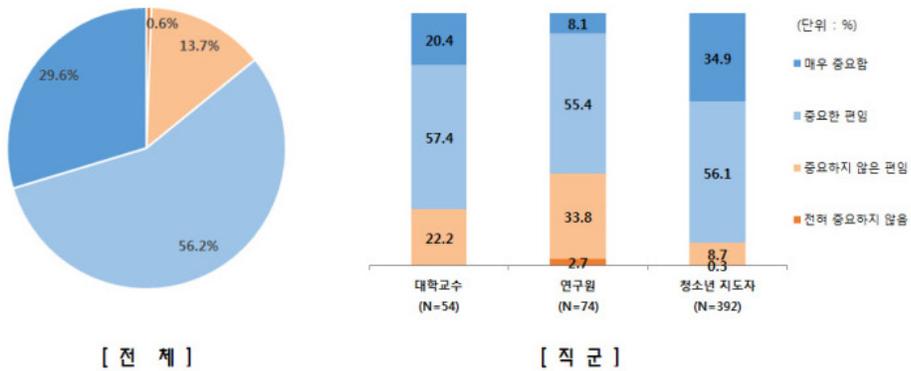


그림 III-8 청소년 수련활동 중요도

표 III-13 청소년 수련활동 중요도

구분	사례 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520)	0.6	13.7	56.2	29.6	14.2	85.8
전문가	대학교수 (54)	-	22.2	57.4	20.4	22.2	77.8
	연구원 (74)	2.7	33.8	55.4	8.1	36.5	63.5
	청소년지도자 (392)	0.3	8.7	56.1	34.9	8.9	91.1

나. 청소년육성

청소년육성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90.4%는 중요하다고(매우 중요함+중요한 편임) 응답하였으며, 9.6%는 중요하지 않다고(전혀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편임)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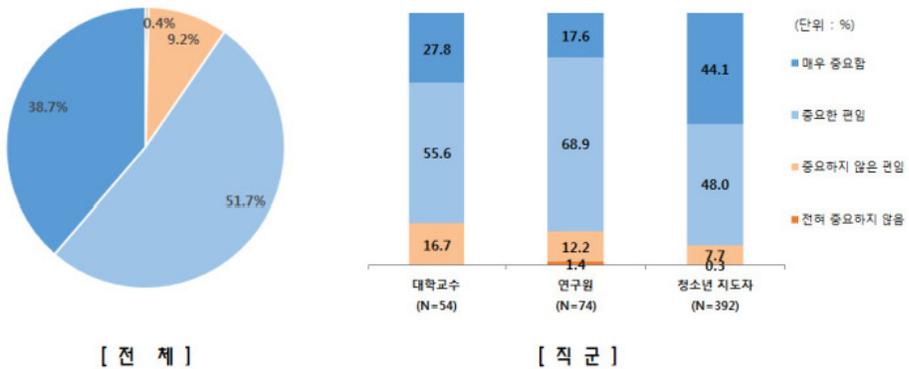


그림 Ⅲ-9 청소년육성 중요도

표 Ⅲ-14 청소년육성 중요도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520)	0.4	9.2	51.7	38.7	9.6	90.4	
직군	대학교수	(54)	-	16.7	55.6	27.8	16.7	83.3
	연구원	(74)	1.4	12.2	68.9	17.6	13.5	86.5
	청소년지도자	(392)	0.3	7.7	48.0	44.1	7.9	92.1

다. 청소년 지도

청소년 지도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90.6%는 중요하다고(매우 중요함+중요한 편임) 응답하였으며, 9.4%는 중요하지 않다고(전혀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편임)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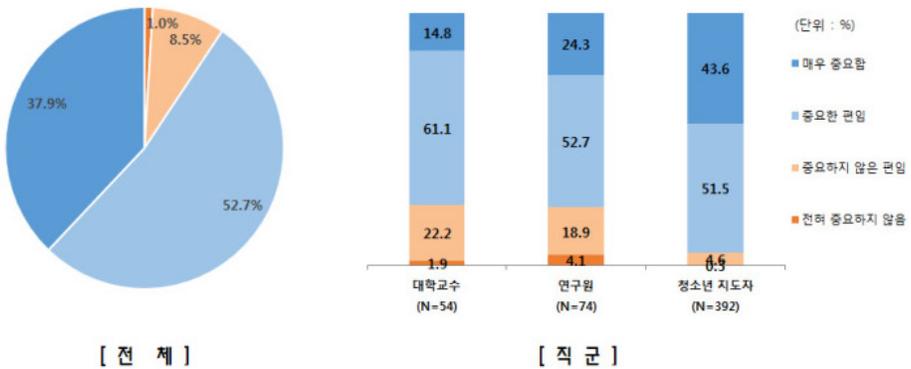


그림 III-10 청소년 지도 중요도

표 III-15 청소년 지도 중요도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520)	1.0	8.5	52.7	37.9	9.4	90.6	
직군	대학교수	(54)	1.9	22.2	61.1	14.8	24.1	75.9
	연구원	(74)	4.1	18.9	52.7	24.3	23.0	77.0
	청소년지도자	(392)	0.3	4.6	51.5	43.6	4.8	95.2

④ 청소년정책목표 중 중요한 과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목표별 핵심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정책목표 중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33.5%,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목표 중에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목표 중에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상별 맞춤형 지원’ 38.0%,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정책목표 중에서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37.3%,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1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1 청소년정책목표 중 중요한 과제

표 III-16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구분	사례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전체	(188)	36.7	33.5	29.8

표 III-17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의 중요한 정책과제

구분	사례수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전체	(173)	58.4	18.5	23.1

표 III-18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의 중요한 정책과제

구분	사례수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전체	(108)	48.1	38.0	13.9

표 III-19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의 중요한 정책과제

구분	사례수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전체	(51)	37.3	49.0	13.7

⑤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금기준 상향으로 양질의 인력은 유인하고, 인재 유출은 방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당 부처의 종합적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19.6%, '미래역량 중심의 전문교육 확대' 1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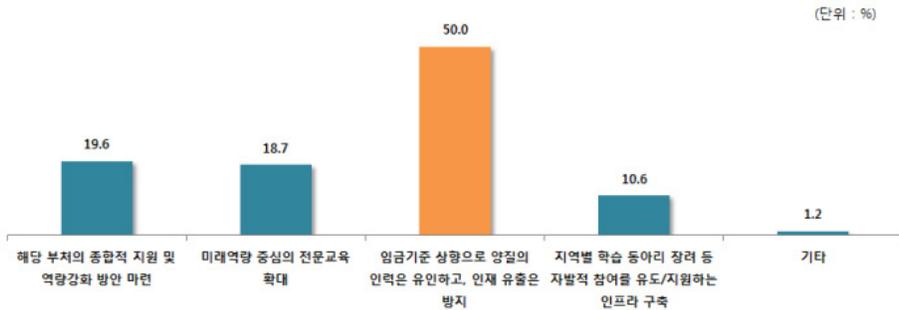


그림 III-1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표 III-20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구분	사례수	해당 부처의 종합적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미래역량 중심의 전문교육 확대	임금기준 상향으로 양질의 인력은 유인하고, 인재 유출은 방지	지역별 학습 동아리 장려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기타	
전체	(520)	19.6	18.7	50.0	10.6	1.2	
직군	대학교수	(54)	20.4	31.5	29.6	18.5	-
	연구원	(74)	21.6	39.2	21.6	14.9	2.7
	청소년지도자	(392)	19.1	13.0	58.2	8.7	1.0

⑥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7%가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6.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패널 중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6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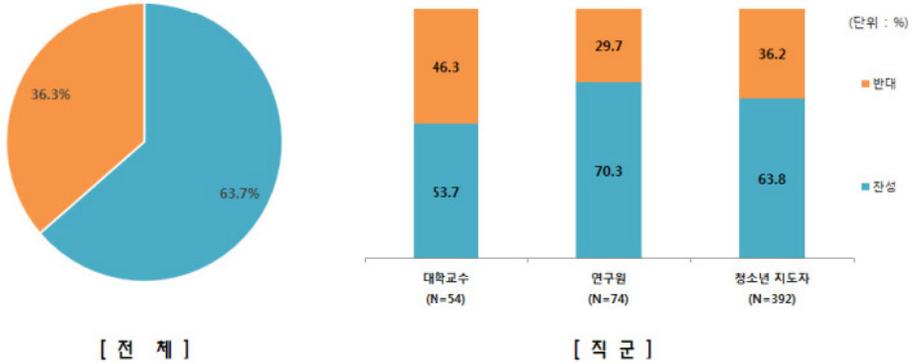


그림 III-13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표 III-21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 찬성/반대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520)	63.7	36.3	
전문가	대학교수	(54)	53.7	46.3
	연구원	(74)	70.3	29.7
	청소년지도자	(392)	63.8	36.2

표 III-22 '청소년지도자' 용어 대체 단어

'청소년지도자' 용어 대체 단어			
청소년지원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상담지원사	청소년플래너
청소년코치	청소년보호선도사	청소년이꿈이	청소년멘토
청소년교육자	선도청소년	청소년퍼실리테이터	청소년등불 or 등대
청소년조력자	청년리더	청소년복지사	청소년육성지원자
청소년지도담당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활동전문가	청소년코칭전문가
청소년매니저	청소년활동지도자	청소년활동가	청소년활동사
지도교사	청소년기관종사자	청소년컨설턴트	청소년협력자
청소년현장활동가	청소년리더	청소년선생님	청소년복지교사
청소년지지도	청소년길라잡이	청소년지도전문가	청소년정책전문가
청소년협력사	청소년전담	청소년길잡이교사	청소년가이드
청소년중심조력자	청소년동행인/동행자	청소년지도교수	청소년코디네이터
청소년양육지원자	청소년교육가이드	청소년담당자	청소년관리자
청소년후원자	청소년도우미	인생선배	청소년지도관
청소년메이트	청소년교육사		

'청소년지도자'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지도의 개념이 하향식 개념이라 청소년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해주며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립성을 보장하는 용어로 변경되면 좋을 듯함.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구분하여 사용하되 청소년지도자 용어 사용 금지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

⑦ 청소년 연령 정의 적정성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정의가 적정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2%는 현행 청소년 연령 정의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44.8%는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청소년 연령 정의에 대해 41.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들은 60.2%(일반 청소년 56.4%, 참여기구 청소년 74.1%)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9~12세는 39.1%, 13~18세는 60.3%, 19~24세는 69.2%가 현행 청소년 연령 정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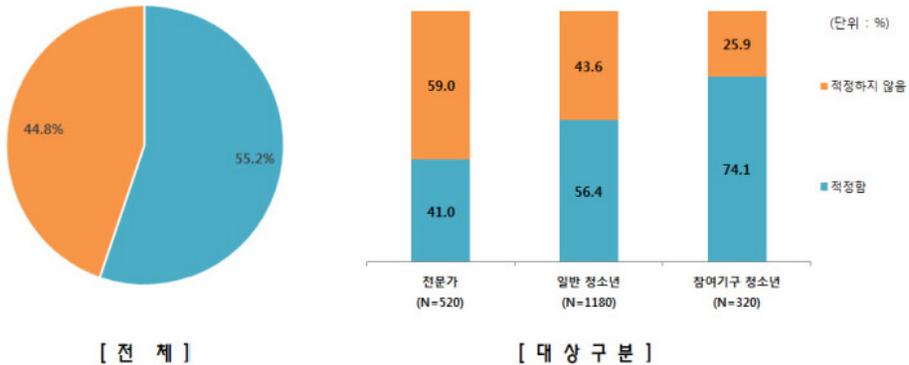


그림 III-14 청소년 연령 정의 적정성

표 III-23 청소년 연령 정의 적정성

구분	사례수	적정함	적정하지 않음
전체	(2,020)	55.2	44.8
전문가	(520)	41.0	59.0
청소년	(1,500)	60.2	39.8
일반 청소년	(1,180)	56.4	43.6
참여기구 청소년	(320)	74.1	25.9
성별			
남자	(741)	59.5	40.5
여자	(759)	60.9	39.1
연령			
9~12세	(215)	39.1	60.9
13~18세	(788)	60.3	39.7
19~24세	(497)	69.2	30.8

현행 청소년 연령 정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적정 연령을 기입하게 한 결과 평균 하위 연령은 만 10.9세, 평균 상한 연령은 만 20.1세로 집계됐다.

표 III-24 청소년 적정 연령

구분	사례수	하위 (만 __세 이상)	상위 (만 __세 이하)
전체	(904)	10.9	20.1
전문가	(307)	10.3	21.3
청소년	(597)	11.3	19.5
일반 청소년	(514)	11.2	19.3
참여기구 청소년	(83)	11.3	21.0
성별			
남자	(300)	11.4	19.4
여자	(297)	11.1	19.7
연령			
9~12세	(131)	11.1	18.9
13~18세	(313)	11.2	19.4
19~24세	(153)	11.6	20.4

(3)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참여)

①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9%는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55.1%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35.2%만이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기구 청소년 중에서는 66.9%가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청소년의 4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별로 보면 9~12세는 38.1%, 13~18세는 49.5%, 19~24세는 50.5%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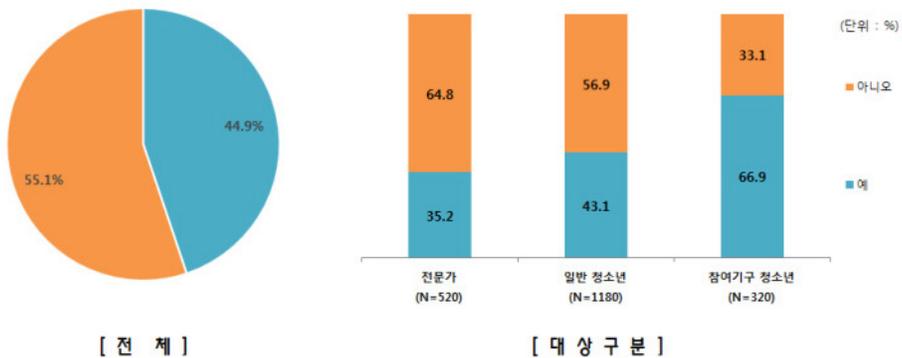


그림 III-15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표 III-25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020)	44.9	55.1
전문가	(520)	35.2	64.8
청소년	(1,500)	48.2	51.8
일반 청소년	(1,180)	43.1	56.9
참여기구 청소년	(320)	66.9	33.1
성별			
남자	(741)	45.6	54.4
여자	(759)	50.7	49.3
연령			
9~12세	(215)	38.1	61.9
13~18세	(788)	49.5	50.5
19~24세	(497)	50.5	49.5

②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6%는 청소년의 집회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59.4%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30.6%만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경우 58.4%가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청소년의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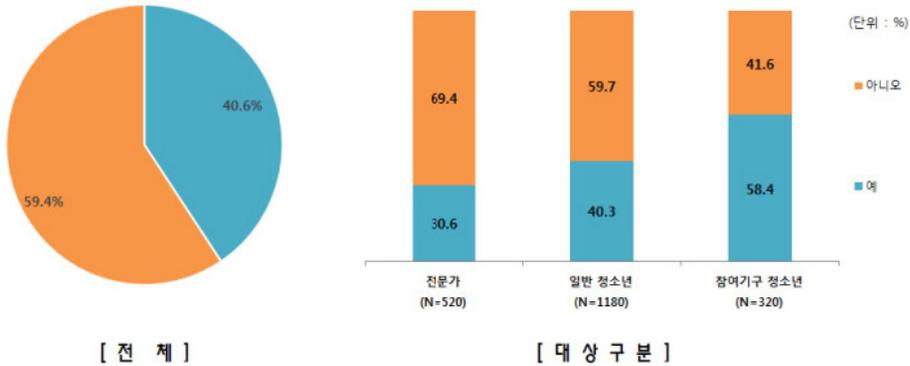


그림 III-16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표 III-26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020)	40.6	59.4
전문가	(520)	30.6	69.4
청소년	(1,500)	44.1	55.9
일반 청소년	(1,180)	40.3	59.7
참여기구 청소년	(320)	58.4	41.6
성별			
남자	(741)	46.2	53.8
여자	(759)	42.2	57.8
연령			
9~12세	(215)	40.0	60.0
13~18세	(788)	45.6	54.4
19~24세	(497)	43.7	56.3

③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반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육감,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8%는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3.2%는 이에 반대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의 경우 61.0%(일반 청소년 58.9%, 참여기구 청소년 68.8%)가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특히 참여기구 청소년의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률이 68.8%로 일반 청소년의 58.9%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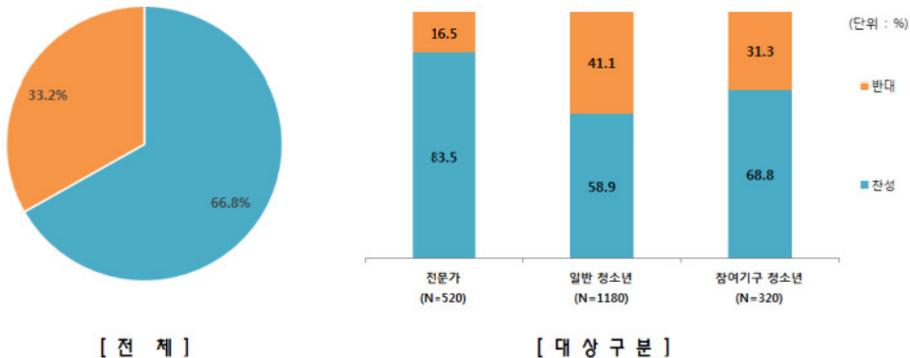


그림 III-17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반대

표 III-27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 찬성/반대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2,020)	66.8	33.2	
전문가	(520)	83.5	16.5	
청소년	(1,500)	61.0	39.0	
일반 청소년	(1,180)	58.9	41.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8.8	31.3	
성별	남자	(741)	64.1	35.9
	여자	(759)	58.0	42.0
연령	9~12세	(215)	59.1	40.9
	13~18세	(788)	63.6	36.4
	19~24세	(497)	57.7	42.3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한다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몇 세 이상의 국민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게 한 결과, '만 18세 이상'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17.4세로 나타났다.

표 III-28 선거권 인정 하향 조정 연령

구분	사례수	15세 이하	16세	17세	18세	평균 (만_세)	
전체	(1349)	4.3	11.9	24.3	59.5	17.4	
전문가	(434)	5.5	15.0	26.0	53.5	17.2	
청소년	(915)	3.7	10.5	23.5	62.3	17.4	
일반 청소년	(695)	3.3	9.9	20.7	66.0	17.5	
참여기구 청소년	(220)	5.0	12.3	32.3	50.5	17.3	
성별	남자	(475)	4.2	9.1	24.4	62.3	17.4
	여자	(440)	3.2	12.0	22.5	62.3	17.4
연령	9~12세	(127)	3.1	7.9	17.3	71.7	17.6
	13~18세	(501)	3.0	11.4	23.4	62.3	17.4
	19~24세	(287)	5.2	10.1	26.5	58.2	17.4

④ 교육감 선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에 한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25.0%는 찬성하였고 75.0%는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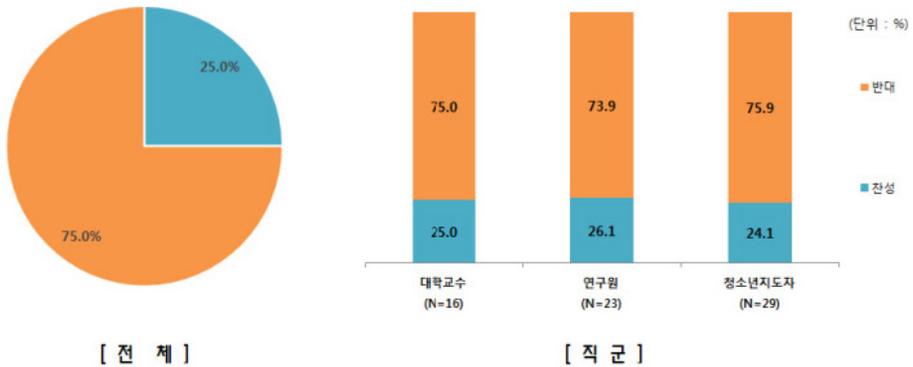


그림 III-18 교육감 선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표 III-29 교육감 선거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68)	25.0	75.0	
직군	대학교수	(16)	25.0	75.0
	연구원	(23)	26.1	73.9
	청소년지도자	(29)	24.1	75.9

⑤ 청소년참여기구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㉞ 인지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7%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9.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은 각각 85.8%, 89.4%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청소년은 24.8%만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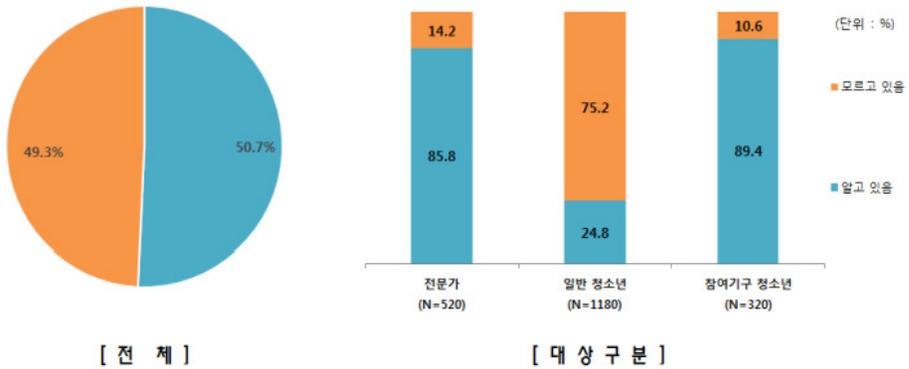


그림 Ⅲ-19 청소년참여위원회 인지도

표 III-30 청소년참여위원회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0.7	49.3	
전문가	(520)	85.8	14.2	
청소년	(1,500)	38.6	61.4	
일반 청소년	(1,180)	24.8	75.2	
참여기구 청소년	(320)	89.4	10.6	
성별	남자	(741)	33.2	66.8
	여자	(759)	43.9	56.1
연령	9~12세	(215)	20.5	79.5
	13~18세	(788)	49.5	50.5
	19~24세	(497)	29.2	70.8

㊤ 참여 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36.4%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3.6%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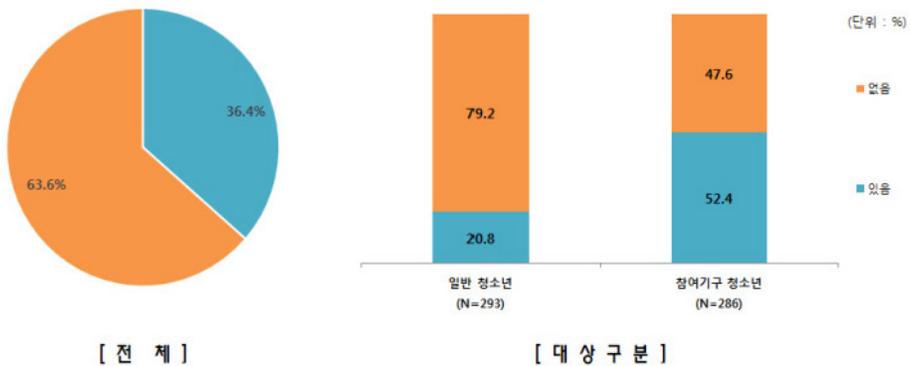


그림 III-20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경험

표 III-31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79)	36.4	63.6	
일반 청소년	(293)	20.8	79.2	
참여기구 청소년	(286)	52.4	47.6	
성별	남자	(246)	42.7	57.3
	여자	(333)	31.8	68.2
연령	9~12세	(44)	15.9	84.1
	13~18세	(390)	38.5	61.5
	19~24세	(145)	37.2	62.8

㉔ 참여 만족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전체 청소년의 77.3%는 자신의 참여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2.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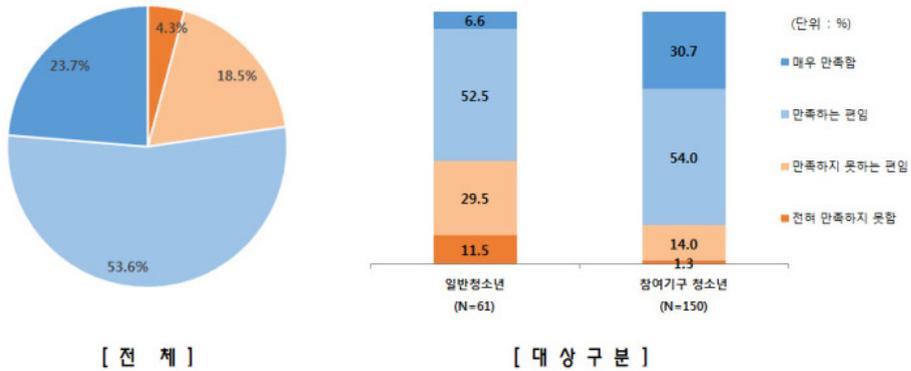


그림 III-21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표 Ⅲ-3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11)	4.3	18.5	53.6	23.7	22.7	77.3	
일반 청소년	(61)	11.5	29.5	52.5	6.6	41.0	59.0	
참여기구 청소년	(150)	1.3	14.0	54.0	30.7	15.3	84.7	
성별	남자	(105)	3.8	18.1	54.3	23.8	21.9	78.1
	여자	(106)	4.7	18.9	52.8	23.6	23.6	76.4
연령	9~12세	(7)	-	42.9	42.9	14.3	42.9	57.1
	13~18세	(150)	2.0	15.3	54.7	28.0	17.3	82.7
	19~24세	(54)	11.1	24.1	51.9	13.0	35.2	64.8

㉔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8%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8.2%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54.8%, 53.1%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12.4%만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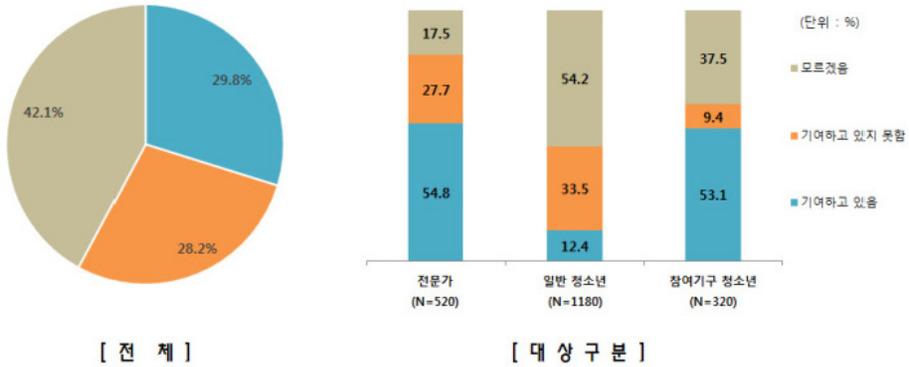


그림 III-2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표 III-3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2,020)	29.8	28.2	42.1
전문가	(520)	54.8	27.7	17.5
청소년	(1,500)	21.1	28.3	50.6
일반 청소년	(1,180)	12.4	33.5	54.2
참여기구 청소년	(320)	53.1	9.4	37.5
성별				
남자	(741)	19.3	28.3	52.4
여자	(759)	22.8	28.3	48.9
연령				
9~12세	(215)	13.5	32.1	54.4
13~18세	(788)	27.0	28.3	44.7
19~24세	(497)	14.9	26.8	58.4

㉔ 향후 참여 의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4.1%는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9.1%는 참여할 의향 없었고 36.7%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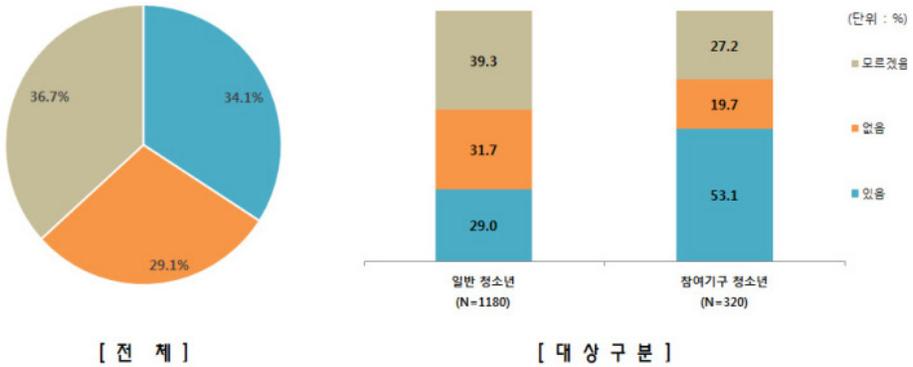


그림 Ⅲ-23 청소년참여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표 Ⅲ-34 청소년참여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34.1	29.1	36.7	
일반 청소년	(1,180)	29.0	31.7	39.3	
참여기구 청소년	(320)	53.1	19.7	27.2	
성별	남자	(741)	33.9	30.2	35.9
	여자	(759)	34.4	28.1	37.5
연령	9~12세	(215)	34.0	25.6	40.5
	13~18세	(788)	42.1	24.4	33.5
	19~24세	(497)	21.5	38.2	40.2

㉞ 확대 필요성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전문가 응답자의 83.8%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9%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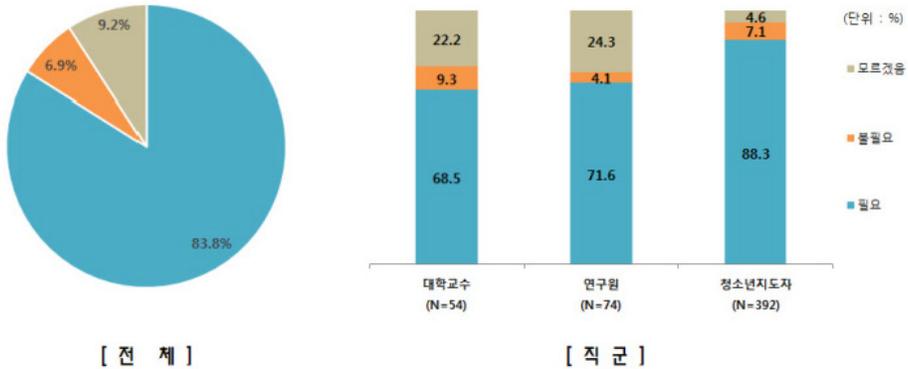


그림 Ⅲ-24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필요성

표 Ⅲ-35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필요성

구분	사례수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전체	(520)	83.8	6.9	9.2
직군	대학교수 (54)	68.5	9.3	22.2
	연구원 (74)	71.6	4.1	24.3
	청소년지도자 (392)	88.3	7.1	4.6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㉞ 인지도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9.9%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고 40.1%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90.0%, 95.3%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청소년은 36.9%만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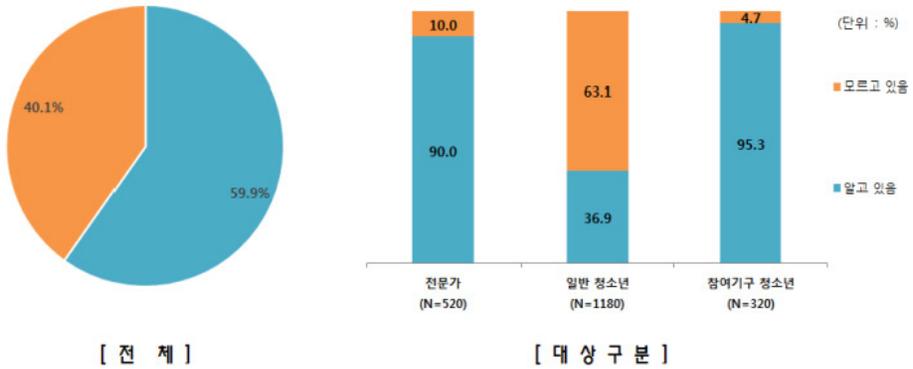


그림 III-25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표 III-36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구분	사혜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9.9	40.1
전문가	(520)	90.0	10.0
청소년	(1,500)	49.4	50.6
일반 청소년	(1,180)	36.9	63.1
참여기구 청소년	(320)	95.3	4.7
성별			
남자	(741)	44.0	56.0
여자	(759)	54.7	45.3
연령			
9~12세	(215)	40.0	60.0
13~18세	(788)	58.2	41.8
19~24세	(497)	39.4	60.6

㊤ 참여 경험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에 대한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37.9%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62.1%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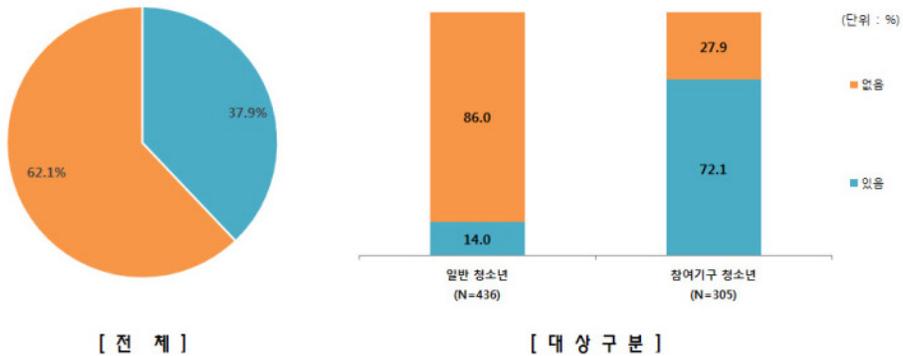


그림 III-26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표 III-37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741)	37.9	62.1	
일반 청소년	(436)	14.0	86.0	
참여기구 청소년	(305)	72.1	27.9	
성별	남자	(326)	34.7	65.3
	여자	(415)	40.5	59.5
연령	9~12세	(86)	14.0	86.0
	13~18세	(459)	47.3	52.7
	19~24세	(196)	26.5	73.5

㊤ 참여 만족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6.8%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2%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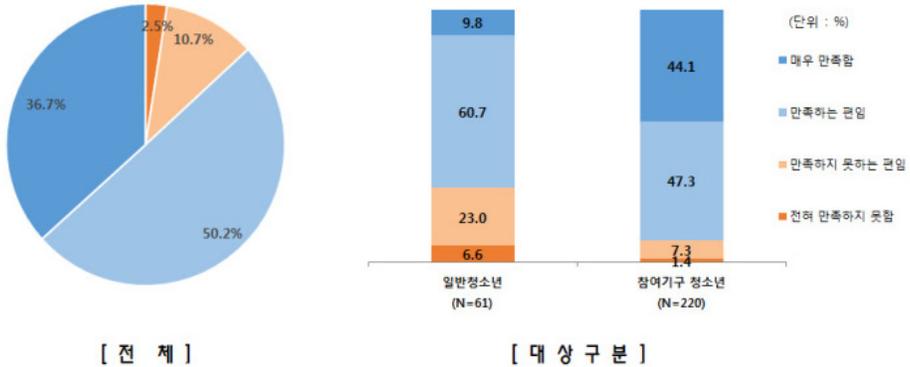


그림 Ⅲ-27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표 Ⅲ-38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81)	2.5	10.7	50.2	36.7	13.2	86.8
일반 청소년	(61)	6.6	23.0	60.7	9.8	29.5	70.5
참여기구 청소년	(220)	1.4	7.3	47.3	44.1	8.6	91.4
성별	남자 (113)	4.4	10.6	54.0	31.0	15.0	85.0
	여자 (168)	1.2	10.7	47.6	40.5	11.9	88.1
연령	9~12세 (12)	-	16.7	66.7	16.7	16.7	83.3
	13~18세 (217)	2.3	9.2	47.0	41.5	11.5	88.5
	19~24세 (52)	3.8	15.4	59.6	21.2	19.2	80.8

㉞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의 자치권이란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자치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3%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8.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57.7%, 68.8%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12.9%만이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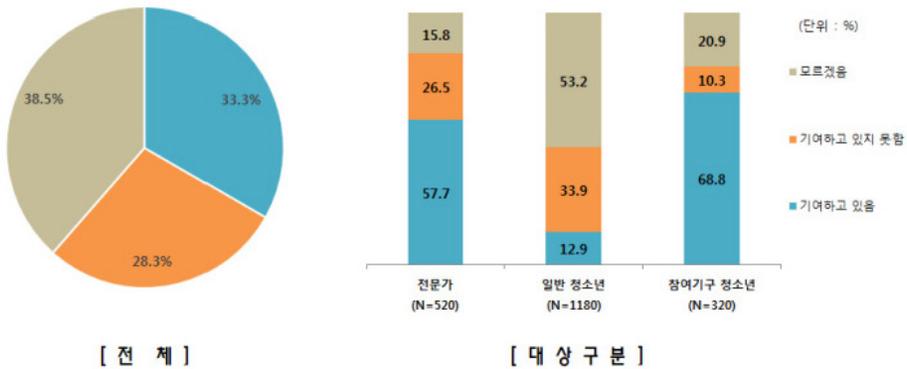


그림 III-28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표 III-39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2,020)	33.3	28.3	38.5	
전문가	(520)	57.7	26.5	15.8	
청소년	(1,500)	24.8	28.9	46.3	
일반 청소년	(1,180)	12.9	33.9	53.2	
참여기구 청소년	(320)	68.8	10.3	20.9	
성별	남자	(741)	20.4	30.8	48.9
	여자	(759)	29.1	27.0	43.9
연령	9~12세	(215)	16.3	27.0	56.7
	13~18세	(788)	32.9	29.7	37.4
	19~24세	(497)	15.7	28.4	55.9

㉞ 향후 참여 의향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향후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0.3%는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2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1.0%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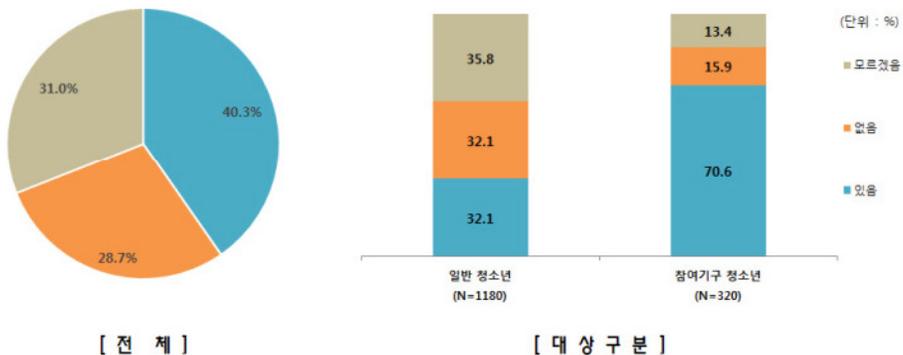


그림 III-29 청소년운영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표 III-40 청소년운영위원회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40.3	28.7	31.0
일반 청소년	(1,180)	32.1	32.1	35.8
참여기구 청소년	(320)	70.6	15.9	13.4
성별	남자 (741)	37.0	31.3	31.7
	여자 (759)	43.6	26.1	30.3
연령	9~12세 (215)	39.1	25.1	35.8
	13~18세 (788)	51.0	22.8	26.1
	19~24세 (497)	23.9	39.4	36.6

㉔ 확대 필요성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전문가 응답자의 81.0%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9.6%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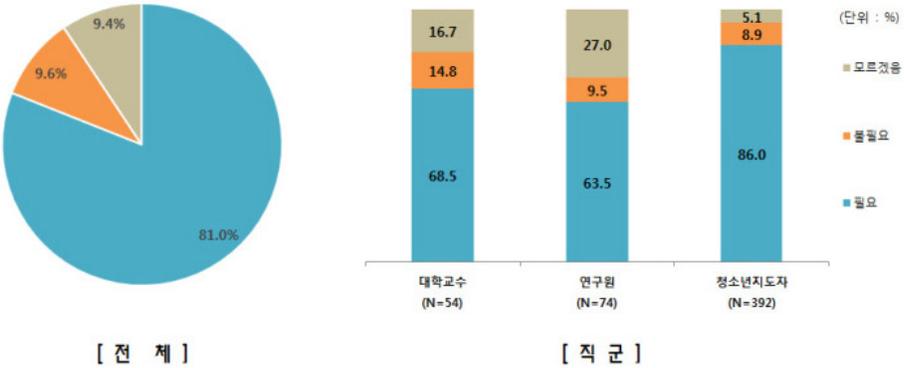


그림 III-30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필요성

표 III-41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필요성

구분	사례수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전체	(520)	81.0	9.6	9.4
직군	대학교수 (54)	68.5	14.8	16.7
	연구원 (74)	63.5	9.5	27.0
	청소년지도자 (392)	86.0	8.9	5.1

다. 청소년특별회의

㉞ 인지도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38.3%는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과반수인 61.7%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77.1%, 66.6%는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청소년은 13.6%만이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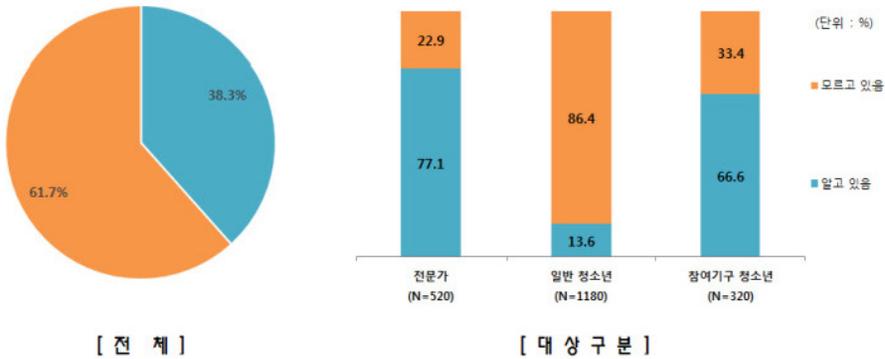


그림 III-31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

표 III-42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8.3	61.7
전문가	(520)	77.1	22.9
청소년	(1,500)	24.9	75.1
일반 청소년	(1,180)	13.6	86.4
참여기구 청소년	(320)	66.6	33.4
성별			
남자	(741)	23.9	76.1
여자	(759)	25.8	74.2
연령			
9~12세	(215)	11.6	88.4
13~18세	(788)	31.6	68.4
19~24세	(497)	19.9	80.1

㉔ 참여 경험

청소년특별회의 참여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37.5%는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62.5%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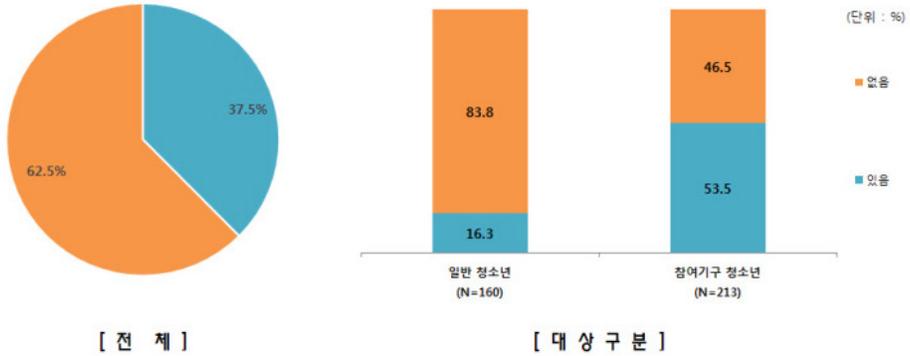


그림 III-32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경험

표 III-43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73)	37.5	62.5
일반 청소년	(160)	16.3	83.8
참여기구 청소년	(213)	53.5	46.5
성별	남자 (177)	37.9	62.1
	여자 (196)	37.2	62.8
연령	9~12세 (25)	20.0	80.0
	13~18세 (249)	41.4	58.6
	19~24세 (99)	32.3	67.7

㉔ 참여 만족도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9.3%는 청소년특별회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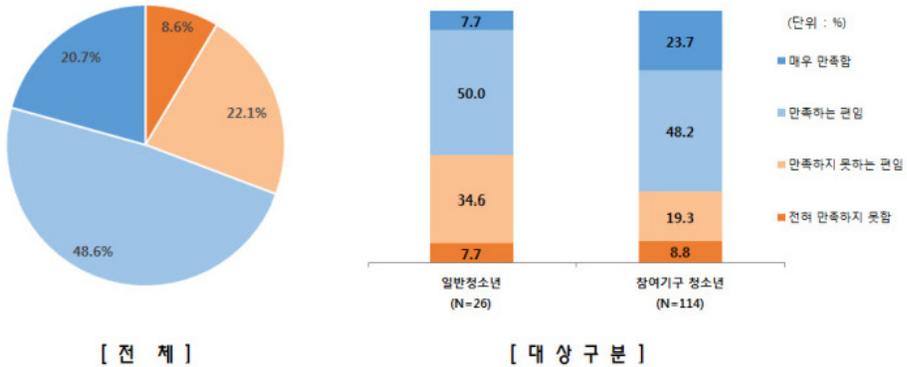


그림 Ⅲ-33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만족도

표 Ⅲ-44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40)	8.6	22.1	48.6	20.7	30.7	69.3	
일반 청소년	(26)	7.7	34.6	50.0	7.7	42.3	57.7	
참여기구 청소년	(114)	8.8	19.3	48.2	23.7	28.1	71.9	
성별	남자	(67)	11.9	29.9	37.3	20.9	41.8	58.2
	여자	(73)	5.5	15.1	58.9	20.5	20.5	79.5
연령	9~12세	(5)	-	-	60.0	40.0	-	100.0
	13~18세	(103)	8.7	21.4	46.6	23.3	30.1	69.9
	19~24세	(32)	9.4	28.1	53.1	9.4	37.5	62.5

㉔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의 자치권이란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23.5%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2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44.2%, 41.6%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9.4%만이 청소년특별회의가 자치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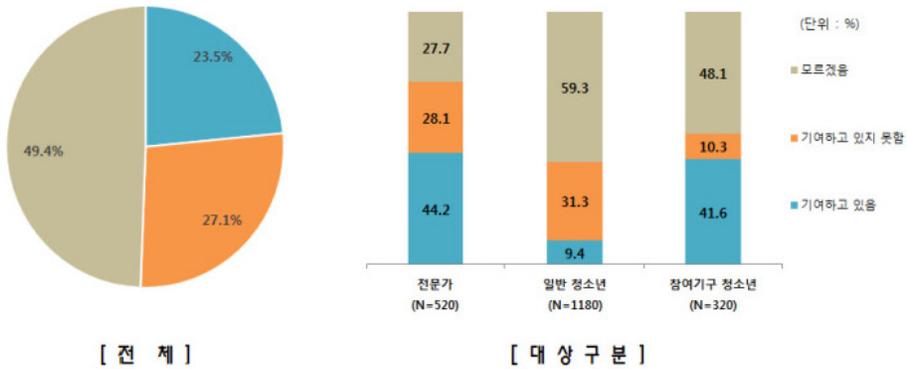


그림 III-34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표 III-45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2,020)	23.5	27.1	49.4
전문가	(520)	44.2	28.1	27.7
청소년	(1,500)	16.3	26.8	56.9
일반 청소년	(1,180)	9.4	31.3	59.3
참여기구 청소년	(320)	41.6	10.3	48.1
성별				
남자	(741)	14.7	27.7	57.6
여자	(759)	17.8	26.0	56.3
연령				
9~12세	(215)	8.8	27.4	63.7
13~18세	(788)	20.9	27.9	51.1
19~24세	(497)	12.1	24.7	63.2

㉞ 향후 참여 의향

청소년특별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9.6%는 향후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0.9%는 참여할 의향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39.5%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35 청소년특별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

표 III-46 청소년특별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29.6	30.9	39.5	
일반 청소년	(1,180)	25.3	33.5	41.2	
참여기구 청소년	(320)	45.3	21.3	33.4	
성별	남자	(741)	28.7	33.3	37.9
	여자	(759)	30.4	28.5	41.1
연령	9~12세	(215)	29.8	26.0	44.2
	13~18세	(788)	35.0	28.4	36.5
	19~24세	(497)	20.9	36.8	42.3

㉞ 확대 필요성

청소년특별회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의 73.3%는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9.8%는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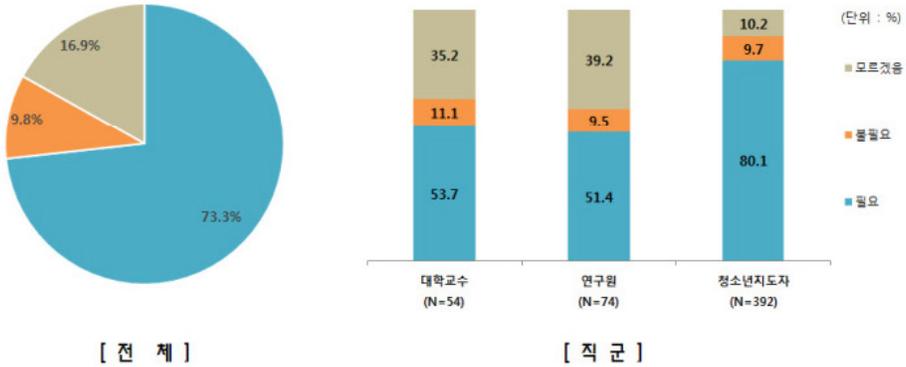


그림 Ⅲ-36 청소년특별회의의 확대 필요성

표 Ⅲ-47 청소년특별회의의 확대 필요성

구분	사례수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전체	(520)	73.3	9.8	16.9	
직군	대학교수	(54)	53.7	11.1	35.2
	연구원	(74)	51.4	9.5	39.2
	청소년지도자	(392)	80.1	9.7	10.2

라. 학급회의

㉞ 인지도

학급회의의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84.8%는 학급회의에 대해 알고 있었고 15.2%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90.2%, 89.7%가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도 81.0%가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참여기구 가운데 학급회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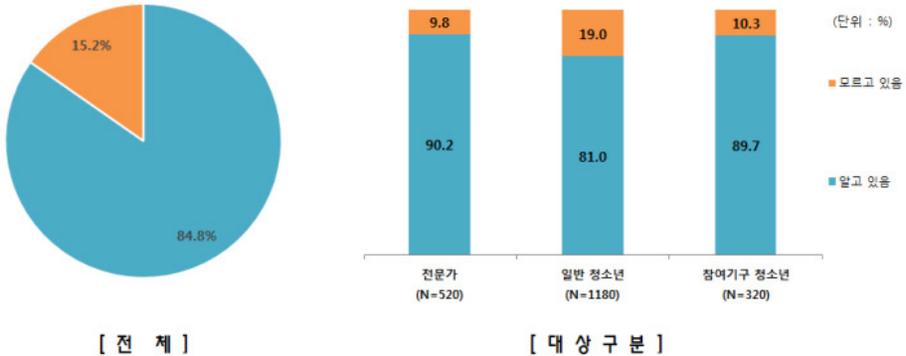


그림 III-37 학급회의 인지도

표 III-48 학급회의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84.8	15.2
전문가	(520)	90.2	9.8
청소년	(1,500)	82.9	17.1
일반 청소년	(1,180)	81.0	19.0
참여기구 청소년	(320)	89.7	10.3
성별			
남자	(741)	81.2	18.8
여자	(759)	84.5	15.5
연령			
9~12세	(215)	79.5	20.5
13~18세	(788)	85.5	14.5
19~24세	(497)	80.1	19.9

㉔ 참여 경험

학급회의 참여 경험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3.7%는 참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36.3%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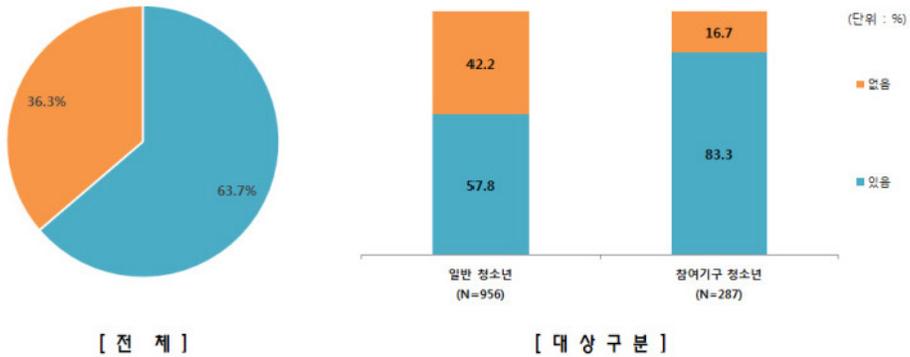


그림 III-38 학급회의 참여 경험

표 III-49 학급회의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243)	63.7	36.3
일반 청소년	(956)	57.8	42.2
참여기구 청소년	(287)	83.3	16.7
성별	남자 (602)	60.5	39.5
	여자 (641)	66.8	33.2
연령	9~12세 (171)	56.1	43.9
	13~18세 (674)	62.3	37.7
	19~24세 (398)	69.3	30.7

㊸ 참여 만족도

학급회의의 참여 만족도에 있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0.5%는 만족도를, 나머지 39.5%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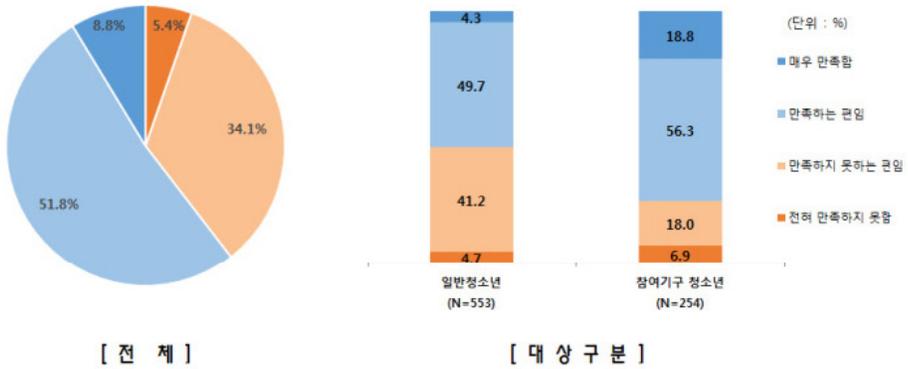


그림 Ⅲ-39 학급회의의 참여 만족도

표 Ⅲ-50 학급회의의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798)	5.4	34.1	51.8	8.8	39.5	60.5	
일반 청소년	(553)	4.7	41.2	49.7	4.3	45.9	54.1	
참여기구 청소년	(245)	6.9	18.0	56.3	18.8	24.9	75.1	
성별	남자	(365)	5.5	33.7	52.3	8.5	39.2	60.8
	여자	(433)	5.3	34.4	51.3	9.0	39.7	60.3
연령	9~12세	(96)	2.1	33.3	61.5	3.1	35.4	64.6
	13~18세	(425)	4.7	28.7	53.6	12.9	33.4	66.6
	19~24세	(277)	7.6	42.6	45.5	4.3	50.2	49.8

㉔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학급회의의 기여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37.4%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1.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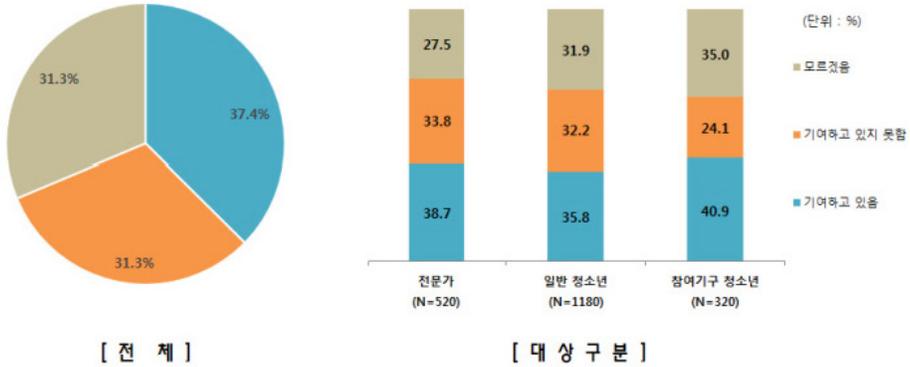


그림 Ⅲ-40 학급회의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표 Ⅲ-51 학급회의의 청소년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2,020)	37.4	31.3	31.3
전문가	(520)	38.7	33.8	27.5
청소년	(1,500)	36.9	30.5	32.6
일반 청소년	(1,180)	35.8	32.2	31.9
참여기구 청소년	(320)	40.9	24.1	35.0
성별				
남자	(741)	34.3	33.9	31.8
여자	(759)	39.5	27.1	33.3
연령				
9~12세	(215)	43.7	24.7	31.6
13~18세	(788)	40.2	30.6	29.2
19~24세	(497)	28.8	32.8	38.4

㉞ 향후 참여 의향

학급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1.7%는 긍정적 답변을, 30.0%는 부정적 답변을, 그리고 28.3%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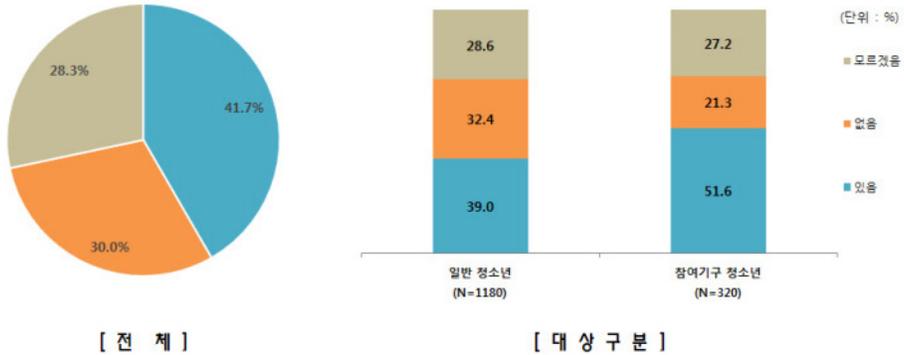


그림 III-41 학급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

표 III-52 학급회의의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41.7	30.0	28.3
일반 청소년	(1,180)	39.0	32.4	28.6
참여기구 청소년	(320)	51.6	21.3	27.2
성별	남자 (741)	41.8	30.0	28.2
	여자 (759)	41.5	30.0	28.5
연령	9~12세 (215)	49.3	22.3	28.4
	13~18세 (788)	49.7	24.4	25.9
	19~24세 (497)	25.6	42.3	32.2

㉔ 확대 필요성

학급회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의 69.6%는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12.1%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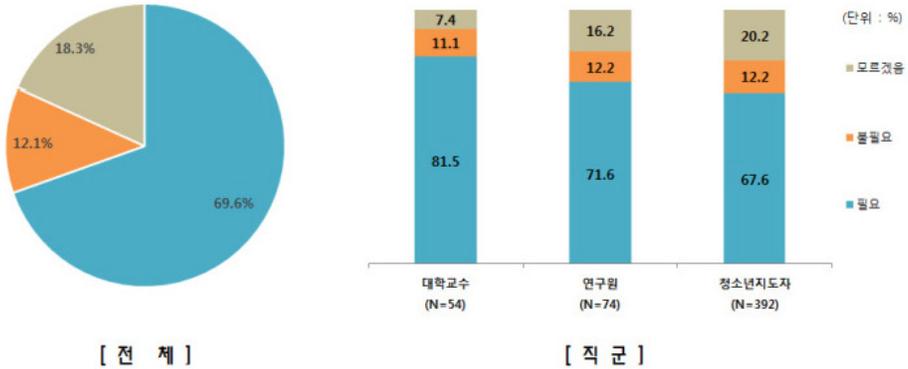


그림 Ⅲ-42 학급회의의 확대 필요성

표 Ⅲ-53 학급회의의 확대 필요성

구분	사례수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전체	(520)	69.6	12.1	18.3
직군	대학교수 (54)	81.5	11.1	7.4
	연구원 (74)	71.6	12.2	16.2
	청소년지도자 (392)	67.6	12.2	20.2

㉕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 찬성/반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4%는 찬성 의견을, 13.6%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가운데 92.1%는 찬성 의견을, 청소년 응답자 역시 84.4%(일반 청소년 81.4%, 참여기구 청소년 95.3%)는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였다. 청소년 가운데 특히 참여기구 청소년의 찬성률은 95.3%로 일반 청소년의 81.4%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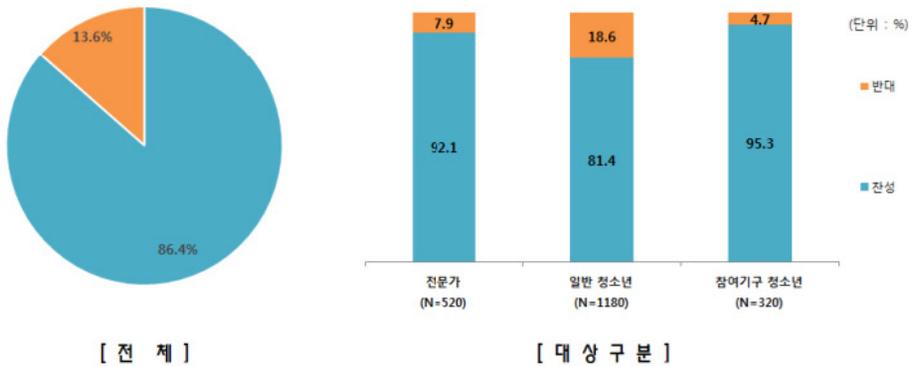


그림 Ⅲ-43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 찬성/반대

표 Ⅲ-54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 찬성/반대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2,020)	86.4	13.6	
전문가	(520)	92.1	7.9	
청소년	(1,500)	84.4	15.6	
일반 청소년	(1,180)	81.4	18.6	
참여기구 청소년	(320)	95.3	4.7	
성별	남자	(741)	84.2	15.8
	여자	(759)	84.6	15.4
연령	9~12세	(215)	80.9	19.1
	13~18세	(788)	87.6	12.4
	19~24세	(497)	80.9	19.1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청소년 가운데 참여 포털에서 실제로 활동할 의향을 가진 경우는 전체의 76.1%에 달했고 반대로 활동 의향이 없는 경우는 23.9%로 나타났다.

표 III-55 청소년 온라인 참여 포털 활동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266)	76.1	23.9	
일반 청소년	(961)	71.9	28.1	
참여기구 청소년	(305)	89.5	10.5	
성별	남자	(624)	75.0	25.0
	여자	(642)	77.3	22.7
연령	9~12세	(174)	74.1	25.9
	13~18세	(690)	84.5	15.5
	19~24세	(402)	62.7	37.3

⑦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

가.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형태로 사회문제에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은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6.6%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3.4%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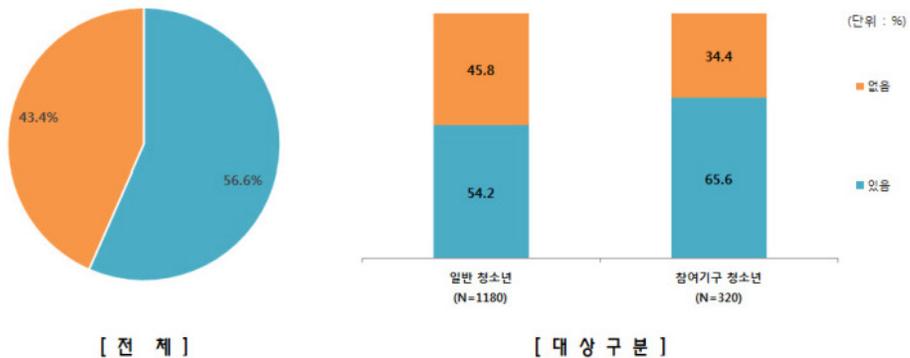


그림 III-44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참여 경험

표 III-56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6.6	43.4
일반 청소년	(1,180)	54.2	45.8
참여기구 청소년	(320)	65.6	34.4
성별	남자 (741)	54.3	45.7
	여자 (759)	58.9	41.1
연령	9~12세 (215)	55.3	44.7
	13~18세 (788)	58.9	41.1
	19~24세 (497)	53.5	46.5

향후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형태로 의견을 제시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7.7%는 긍정적으로, 20.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21.6%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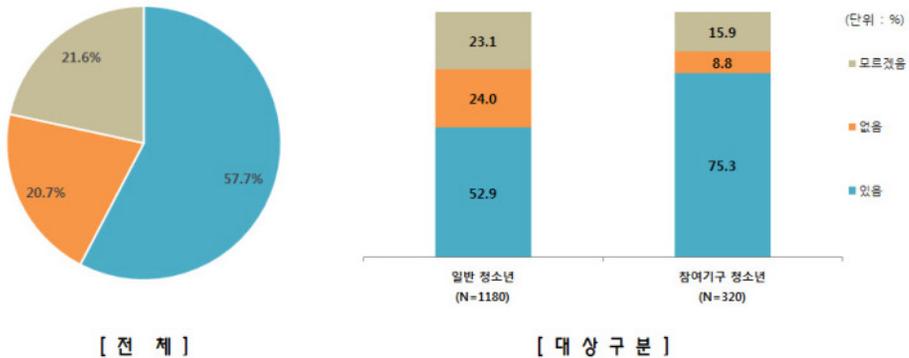


그림 Ⅲ-45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향후 참여 의향

표 Ⅲ-57 SNS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57.7	20.7	21.6
일반 청소년	(1,180)	52.9	24.0	23.1
참여기구 청소년	(320)	75.3	8.8	15.9
성별	남자 (741)	54.7	22.1	23.2
	여자 (759)	60.6	19.4	20.0
연령	9~12세 (215)	60.9	22.3	16.7
	13~18세 (788)	64.2	17.4	18.4
	19~24세 (497)	45.9	25.4	28.8

나.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2.3%에 달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7.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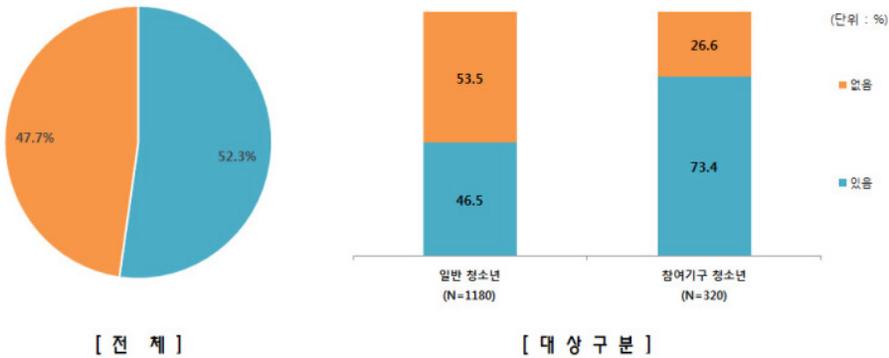


그림 III-46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참여 경험

표 III-5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2.3	47.7	
일반 청소년	(1,180)	46.5	53.5	
참여기구 청소년	(320)	73.4	26.6	
성별	남자	(741)	46.4	53.6
	여자	(759)	58.0	42.0
연령	9~12세	(215)	43.7	56.3
	13~18세	(788)	59.4	40.6
	19~24세	(497)	44.7	55.3

향후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1.1%에 달했고 19.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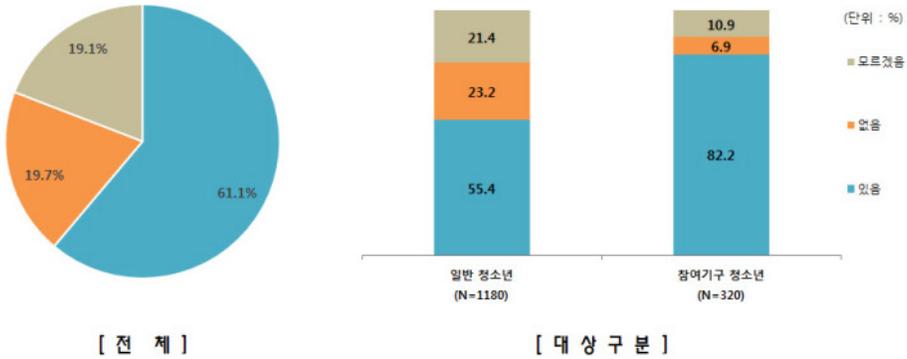


그림 Ⅲ-47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향후 참여 의향

표 Ⅲ-5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물품 착용/부착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61.1	19.7	19.1
일반 청소년	(1,180)	55.4	23.2	21.4
참여기구 청소년	(320)	82.2	6.9	10.9
성별	남자 (741)	55.5	24.2	20.4
	여자 (759)	66.7	15.4	17.9
연령	9~12세 (215)	62.3	20.0	17.7
	13~18세 (788)	66.1	17.9	16.0
	19~24세 (497)	52.7	22.5	24.7

다.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4.1%에 달했고 나머지 25.9%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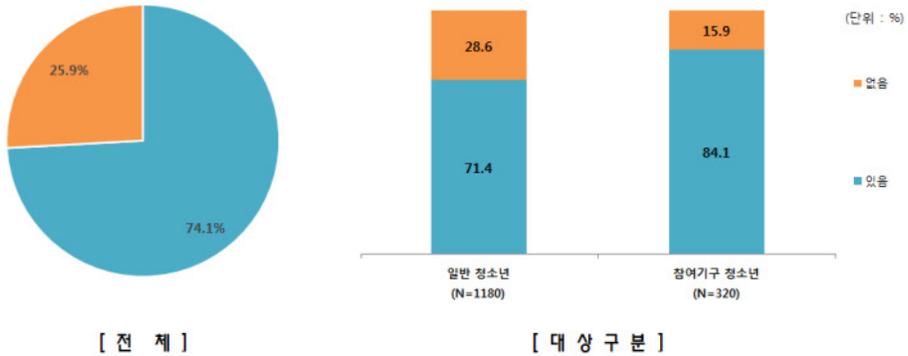


그림 III-48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경험

표 III-60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74.1	25.9
일반 청소년	(1,180)	71.4	28.6
참여기구 청소년	(320)	84.1	15.9
성별	남자 (741)	71.0	29.0
	여자 (759)	77.2	22.8
연령	9~12세 (215)	74.0	26.0
	13~18세 (788)	77.9	22.1
	19~24세 (497)	68.2	31.8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에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0.1%에 달했고 13.7%는 참여 의향이 없었다. 나머지 16.2%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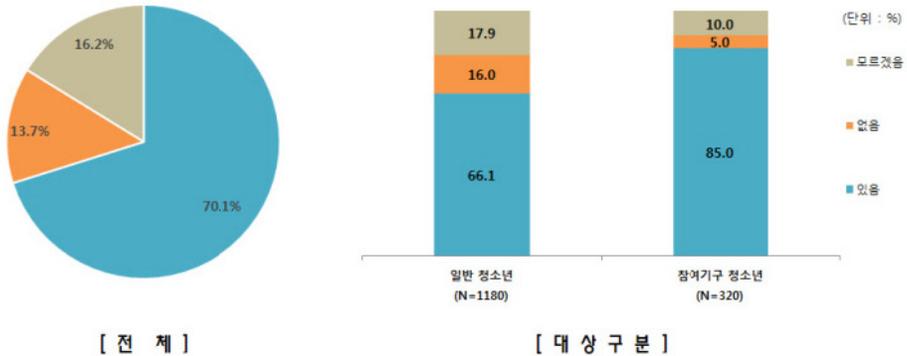


그림 Ⅲ-49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참여 의향

표 Ⅲ-61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70.1	13.7	16.2
일반 청소년	(1,180)	66.1	16.0	17.9
참여기구 청소년	(320)	85.0	5.0	10.0
성별	남자 (741)	67.6	15.1	17.3
	여자 (759)	72.6	12.3	15.2
연령	9~12세 (215)	74.4	13.5	12.1
	13~18세 (788)	75.3	12.1	12.7
	19~24세 (497)	60.2	16.3	23.5

라.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경험에 대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3.7%는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6.3%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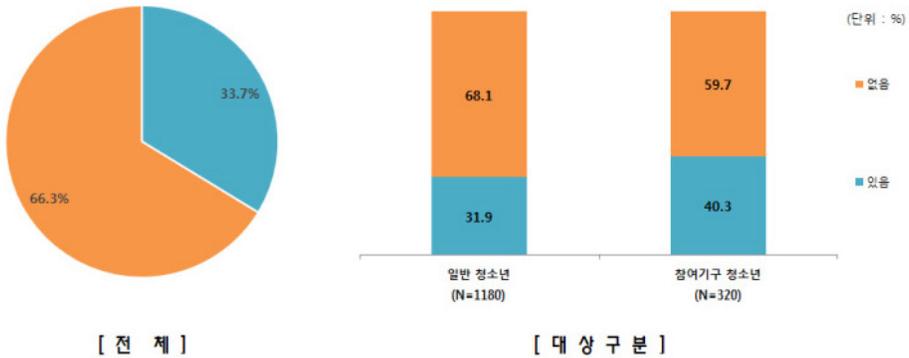


그림 III-50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경험

표 III-62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경험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33.7	66.3
일반 청소년	(1,180)	31.9	68.1
참여기구 청소년	(320)	40.3	59.7
성별	남자 (741)	34.5	65.5
	여자 (759)	32.9	67.1
연령	9~12세 (215)	36.3	63.7
	13~18세 (788)	35.5	64.5
	19~24세 (497)	29.8	70.2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에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5.0%는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에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7.2%는 참여할 의향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8%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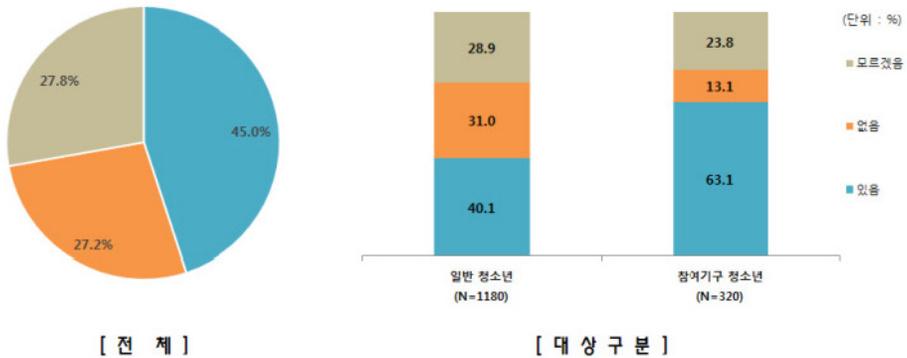


그림 III-51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참여 의향

표 III-63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45.0	27.2	27.8	
일반 청소년	(1,180)	40.1	31.0	28.9	
참여기구 청소년	(320)	63.1	13.1	23.8	
성별	남자	(741)	42.2	31.3	26.5
	여자	(759)	47.7	23.2	29.1
연령	9~12세	(215)	43.7	23.7	32.6
	13~18세	(788)	49.4	25.9	24.7
	19~24세	(497)	38.6	30.8	30.6

마. 향의 전화하기

‘향의 전화하기’ 참여 경험에 대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1.7%는 향의 전화하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8.3%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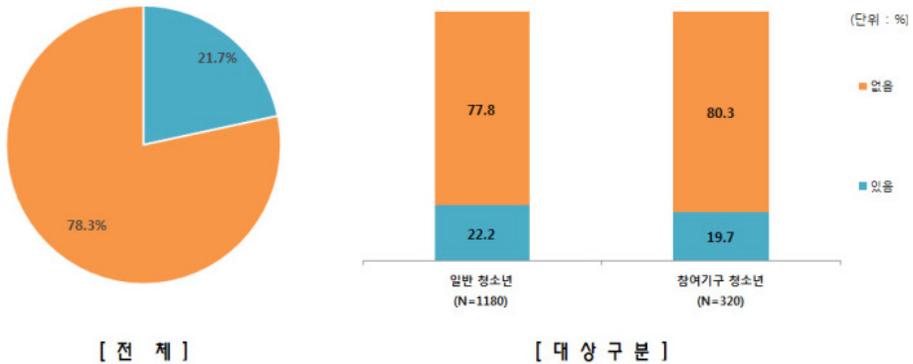


그림 III-52 향의 전화하기 참여 경험

표 III-64 향의 전화하기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21.7	78.3
일반 청소년	(1,180)	22.2	77.8
참여기구 청소년	(320)	19.7	80.3
성별	남자 (741)	22.0	78.0
	여자 (759)	21.3	78.7
연령	9~12세 (215)	20.9	79.1
	13~18세 (788)	21.3	78.7
	19~24세 (497)	22.5	77.5

'항의 전화하기'에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2.9%는 항의 전화하기에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5.6%는 참여할 의향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5%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Ⅲ-53 항의 전화하기 참여 의향

표 Ⅲ-65 항의 전화하기 향후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1,500)	32.9	35.6	31.5
일반 청소년	(1,180)	31.0	37.4	31.6
참여기구 청소년	(320)	40.0	29.1	30.9
성별	남자 (741)	32.5	37.2	30.2
	여자 (759)	33.3	34.0	32.7
연령	9~12세 (215)	34.9	34.4	30.7
	13~18세 (788)	33.6	35.2	31.2
	19~24세 (497)	31.0	36.8	32.2

(4)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활동)

① 청소년들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5%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8.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여기구 청소년의 44.7%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경우 2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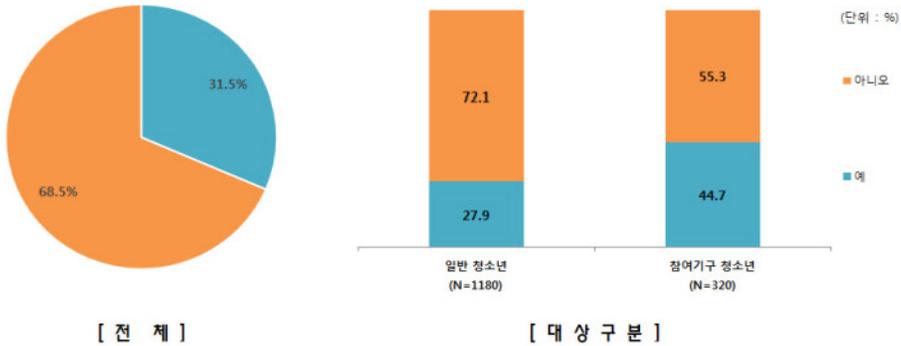


그림 III-54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표 III-66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500)	31.5	68.5
일반 청소년	(1,180)	27.9	72.1
참여기구 청소년	(320)	44.7	55.3
성별	남자 (741)	33.9	66.1
	여자 (759)	29.1	70.9
연령	9~12세 (215)	21.9	78.1
	13~18세 (788)	31.1	68.9
	19~24세 (497)	36.2	63.8

②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3.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나머지 66.1%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일반 청소년의 29.2%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 보장 실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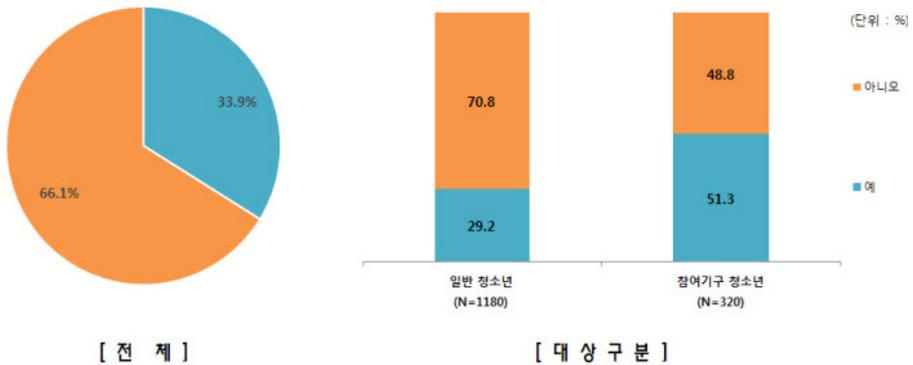


그림 III-55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표 III-67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500)	33.9	66.1
일반 청소년	(1,180)	29.2	70.8
참여기구 청소년	(320)	51.3	48.8
성별	남자 (741)	33.2	66.8
	여자 (759)	34.5	65.5
연령	9~12세 (215)	25.6	74.4
	13~18세 (788)	36.3	63.7
	19~24세 (497)	33.6	66.4

③ 청소년 참여 활동

가. 스포츠 활동

㉞ 참여 욕구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4.1%는 참여 욕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5.9%는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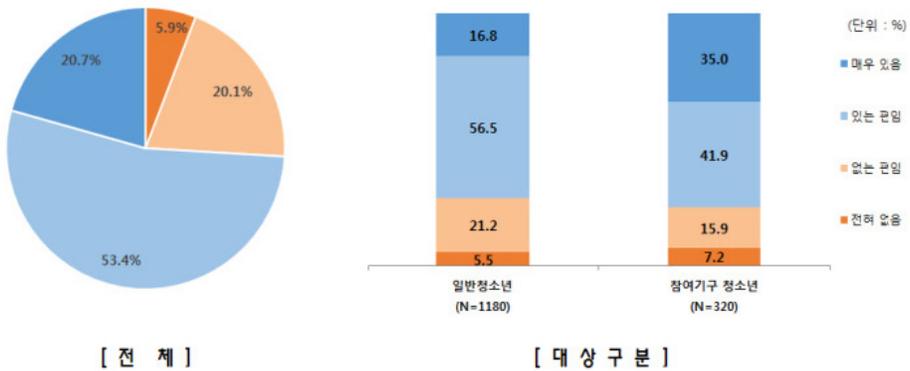


그림 III-56 스포츠 활동 참여 욕구

표 III-68 스포츠 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5.9	20.1	53.4	20.7	25.9	74.1	
일반 청소년	(1,180)	5.5	21.2	56.5	16.8	26.7	73.3	
참여기구 청소년	(320)	7.2	15.9	41.9	35.0	23.1	76.9	
성별	남자	(741)	5.8	19.4	53.6	21.2	25.2	74.8
	여자	(759)	5.9	20.7	53.2	20.2	26.6	73.4
연령	9~12세	(215)	2.3	15.3	63.7	18.6	17.7	82.3
	13~18세	(788)	4.7	19.9	52.3	23.1	24.6	75.4
	19~24세	(497)	9.3	22.3	50.7	17.7	31.6	68.4

㊤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2%는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6.8%는 충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5%로 나타난 반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1.4%(일반 청소년 51.1%, 참여기구 청소년 52.8%)는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해 인식 간의 괴리감이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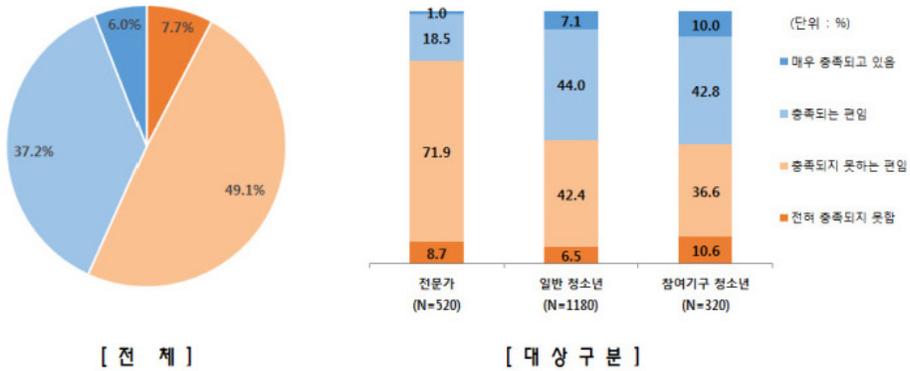


그림 III-57 스포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표 III-69 스포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7.7	49.1	37.2	6.0	56.8	43.2
전문가	(520)	8.7	71.9	18.5	1.0	80.6	19.4
청소년	(1,500)	7.4	41.1	43.7	7.7	48.5	51.5
일반 청소년	(1,180)	6.5	42.4	44.0	7.1	48.9	51.1
참여기구 청소년	(320)	10.6	36.6	42.8	10.0	47.2	52.8
성별							
남자	(741)	5.3	39.7	46.0	9.0	44.9	55.1
여자	(759)	9.5	42.6	41.5	6.5	52.0	48.0
연령							
9~12세	(215)	2.3	39.5	53.5	4.7	41.9	58.1
13~18세	(788)	6.5	41.6	43.0	8.9	48.1	51.9
19~24세	(497)	11.1	41.0	40.6	7.2	52.1	47.9

나. 문화 및 예술 활동

㉞ 참여 욕구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81.8%는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8.2%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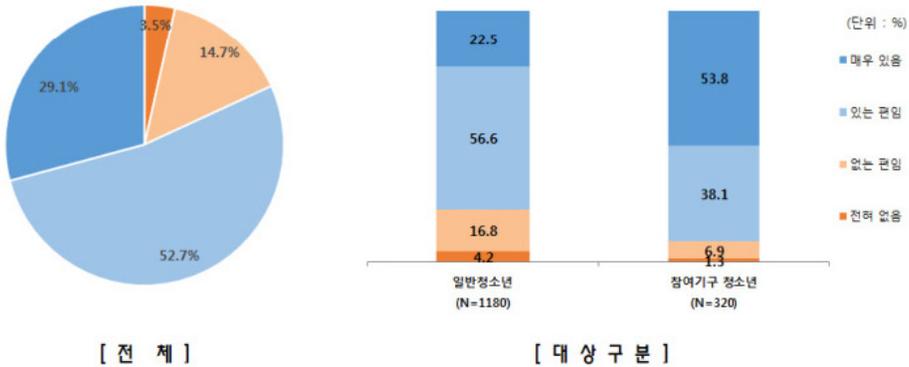


그림 III-58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 욕구

표 III-70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3.5	14.7	52.7	29.1	18.2	81.8	
일반 청소년	(1,180)	4.2	16.8	56.6	22.5	20.9	79.1	
참여기구 청소년	(320)	1.3	6.9	38.1	53.8	8.1	91.9	
성별	남자	(741)	3.4	16.7	54.3	25.6	20.1	79.9
	여자	(759)	3.7	12.6	51.1	32.5	16.3	83.7
연령	9~12세	(215)	2.3	16.7	59.5	21.4	19.1	80.9
	13~18세	(788)	3.3	12.9	52.8	31.0	16.2	83.8
	19~24세	(497)	4.4	16.5	49.5	29.6	20.9	79.1

㉔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5.2%는 문화 및 예술 활동이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가운데 청소년의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30.9%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당사자들이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0.1%(일반 청소년 48.1%, 참여기구 청소년 57.8%)로 나타났다. 충족 실태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인식이 전문가에 비해 더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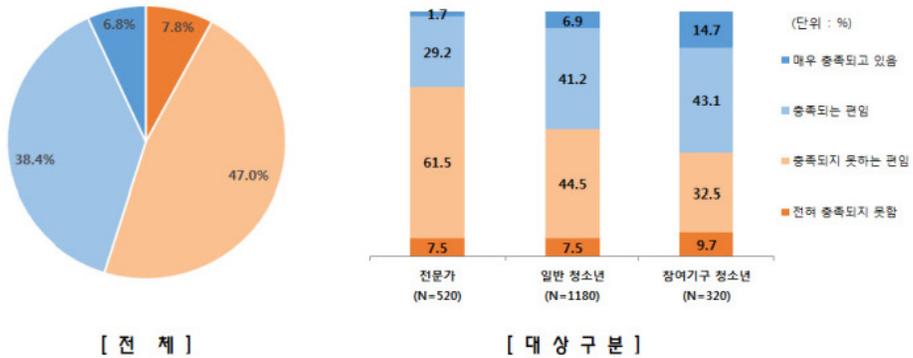


그림 III-59 문화 및 예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표 III-71 문화 및 예술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7.8	47.0	38.4	6.8	54.8	45.2
전문가	(520)	7.5	61.5	29.2	1.7	69.0	31.0
청소년	(1,500)	7.9	41.9	41.6	8.5	49.9	50.1
일반 청소년	(1,180)	7.5	44.5	41.2	6.9	51.9	48.1
참여기구 청소년	(320)	9.7	32.5	43.1	14.7	42.2	57.8
성별							
남자	(741)	7.8	40.9	42.4	8.9	48.7	51.3
여자	(759)	8.0	43.0	40.8	8.2	51.0	49.0
연령							
9~12세	(215)	3.3	49.8	41.4	5.6	53.0	47.0
13~18세	(788)	7.5	44.2	39.8	8.5	51.6	48.4
19~24세	(497)	10.7	35.0	44.5	9.9	45.7	54.3

다. 학습 및 훈련 활동(교육 방면)

㉞ 참여 욕구

학습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5.9%는 욕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24.1%는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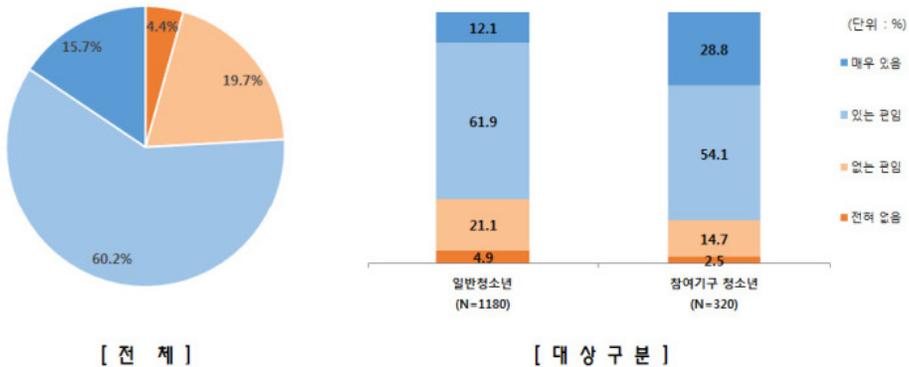


그림 Ⅲ-60 학습 및 훈련 활동 참여 욕구

표 Ⅲ-72 학습 및 훈련 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4.4	19.7	60.2	15.7	24.1	75.9	
일반 청소년	(1,180)	4.9	21.1	61.9	12.1	26.0	74.0	
참여기구 청소년	(320)	2.5	14.7	54.1	28.8	17.2	82.8	
성별	남자	(741)	5.4	21.7	58.7	14.2	27.1	72.9
	여자	(759)	3.4	17.8	61.7	17.1	21.2	78.8
연령	9~12세	(215)	2.3	14.9	67.9	14.9	17.2	82.8
	13~18세	(788)	2.3	19.8	60.9	17.0	22.1	77.9
	19~24세	(497)	8.7	21.7	55.7	13.9	30.4	69.6

㉔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학습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1%는 학습 및 훈련 활동이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9.9%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가운데 학습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72.5%로 나타난 반면, 학습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55.9%(일반 청소년 52.3%, 참여기구 청소년 6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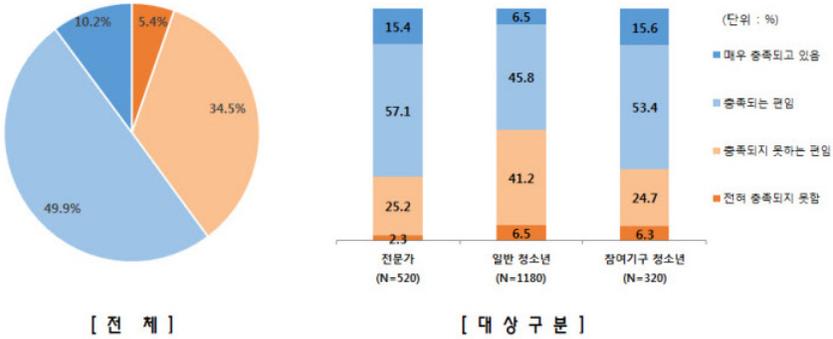


그림 III-61 학습 및 훈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표 III-73 학습 및 훈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5.4	34.5	49.9	10.2	39.9	60.1
전문가	(520)	2.3	25.2	57.1	15.4	27.5	72.5
청소년	(1,500)	6.5	37.7	47.4	8.5	44.1	55.9
일반 청소년	(1,180)	6.5	41.2	45.8	6.5	47.7	52.3
참여기구 청소년	(320)	6.3	24.7	53.4	15.6	30.9	69.1
성별							
남자	(741)	5.9	37.2	47.5	9.3	43.2	56.8
여자	(759)	7.0	38.1	47.3	7.6	45.1	54.9
연령							
9~12세	(215)	2.3	45.1	48.4	4.2	47.4	52.6
13~18세	(788)	4.4	39.2	47.1	9.3	43.7	56.3
19~24세	(497)	11.5	32.0	47.5	9.1	43.5	56.5

라. 경제 활동(아르바이트, 취직 등)

㉞ 참여 욕구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4.5%는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5.5%는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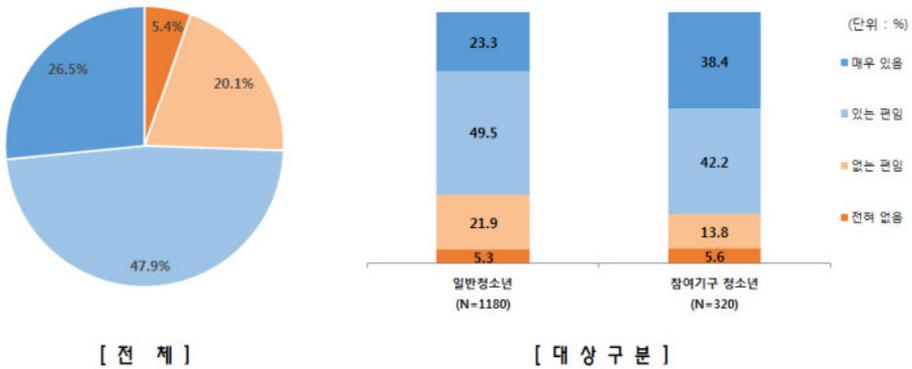


그림 III-62 경제 활동 참여 욕구

표 III-74 경제 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5.4	20.1	47.9	26.5	25.5	74.5	
일반 청소년	(1,180)	5.3	21.9	49.5	23.3	27.2	72.8	
참여기구 청소년	(320)	5.6	13.8	42.2	38.4	19.4	80.6	
성별	남자	(741)	6.3	22.3	47.6	23.8	28.6	71.4
	여자	(759)	4.5	18.1	48.2	29.2	22.5	77.5
연령	9~12세	(215)	4.7	25.1	49.8	20.5	29.8	70.2
	13~18세	(788)	6.2	23.1	47.1	23.6	29.3	70.7
	19~24세	(497)	4.4	13.3	48.5	33.8	17.7	82.3

㊤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경제 활동이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6%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67.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가운데 경제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11.7%로, 청소년 가운데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9.9%(일반 청소년 41.9%, 참여기구 청소년 3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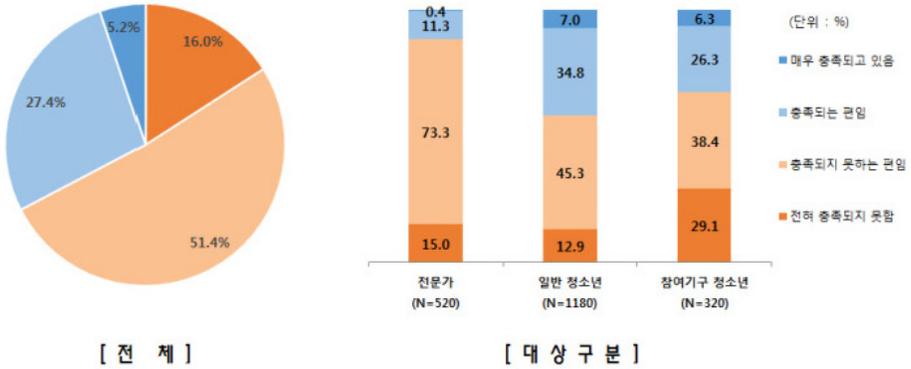


그림 III-63 경제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표 III-75 경제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16.0	51.4	27.4	5.2	67.4	32.6
전문가	(520)	15.0	73.3	11.3	0.4	88.3	11.7
청소년	(1,500)	16.3	43.8	33.0	6.9	60.1	39.9
일반 청소년	(1,180)	12.9	45.3	34.8	7.0	58.1	41.9
참여기구 청소년	(320)	29.1	38.4	26.3	6.3	67.5	32.5
성별							
남자	(741)	15.5	45.1	32.8	6.6	60.6	39.4
여자	(759)	17.1	42.6	33.2	7.1	59.7	40.3
연령							
9~12세	(215)	7.4	51.6	36.3	4.7	59.1	40.9
13~18세	(788)	21.6	43.7	29.4	5.3	65.2	34.8
19~24세	(497)	11.9	40.6	37.2	10.3	52.5	47.5

라.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㉞ 참여 욕구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6.6%는 있다고, 나머지 23.4%는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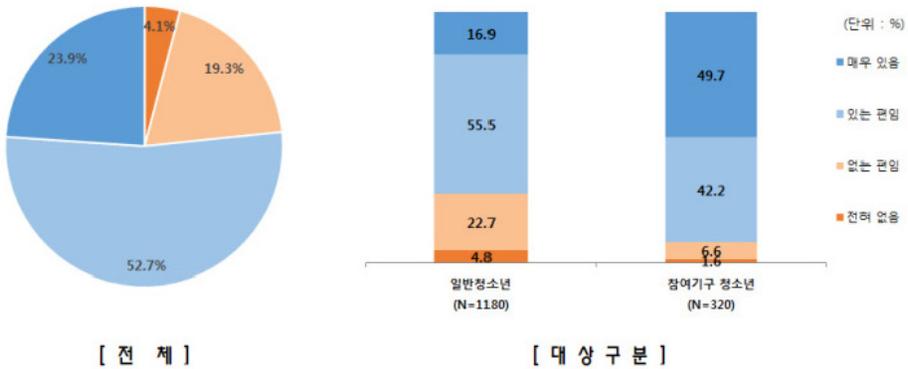


그림 III-64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참여 욕구

표 III-76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4.1	19.3	52.7	23.9	23.4	76.6	
일반 청소년	(1,180)	4.8	22.7	55.5	16.9	27.5	72.5	
참여기구 청소년	(320)	1.6	6.6	42.2	49.7	8.1	91.9	
성별	남자	(741)	4.3	21.2	54.0	20.5	25.5	74.5
	여자	(759)	4.0	17.4	51.4	27.3	21.3	78.7
연령	9~12세	(215)	2.3	25.1	64.2	8.4	27.4	72.6
	13~18세	(788)	4.1	16.1	51.3	28.6	20.2	79.8
	19~24세	(497)	5.0	21.7	49.9	23.3	26.8	73.2

표 III-77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 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 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8.8	43.0	41.5	6.7	51.8	48.2
전문가	(520)	8.8	56.9	32.3	1.9	65.8	34.2
청소년	(1,500)	8.7	38.2	44.7	8.3	46.9	53.1
일반 청소년	(1,180)	9.1	41.8	42.8	6.4	50.8	49.2
참여기구 청소년	(320)	7.5	25.0	51.9	15.6	32.5	67.5
성별							
남자	(741)	9.3	37.7	43.7	9.3	47.0	53.0
여자	(759)	8.2	38.7	45.7	7.4	46.9	53.1
연령							
9~12세	(215)	5.1	44.7	47.9	2.3	49.8	50.2
13~18세	(788)	7.6	37.6	44.8	10.0	45.2	54.8
19~24세	(497)	12.1	36.4	43.3	8.2	48.5	51.5

바. 자원봉사활동

㉞ 참여 욕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의 경우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6.5%는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3.5%는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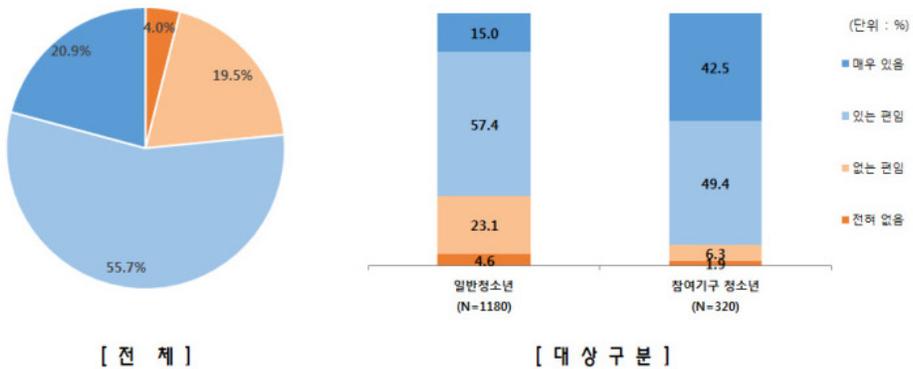


그림 III-66 자원봉사활동 참여 욕구

표 III-78 자원봉사활동 참여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4.0	19.5	55.7	20.9	23.5	76.5	
일반 청소년	(1,180)	4.6	23.1	57.4	15.0	27.6	72.4	
참여기구 청소년	(320)	1.9	6.3	49.4	42.5	8.1	91.9	
성별	남자	(741)	4.5	22.0	55.5	18.1	26.5	73.5
	여자	(759)	3.6	17.0	55.9	23.6	20.6	79.4
연령	9~12세	(215)	2.3	24.2	55.3	18.1	26.5	73.5
	13~18세	(788)	1.9	13.3	59.0	25.8	15.2	84.8
	19~24세	(497)	8.0	27.2	50.5	14.3	35.2	64.8

㉠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는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49.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일상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로 나타났고 전체 청소년 가운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48.2%에 그쳤다. 그러나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7.8%로 일반 청소년의 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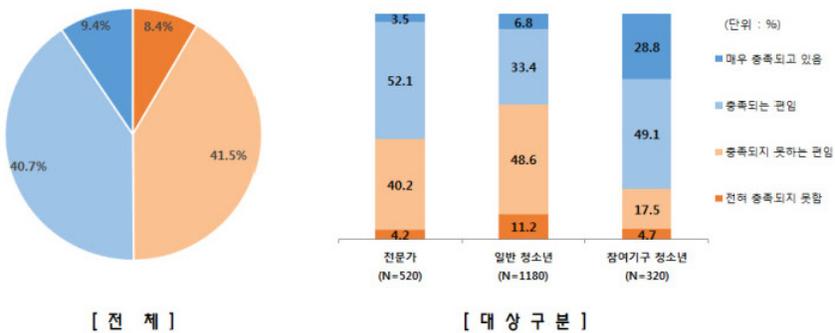


그림 III-67 자원봉사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표 III-79 자원봉사활동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8.4	41.5	40.7	9.4	49.9	50.1	
전문가	(520)	4.2	40.2	52.1	3.5	44.4	55.6	
청소년	(1,500)	9.8	42.0	36.7	11.5	51.8	48.2	
일반 청소년	(1,180)	11.2	48.6	33.4	6.8	59.8	40.2	
참여기구 청소년	(320)	4.7	17.5	49.1	28.8	22.2	77.8	
성별	남자	(741)	10.3	42.4	35.9	11.5	52.6	47.4
	여자	(759)	9.4	41.6	37.5	11.5	51.0	49.0
연령	9~12세	(215)	7.0	48.8	40.0	4.2	55.8	44.2
	13~18세	(788)	6.5	39.1	39.1	15.4	45.6	54.4
	19~24세	(497)	16.3	43.7	31.6	8.5	60.0	40.0

사. 가장 행복 기여도가 큰 활동

다양한 청소년활동 가운데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활동을 조사한 결과 '문화 및 예술 활동'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교 및 친목 도모 활동' 20.5%, '스포츠 활동' 18.3%, '경제 활동' 16.2% 등의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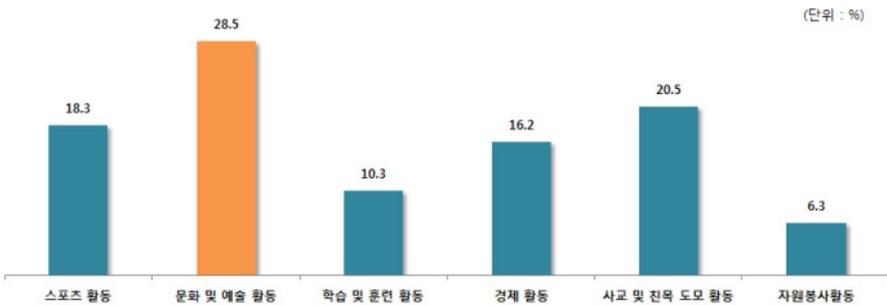


그림 III-68 가장 행복 기여도가 큰 활동

표 III-80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활동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	학습 및 훈련 활동	경제 활동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전체	(1,500)	18.3	28.5	10.3	16.2	20.5	6.3
일반 청소년	(1,180)	18.9	26.9	11.5	19.4	17.9	5.4
참여기구 청소년	(320)	15.9	34.4	5.6	4.4	30.0	9.7
성별	남자 (741)	20.5	25.9	10.1	17.0	19.0	7.4
	여자 (759)	16.1	31.0	10.4	15.4	21.9	5.3
연령	9~12세 (215)	17.7	31.2	14.9	18.1	14.0	4.2
	13~18세 (788)	22.0	27.8	10.0	9.4	22.7	8.1
	19~24세 (497)	12.7	28.4	8.7	26.2	19.7	4.4

아.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화 및 예술 활동'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25.4%, '스포츠 활동' 18.8%, '경제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5.0% 등의 순으로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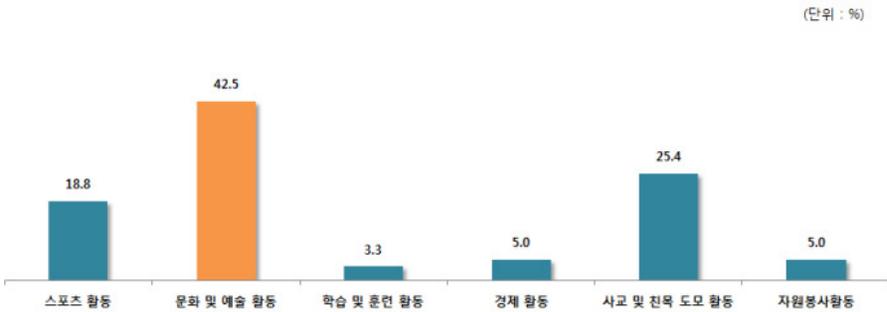


그림 III-69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

표 III-81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활동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	학습 및 훈련 활동	경제 활동	사고 및 친목 도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전체	(520)	18.8	42.5	3.3	5.0	25.4	5.0	
직군	대학교수	(54)	25.9	38.9	5.6	3.7	20.4	5.6
	연구원	(74)	36.5	33.8	5.4	4.1	18.9	1.4
	청소년지도자	(392)	14.5	44.6	2.6	5.4	27.3	5.6

④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

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㉞ 인지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5%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54.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각각 75.4%, 70.3%로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25.7%에 불과해 앞의 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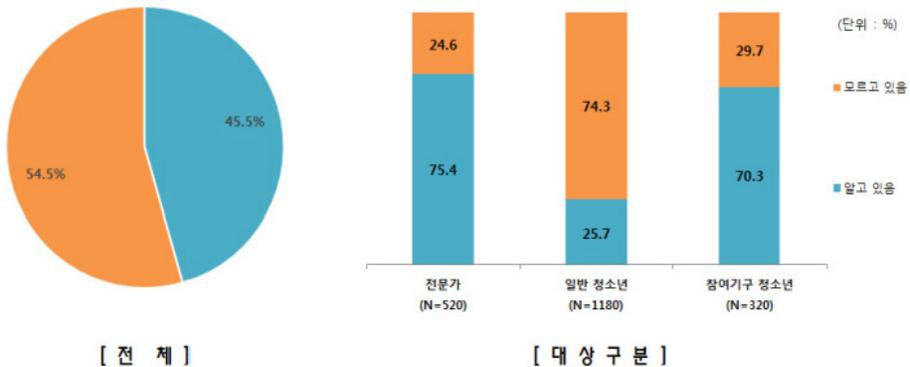


그림 III-70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인지도

표 III-8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45.5	54.5	
전문가	(520)	75.4	24.6	
청소년	(1,500)	35.2	64.8	
일반 청소년	(1,180)	25.7	74.3	
참여기구 청소년	(320)	70.3	29.7	
성별	남자	(741)	33.5	66.5
	여자	(759)	36.9	63.1
연령	9~12세	(215)	8.4	91.6
	13~18세	(788)	42.1	57.9
	19~24세	(497)	35.8	64.2

㉞ 이용 경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50.4%는 이용 경험이 있었고 49.6%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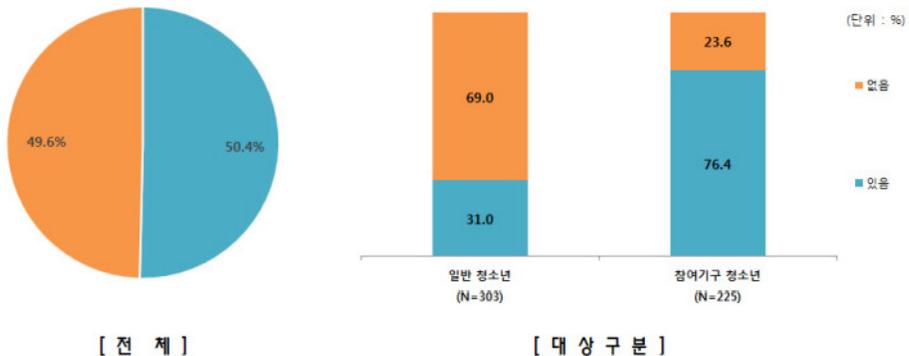


그림 III-7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표 III-83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8)	50.4	49.6	
일반 청소년	(303)	31.0	69.0	
참여기구 청소년	(225)	76.4	23.6	
성별	남자	(248)	49.2	50.8
	여자	(280)	51.4	48.6
연령	9~12세	(18)	27.8	72.2
	13~18세	(332)	57.2	42.8
	19~24세	(178)	39.9	60.1

㉔ 이용 만족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0.8%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머지 19.2%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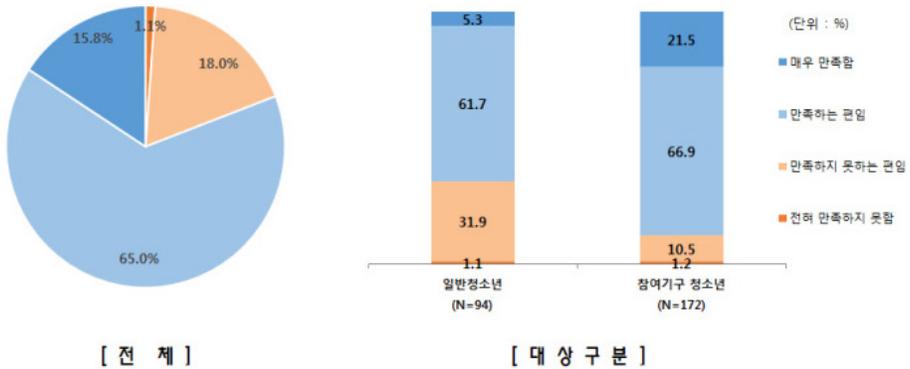


그림 III-7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만족도

표 III-8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66)	1.1	18.0	65.0	15.8	19.2	80.8
일반 청소년	(94)	1.1	31.9	61.7	5.3	33.0	67.0
참여기구 청소년	(172)	1.2	10.5	66.9	21.5	11.6	88.4
성별	남자	(122)	2.5	22.1	59.0	16.4	75.4
	여자	(144)	-	14.6	70.1	15.3	85.4
연령	9~12세	(5)	-	20.0	80.0	-	80.0
	13~18세	(190)	1.1	11.6	68.4	18.9	87.4
	19~24세	(71)	1.4	35.2	54.9	8.5	63.4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9.8%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40.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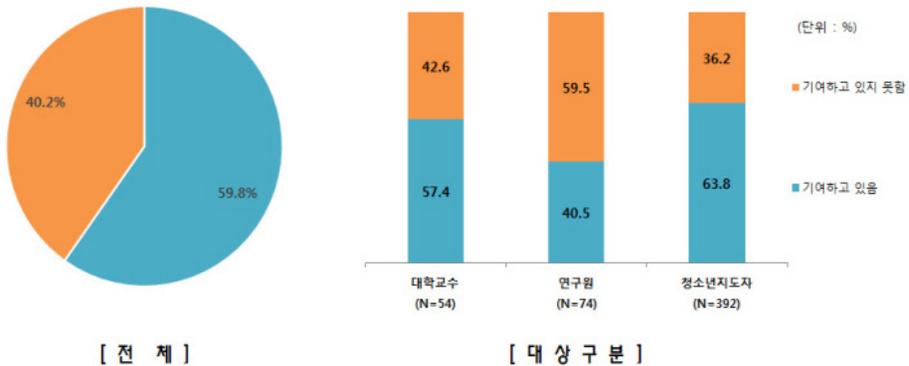


그림 III-73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8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59.8	40.2	
직군	대학교수	(54)	57.4	42.6
	연구원	(74)	40.5	59.5
	청소년지도자	(392)	63.8	36.2

나. 청소년자원봉사 DOVOL

㉞ 인지도

청소년자원봉사 DOVOL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9.2%는 청소년 자원봉사 DOVOL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나머지 50.8%는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중에서는 각각 84.6%, 84.4%가 해당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 청소년 중에서는 24.1%만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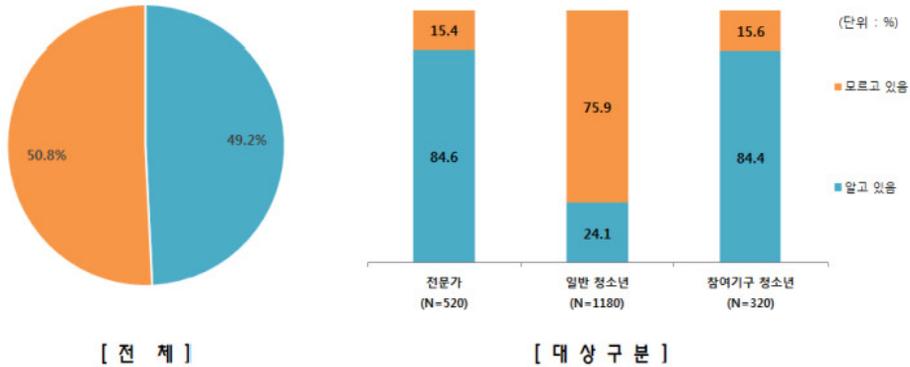


그림 III-74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인지도

표 III-86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49.2	50.8	
전문가	(520)	84.6	15.4	
청소년	(1,500)	36.9	63.1	
일반 청소년	(1,180)	24.1	75.9	
참여기구 청소년	(320)	84.4	15.6	
성별	남자	(741)	35.0	65.0
	여자	(759)	38.9	61.1
연령	9~12세	(215)	7.0	93.0
	13~18세	(788)	49.7	50.3
	19~24세	(497)	29.6	70.4

㊤ 참여 경험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의 참여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1.1%는 실제 참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28.9%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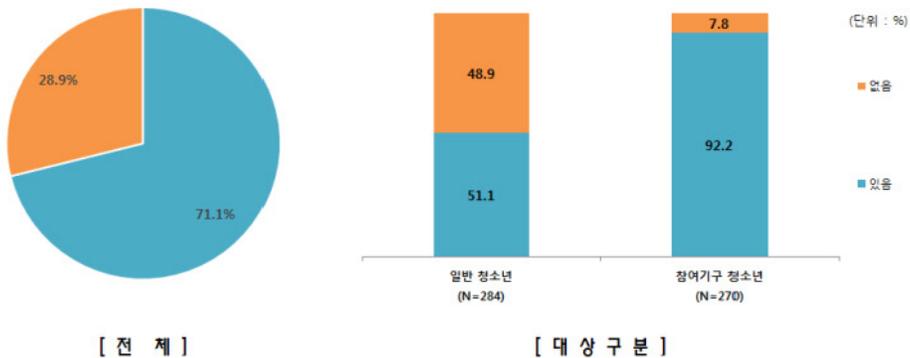


그림 III-75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경험

표 III-87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54)	71.1	28.9	
일반 청소년	(284)	51.1	48.9	
참여기구 청소년	(270)	92.2	7.8	
성별	남자	(259)	67.2	32.8
	여자	(295)	74.6	25.4
연령	9~12세	(15)	33.3	66.7
	13~18세	(392)	71.4	28.6
	19~24세	(147)	74.1	25.9

㊤ 참여 만족도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6.5%는 만족하였고 13.5%는 만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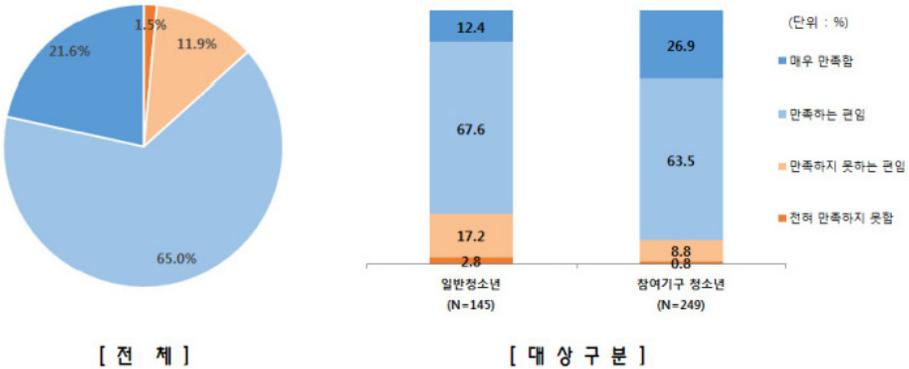


그림 III-76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만족도

표 III-88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94)	1.5	11.9	65.0	21.6	13.5	86.5	
일반 청소년	(145)	2.8	17.2	67.6	12.4	20.0	80.0	
참여기구 청소년	(249)	0.8	8.8	63.5	26.9	9.6	90.4	
성별	남자	(174)	2.3	14.4	63.2	20.1	16.7	83.3
	여자	(220)	0.9	10.0	66.4	22.7	10.9	89.1
연령	9~12세	(5)	-	-	60.0	40.0	-	100.0
	13~18세	(280)	1.1	10.0	63.9	25.0	11.1	88.9
	19~24세	(109)	2.8	17.4	67.9	11.9	20.2	79.8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73.7%는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6.3%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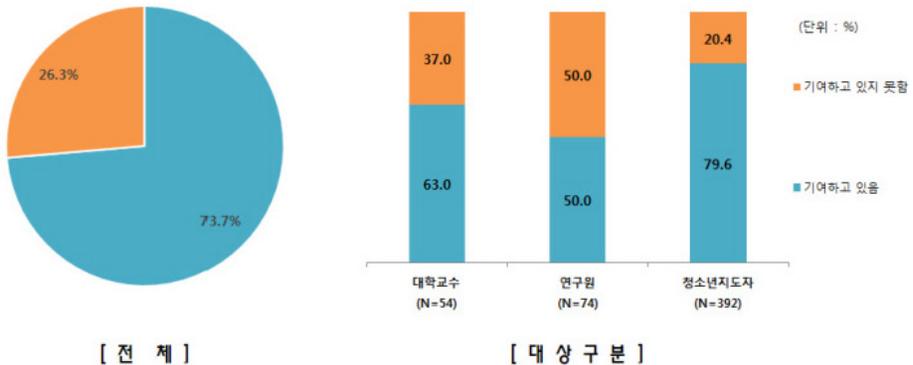


그림 III-77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89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73.7	26.3	
직군	대학교수	(54)	63.0	37.0
	연구원	(74)	50.0	50.0
	청소년지도자	(392)	79.6	20.4

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㉞ 인지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33.5%는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66.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79.8%, 45.9%가 인지도가 있었고 일반 청소년 중에서는 오직 9.7%만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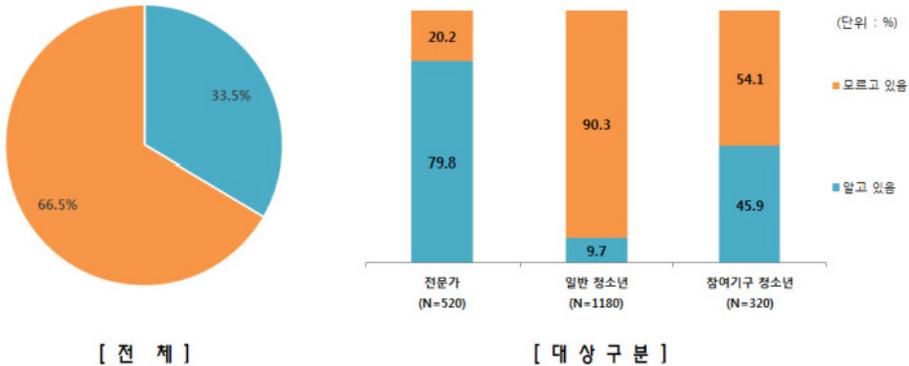


그림 III-7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지도

표 III-9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3.5	66.5	
전문가	(520)	79.8	20.2	
청소년	(1,500)	17.4	82.6	
일반 청소년	(1,180)	9.7	90.3	
참여기구 청소년	(320)	45.9	54.1	
성별	남자	(741)	16.1	83.9
	여자	(759)	18.7	81.3
연령	9~12세	(215)	3.3	96.7
	13~18세	(788)	23.4	76.6
	19~24세	(497)	14.1	85.9

㊤ 참여 경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참여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22.6.%만이 참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77.4%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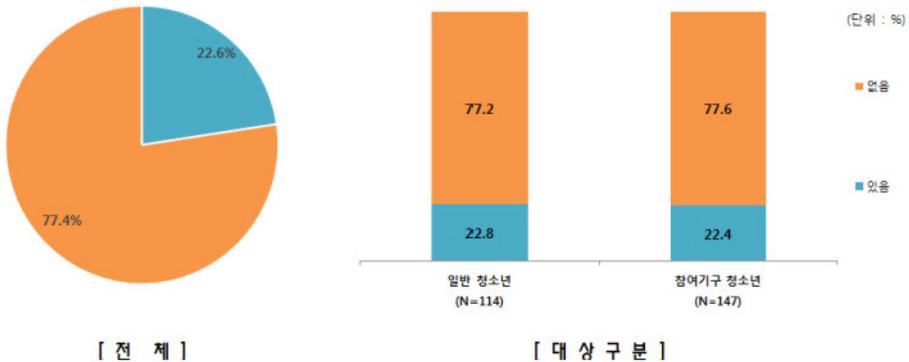


그림 III-7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경험

표 III-9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61)	22.6	77.4	
일반 청소년	(114)	22.8	77.2	
참여기구 청소년	(147)	22.4	77.6	
성별	남자	(119)	27.7	72.3
	여자	(142)	18.3	81.7
연령	9~12세	(7)	-	100.0
	13~18세	(184)	20.1	79.9
	19~24세	(70)	31.4	68.6

㊤ 참여 만족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참여 경험이 있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7.8%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머지 32.2%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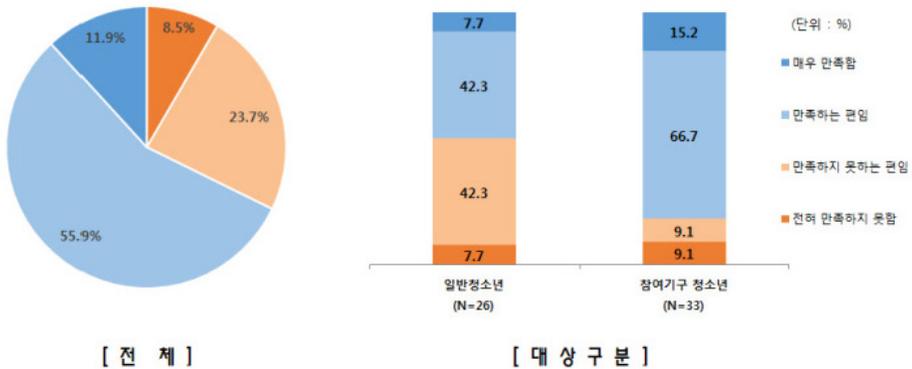


그림 III-8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만족도

표 III-9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9)	8.5	23.7	55.9	11.9	32.2	67.8	
일반 청소년	(26)	7.7	42.3	42.3	7.7	50.0	50.0	
참여기구 청소년	(33)	9.1	9.1	66.7	15.2	18.2	81.8	
성별	남자	(33)	9.1	30.3	48.5	12.1	39.4	60.6
	여자	(26)	7.7	15.4	65.4	11.5	23.1	76.9
연령	9~12세	(-)	-	-	-	-	-	
	13~18세	(37)	8.1	13.5	67.6	10.8	21.6	78.4
	19~24세	(22)	9.1	40.9	36.4	13.6	50.0	50.0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49.6%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머지 50.4%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 의견이 이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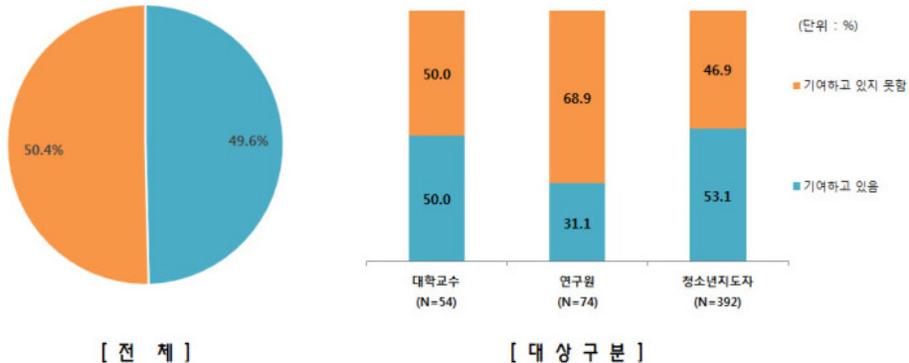


그림 III-8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9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49.6	50.4	
직군	대학교수	(54)	50.0	50.0
	연구원	(74)	31.1	68.9
	청소년지도자	(392)	53.1	46.9

라.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㉞ 인지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30.3%는 해당 제도를 알고 있었고 과반수인 69.7%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서는 각각 72.1%, 35.3%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청소년은 10.6%만이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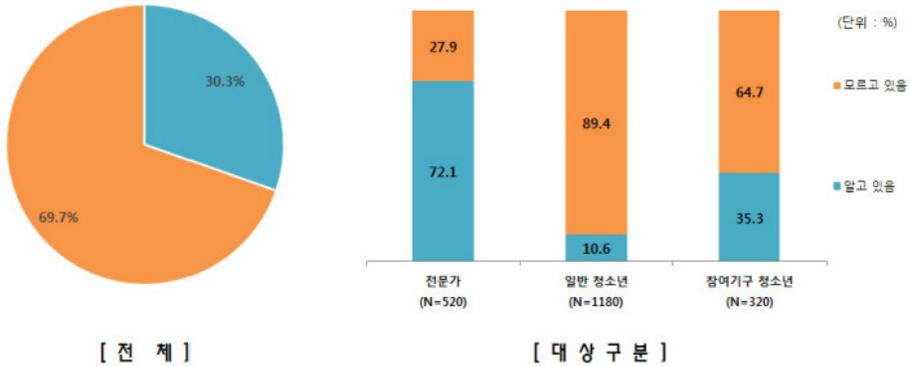


그림 III-8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인지도

표 III-9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0.3	69.7	
전문가	(520)	72.1	27.9	
청소년	(1,500)	15.9	84.1	
일반 청소년	(1,180)	10.6	89.4	
참여기구 청소년	(320)	35.3	64.7	
성별	남자	(741)	16.6	83.4
	여자	(759)	15.2	84.8
연령	9~12세	(215)	6.0	94.0
	13~18세	(788)	19.7	80.3
	19~24세	(497)	14.1	85.9

㊤ 참여 경험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참여 경험 실태와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22.3%만이 실제 참여 경험을, 나머지 77.7%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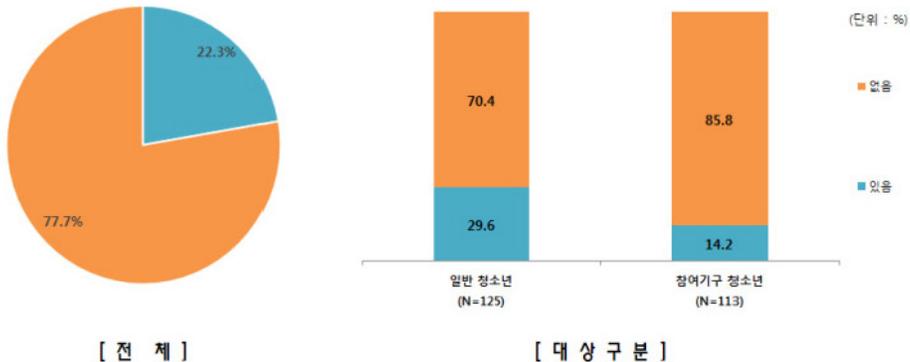


그림 III-83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경험

표 III-9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38)	22.3	77.7	
일반 청소년	(125)	29.6	70.4	
참여기구 청소년	(113)	14.2	85.8	
성별	남자	(123)	23.6	76.4
	여자	(115)	20.9	79.1
연령	9~12세	(13)	23.1	76.9
	13~18세	(155)	18.7	81.3
	19~24세	(70)	30.0	70.0

㉔ 참여 만족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4.2%는 참여 경험에 대해 만족하였고 35.8%는 불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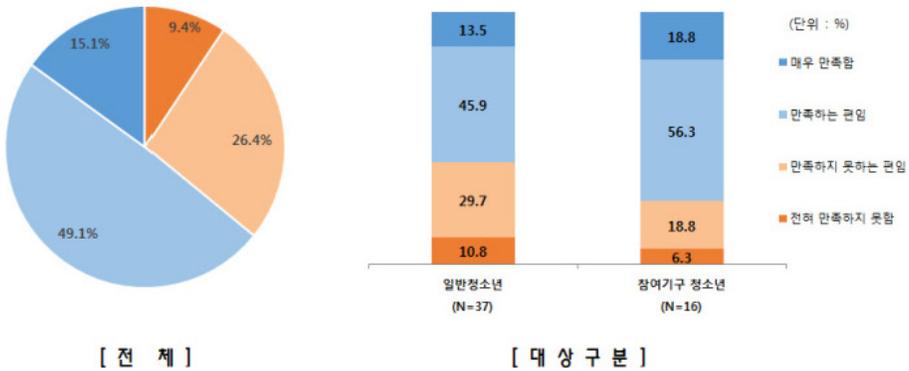


그림 III-8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만족도

표 III-9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3)	9.4	26.4	49.1	15.1	35.8	64.2	
일반 청소년	(37)	10.8	29.7	45.9	13.5	40.5	59.5	
참여기구 청소년	(16)	6.3	18.8	56.3	18.8	25.0	75.0	
성별	남자	(29)	10.3	20.7	51.7	17.2	31.0	69.0
	여자	(24)	8.3	33.3	45.8	12.5	41.7	58.3
연령	9~12세	(3)	-	66.7	-	33.3	66.7	33.3
	13~18세	(29)	6.9	31.0	48.3	13.8	37.9	62.1
	19~24세	(21)	14.3	14.3	57.1	14.3	28.6	71.4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1.9%는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8.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기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이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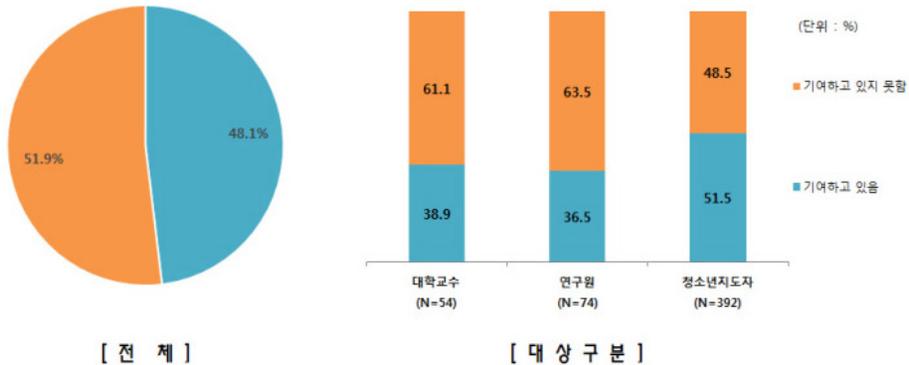


그림 III-8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97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계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48.1	51.9	
직군	대학교수	(54)	38.9	61.1
	연구원	(74)	36.5	63.5
	청소년지도자	(392)	51.5	48.5

마. 청소년국제교류

㉞ 인지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7.7%는 알고 있었고 나머지 42.3%는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90.2%, 67.5%는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알고 있었던데 반해 일반 청소년은 40.8%만이 청소년국제교류를 알고 있어 인지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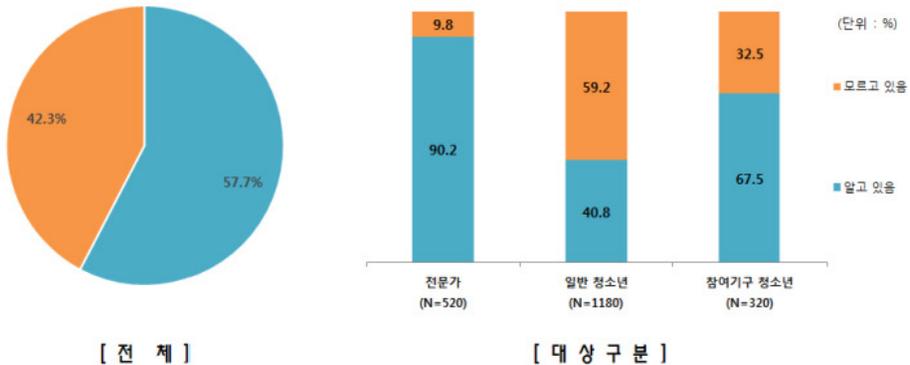


그림 III-86 청소년국제교류 인지도

표 III-98 청소년국제교류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7.7	42.3	
전문가	(520)	90.2	9.8	
청소년	(1,500)	46.5	53.5	
일반 청소년	(1,180)	40.8	59.2	
참여기구 청소년	(320)	67.5	32.5	
성별	남자	(741)	43.6	56.4
	여자	(759)	49.3	50.7
연령	9~12세	(215)	24.2	75.8
	13~18세	(788)	54.9	45.1
	19~24세	(497)	42.7	57.3

㊤ 참여 경험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7.6%는 참여 경험이 있었고 82.4%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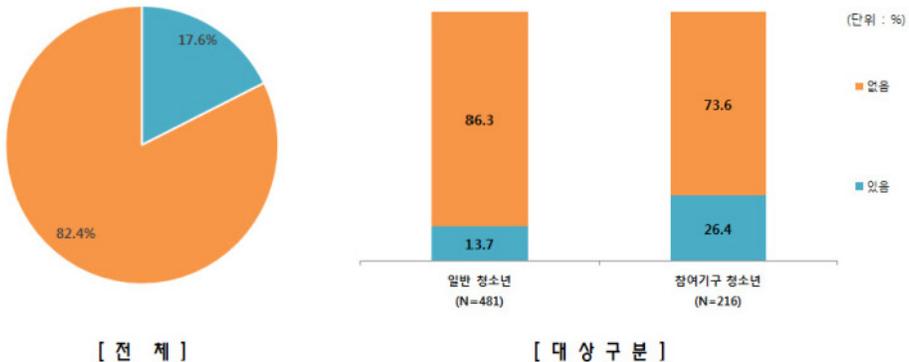


그림 III-87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경험

표 III-99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697)	17.6	82.4	
일반 청소년	(481)	13.7	86.3	
참여기구 청소년	(216)	26.4	73.6	
성별	남자	(323)	17.6	82.4
	여자	(374)	17.6	82.4
연령	9~12세	(52)	9.6	90.4
	13~18세	(433)	17.6	82.4
	19~24세	(212)	19.8	80.2

㊤ 참여 만족도

청소년국제교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4.0%는 참여 경험에 대해 만족했고 26.0%는 만족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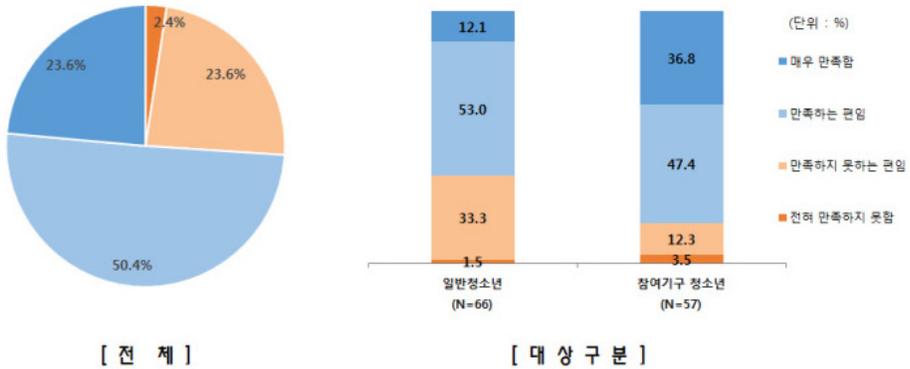


그림 III-88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만족도

표 III-100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23)	2.4	23.6	50.4	23.6	26.0	74.0
일반 청소년	(66)	1.5	33.3	53.0	12.1	34.8	65.2
참여기구 청소년	(57)	3.5	12.3	47.4	36.8	15.8	84.2
성별	남자	(57)	3.5	22.8	50.9	22.8	73.7
	여자	(66)	1.5	24.2	50.0	24.2	74.2
연령	9~12세	(5)	-	60.0	40.0	-	40.0
	13~18세	(76)	2.6	18.4	52.6	26.3	78.9
	19~24세	(42)	2.4	28.6	47.6	21.4	69.0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국제교류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67.7%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머지 32.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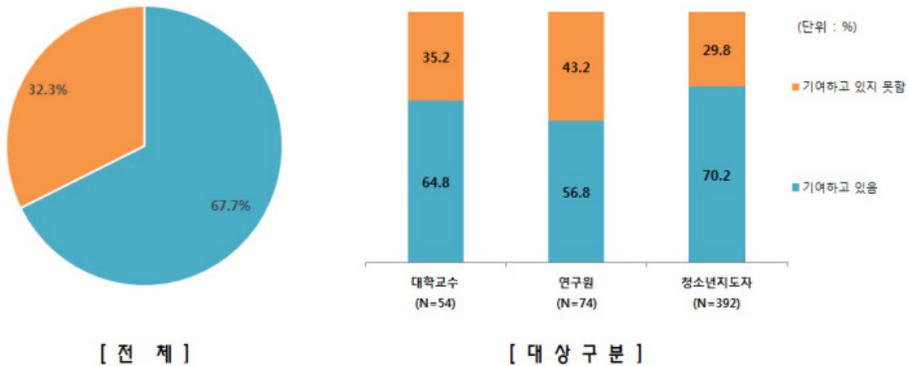


그림 III-89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01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7.7	32.3	
직군	대학교수	(54)	64.8	35.2
	연구원	(74)	56.8	43.2
	청소년지도자	(392)	70.2	29.8

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㉞ 인지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63.2%는 인지도가 있었고 36.8%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96.7%, 68.4%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일반 청소년은 46.9%만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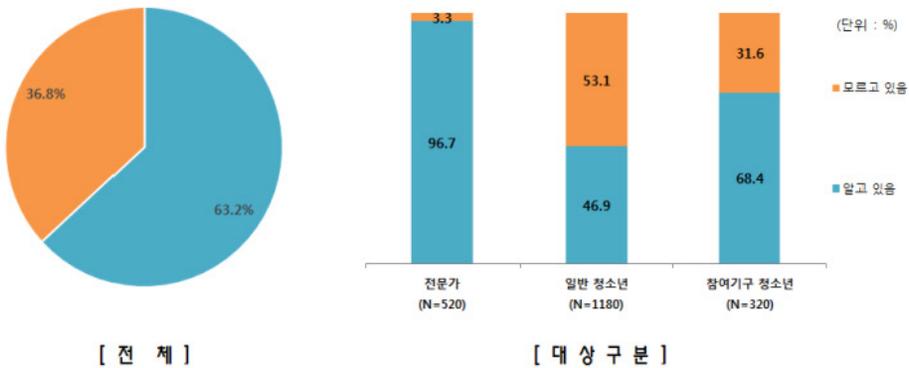


그림 III-9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도

표 III-10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63.2	36.8	
전문가	(520)	96.7	3.3	
청소년	(1,500)	51.5	48.5	
일반 청소년	(1,180)	46.9	53.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8.4	31.6	
성별	남자	(741)	49.7	50.3
	여자	(759)	53.4	46.6
연령	9~12세	(215)	39.5	60.5
	13~18세	(788)	55.6	44.4
	19~24세	(497)	50.3	49.7

㉔ 참여 경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경험에 대한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47.2%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2.8%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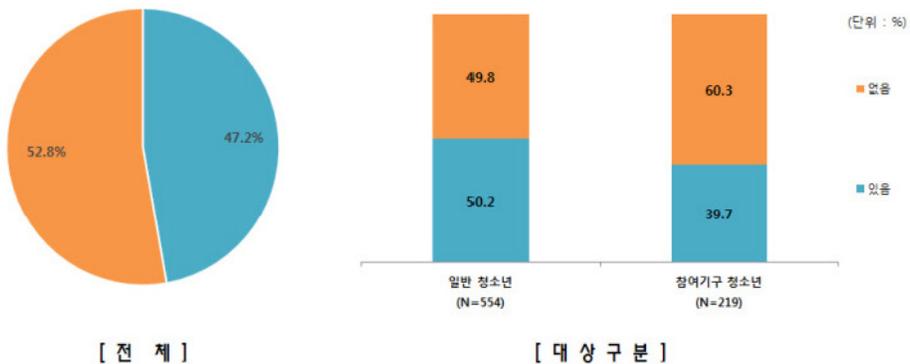


그림 III-9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경험

표 III-10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773)	47.2	52.8	
일반 청소년	(554)	50.2	49.8	
참여기구 청소년	(219)	39.7	60.3	
성별	남자	(368)	44.8	55.2
	여자	(405)	49.4	50.6
연령	9~12세	(85)	43.5	56.5
	13~18세	(438)	47.0	53.0
	19~24세	(250)	48.8	51.2

㊤ 참여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5.3%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4.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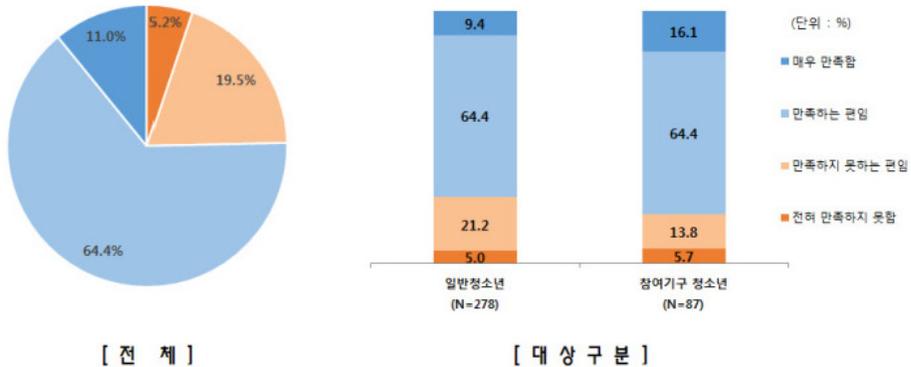


그림 III-9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만족도

표 III-10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65)	5.2	19.5	64.4	11.0	24.7	75.3	
일반 청소년	(278)	5.0	21.2	64.4	9.4	26.3	73.7	
참여기구 청소년	(87)	5.7	13.8	64.4	16.1	19.5	80.5	
성별	남자	(165)	7.3	24.8	57.6	10.3	32.1	67.9
	여자	(200)	3.5	15.0	70.0	11.5	18.5	81.5
연령	9~12세	(37)	-	8.1	81.1	10.8	8.1	91.9
	13~18세	(206)	5.3	13.6	67.0	14.1	18.9	81.1
	19~24세	(122)	6.6	32.8	54.9	5.7	39.3	60.7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3.5%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16.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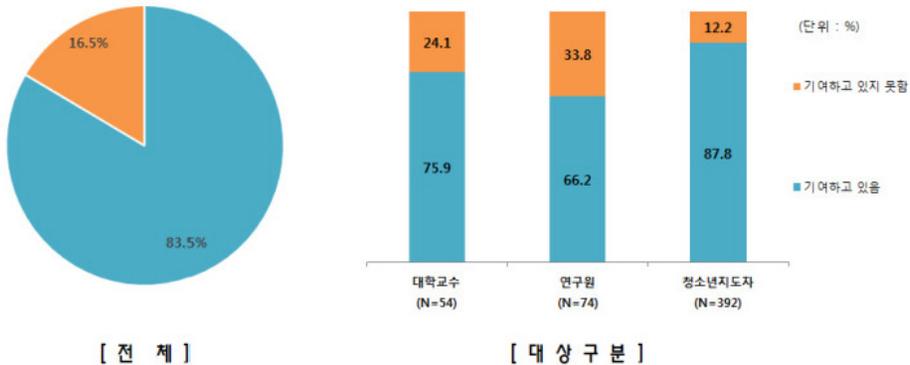


그림 III-9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0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83.5	16.5	
직군	대학교수	(54)	75.9	24.1
	연구원	(74)	66.2	33.8
	청소년지도자	(392)	87.8	12.2

사. 상상(相翔)학교(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㉞ 인지도

상상(相翔)학교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28.7%만이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71.3%는 인지도가 없었다.

특히 전문가 응답자의 64.8%가 상상(相翔)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참여기구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인지도는 각각 21.9%, 14.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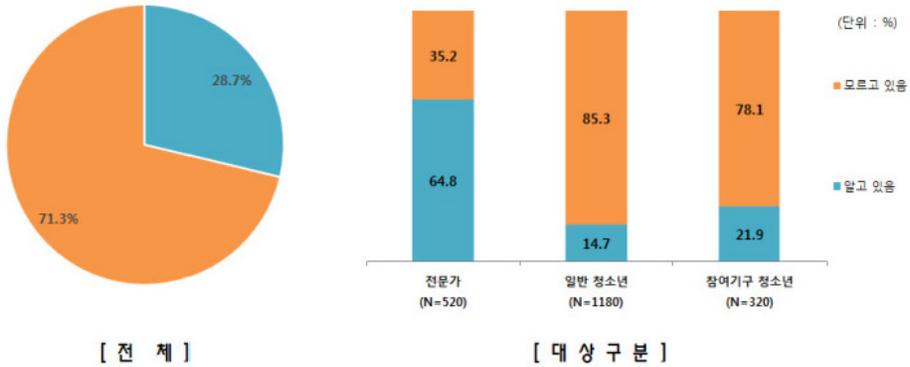


그림 III-94 상상학교 인지도

표 III-106 상상학교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28.7	71.3	
전문가	(520)	64.8	35.2	
청소년	(1,500)	16.2	83.8	
일반 청소년	(1,180)	14.7	85.3	
참여기구 청소년	(320)	21.9	78.1	
성별	남자	(741)	14.0	86.0
	여자	(759)	18.3	81.7
연령	9~12세	(215)	9.3	90.7
	13~18세	(788)	19.4	80.6
	19~24세	(497)	14.1	85.9

㊤ 참여 경험

상상(相翔)학교 참여 경험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22.2%만이 참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77.8%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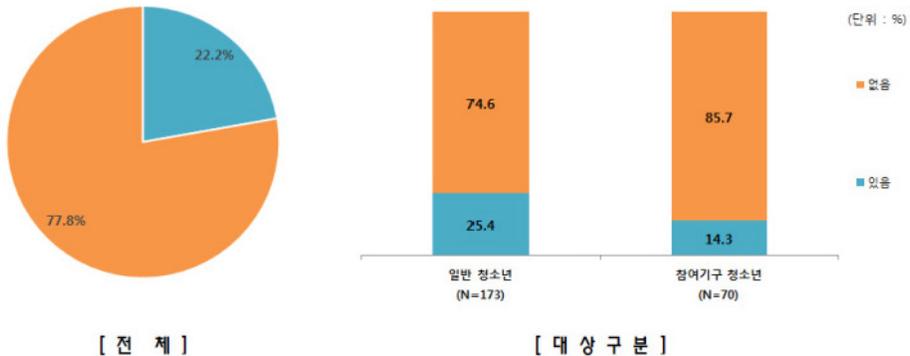


그림 III-95 상상학교 참여 경험

표 III-107 상상학교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43)	22.2	77.8	
일반 청소년	(173)	25.4	74.6	
참여기구 청소년	(70)	14.3	85.7	
성별	남자	(104)	21.2	78.8
	여자	(139)	23.0	77.0
연령	9~12세	(20)	20.0	80.0
	13~18세	(153)	19.6	80.4
	19~24세	(70)	28.6	71.4

㊤ 참여 만족도

상상(相翔)학교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 중 75.9%는 만족하였다고 응답했고 24.1%는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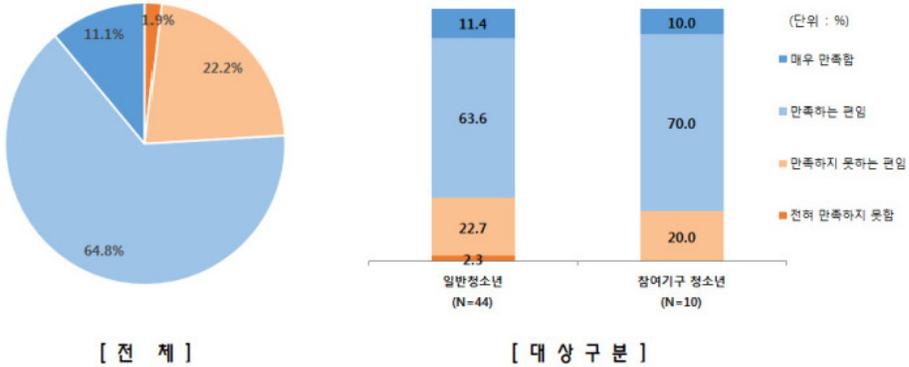


그림 III-96 상상학교 참여 만족도

표 III-108 상상학교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4)	1.9	22.2	64.8	11.1	24.1	75.9
일반 청소년	(44)	2.3	22.7	63.6	11.4	25.0	75.0
참여기구 청소년	(10)	-	20.0	70.0	10.0	20.0	80.0
성별	남자	(22)	-	27.3	54.5	18.2	72.7
	여자	(32)	3.1	18.8	71.9	6.3	78.1
연령	9~12세	(4)	-	-	75.0	25.0	100.0
	13~18세	(30)	3.3	23.3	63.3	10.0	73.3
	19~24세	(20)	-	25.0	65.0	10.0	75.0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상상(相翔)학교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5.0%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45.0%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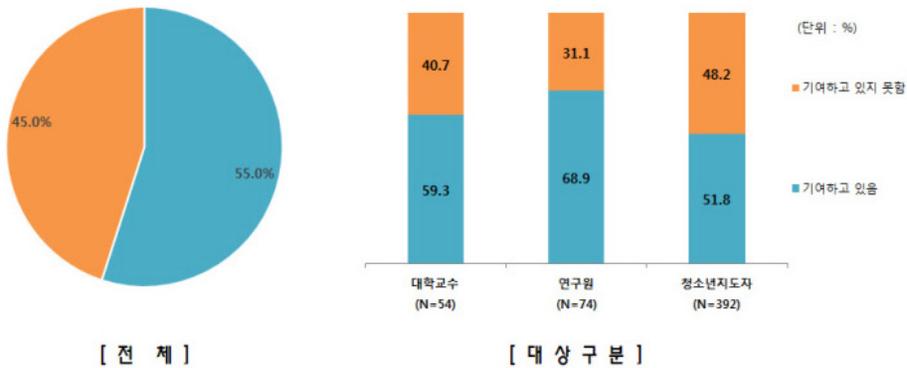


그림 III-97 상상학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09 상상학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55.0	45.0	
직군	대학교수	(54)	59.3	40.7
	연구원	(74)	68.9	31.1
	청소년지도자	(392)	51.8	48.2

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㉞ 인지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25.0%만이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도 39.4%만이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참여기구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가운데서는 각각 25.0%, 18.7%만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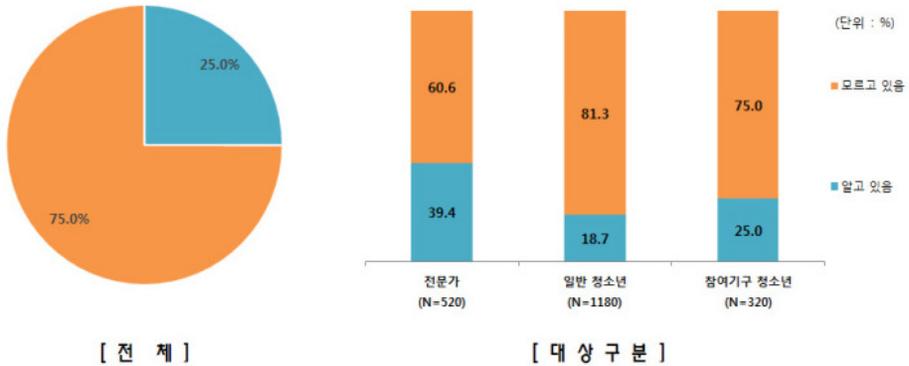


그림 III-98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인지도

표 III-11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25.0	75.0	
전문가	(520)	39.4	60.6	
청소년	(1,500)	20.1	79.9	
일반 청소년	(1,180)	18.7	81.3	
참여기구 청소년	(320)	25.0	75.0	
성별	남자	(741)	19.4	80.6
	여자	(759)	20.7	79.3
연령	9~12세	(215)	10.2	89.8
	13~18세	(788)	20.6	79.4
	19~24세	(497)	23.5	76.5

㊤ 이용 경험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은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6.6%만이 있었고 나머지 83.4%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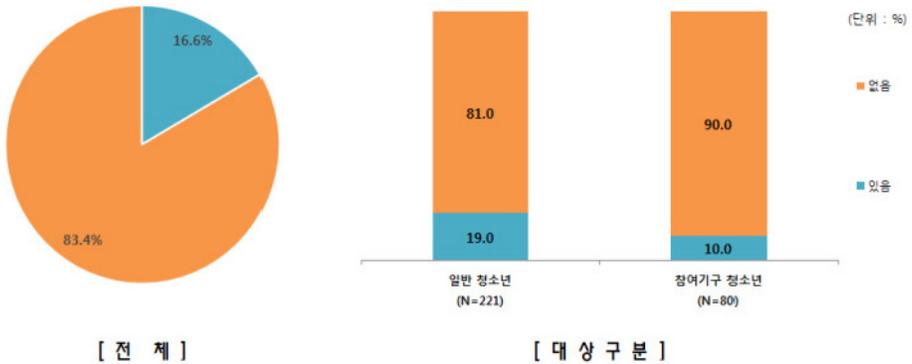


그림 III-99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참여 경험

표 III-111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1)	16.6	83.4	
일반 청소년	(221)	19.0	81.0	
참여기구 청소년	(80)	10.0	90.0	
성별	남자	(144)	19.4	80.6
	여자	(157)	14.0	86.0
연령	9~12세	(22)	18.2	81.8
	13~18세	(162)	11.1	88.9
	19~24세	(117)	23.9	76.1

㊸ 이용 만족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청소년 가운데 46.0%는 만족하였다고 응답했고 과반수인 54%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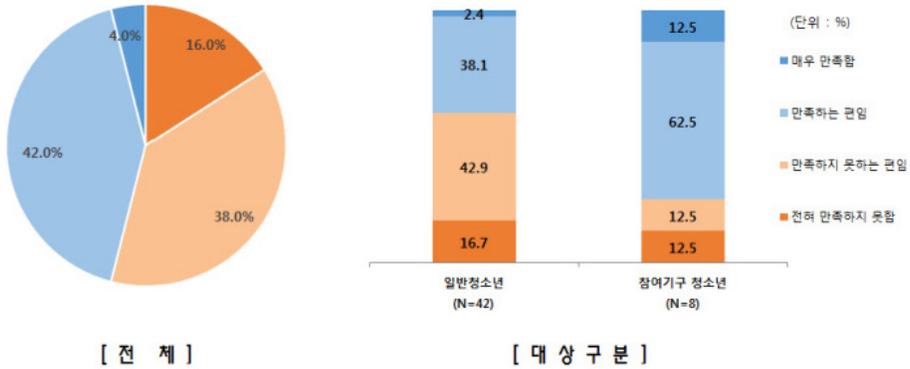


그림 III-10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

표 III-112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0)	16.0	38.0	42.0	4.0	54.0	46.0	
일반 청소년	(42)	16.7	42.9	38.1	2.4	59.5	40.5	
참여기구 청소년	(8)	12.5	12.5	62.5	12.5	25.0	75.0	
성별	남자	(28)	14.3	32.1	50.0	3.6	46.4	53.6
	여자	(22)	18.2	45.5	31.8	4.5	63.6	36.4
연령	9~12세	(4)	-	50.0	50.0	-	50.0	50.0
	13~18세	(18)	11.1	33.3	50.0	5.6	44.4	55.6
	19~24세	(28)	21.4	39.3	35.7	3.6	60.7	39.3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30.0%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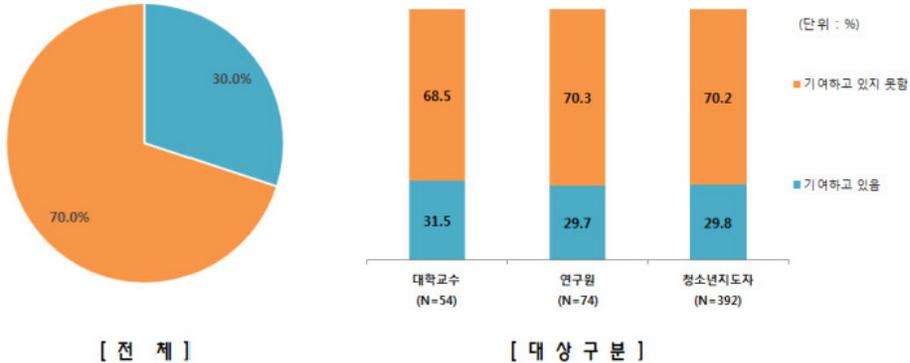


그림 III-101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13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30.0	70.0	
직군	대학교수	(54)	31.5	68.5
	연구원	(74)	29.7	70.3
	청소년지도자	(392)	29.8	70.2

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㉞ 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2.1%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47.9%는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서는 각각 92.5%, 67.8%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데 비해 일반 청소년은 30.0%만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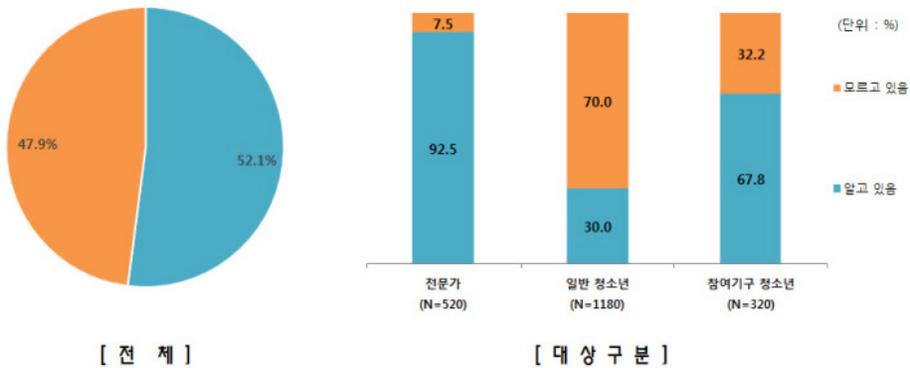


그림 III-10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지도

표 III-1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2.1	47.9	
전문가	(520)	92.5	7.5	
청소년	(1,500)	38.1	61.9	
일반 청소년	(1,180)	30.0	70.0	
참여기구 청소년	(320)	67.8	32.2	
성별	남자	(741)	35.8	64.2
	여자	(759)	40.3	59.7
연령	9~12세	(215)	16.3	83.7
	13~18세	(788)	47.8	52.2
	19~24세	(497)	32.0	68.0

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응답자의 58.1%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1.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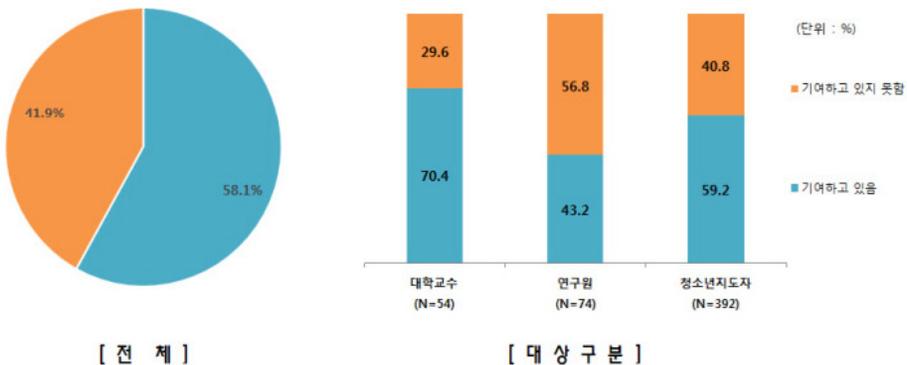


그림 III-10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58.1	41.9	
직군	대학교수	(54)	70.4	29.6
	연구원	(74)	43.2	56.8
	청소년지도자	(392)	59.2	40.8

차.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㉞ 인지도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4.4%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45.6%는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각각 89.8%, 65.6%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35.7%로 앞의 두 집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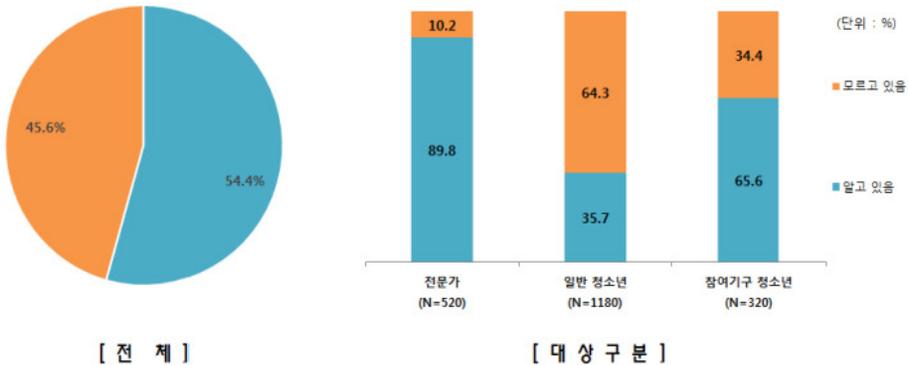


그림 III-104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인지도

표 III-11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4.4	45.6	
전문가	(520)	89.8	10.2	
청소년	(1,500)	42.1	57.9	
일반 청소년	(1,180)	35.7	64.3	
참여기구 청소년	(320)	65.6	34.4	
성별	남자	(741)	37.9	62.1
	여자	(759)	46.1	53.9
연령	9~12세	(215)	20.9	79.1
	13~18세	(788)	51.8	48.2
	19~24세	(497)	35.8	64.2

㊤ 참여 경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43.6%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56.4%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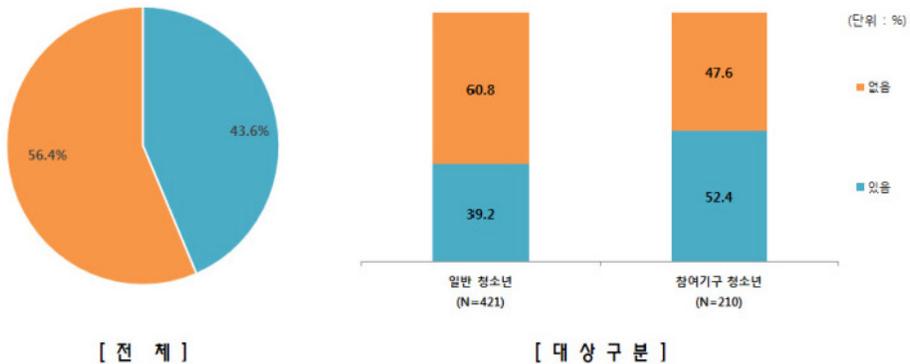


그림 III-105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표 III-117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631)	43.6	56.4	
일반 청소년	(421)	39.2	60.8	
참여기구 청소년	(210)	52.4	47.6	
성별	남자	(281)	41.6	58.4
	여자	(350)	45.1	54.9
연령	9~12세	(45)	28.9	71.1
	13~18세	(408)	50.0	50.0
	19~24세	(178)	32.6	67.4

㊤ 참여 만족도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 경험이 있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5.8%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였고 나머지 34.2%는 만족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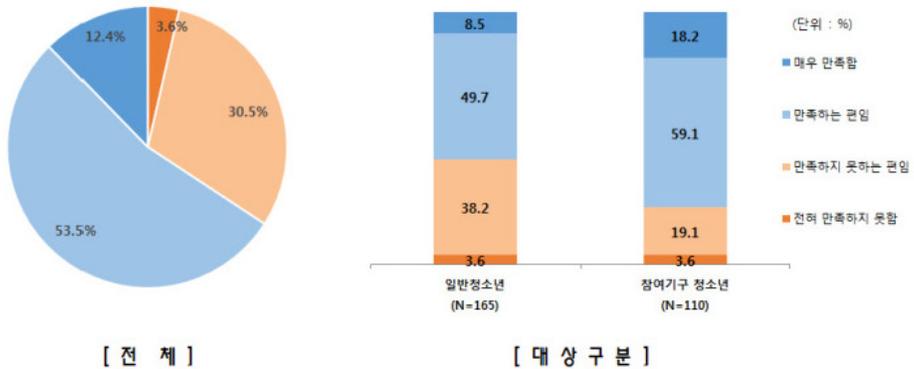


그림 III-10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표 III-118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75)	3.6	30.5	53.5	12.4	34.2	65.8	
일반 청소년	(165)	3.6	38.2	49.7	8.5	41.8	58.2	
참여기구 청소년	(110)	3.6	19.1	59.1	18.2	22.7	77.3	
성별	남자	(117)	2.6	28.2	53.0	16.2	30.8	69.2
	여자	(158)	4.4	32.3	53.8	9.5	36.7	63.3
연령	9~12세	(13)	7.7	46.2	46.2	-	53.8	46.2
	13~18세	(204)	2.9	29.9	55.4	11.8	32.8	67.2
	19~24세	(58)	5.2	29.3	48.3	17.2	34.5	65.5

㉞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응답자의 74.4%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25.6%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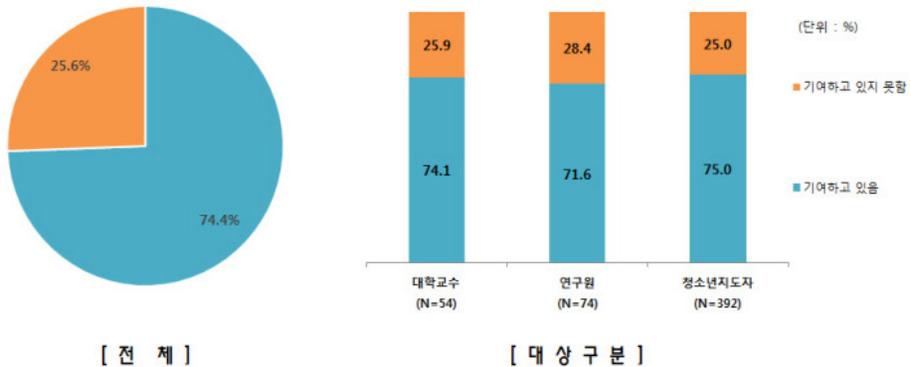


그림 III-107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표 III-119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74.4	25.6	
직군	대학교수	(54)	74.1	25.9
	연구원	(74)	71.6	28.4
	청소년지도자	(392)	75.0	25.0

⑤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의사 반영 강화'가 19.1%, '활동 시간 보장'이 18.8%,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16.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활동 시간 보장'과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가, 일반 청소년의 경우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가, 그리고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활동 시간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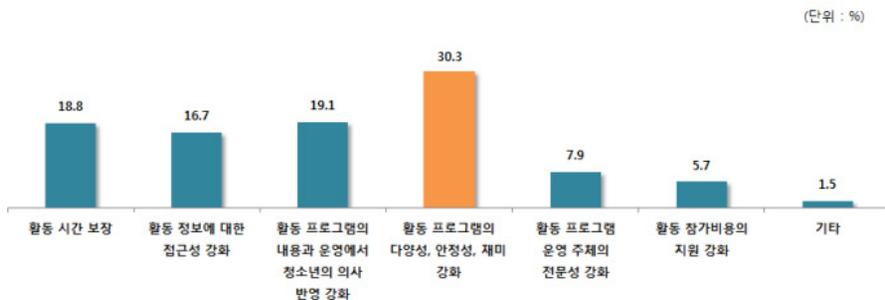


그림 III-108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

표 III-120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

구분	사례수	활동 시간 보장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의사 반영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활동 참가 비용의 지원 강화	기타
전체	(2,020)	18.8	16.7	19.1	30.3	7.9	5.7	1.5
전문가	(520)	29.2	14.8	17.7	26.3	6.7	2.9	2.3
청소년	(1,500)	15.1	17.4	19.6	31.7	8.3	6.7	1.2
일반 청소년	(1,180)	13.0	16.3	19.7	35.2	8.9	6.9	0.2
참여기구 청소년	(320)	23.1	21.6	19.4	18.8	5.9	6.3	5.0
성별								
남자	(741)	16.1	16.6	19.7	29.3	9.6	6.9	1.9
여자	(759)	14.2	18.2	19.5	34.0	7.0	6.6	0.5
연령								
9~12세	(215)	8.4	20.5	22.8	36.3	8.4	3.7	-
13~18세	(788)	15.9	15.0	21.7	29.7	10.5	5.5	1.8
19~24세	(497)	16.9	19.9	14.9	32.8	4.6	10.1	0.8

⑥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㉔ 참여 경험

청소년수련관 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2.7%는 참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67.3%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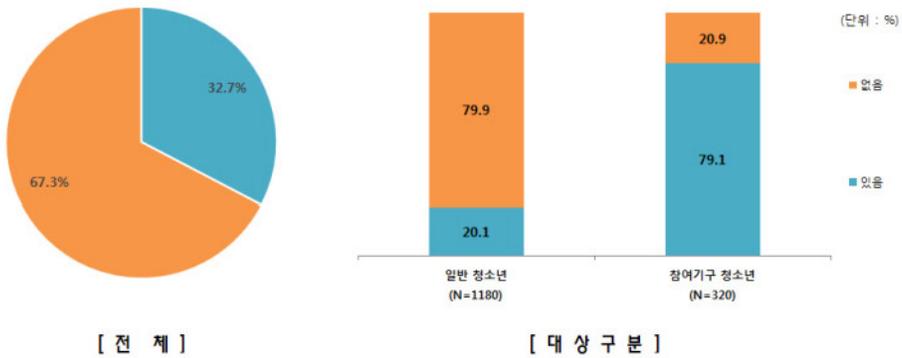


그림 III-109 청소년수련관 참여 경험

표 III-121 청소년수련관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32.7	67.3
일반 청소년	(1,180)	20.1	79.9
참여기구 청소년	(320)	79.1	20.9
성별	남자 (741)	31.4	68.6
	여자 (759)	33.9	66.1
연령	9~12세 (215)	3.3	96.7
	13~18세 (788)	37.6	62.4
	19~24세 (497)	37.6	62.4

㊤ 이용 만족도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9.2%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머지 20.8%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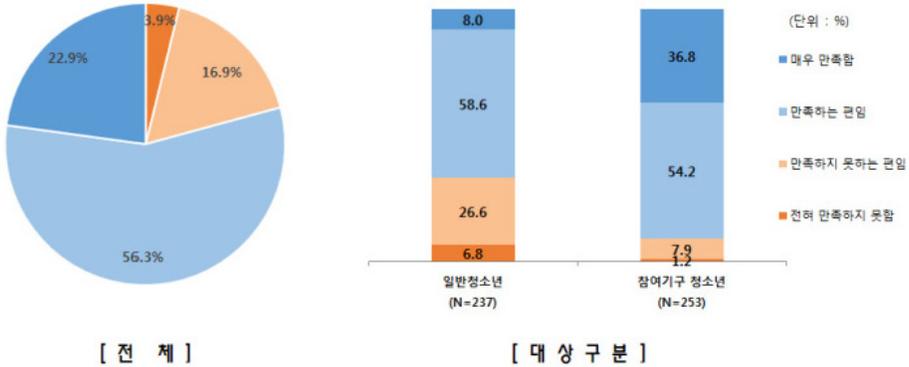


그림 III-110 청소년수련관 이용 만족도

표 III-122 청소년수련관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90)	3.9	16.9	56.3	22.9	20.8	79.2	
일반 청소년	(237)	6.8	26.6	58.6	8.0	33.3	66.7	
참여기구 청소년	(253)	1.2	7.9	54.2	36.8	9.1	90.9	
성별	남자	(233)	4.3	16.7	52.8	26.2	21.0	79.0
	여자	(257)	3.5	17.1	59.5	19.8	20.6	79.4
연령	9~12세	(7)	-	-	85.7	14.3	-	100.0
	13~18세	(296)	1.0	14.2	53.0	31.8	15.2	84.8
	19~24세	(187)	8.6	21.9	60.4	9.1	30.5	69.5

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0.0%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30.0%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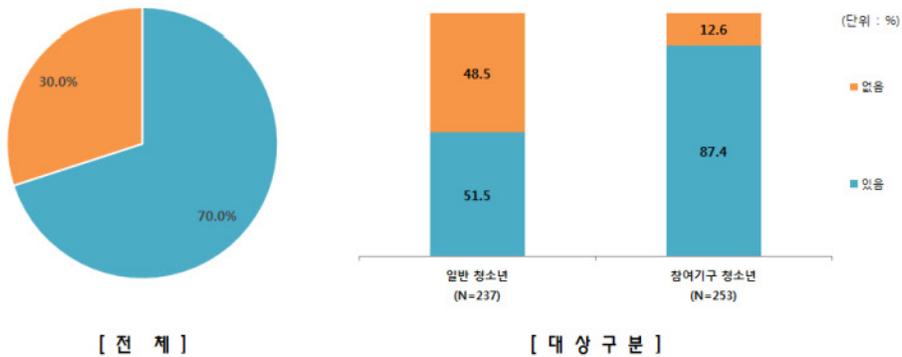


그림 III-1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표 III-12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90)	70.0	30.0
일반 청소년	(237)	51.5	48.5
참여기구 청소년	(253)	87.4	12.6
성별	남자 (233)	69.1	30.9
	여자 (257)	70.8	29.2
연령	9~12세 (7)	57.1	42.9
	13~18세 (296)	74.7	25.3
	19~24세 (187)	63.1	36.9

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사와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5.7%는 만족하였고 14.3%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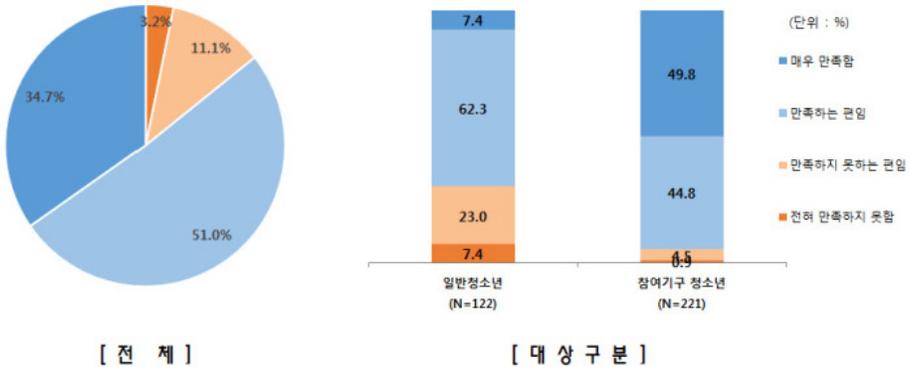


그림 Ⅲ-11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표 Ⅲ-12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43)	3.2	11.1	51.0	34.7	14.3	85.7	
일반 청소년	(122)	7.4	23.0	62.3	7.4	30.3	69.7	
참여기구 청소년	(221)	0.9	4.5	44.8	49.8	5.4	94.6	
성별	남자	(161)	3.7	12.4	51.6	32.3	16.1	83.9
	여자	(182)	2.7	9.9	50.5	36.8	12.6	87.4
연령	9~12세	(4)	-	-	75.0	25.0	-	100.0
	13~18세	(221)	0.9	7.2	46.2	45.7	8.1	91.9
	19~24세	(118)	7.6	18.6	59.3	14.4	26.3	73.7

㉞ 향후 이용의향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7.6%는 이용할 의향이, 42.4%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3 청소년수련관 향후 이용의향

표 Ⅲ-125 청소년수련관 향후 이용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7.6	42.4
일반 청소년	(1,180)	50.7	49.3
참여기구 청소년	(320)	83.1	16.9
성별	남자 (741)	56.7	43.3
	여자 (759)	58.5	41.5
연령	9~12세 (215)	63.3	36.7
	13~18세 (788)	69.0	31.0
	19~24세 (497)	37.0	63.0

나. 청소년수련원

㉔ 이용 경험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8.1%는 이용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71.9%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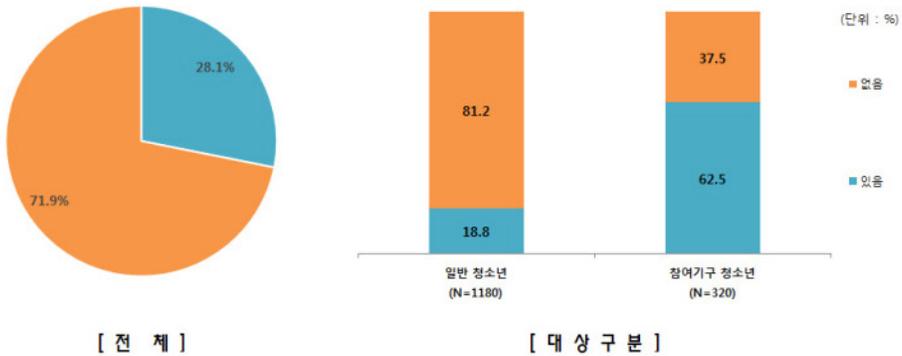


그림 III-114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표 III-126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28.1	71.9
일반 청소년	(1,180)	18.8	81.2
참여기구 청소년	(320)	62.5	37.5
성별	남자 (741)	26.3	73.7
	여자 (759)	29.9	70.1
연령	9~12세 (215)	7.4	92.6
	13~18세 (788)	29.2	70.8
	19~24세 (497)	35.4	64.6

㊤ 이용 만족도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4.2%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머지 25.8%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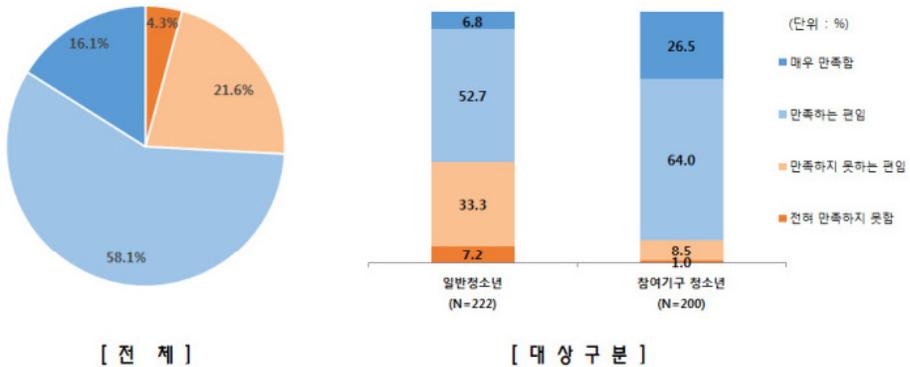


그림 III-115 청소년수련원 이용 만족도

표 III-127 청소년수련원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22)	4.3	21.6	58.1	16.1	25.8	74.2	
일반 청소년	(222)	7.2	33.3	52.7	6.8	40.5	59.5	
참여기구 청소년	(200)	1.0	8.5	64.0	26.5	9.5	90.5	
성별	남자	(195)	4.1	24.1	53.8	17.9	28.2	71.8
	여자	(227)	4.4	19.4	61.7	14.5	23.8	76.2
연령	9~12세	(16)	-	31.3	62.5	6.3	31.3	68.8
	13~18세	(230)	1.7	12.2	63.9	22.2	13.9	86.1
	19~24세	(176)	8.0	33.0	50.0	9.1	40.9	59.1

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청소년수련원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0.7%는 접촉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39.3%는 접촉한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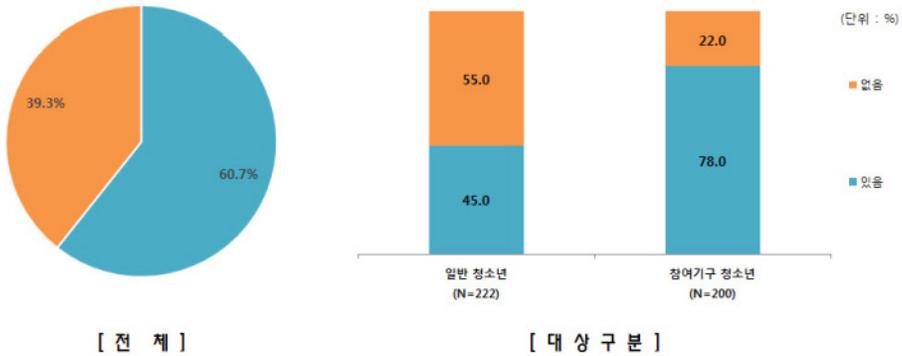


그림 III-116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표 III-128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22)	60.7	39.3
일반 청소년	(222)	45.0	55.0
참여기구 청소년	(200)	78.0	22.0
성별	남자 (195)	61.5	38.5
	여자 (227)	59.9	40.1
연령	9~12세 (16)	31.3	68.8
	13~18세 (230)	67.0	33.0
	19~24세 (176)	55.1	44.9

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청소년수련원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지도사와의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4.0%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머지 16.0%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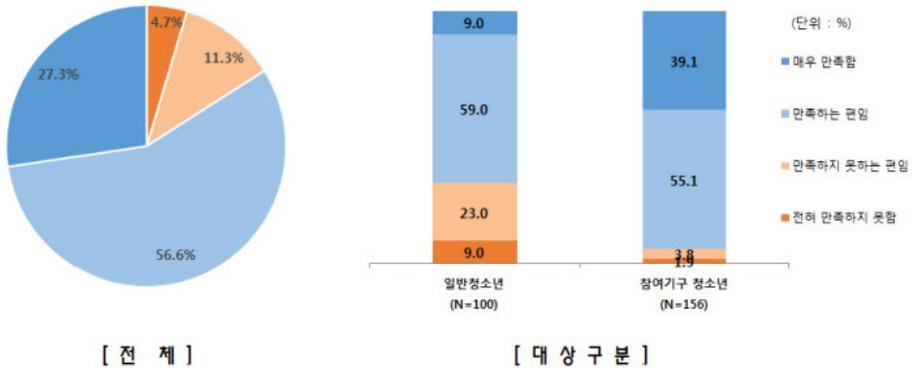


그림 III-117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표 III-129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56)	4.7	11.3	56.6	27.3	16.0	84.0	
일반 청소년	(100)	9.0	23.0	59.0	9.0	32.0	68.0	
참여기구 청소년	(156)	1.9	3.8	55.1	39.1	5.8	94.2	
성별	남자	(120)	3.3	15.0	55.8	25.8	18.3	81.7
	여자	(136)	5.9	8.1	57.4	28.7	14.0	86.0
연령	9~12세	(5)	-	-	60.0	40.0	-	100.0
	13~18세	(154)	2.6	5.2	56.5	35.7	7.8	92.2
	19~24세	(97)	8.2	21.6	56.7	13.4	29.9	70.1

㉔ 향후 이용의향

향후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9.0%는 이용 의향이 있었고 51.0%는 이용의향이 없었다.



그림 III-118 청소년수련원 향후 이용의향

표 III-130 청소년수련원 향후 이용의향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49.0	51.0
일반 청소년	(1,180)	43.3	56.7
참여기구 청소년	(320)	70.0	30.0
성별	남자 (741)	47.1	52.9
	여자 (759)	50.9	49.1
연령	9~12세 (215)	56.3	43.7
	13~18세 (788)	59.3	40.7
	19~24세 (497)	29.6	70.4

다. 청소년문화의 집

㉞ 이용 경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0.3%는 이용 경험이 있었고 79.7%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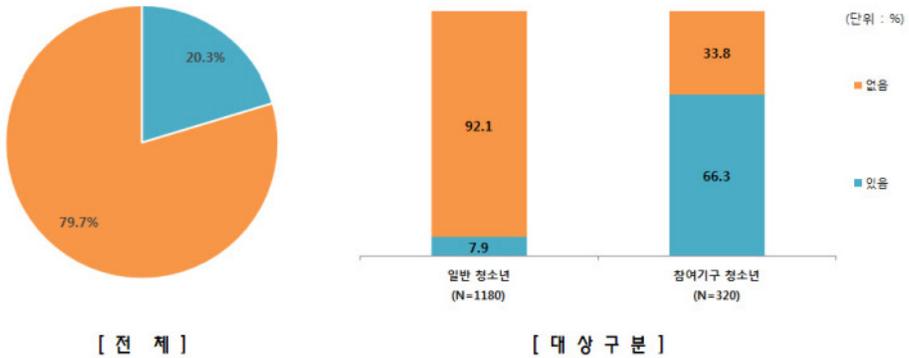


그림 III-119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표 III-131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20.3	79.7	
일반 청소년	(1,180)	7.9	92.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6.3	33.8	
성별	남자	(741)	17.5	82.5
	여자	(759)	23.1	76.9
연령	9~12세	(215)	2.8	97.2
	13~18세	(788)	27.5	72.5
	19~24세	(497)	16.5	83.5

㊤ 이용 만족도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해 본 청소년 응답자의 83.6%는 만족하였고 나머지 16.4%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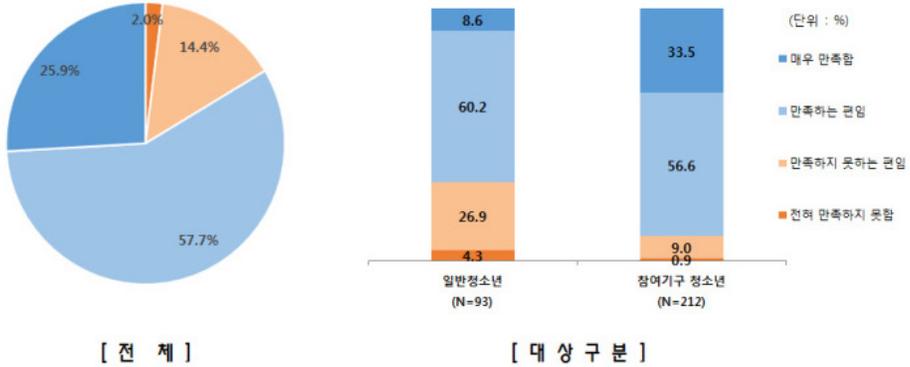


그림 III-120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만족도

표 III-13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05)	2.0	14.4	57.7	25.9	16.4	83.6	
일반 청소년	(93)	4.3	26.9	60.2	8.6	31.2	68.8	
참여기구 청소년	(212)	0.9	9.0	56.6	33.5	9.9	90.1	
성별	남자	(130)	1.5	14.6	56.9	26.9	16.2	83.8
	여자	(175)	2.3	14.3	58.3	25.1	16.6	83.4
연령	9~12세	(6)	-	16.7	66.7	16.7	16.7	83.3
	13~18세	(217)	1.4	12.4	56.2	30.0	13.8	86.2
	19~24세	(82)	3.7	19.5	61.0	15.9	23.2	76.8

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2.5%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27.5%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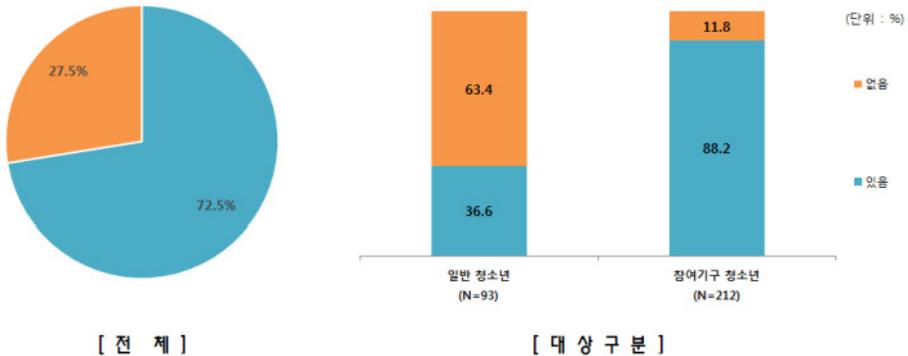


그림 III-121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표 III-13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72.5	27.5
일반 청소년	(93)	36.6	63.4
참여기구 청소년	(212)	88.2	11.8
성별	남자 (130)	73.1	26.9
	여자 (175)	72.0	28.0
연령	9~12세 (6)	50.0	50.0
	13~18세 (217)	76.5	23.5
	19~24세 (82)	63.4	36.6

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사와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90.0%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0%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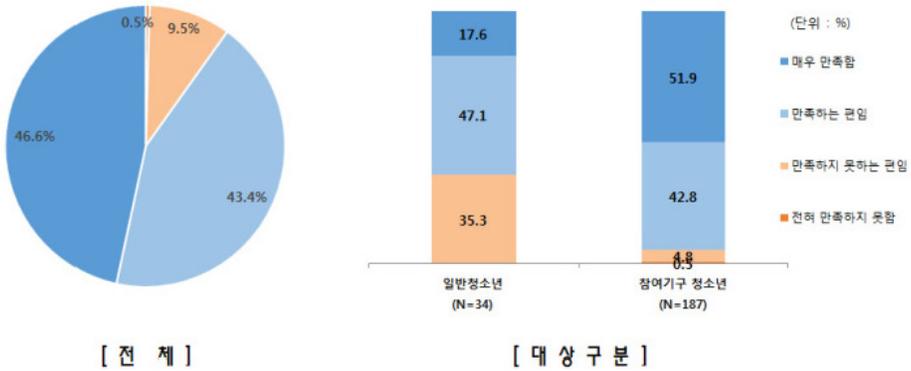


그림 11-12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표 11-134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21)	0.5	9.5	43.4	46.6	10.0	90.0	
일반 청소년	(34)	-	35.3	47.1	17.6	35.3	64.7	
참여기구 청소년	(187)	0.5	4.8	42.8	51.9	5.3	94.7	
성별	남자	(95)	1.1	13.7	41.1	44.2	14.7	85.3
	여자	(126)	-	6.3	45.2	48.4	6.3	93.7
연령	9~12세	(3)	-	33.3	33.3	33.3	33.3	66.7
	13~18세	(166)	0.6	6.0	42.8	50.6	6.6	93.4
	19~24세	(52)	-	19.2	46.2	34.6	19.2	80.8

㉔ 향후 이용의향

향후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0.6%는 이용의향이 있었고 49.4%는 이용의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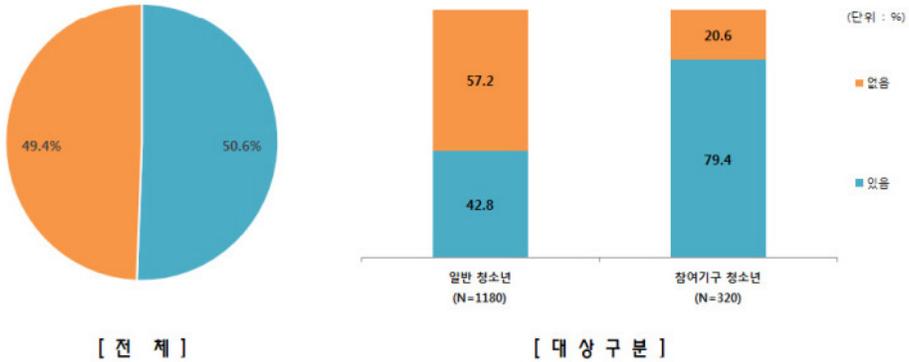


그림 11-123 청소년문화의집 향후 이용의향

표 11-135 청소년문화의집 향후 이용의향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0.6	49.4
일반 청소년	(1,180)	42.8	57.2
참여기구 청소년	(320)	79.4	20.6
성별	남자 (741)	46.7	53.3
	여자 (759)	54.4	45.6
연령	9~12세 (215)	58.1	41.9
	13~18세 (788)	61.3	38.7
	19~24세 (497)	30.4	69.6

라. 청소년야영장

㉞ 이용 경험

청소년야영장의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10.1%는 이용 경험이 있었고 89.9%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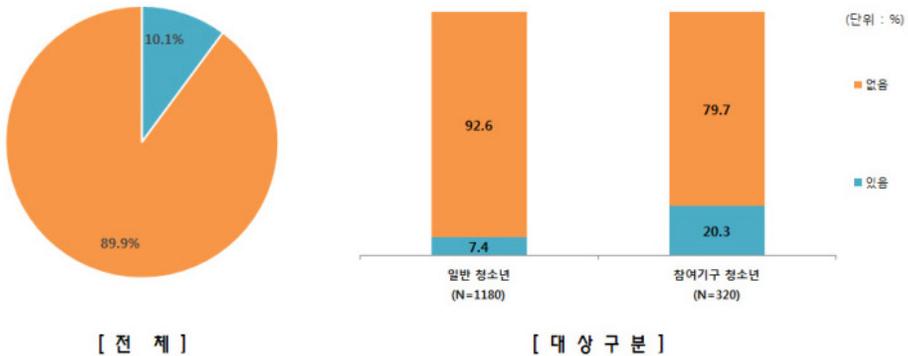


그림 III-124 청소년야영장 이용 경험

표 III-136 청소년야영장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10.1	89.9	
일반 청소년	(1,180)	7.4	92.6	
참여기구 청소년	(320)	20.3	79.7	
성별	남자	(741)	10.7	89.3
	여자	(759)	9.6	90.4
연령	9~12세	(215)	6.5	93.5
	13~18세	(788)	10.0	90.0
	19~24세	(497)	11.9	88.1

㊤ 이용 만족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3.2%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머지 36.8%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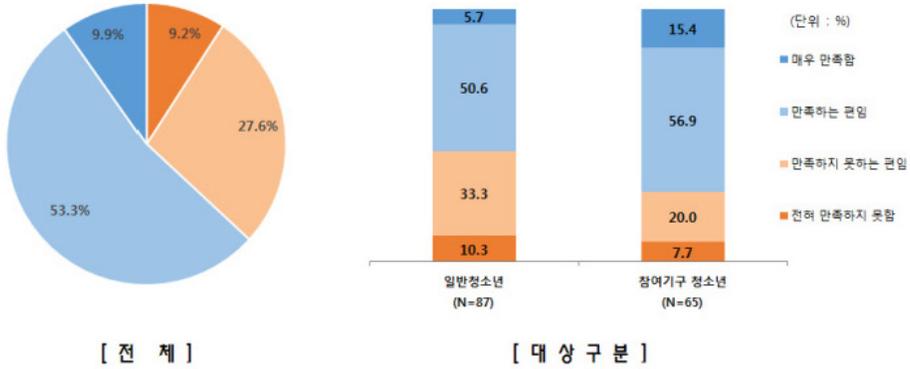


그림 III-125 청소년야영장 이용 만족도

표 III-137 청소년야영장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52)	9.2	27.6	53.3	9.9	36.8	63.2	
일반 청소년	(87)	10.3	33.3	50.6	5.7	43.7	56.3	
참여기구 청소년	(65)	7.7	20.0	56.9	15.4	27.7	72.3	
성별	남자	(79)	10.1	24.1	57.0	8.9	34.2	65.8
	여자	(73)	8.2	31.5	49.3	11.0	39.7	60.3
연령	9~12세	(14)	-	64.3	28.6	7.1	64.3	35.7
	13~18세	(79)	6.3	21.5	60.8	11.4	27.8	72.2
	19~24세	(59)	15.3	27.1	49.2	8.5	42.4	57.6

㊤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청소년야영장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51.3%는 접촉 경험이 있었고 48.7%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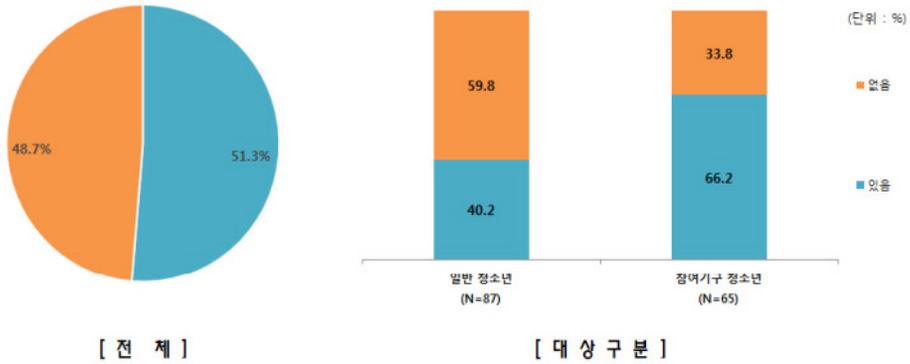


그림 Ⅲ-126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표 Ⅲ-138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2)	51.3	48.7	
일반 청소년	(87)	40.2	59.8	
참여기구 청소년	(65)	66.2	33.8	
성별	남자	(79)	57.0	43.0
	여자	(73)	45.2	54.8
연령	9~12세	(14)	14.3	85.7
	13~18세	(79)	55.7	44.3
	19~24세	(59)	54.2	45.8

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청소년야영장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도사와의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5.6%는 지도사에 만족하였고 24.4%는 불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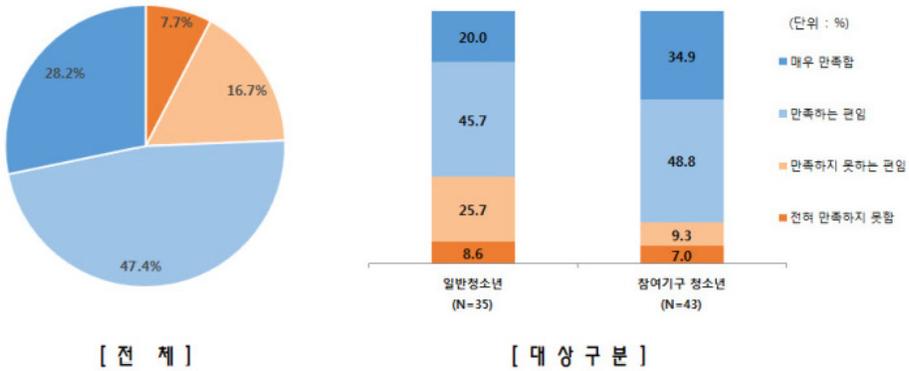


그림 Ⅲ-127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표 Ⅲ-139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78)	7.7	16.7	47.4	28.2	24.4	75.6	
일반 청소년	(35)	8.6	25.7	45.7	20.0	34.3	65.7	
참여기구 청소년	(43)	7.0	9.3	48.8	34.9	16.3	83.7	
성별	남자	(45)	8.9	17.8	51.1	22.2	26.7	73.3
	여자	(33)	6.1	15.2	42.4	36.4	21.2	78.8
연령	9~12세	(2)	-	-	100.0	-	-	100.0
	13~18세	(44)	6.8	11.4	50.0	31.8	18.2	81.8
	19~24세	(32)	9.4	25.0	40.6	25.0	34.4	65.6

㉔ 향후 이용의향

향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8.9%는 이용의향이 있었고 나머지 51.1%는 이용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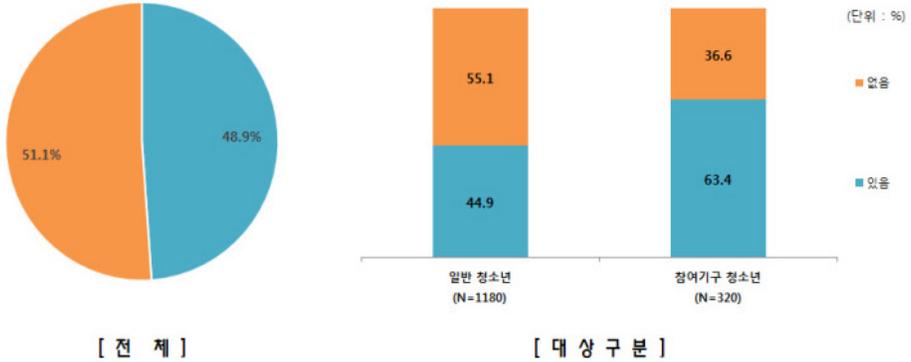


그림 III-128 청소년야영장 향후 이용의향

표 III-140 청소년야영장 향후 이용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48.9	51.1
일반 청소년	(1,180)	44.9	55.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3.4	36.6
성별	남자 (741)	49.8	50.2
	여자 (759)	48.0	52.0
연령	9~12세 (215)	65.6	34.4
	13~18세 (788)	56.6	43.4
	19~24세 (497)	29.4	70.6

마. 유스호스텔

㉞ 이용 경험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4.5%는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75.5%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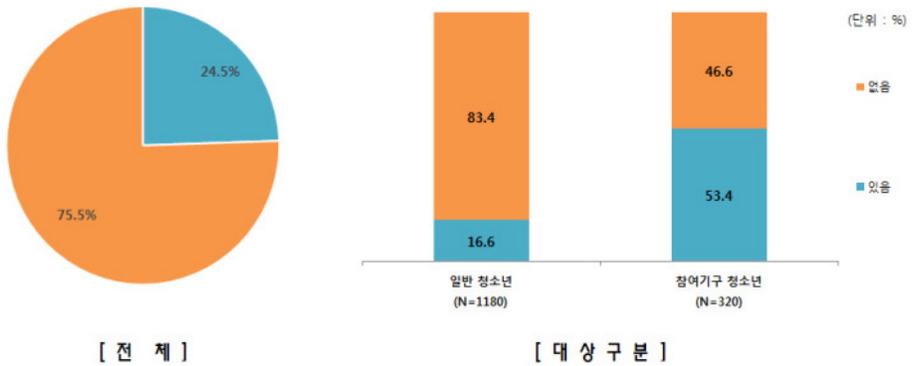


그림 Ⅲ-129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

표 Ⅲ-141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24.5	75.5
일반 청소년	(1,180)	16.6	83.4
참여기구 청소년	(320)	53.4	46.6
성별	남자 (741)	23.3	76.7
	여자 (759)	25.6	74.4
연령	9~12세 (215)	4.7	95.3
	13~18세 (788)	26.8	73.2
	19~24세 (497)	29.4	70.6

㊤ 이용 만족도

유스호스텔의 이용 만족도의 경우,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4.4%는 시설에 대해 만족했고 나머지 25.6%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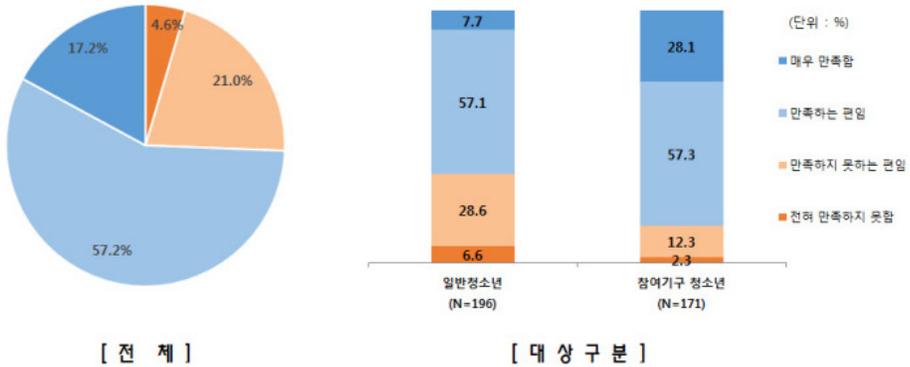


그림 III-130 유스호스텔 이용 만족도

표 III-142 유스호스텔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67)	4.6	21.0	57.2	17.2	25.6	74.4	
일반 청소년	(196)	6.6	28.6	57.1	7.7	35.2	64.8	
참여기구 청소년	(171)	2.3	12.3	57.3	28.1	14.6	85.4	
성별	남자	(173)	3.5	22.0	54.9	19.7	25.4	74.6
	여자	(194)	5.7	20.1	59.3	14.9	25.8	74.2
연령	9~12세	(10)	10.0	40.0	40.0	10.0	50.0	50.0
	13~18세	(211)	2.4	19.0	59.7	19.0	21.3	78.7
	19~24세	(146)	7.5	22.6	54.8	15.1	30.1	69.9

㊤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유스호스텔 이용 시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49.9%는 지도사와의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50.1%는 접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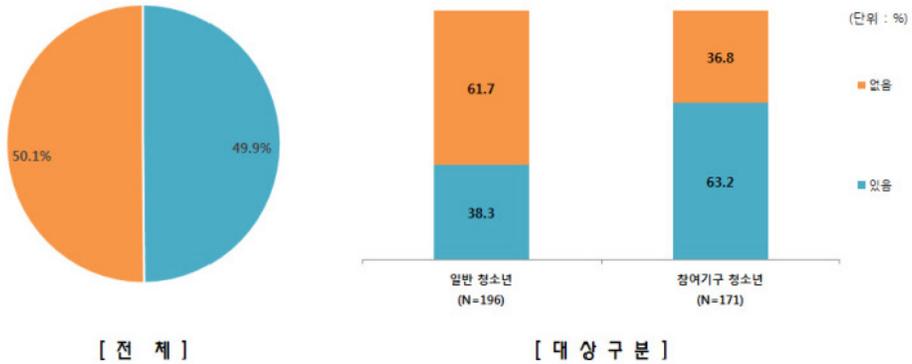


그림 Ⅲ-131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표 Ⅲ-143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67)	49.9	50.1	
일반 청소년	(196)	38.3	61.7	
참여기구 청소년	(171)	63.2	36.8	
성별	남자	(173)	50.9	49.1
	여자	(194)	49.0	51.0
연령	9~12세	(10)	30.0	70.0
	13~18세	(211)	52.1	47.9
	19~24세	(146)	47.9	52.1

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유스호스텔에서 접촉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0.3%는 지도사에 대해 만족한 반면 19.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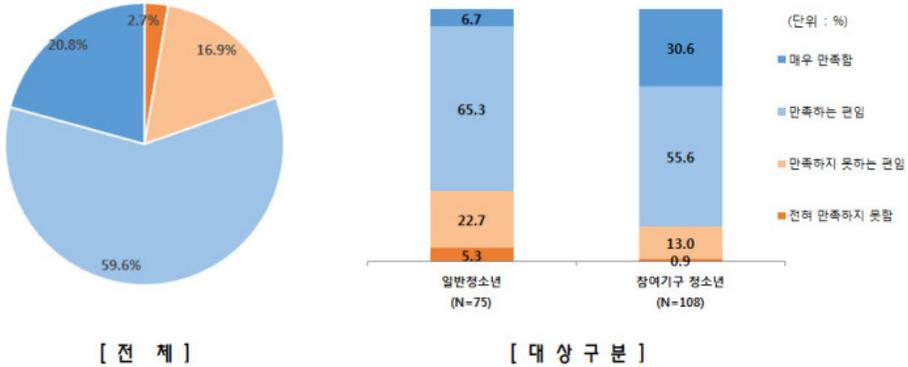


그림 III-132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표 III-144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83)	2.7	16.9	59.6	20.8	19.7	80.3	
일반 청소년	(75)	5.3	22.7	65.3	6.7	28.0	72.0	
참여기구 청소년	(108)	0.9	13.0	55.6	30.6	13.9	86.1	
성별	남자	(88)	2.3	15.9	59.1	22.7	18.2	81.8
	여자	(95)	3.2	17.9	60.0	18.9	21.1	78.9
연령	9~12세	(3)	-	-	100.0	-	-	100.0
	13~18세	(110)	0.9	16.4	57.3	25.5	17.3	82.7
	19~24세	(70)	5.7	18.6	61.4	14.3	24.3	75.7

㉔ 향후 이용의향

향후 유스호스텔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2.5%는 이용의향이 있었고 47.5%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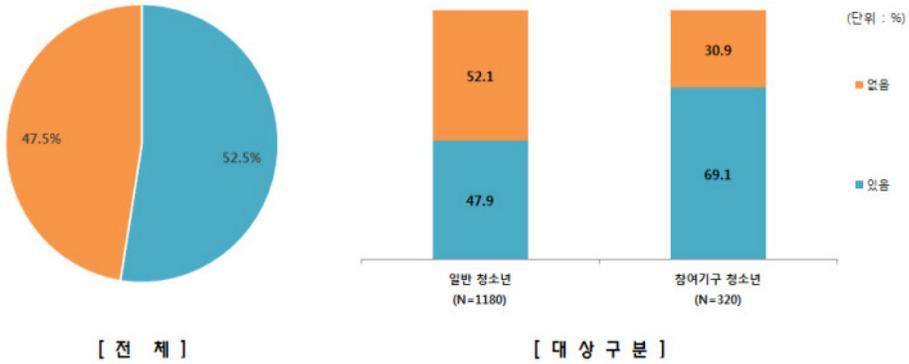


그림 III-133 유스호스텔 향후 이용의향

표 III-145 유스호스텔 향후 이용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2.5	47.5
일반 청소년	(1,180)	47.9	52.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9.1	30.9
성별	남자 (741)	51.3	48.7
	여자 (759)	53.7	46.3
연령	9~12세 (215)	52.1	47.9
	13~18세 (788)	60.4	39.6
	19~24세 (497)	40.8	59.2

⑦ 청소년증 인지도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1.7%는 인지도가 있었고 38.3%는 인지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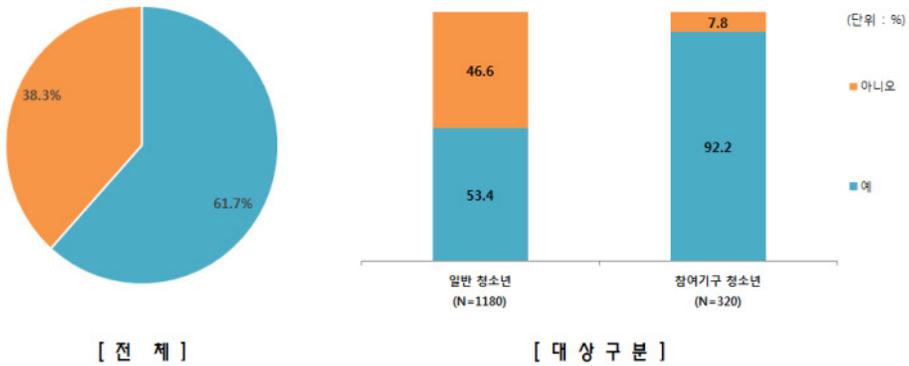


그림 III-134 청소년증 인지도

표 III-146 청소년증 인지도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500)	61.7	38.3	
일반 청소년	(1,180)	53.4	46.6	
참여기구 청소년	(320)	92.2	7.8	
성별	남자	(741)	60.2	39.8
	여자	(759)	63.1	36.9
연령	9~12세	(215)	52.6	47.4
	13~18세	(788)	68.8	31.2
	19~24세	(497)	54.3	45.7

⑧ 청소년증 발급 경험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9%는 청소년증을 실제로 발급받은 적이 있었고 과반수인 68.1%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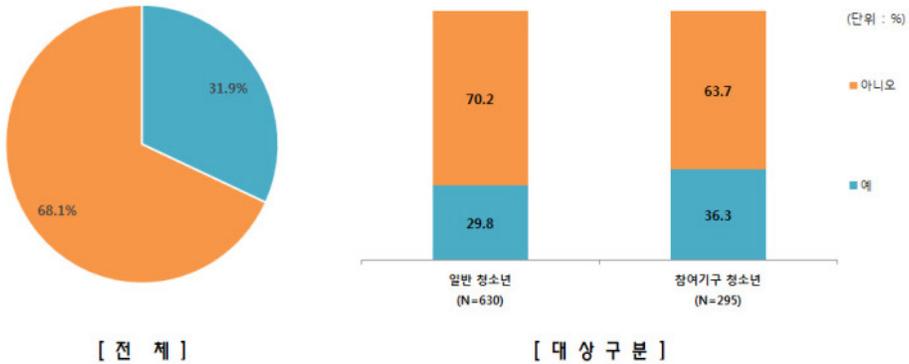


그림 III-135 청소년증 발급 경험

표 III-147 청소년증 발급 경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925)	31.9	68.1
일반 청소년	(630)	29.8	70.2
참여기구 청소년	(295)	36.3	63.7
성별	남자 (446)	32.7	67.3
	여자 (479)	31.1	68.9
연령	9~12세 (113)	28.3	71.7
	13~18세 (542)	34.5	65.5
	19~24세 (270)	28.1	71.9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15.8%),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10.5%), 그리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8.9%)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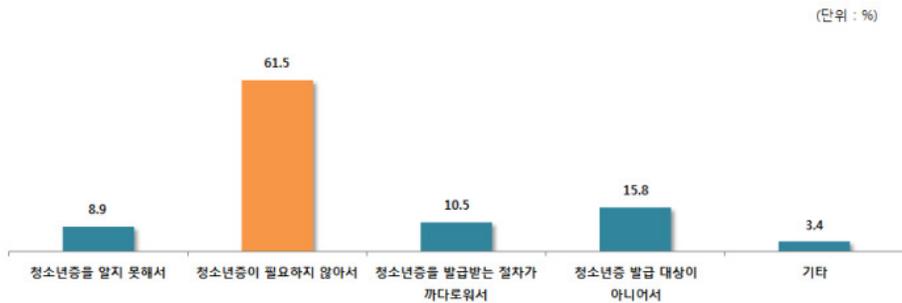


그림 III-136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은 이유

표 III-148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은 이유

구분	사례수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기타	
전체	(620)	8.9	61.5	10.5	15.8	3.4	
일반 청소년	(432)	10.2	61.8	8.3	19.0	0.7	
참여기구 청소년	(188)	5.9	60.6	15.4	8.5	9.6	
성별	남자	(295)	8.5	64.1	11.2	14.6	1.7
	여자	(325)	9.2	59.1	9.8	16.9	4.9
연령	9~12세	(81)	7.4	48.1	11.1	32.1	1.2
	13~18세	(345)	8.1	61.7	13.6	11.6	4.9
	19~24세	(194)	10.8	66.5	4.6	16.5	1.5

⑨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필요성

현행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32.3%는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7.7%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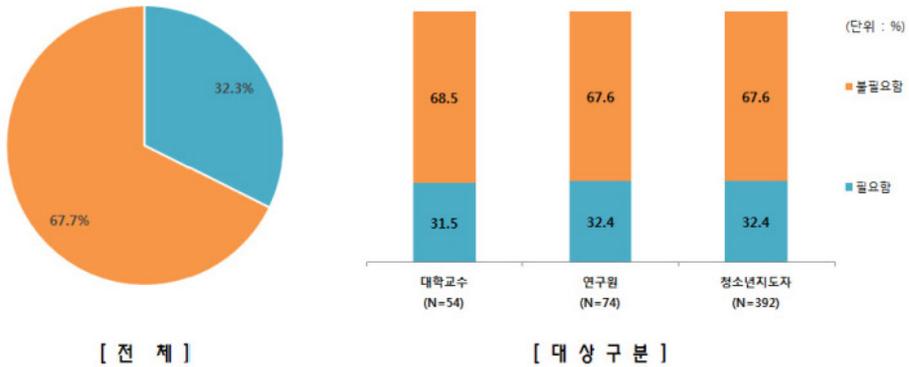


그림 III-137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필요성

표 III-149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필요성

구분	사계수	필요함	불필요함	
전체	(520)	32.3	67.7	
직군	대학교수	(54)	31.5	68.5
	연구원	(74)	32.4	67.6
	청소년지도자	(392)	32.4	67.6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다시 조정 연령을 설문한 결과, 평균 만 10.4세 이상 20.7세 이하로 나타났다.

표 III-150 청소년증 발급대상 조정 연령

구분	사례수	하위 (만 ___세 이상)	상위 (만 ___세 이하)	
전체	(168)	10.4	20.7	
직군	대학교수	(17)	10.9	22.0
	연구원	(24)	11.3	18.9
	청소년지도자	(127)	10.2	20.9

⑩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

현행 청소년증은 ①공적 신분증, ②청소년 우대(할인) 증표, ③선불형 교통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의 기능이 지금보다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0%는 확장 필요성에 찬성하였고 45.0%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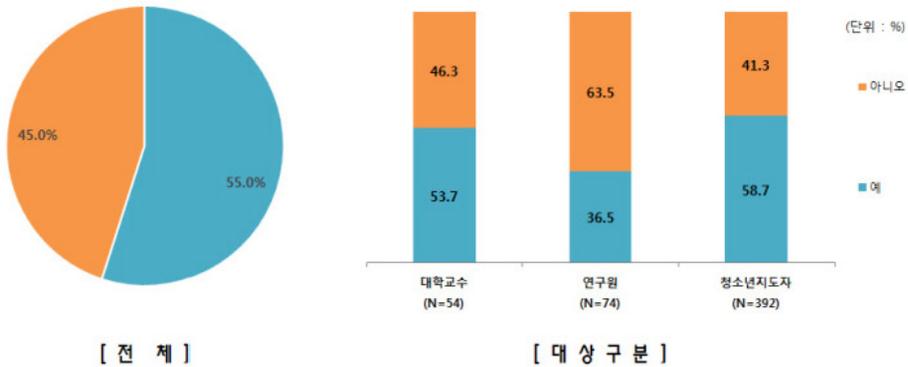


그림 III-138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

표 III-151 청소년증 기능 확장 필요성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20)	55.0	45.0	
직군	대학교수	(54)	53.7	46.3
	연구원	(74)	36.5	63.5
	청소년지도자	(392)	58.7	41.3

⑪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어떤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하는지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한 결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미래 대응 정책방안 마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미래 대응방안 설계'(26.7%), '4C(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력, 협업, 창의력)와 같은 역량 중심의 활동 및 교육 설계'(22.9%) 등의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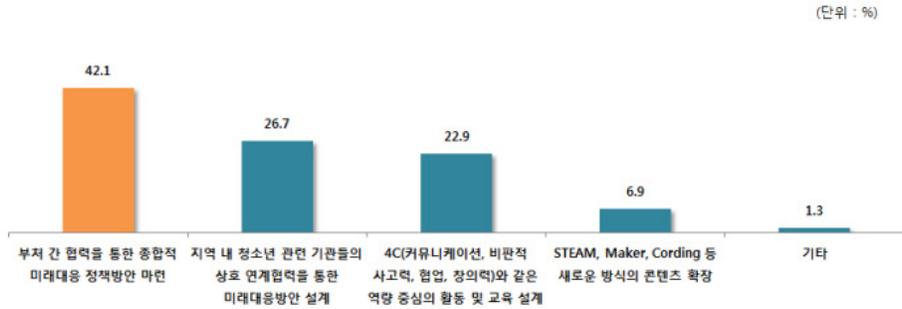


그림 III-139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표 III-152 청소년을 위한 우선적 조치

구분	사례수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미래 대응 정책방안 마련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한 미래 대응 방안 설계	4C와 같은 역량 중심의 활동 및 교육 설계	STEAM, Maker, Coding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의 확장	기타	
전체	(520)	42.1	26.7	22.9	6.9	1.3	
직군	대학교수	(54)	38.9	24.1	29.6	7.4	-
	연구원	(74)	31.1	28.4	33.8	6.8	-
	청소년지도자	(392)	44.6	26.8	19.9	6.9	1.8

⑫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7%는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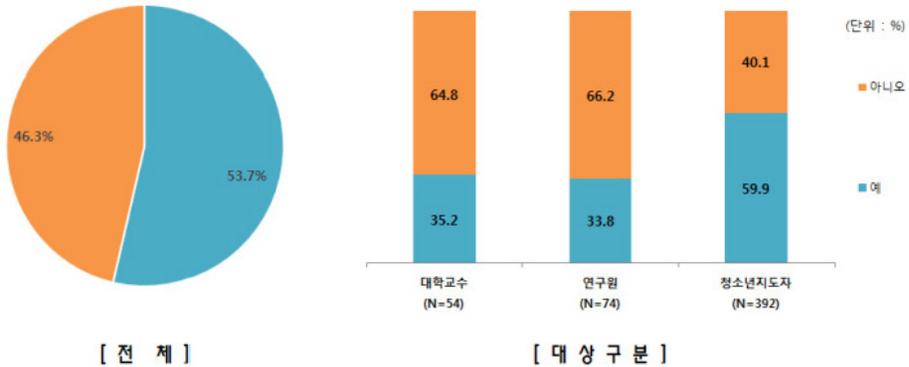


그림 III-140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

표 III-153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520)	53.7	46.3
직군	대학교수 (54)	35.2	64.8
	연구원 (74)	33.8	66.2
	청소년지도자 (392)	59.9	40.1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해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의 예산 및 인력 확보 부족'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소년사업의 기획과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견 수렴 부재' 21.6%,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홀대' 2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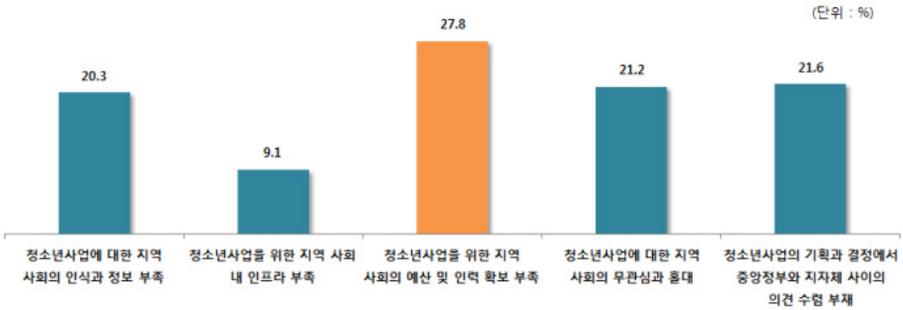


그림 III-141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표 III-154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구분	사례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과 정보 부족	청소년 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인프라 부족	청소년 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의 예산 및 인력 확보 부족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몰대	청소년사업의 기획과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견 수렴 부재	
전체	(241)	20.3	9.1	27.8	21.2	21.6	
직군	대학교수	(35)	22.9	11.4	25.7	20.0	20.0
	연구원	(49)	22.4	10.2	14.3	24.5	28.6
	청소년지도자	(157)	19.1	8.3	32.5	20.4	19.7

⑬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활동의 종합 시설(허브)로 개편하자는 방안에 대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6.2%는 동의하였고 13.8%는 동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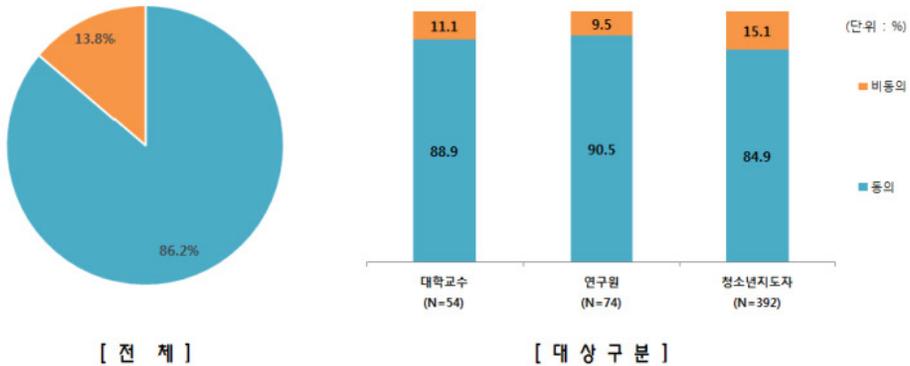


그림 III-142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표 III-155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구분	사례수	동의	비동의
전체	(520)	86.2	13.8
직군	대학교수 (54)	88.9	11.1
	연구원 (74)	90.5	9.5
	청소년지도자 (392)	84.9	15.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및 시설 개편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가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 간 통폐합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축소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활동 위축' 20.8% 등의 순으로 반대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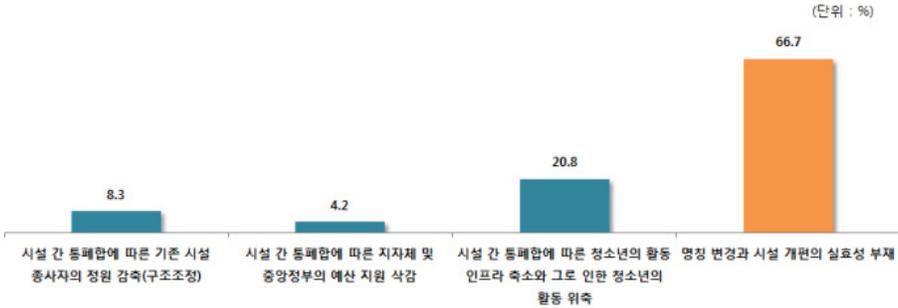


그림 III-143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반대 이유

표 III-156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 방안 반대 이유

구분	사례수	시설 간 동폐함에 따른 기존 시설 종사자의 정원 감축(구조조정)	시설 간 동폐함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삭감	시설 간 동폐함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축소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활동 위축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	
전체	(72)	8.3	4.2	20.8	66.7	
직군	대학교수	(6)	-	-	16.7	83.3
	연구원	(7)	-	-	42.9	57.1
	청소년지도자	(59)	10.2	5.1	18.6	66.1

(5)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

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5.5%는 긍정적으로, 64.5%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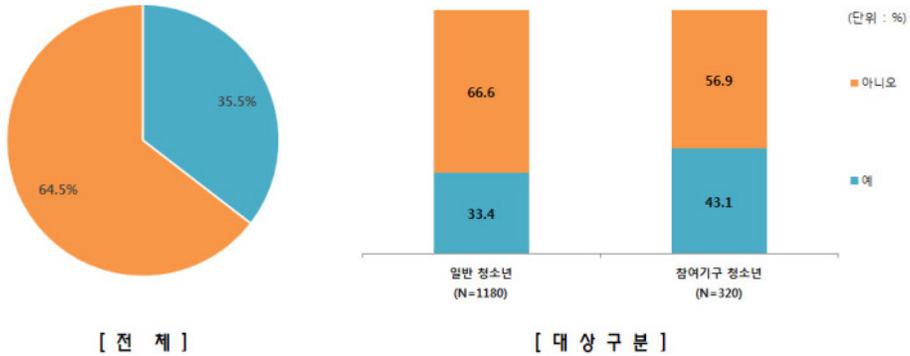


그림 III-144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표 III-157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500)	35.5	64.5
일반 청소년	(1,180)	33.4	66.6
참여기구 청소년	(320)	43.1	56.9
성별	남자 (741)	37.1	62.9
	여자 (759)	33.9	66.1
연령	9~12세 (215)	34.9	65.1
	13~18세 (788)	35.4	64.6
	19~24세 (497)	35.8	64.2

② 청소년 복지

가. 생활복지

생활복지(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9.7%는 생활복지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0.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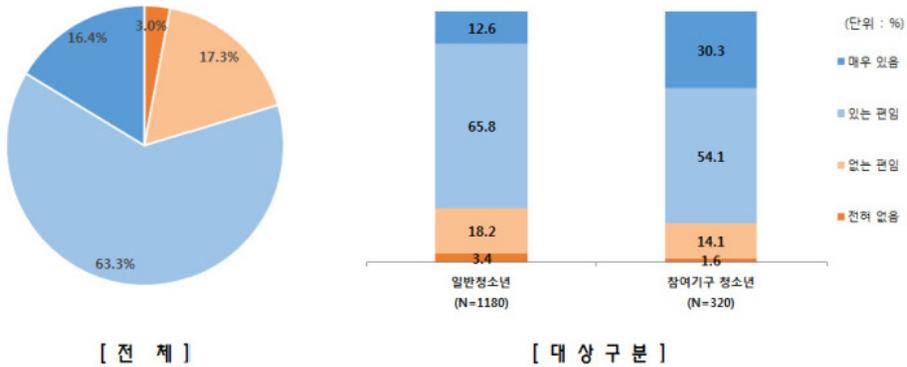


그림 III-145 청소년의 생활복지 욕구

표 III-158 청소년의 생활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3.0	17.3	63.3	16.4	20.3	79.7	
일반 청소년	(1,180)	3.4	18.2	65.8	12.6	21.6	78.4	
참여기구 청소년	(320)	1.6	14.1	54.1	30.3	15.6	84.4	
성별	남자	(741)	3.0	18.4	62.2	16.5	21.3	78.7
	여자	(759)	3.0	16.3	64.3	16.3	19.4	80.6
연령	9~12세	(215)	0.9	21.9	66.5	10.7	22.8	77.2
	13~18세	(788)	2.7	16.9	63.6	16.9	19.5	80.5
	19~24세	(497)	4.4	16.1	61.4	18.1	20.5	79.5

생활복지가 청소년의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0.9%는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9.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의 68.5%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청소년의 경우 71.8%(일반 청소년 68.5%, 참여기구 청소년 84.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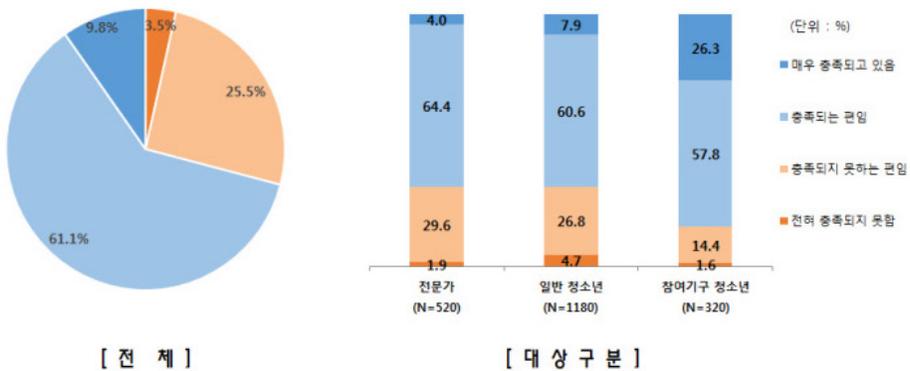


그림 III-146 일상에서의 청소년 생활복지 충족 정도

표 III-159 일상에서의 청소년 생활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3.5	25.5	61.1	9.8	29.1	70.9
전문가	(520)	1.9	29.6	64.4	4.0	31.5	68.5
청소년	(1,500)	4.1	24.1	60.0	11.8	28.2	71.8
일반 청소년	(1,180)	4.7	26.8	60.6	7.9	31.5	68.5
참여기구 청소년	(320)	1.6	14.4	57.8	26.3	15.9	84.1
성별							
남자	(741)	4.0	23.3	60.6	12.0	27.4	72.6
여자	(759)	4.1	24.9	59.4	11.6	29.0	71.0
연령							
9~12세	(215)	0.9	28.4	63.3	7.4	29.3	70.7
13~18세	(788)	3.4	22.0	60.8	13.8	25.4	74.6
19~24세	(497)	6.4	25.8	57.3	10.5	32.2	67.8

나. 건강복지

건강복지(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8.6%는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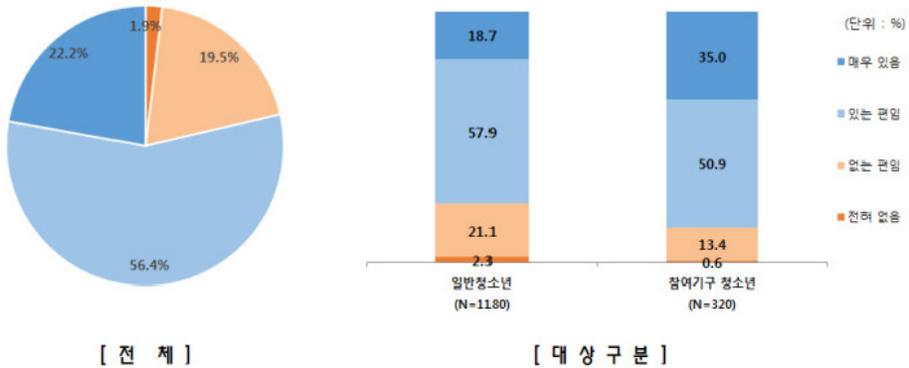


그림 III-147 청소년의 건강복지 욕구

표 III-160 청소년의 건강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1.9	19.5	56.4	22.2	21.4	78.6	
일반 청소년	(1,180)	2.3	21.1	57.9	18.7	23.4	76.6	
참여기구 청소년	(320)	0.6	13.4	50.9	35.0	14.1	85.9	
성별	남자	(741)	1.8	22.0	54.4	21.9	23.8	76.2
	여자	(759)	2.1	17.0	58.4	22.5	19.1	80.9
연령	9~12세	(215)	0.9	23.3	56.7	19.1	24.2	75.8
	13~18세	(788)	0.6	18.5	55.1	25.8	19.2	80.8
	19~24세	(497)	4.4	19.3	58.4	17.9	23.7	76.3

일상에서 청소년의 건강복지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7%는 긍정적으로, 38.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 집단별로는 전문가의 53.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청소년의 경우도 64.5%(일반 청소년 61.7%, 참여기구 청소년 75.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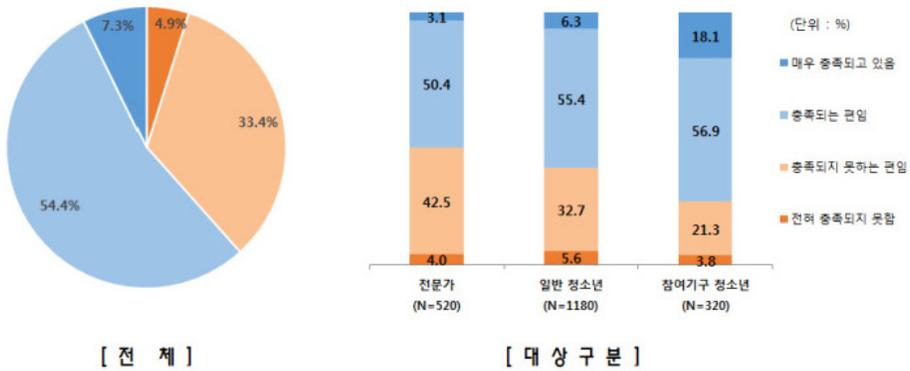


그림 III-148 일상에서의 청소년 건강복지 충족 정도

표 III-161 일상에서의 청소년 건강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4.9	33.4	54.4	7.3	38.3	61.7
전문가	(520)	4.0	42.5	50.4	3.1	46.5	53.5
청소년	(1,500)	5.2	30.3	55.7	8.8	35.5	64.5
일반 청소년	(1,180)	5.6	32.7	55.4	6.3	38.3	61.7
참여기구 청소년	(320)	3.8	21.3	56.9	18.1	25.0	75.0
성별							
남자	(741)	5.3	30.2	56.0	8.5	35.5	64.5
여자	(759)	5.1	30.3	55.5	9.1	35.4	64.6
연령							
9~12세	(215)	2.8	25.6	67.4	4.2	28.4	71.6
13~18세	(788)	4.9	27.5	56.7	10.8	32.5	67.5
19~24세	(497)	6.6	36.6	49.1	7.6	43.3	56.7

다. 학업복지

학업복지(안정된 학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8.0%는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2.0%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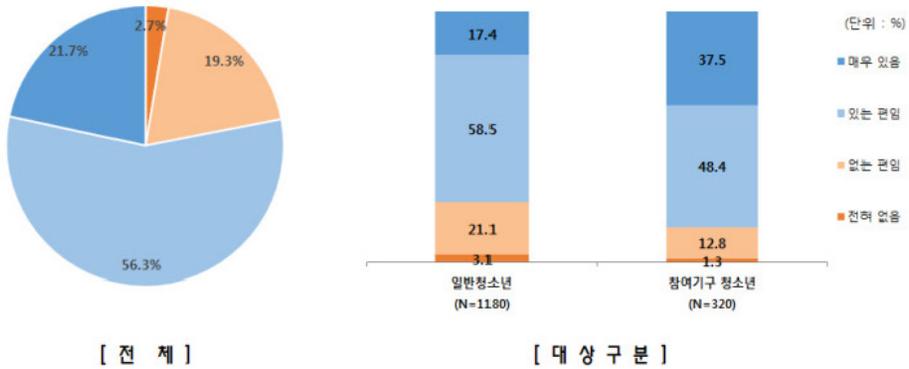


그림 III-149 청소년의 학업복지 욕구

표 III-162 청소년의 학업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2.7	19.3	56.3	21.7	22.0	78.0	
일반 청소년	(1,180)	3.1	21.1	58.5	17.4	24.2	75.8	
참여기구 청소년	(320)	1.3	12.8	48.4	37.5	14.1	85.9	
성별	남자	(741)	3.0	20.0	57.8	19.3	22.9	77.1
	여자	(759)	2.4	18.7	54.9	24.0	21.1	78.9
연령	9~12세	(215)	0.9	21.9	60.0	17.2	22.8	77.2
	13~18세	(788)	1.0	17.9	56.1	25.0	18.9	81.1
	19~24세	(497)	6.0	20.5	55.1	18.3	26.6	73.4

일상에서 청소년의 학업복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4%는 긍정적으로, 34.6%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6.2%로 나타났고, 청소년 가운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5.2%(일반 청소년 62.0%, 참여기구 청소년 76.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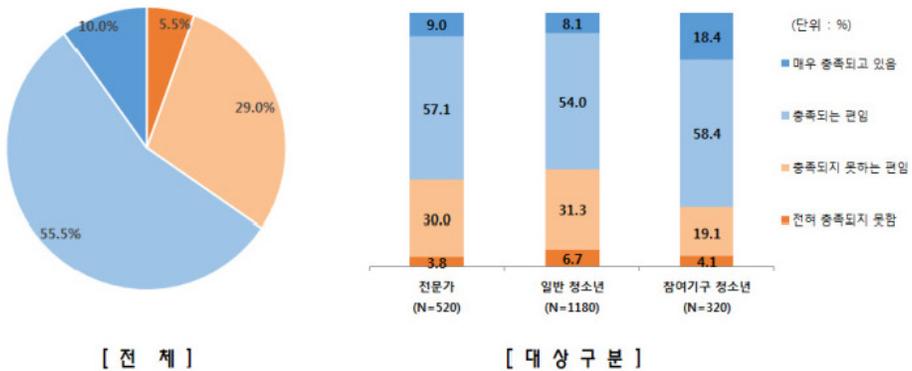


그림 III-150 일상에서의 청소년 학업복지 충족 정도

표 III-163 일상에서의 청소년 학업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5.5	29.0	55.5	10.0	34.6	65.4
전문가	(520)	3.8	30.0	57.1	9.0	33.8	66.2
청소년	(1,500)	6.1	28.7	54.9	10.3	34.8	65.2
일반 청소년	(1,180)	6.7	31.3	54.0	8.1	38.0	62.0
참여기구 청소년	(320)	4.1	19.1	58.4	18.4	23.1	76.9
성별							
남자	(741)	7.2	27.8	54.8	10.3	35.0	65.0
여자	(759)	5.1	29.5	55.1	10.3	34.7	65.3
연령							
9~12세	(215)	2.3	31.2	58.6	7.9	33.5	66.5
13~18세	(788)	4.7	27.8	56.1	11.4	32.5	67.5
19~24세	(497)	10.1	29.0	51.5	9.5	39.0	61.0

라. 자립복지

자립복지(취업과 진로 결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8.6%는 욕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3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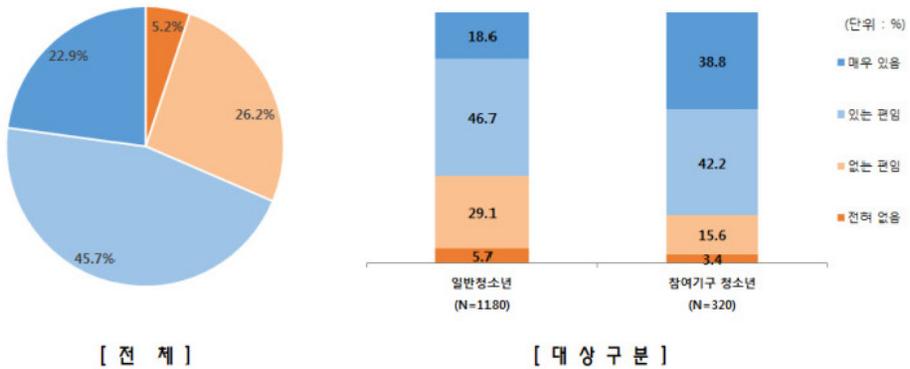


그림 Ⅲ-151 청소년의 자립복지 욕구

표 Ⅲ-164 청소년의 자립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5.2	26.2	45.7	22.9	31.4	68.6	
일반 청소년	(1,180)	5.7	29.1	46.7	18.6	34.7	65.3	
참여기구 청소년	(320)	3.4	15.6	42.2	38.8	19.1	80.9	
성별	남자	(741)	5.9	28.3	44.8	20.9	34.3	65.7
	여자	(759)	4.5	24.1	46.6	24.8	28.6	71.4
연령	9~12세	(215)	4.7	34.0	45.6	15.8	38.6	61.4
	13~18세	(788)	2.9	26.1	45.1	25.9	29.1	70.9
	19~24세	(497)	9.1	22.9	46.9	21.1	32.0	68.0

일상에서 청소년의 자립복지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8%는 긍정적으로, 과반수인 62.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9.8%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4.0%(일반 청소년 39.9%, 참여기구 청소년 59.1%)로 충족 실태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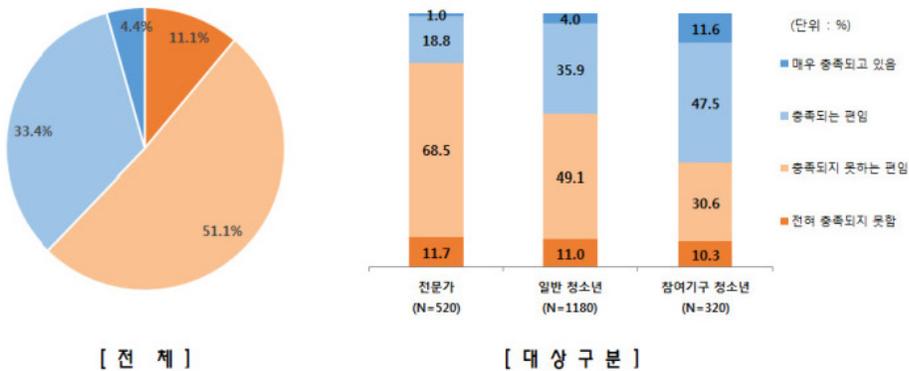


그림 III-152 일상에서의 청소년 자립복지 충족 정도

표 III-165 일상에서의 청소년 자립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11.1	51.1	33.4	4.4	62.2	37.8	
전문가	(520)	11.7	68.5	18.8	1.0	80.2	19.8	
청소년	(1,500)	10.9	45.1	38.4	5.6	56.0	44.0	
일반 청소년	(1,180)	11.0	49.1	35.9	4.0	60.1	39.9	
참여기구 청소년	(320)	10.3	30.6	47.5	11.6	40.9	59.1	
성별	남자	(741)	10.0	46.3	37.9	5.8	56.3	43.7
	여자	(759)	11.7	44.0	38.9	5.4	55.7	44.3
연령	9~12세	(215)	4.7	58.6	32.6	4.2	63.3	36.7
	13~18세	(788)	9.6	43.3	40.4	6.7	52.9	47.1
	19~24세	(497)	15.5	42.3	37.8	4.4	57.7	42.3

마. 상담복지

상담복지(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8.5%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31.5%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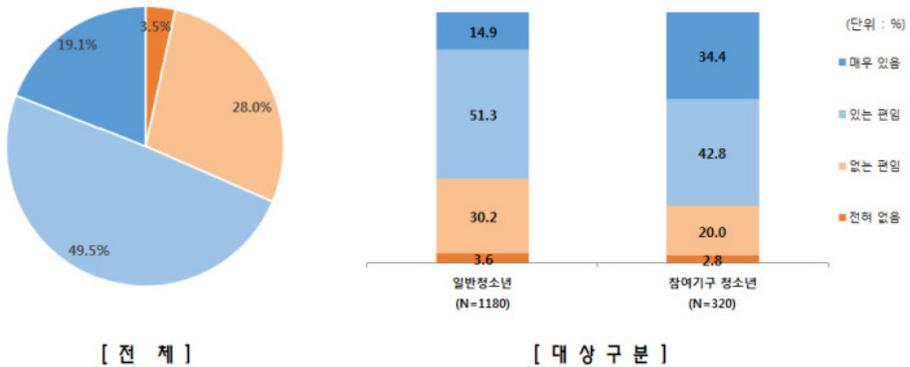


그림 III-153 청소년의 상담복지 욕구

표 III-166 청소년의 상담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3.5	28.0	49.5	19.1	31.5	68.5
일반 청소년	(1,180)	3.6	30.2	51.3	14.9	33.8	66.2
참여기구 청소년	(320)	2.8	20.0	42.8	34.4	22.8	77.2
성별	남자 (741)	4.0	30.0	48.9	17.1	34.0	66.0
	여자 (759)	2.9	26.1	50.1	20.9	29.0	71.0
연령	9~12세 (215)	2.3	35.3	50.7	11.6	37.7	62.3
	13~18세 (788)	2.3	25.8	50.3	21.7	28.0	72.0
	19~24세 (497)	5.8	28.4	47.7	18.1	34.2	65.8

일상에서 청소년의 상담복지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는 긍정적으로, 54.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9.4%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답변 비율은 44.5%(일반 청소년 40.9%, 참여기구 청소년 57.5%)로 나타나 두 집단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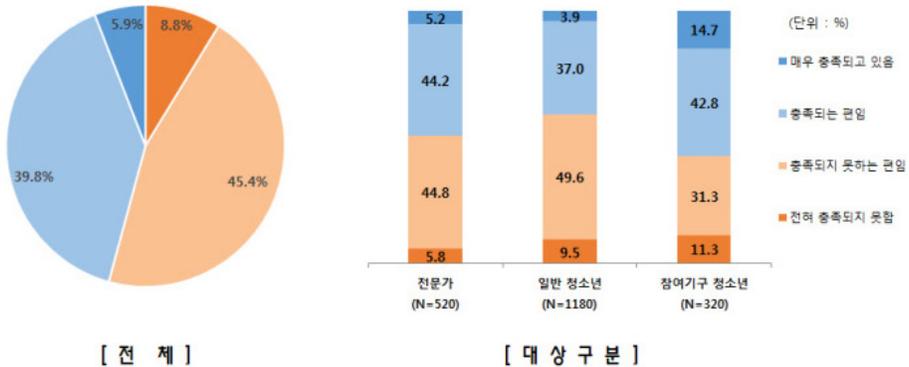


그림 III-154 일상에서의 청소년 상담복지 충족 정도

표 III-167 일상에서의 청소년 상담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8.8	45.4	39.8	5.9	54.3	45.7
전문가	(520)	5.8	44.8	44.2	5.2	50.6	49.4
청소년	(1,500)	9.9	45.7	38.3	6.2	55.5	44.5
일반 청소년	(1,180)	9.5	49.6	37.0	3.9	59.1	40.9
참여기구 청소년	(320)	11.3	31.3	42.8	14.7	42.5	57.5
성별							
남자	(741)	10.5	46.4	36.3	6.7	57.0	43.0
여자	(759)	9.2	44.9	40.2	5.7	54.2	45.8
연령							
9~12세	(215)	5.1	52.1	40.0	2.8	57.2	42.8
13~18세	(788)	9.8	44.8	37.9	7.5	54.6	45.4
19~24세	(497)	12.1	44.3	38.0	5.6	56.3	43.7

바. 활동복지

활동복지(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0.8%는 활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9.2%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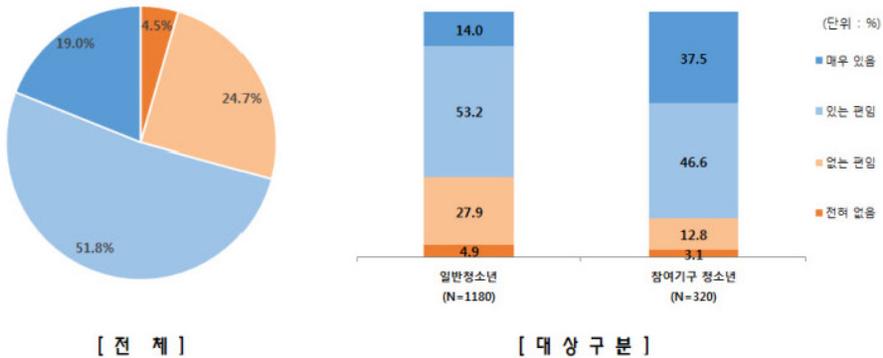


그림 III-155 청소년의 활동복지 욕구

표 III-168 청소년의 활동복지 욕구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있는 편임	매우 있음	없음	있음	
전체	(1,500)	4.5	24.7	51.8	19.0	29.2	70.8	
일반 청소년	(1,180)	4.9	27.9	53.2	14.0	32.8	67.2	
참여기구 청소년	(320)	3.1	12.8	46.6	37.5	15.9	84.1	
성별	남자	(741)	4.3	27.7	50.7	17.3	32.0	68.0
	여자	(759)	4.7	21.7	52.8	20.7	26.5	73.5
연령	9~12세	(215)	3.3	27.4	54.9	14.4	30.7	69.3
	13~18세	(788)	3.4	22.1	50.9	23.6	25.5	74.5
	19~24세	(497)	6.8	27.6	51.9	13.7	34.4	65.6

청소년의 활동복지가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54.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 가운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40.2%로 나타났고, 청소년 가운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7.6%(일반 청소년 43.1%, 참여기구 청소년 6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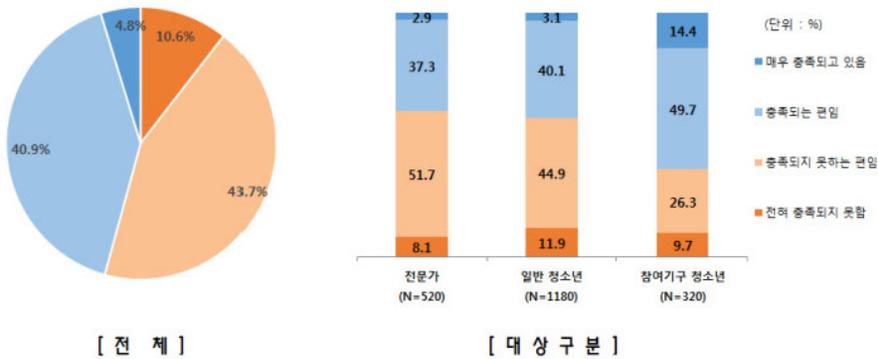


그림 III-156 일상에서의 청소년 활동복지 충족 정도

표 III-169 일상에서의 청소년 활동복지 충족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충족되지 못함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충족되는 편임	매우 충족되고 있음	불충족	충족	
전체	(2,020)	10.6	43.7	40.9	4.8	54.3	45.7	
전문가	(520)	8.1	51.7	37.3	2.9	59.8	40.2	
청소년	(1,500)	11.5	40.9	42.1	5.5	52.4	47.6	
일반 청소년	(1,180)	11.9	44.9	40.1	3.1	56.9	43.1	
참여기구 청소년	(320)	9.7	26.3	49.7	14.4	35.9	64.1	
성별	남자	(741)	10.7	41.2	42.2	5.9	51.8	48.2
	여자	(759)	12.3	40.7	42.0	5.0	53.0	47.0
연령	9~12세	(215)	6.5	45.6	45.6	2.3	52.1	47.9
	13~18세	(788)	10.7	37.7	45.1	6.6	48.4	51.6
	19~24세	(497)	14.9	44.1	36.0	5.0	59.0	41.0

사.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청소년 복지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기여도가 큰 복지영역을 조사한 결과, '생활복지'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활동복지' 22.5%, '자립복지' 15.7%, '건강복지' 12.7% 등의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선택 결과를 보면 '활동복지'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생활복지'가 2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마찬가지로 '활동복지'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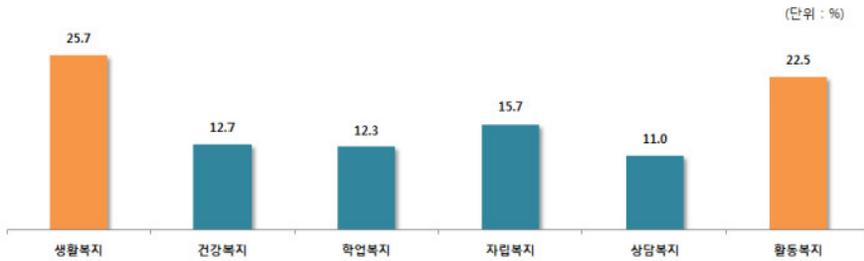


그림 III-157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청소년 복지

표 III-170 행복 기여도가 가장 큰 청소년 복지

구분	사례수	생활복지	건강복지	학업복지	자립복지	상담복지	활동복지	
전체	(2,020)	25.7	12.7	12.3	15.7	11.0	22.5	
전문가	(520)	19.8	5.8	4.2	15.0	18.7	36.5	
청소년	(1,500)	27.8	15.1	15.1	15.9	8.4	17.7	
일반 청소년	(1,180)	29.2	17.0	15.7	16.6	8.2	13.3	
참여기구 청소년	(320)	22.8	7.8	13.1	13.4	9.1	33.8	
성별	남자	(741)	27.7	15.2	16.9	17.1	8.0	15.1
	여자	(759)	27.9	14.9	13.4	14.8	8.8	20.2
연령	9~12세	(215)	26.0	23.7	14.4	14.0	6.5	15.3
	13~18세	(788)	26.0	15.0	14.6	15.6	8.4	20.4
	19~24세	(497)	31.4	11.5	16.3	17.3	9.3	14.3

③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㉞ 인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7%는 인지도가 있었고 33.3%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97.7%, 74.7%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었고 일반 청소년은 50.8%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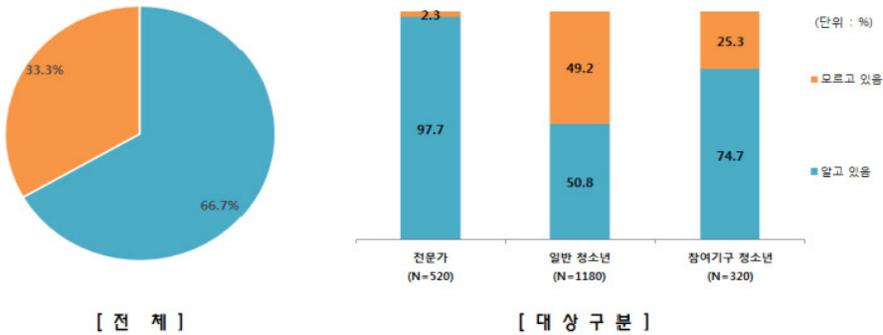


그림 Ⅲ-15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표 Ⅲ-17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66.7	33.3
전문가	(520)	97.7	2.3
청소년	(1,500)	55.9	44.1
일반 청소년	(1,180)	50.8	49.2
참여기구 청소년	(320)	74.7	25.3
성별			
남자	(741)	54.5	45.5
여자	(759)	57.3	42.7
연령			
9~12세	(215)	24.7	75.3
13~18세	(788)	64.3	35.7
19~24세	(497)	56.1	43.9

㉔ 이용 경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6.1%만이 센터 이용 경험이 있었고 83.9%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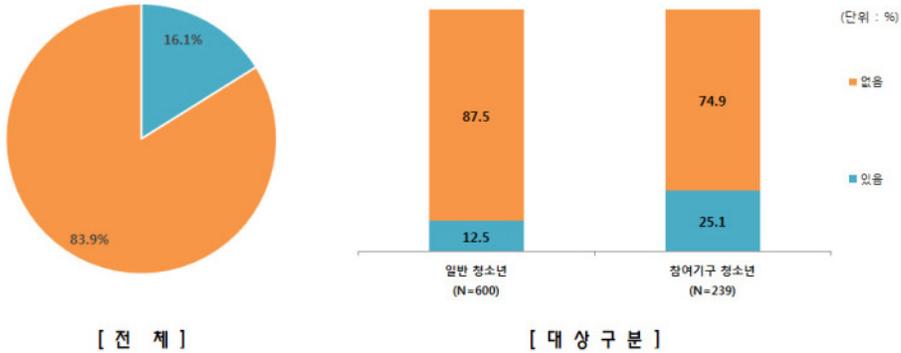


그림 III-15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표 III-17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839)	16.1	83.9
일반 청소년	(600)	12.5	87.5
참여기구 청소년	(239)	25.1	74.9
성별	남자 (404)	19.1	80.9
	여자 (435)	13.3	86.7
연령	9~12세 (53)	5.7	94.3
	13~18세 (507)	15.0	85.0
	19~24세 (279)	20.1	79.9

㉔ 이용 만족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3.2%는 이용 경험에 대해 만족으로, 16.8%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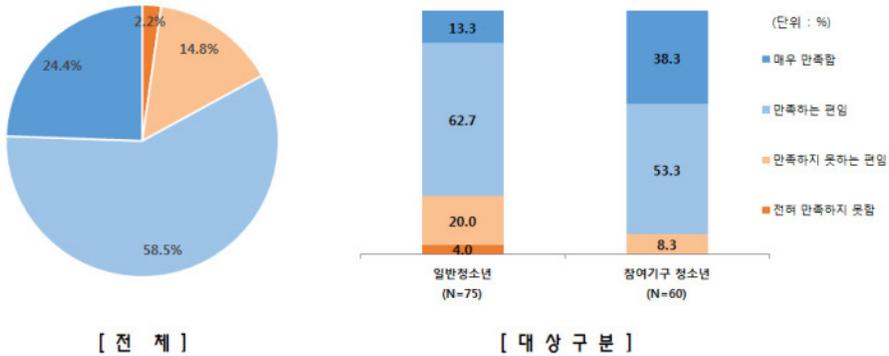


그림 III-1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표 III-1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35)	2.2	14.8	58.5	24.4	17.0	83.0	
일반 청소년	(75)	4.0	20.0	62.7	13.3	24.0	76.0	
참여기구 청소년	(60)	-	8.3	53.3	38.3	8.3	91.7	
성별	남자	(77)	2.6	19.5	51.9	26.0	22.1	77.9
	여자	(58)	1.7	8.6	67.2	22.4	10.3	89.7
연령	9~12세	(3)	-	66.7	33.3	-	66.7	33.3
	13~18세	(76)	2.6	17.1	55.3	25.0	19.7	80.3
	19~24세	(56)	1.8	8.9	64.3	25.0	10.7	89.3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시설을 이용해 본 청소년 응답자의 78.5%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21.5%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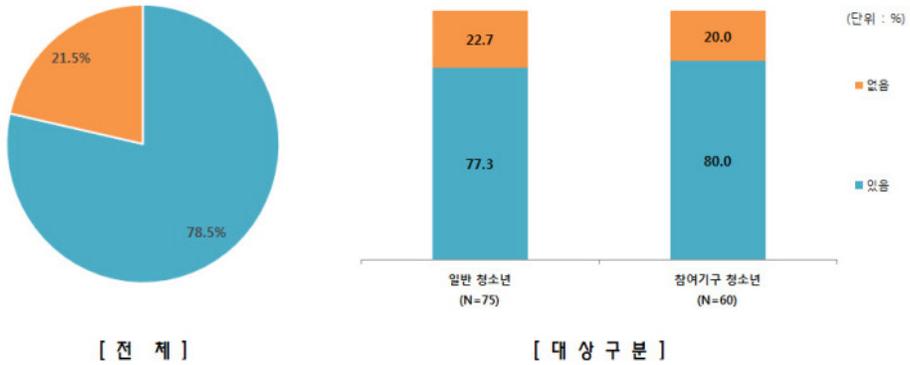


그림 III-1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III-17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35)	78.5	21.5
일반 청소년	(75)	77.3	22.7
참여기구 청소년	(60)	80.0	20.0
성별	남자 (77)	83.1	16.9
	여자 (58)	72.4	27.6
연령	9~12세 (3)	66.7	33.3
	13~18세 (76)	76.3	23.7
	19~24세 (56)	82.1	17.9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90.6%는 긍정적 평가를, 나머지 9.4%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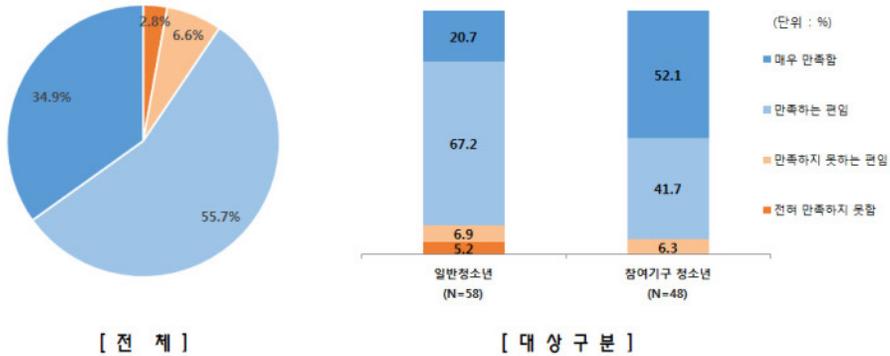


그림 Ⅲ-16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Ⅲ-1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06)	2.8	6.6	55.7	34.9	9.4	90.6	
일반 청소년	(58)	5.2	6.9	67.2	20.7	12.1	87.9	
참여기구 청소년	(48)	-	6.3	41.7	52.1	6.3	93.8	
성별	남자	(64)	3.1	10.9	53.1	32.8	14.1	85.9
	여자	(42)	2.4	-	59.5	38.1	2.4	97.6
연령	9~12세	(2)	-	50.0	50.0	-	50.0	50.0
	13~18세	(58)	3.4	8.6	48.3	39.7	12.1	87.9
	19~24세	(46)	2.2	2.2	65.2	30.4	4.3	95.7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8%는 긍정적으로, 14.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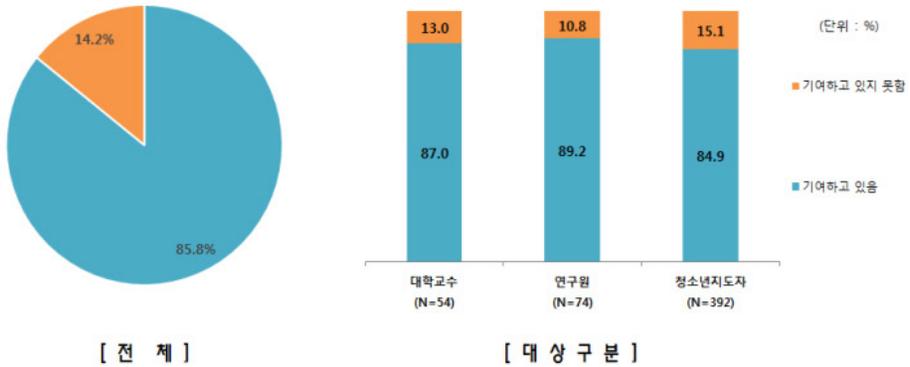


그림 III-16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여도

표 III-17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85.8	14.2
직군	대학교수	(54) 87.0	13.0
	연구원	(74) 89.2	10.8
	청소년지도자	(392) 84.9	15.1

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㉞ 인지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과반수인 90.8%는 CYS-Net에 대해 알고 있었고 9.2%만이 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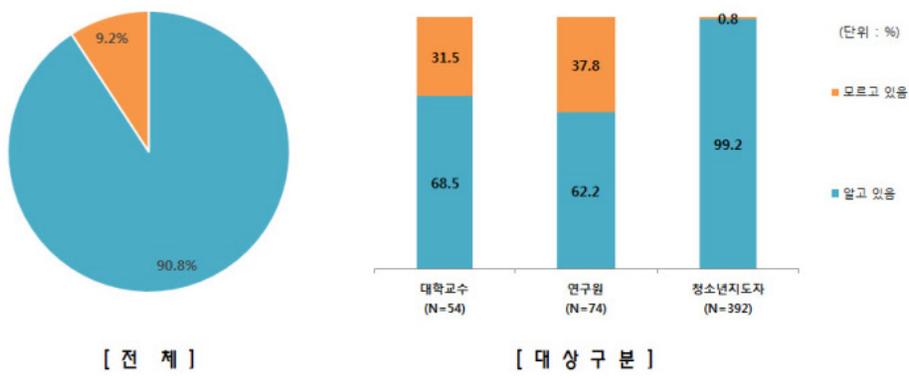


그림 III-16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인지도

표 III-17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520)	90.8	9.2
직군	대학교수	(54) 68.5	31.5
	연구원	(74) 62.2	37.8
	청소년지도자	(392) 99.2	0.8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2%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30.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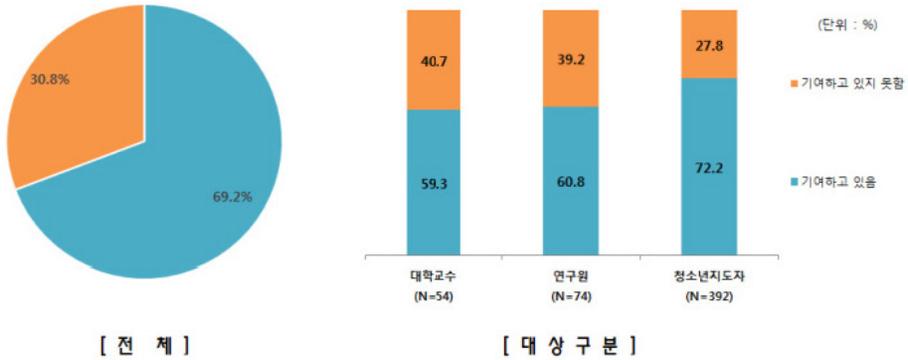


그림 III-165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기여도

표 III-178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9.2	30.8	
직군	대학교수	(54)	59.3	40.7
	연구원	(74)	60.8	39.2
	청소년지도자	(392)	72.2	27.8

다. 청소년전화 1388

㉞ 인지도

청소년전화 1388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2%는 인지도가 있었고 28.8%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96.3%, 90.0%가 인지도 있는데 비해 일반 청소년은 55.1%만이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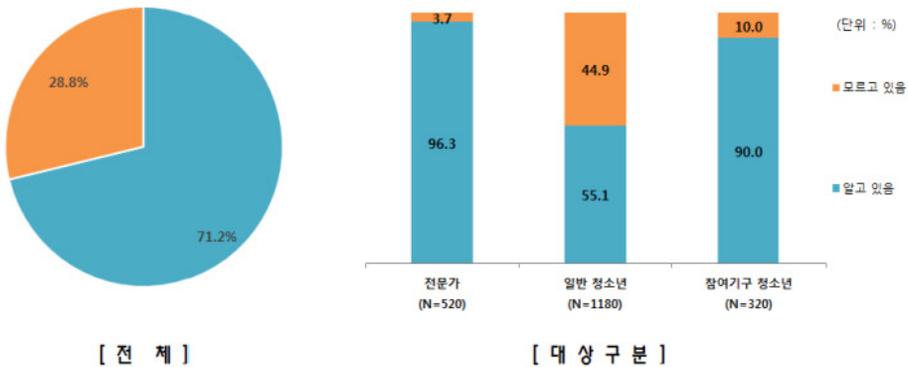


그림 III-166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표 III-179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71.2	28.8
전문가	(520)	96.3	3.7
청소년	(1,500)	62.5	37.5
일반 청소년	(1,180)	55.1	44.9
참여기구 청소년	(320)	90.0	10.0
성별			
남자	(741)	59.9	40.1
여자	(759)	65.1	34.9
연령			
9~12세	(215)	28.4	71.6
13~18세	(788)	69.9	30.1
19~24세	(497)	65.6	34.4

㊤ 이용 경험

청소년전화 1388의 실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9.6%만이 실제 이용 경험이 있었고 90.4%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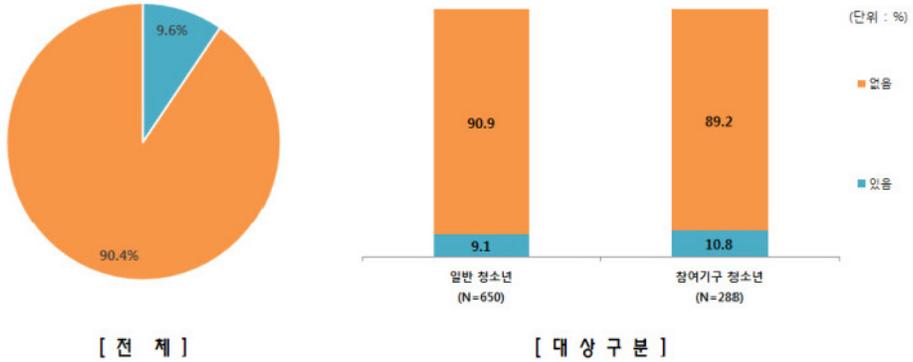


그림 III-167 청소년전화 1388 이용 경험

표 III-180 청소년전화 1388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938)	9.6	90.4
일반 청소년	(650)	9.1	90.9
참여기구 청소년	(288)	10.8	89.2
성별	남자 (444)	10.8	89.2
	여자 (494)	8.5	91.5
연령	9~12세 (61)	4.9	95.1
	13~18세 (551)	9.1	90.9
	19~24세 (326)	11.3	88.7

㊤ 이용 만족도

청소년전화 1388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3.3%는 긍정적 평가를, 26.7%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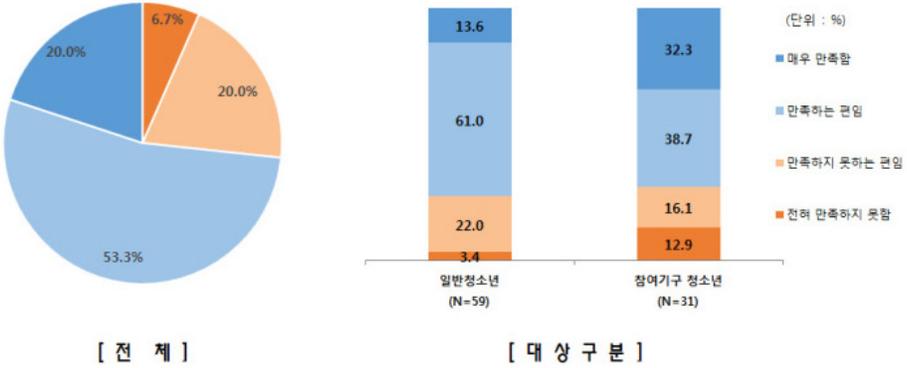


그림 III-168 청소년전화 1388 이용 만족도

표 III-181 청소년전화 1388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90)	6.7	20.0	53.3	20.0	26.7	73.3	
일반 청소년	(59)	3.4	22.0	61.0	13.6	25.4	74.6	
참여기구 청소년	(31)	12.9	16.1	38.7	32.3	29.0	71.0	
성별	남자	(48)	8.3	18.8	54.2	18.8	27.1	72.9
	여자	(42)	4.8	21.4	52.4	21.4	26.2	73.8
연령	9~12세	(3)	-	-	66.7	33.3	-	100.0
	13~18세	(50)	8.0	16.0	54.0	22.0	24.0	76.0
	19~24세	(37)	5.4	27.0	51.4	16.2	32.4	67.6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1.1%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38.9%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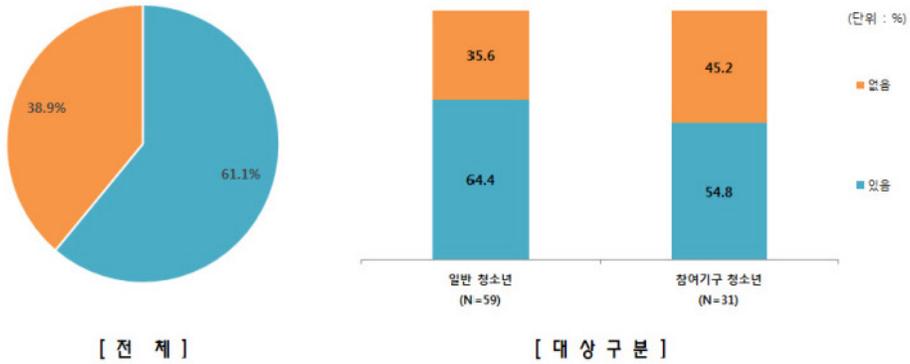


그림 III-169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III-182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90)	61.1	38.9	
일반 청소년	(59)	64.4	35.6	
참여기구 청소년	(31)	54.8	45.2	
성별	남자	(48)	66.7	33.3
	여자	(42)	54.8	45.2
연령	9~12세	(3)	66.7	33.3
	13~18세	(50)	62.0	38.0
	19~24세	(37)	59.5	40.5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전화 1388의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81.8%는 접촉 경험에 만족했고 나머지 18.2%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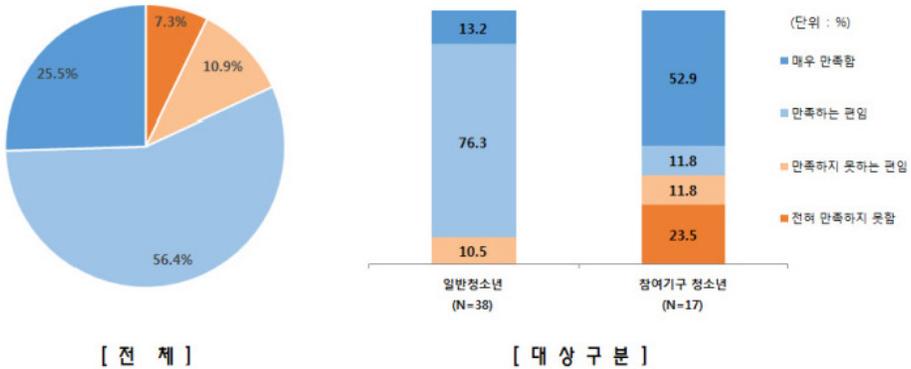


그림 III-170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표 III-183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5)	7.3	10.9	56.4	25.5	18.2	81.8	
일반 청소년	(38)	-	10.5	76.3	13.2	10.5	89.5	
참여기구 청소년	(17)	23.5	11.8	11.8	52.9	35.3	64.7	
성별	남자	(32)	9.4	12.5	53.1	25.0	21.9	78.1
	여자	(23)	4.3	8.7	60.9	26.1	13.0	87.0
연령	9~12세	(2)	-	-	50.0	50.0	-	100.0
	13~18세	(31)	12.9	6.5	58.1	22.6	19.4	80.6
	19~24세	(22)	-	18.2	54.5	27.3	18.2	81.8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청소년전화 1388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4.2%는 긍정적으로, 15.8%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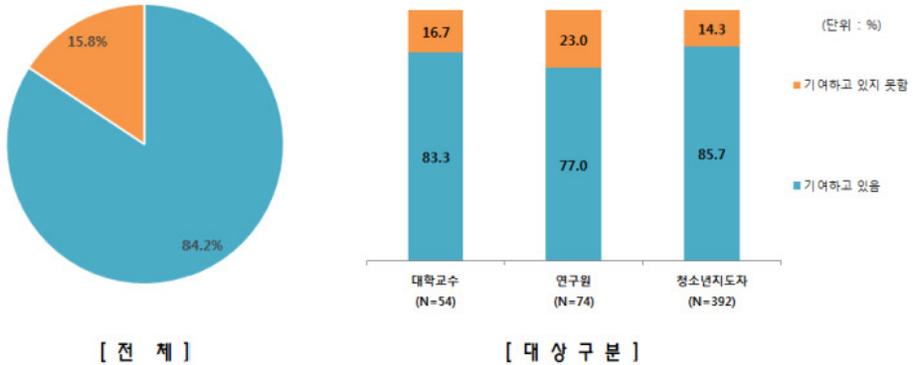


그림 III-17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전화 1388의 기여도

표 III-18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전화 1388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84.2	15.8	
직군	대학교수	(54)	83.3	16.7
	연구원	(74)	77.0	23.0
	청소년지도자	(392)	85.7	14.3

라. 모바일 상담 #1388

㉞ 인지도

모바일 상담 #1388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4%는 인지도가 있었고 50.6%는 그렇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각각 78.5%, 62.8%로 일반 청소년의 32.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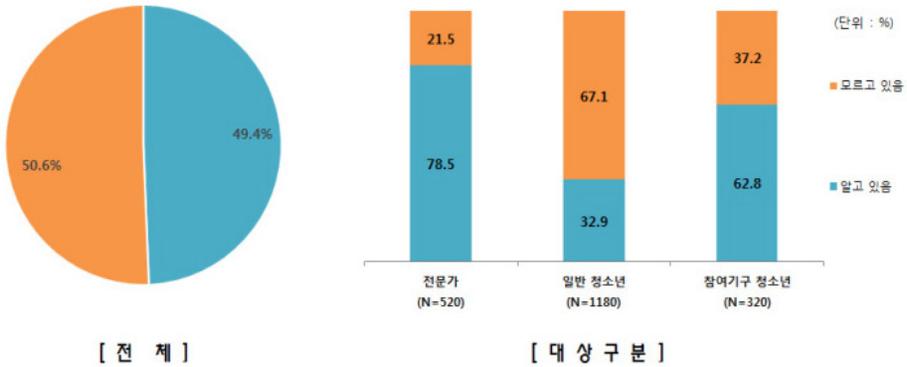


그림 III-172 모바일 상담 #1388의 인지도

표 III-185 모바일 상담 #1388의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49.4	50.6
전문가	(520)	78.5	21.5
청소년	(1,500)	39.3	60.7
일반 청소년	(1,180)	32.9	67.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2.8	37.2
성별			
남자	(741)	36.4	63.6
여자	(759)	42.0	58.0
연령			
9~12세	(215)	10.2	89.8
13~18세	(788)	43.7	56.3
19~24세	(497)	44.9	55.1

㊤ 이용 경험

모바일 상담 #1388의 실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0.7%만이 이용 경험이 있었고 과반수인 89.3%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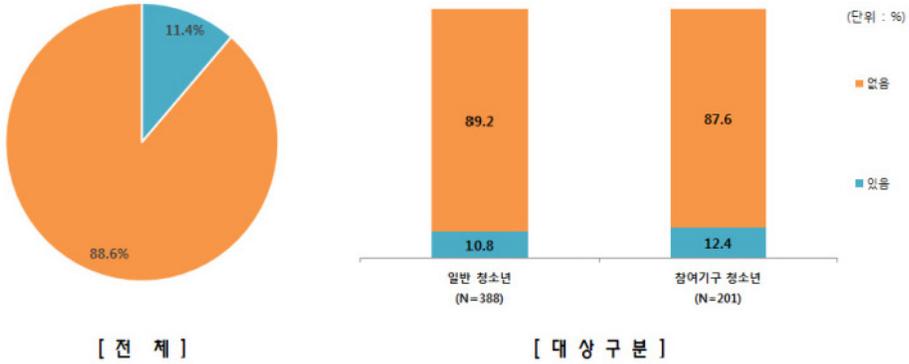


그림 III-173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경험

표 III-186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89)	11.4	88.6
일반 청소년	(388)	10.8	89.2
참여기구 청소년	(201)	12.4	87.6
성별	남자 (270)	14.1	85.9
	여자 (319)	9.1	90.9
연령	9~12세 (22)	-	100.0
	13~18세 (344)	9.9	90.1
	19~24세 (223)	14.8	85.2

㊤ 이용 만족도

모바일 상담 #1388을 이용해 본 전체 청소년 가운데 62.7%는 이용 경험에 대해 만족한 반면 37.3%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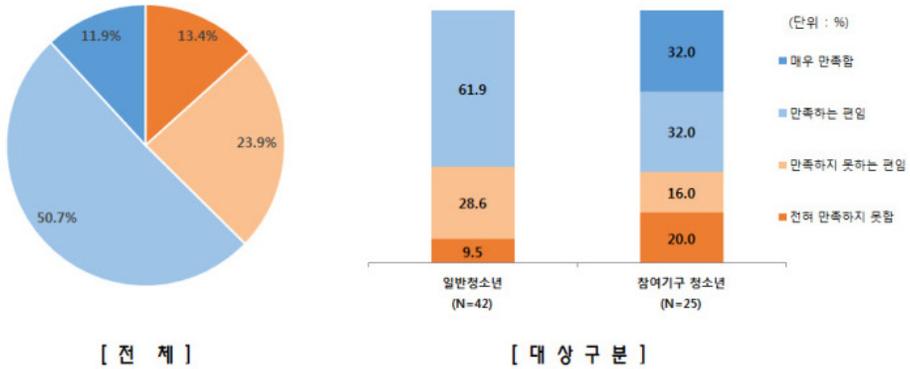


그림 III-174 모바일 상담 #1388의 이용 만족도

표 III-187 모바일 상담 #1388의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67)	13.4	23.9	50.7	11.9	37.3	62.7	
일반 청소년	(42)	9.5	28.6	61.9	-	38.1	61.9	
참여기구 청소년	(25)	20.0	16.0	32.0	32.0	36.0	64.0	
성별	남자	(38)	15.8	26.3	50.0	7.9	42.1	57.9
	여자	(29)	10.3	20.7	51.7	17.2	31.0	69.0
연령	9~12세	(-)	-	-	-	-	-	
	13~18세	(34)	17.6	14.7	47.1	20.6	32.4	67.6
	19~24세	(33)	9.1	33.3	54.5	3.0	42.4	57.6

㉔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과 관련해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1.2%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38.8%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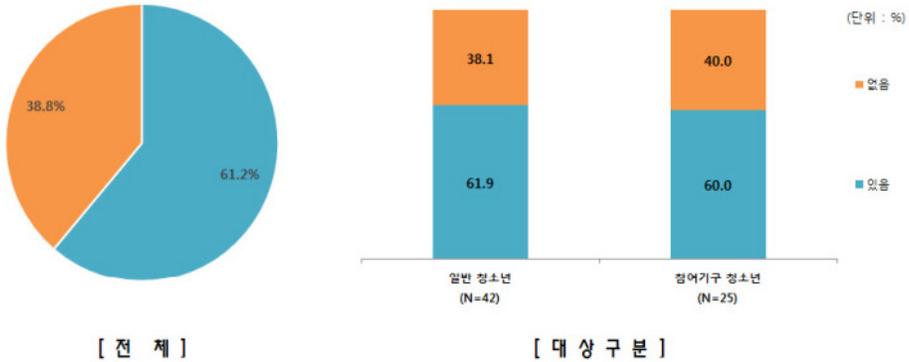


그림 III-175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표 III-188 모바일 상담 #1388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67)	61.2	38.8	
일반 청소년	(42)	61.9	38.1	
참여기구 청소년	(25)	60.0	40.0	
성별	남자	(38)	68.4	31.6
	여자	(29)	51.7	48.3
연령	9~12세	(-)	-	-
	13~18세	(34)	55.9	44.1
	19~24세	(33)	66.7	33.3

㊤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모바일 상담 #1388의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9.8%는 긍정적 평가를, 나머지 30.2%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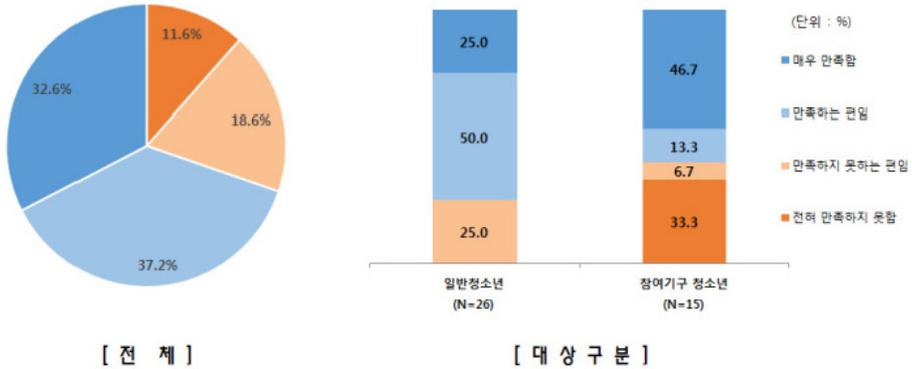


그림 III-176 모바일 상담 #1388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III-189 모바일 상담 #1388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1)	11.6	18.6	37.2	32.6	30.2	69.8
일반 청소년	(26)	-	25.0	50.0	25.0	25.0	75.0
참여기구 청소년	(15)	33.3	6.7	13.3	46.7	40.0	60.0
성별	남자	(25)	14.8	18.5	33.3	33.3	66.7
	여자	(16)	6.3	18.8	43.8	31.3	75.0
연령	9~12세	(-)	-	-	-	-	-
	13~18세	(19)	26.3	5.3	31.6	36.8	68.4
	19~24세	(22)	-	31.8	45.5	22.7	68.2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담 #1388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72.1%는 긍정적 평가를, 나머지 27.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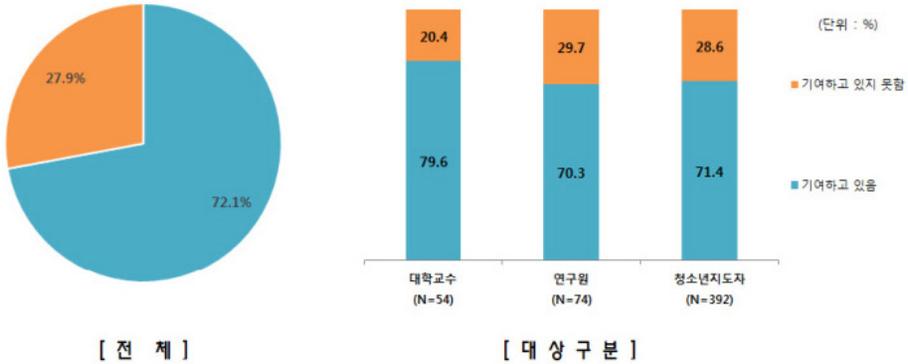


그림 Ⅲ-177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모바일 상담 #1388의 기여도

표 Ⅲ-190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모바일 상담 #1388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72.1	27.9
직군	대학교수 (54)	79.6	20.4
	연구원 (74)	70.3	29.7
	청소년지도자 (392)	71.4	28.6

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㉞ 인지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6%만이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69.4%는 인지도가 없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는 82.7%로 11.4%, 16.6%에 불과한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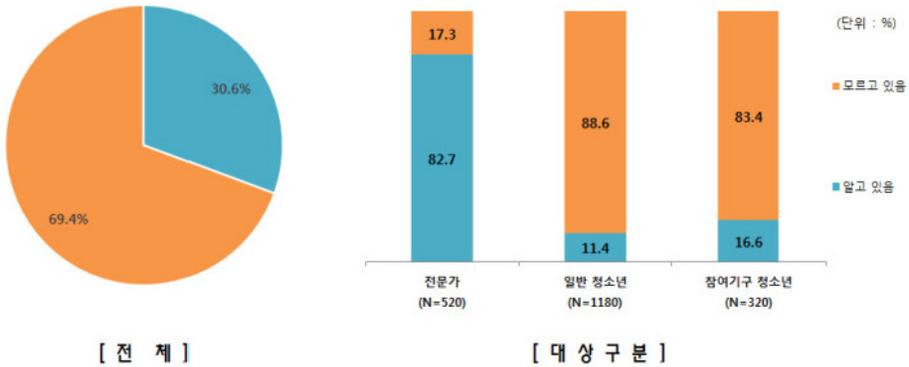


그림 III-1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지도

표 III-19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0.6	69.4
전문가	(520)	82.7	17.3
청소년	(1,500)	12.5	87.5
일반 청소년	(1,180)	11.4	88.6
참여기구 청소년	(320)	16.6	83.4
성별			
남자	(741)	12.7	87.3
여자	(759)	12.4	87.6
연령			
9~12세	(215)	4.2	95.8
13~18세	(788)	14.2	85.8
19~24세	(497)	13.5	86.5

㊤ 이용 경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5.4%만이 실제 이용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84.6%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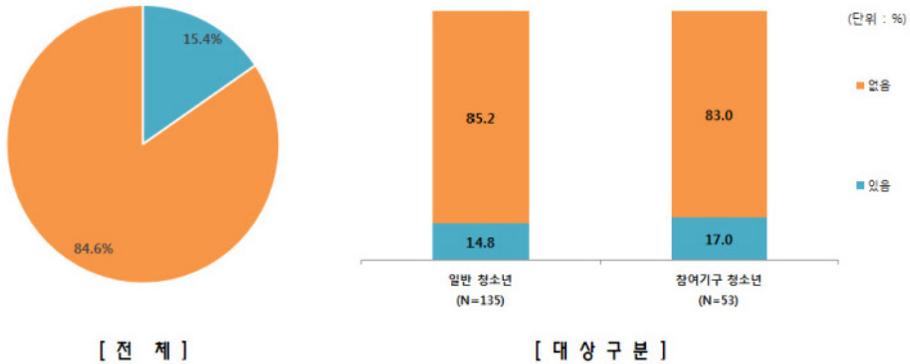


그림 III-17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경험

표 III-19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88)	15.4	84.6	
일반 청소년	(135)	14.8	85.2	
참여기구 청소년	(53)	17.0	83.0	
성별	남자	(94)	19.1	80.9
	여자	(94)	11.7	88.3
연령	9~12세	(9)	11.1	88.9
	13~18세	(112)	15.2	84.8
	19~24세	(67)	16.4	83.6

㊤ 이용 만족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5.9%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24.1%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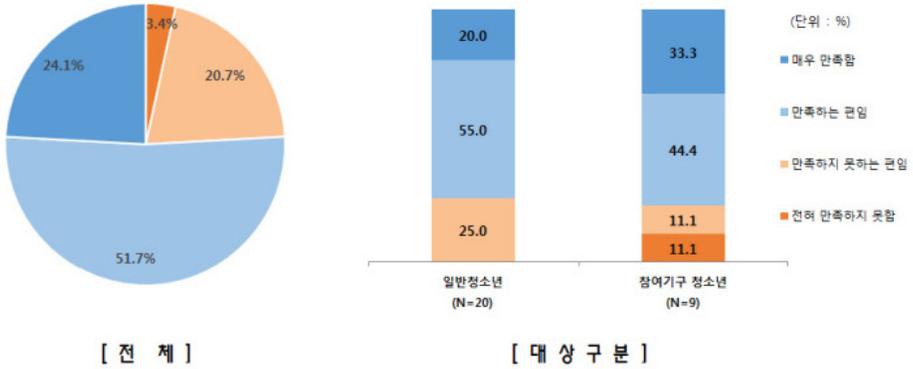


그림 III-18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표 III-19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9)	3.4	20.7	51.7	24.1	24.1	75.9	
일반 청소년	(20)	-	25.0	55.0	20.0	25.0	75.0	
참여기구 청소년	(9)	11.1	11.1	44.4	33.3	22.2	77.8	
성별	남자	(18)	5.6	27.8	55.6	11.1	33.3	66.7
	여자	(11)	-	9.1	45.5	45.5	9.1	90.9
연령	9~12세	(1)	-	100.0	-	-	100.0	-
	13~18세	(17)	5.9	5.9	58.8	29.4	11.8	88.2
	19~24세	(11)	-	36.4	45.5	18.2	36.4	63.6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달하는 62.1%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 경험이 있었고 37.9%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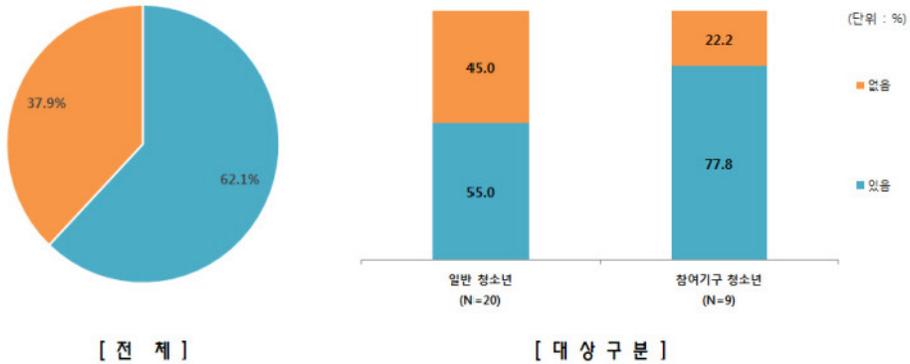


그림 Ⅲ-18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Ⅲ-19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9)	62.1	37.9	
일반 청소년	(20)	55.0	45.0	
참여기구 청소년	(9)	77.8	22.2	
성별	남자	(18)	61.1	38.9
	여자	(11)	63.6	36.4
연령	9~12세	(1)	100.0	-
	13~18세	(17)	58.8	41.2
	19~24세	(11)	63.6	36.4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서 만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2.2%는 긍정적으로, 27.8%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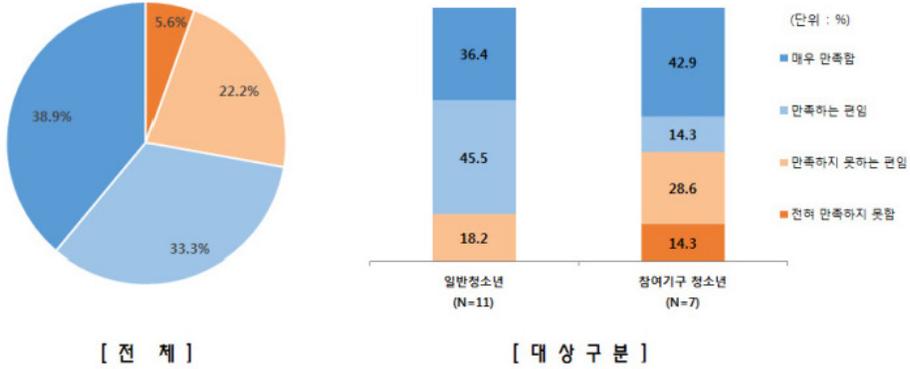


그림 III-18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III-19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8)	5.6	22.2	33.3	38.9	27.8	72.2
일반 청소년	(11)	-	18.2	45.5	36.4	18.2	81.8
참여기구 청소년	(7)	14.3	28.6	14.3	42.9	42.9	57.1
성별	남자	(11)	9.1	27.3	36.4	27.3	63.6
	여자	(7)	-	14.3	28.6	57.1	85.7
연령	9~12세	(1)	-	-	100.0	-	100.0
	13~18세	(10)	10.0	40.0	20.0	30.0	50.0
	19~24세	(7)	-	-	42.9	57.1	100.0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7%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26.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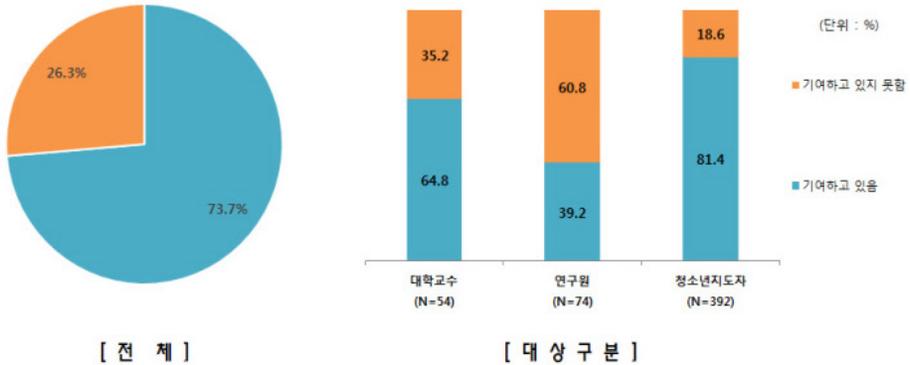


그림 III-18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기여도

표 III-19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73.7	26.3	
직군	대학교수	(54)	64.8	35.2
	연구원	(74)	39.2	60.8
	청소년지도자	(392)	81.4	18.6

바. 청소년쉼터

㉞ 인지도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5%는 청소년쉼터에 대해 알고 있었고 32.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 가운데 각각 98.8%, 70.6%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도 과반수인 52.9%가 청소년쉼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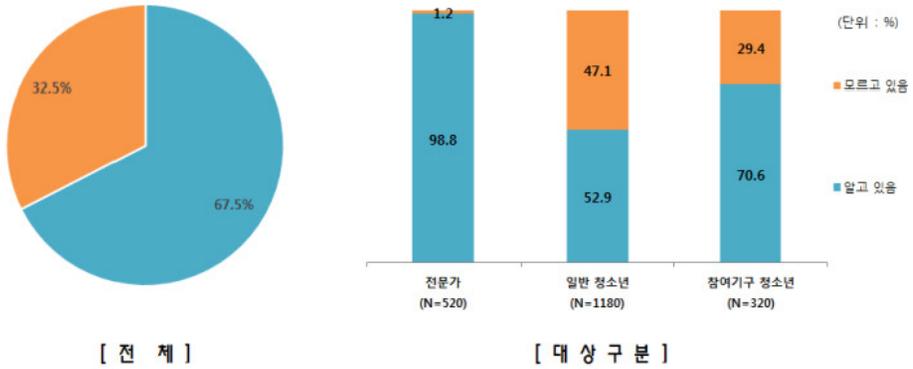


그림 III-184 청소년쉼터 인지도

표 III-197 청소년쉼터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67.5	32.5	
전문가	(520)	98.8	1.2	
청소년	(1,500)	56.7	43.3	
일반 청소년	(1,180)	52.9	47.1	
참여기구 청소년	(320)	70.6	29.4	
성별	남자	(741)	54.7	45.3
	여자	(759)	58.6	41.4
연령	9~12세	(215)	36.3	63.7
	13~18세	(788)	63.5	36.5
	19~24세	(497)	54.7	45.3

㊤ 이용 경험

청소년쉼터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중 9.8%만이 청소년 쉼터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90.2%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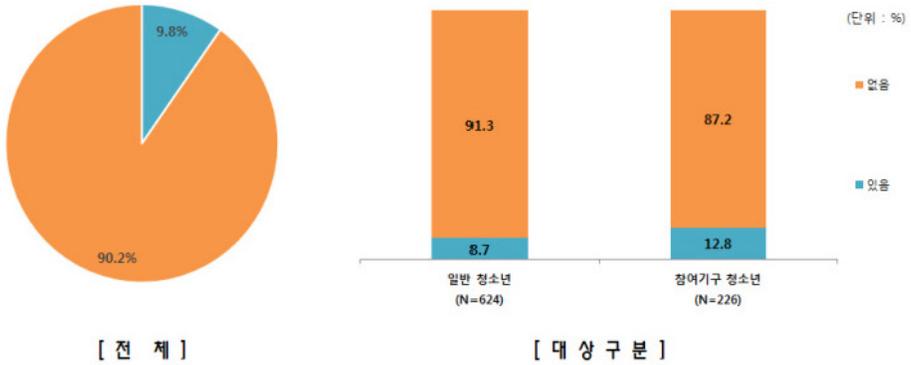


그림 III-185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표 III-198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850)	9.8	90.2
일반 청소년	(624)	8.7	91.3
참여기구 청소년	(226)	12.8	87.2
성별	남자 (405)	11.6	88.4
	여자 (445)	8.1	91.9
연령	9~12세 (78)	6.4	93.6
	13~18세 (500)	8.8	91.2
	19~24세 (272)	12.5	87.5

㊸ 이용 만족도

청소년쉼터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8.3%는 청소년쉼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7%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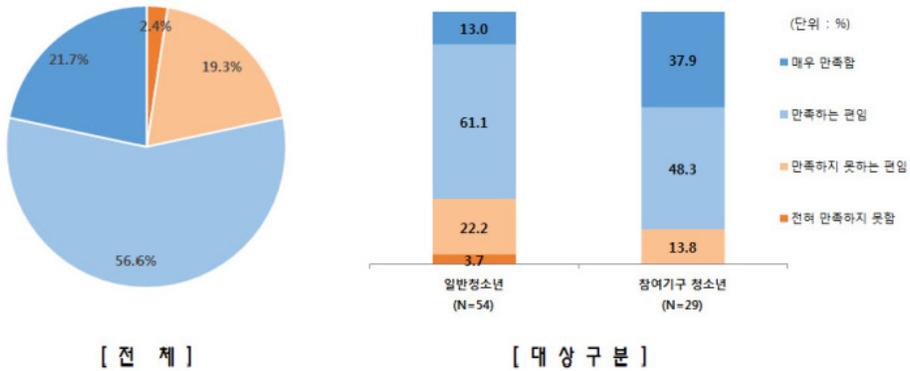


그림 III-186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표 III-199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83)	2.4	19.3	56.6	21.7	21.7	78.3	
일반 청소년	(54)	3.7	22.2	61.1	13.0	25.9	74.1	
참여기구 청소년	(29)	-	13.8	48.3	37.9	13.8	86.2	
성별	남자	(47)	2.1	19.1	55.3	23.4	21.3	78.7
	여자	(36)	2.8	19.4	58.3	19.4	22.2	77.8
연령	9~12세	(5)	-	-	80.0	20.0	-	100.0
	13~18세	(44)	4.5	18.2	54.5	22.7	22.7	77.3
	19~24세	(34)	-	23.5	55.9	20.6	23.5	76.5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7.0%는 청소년상담사와 실제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53.0%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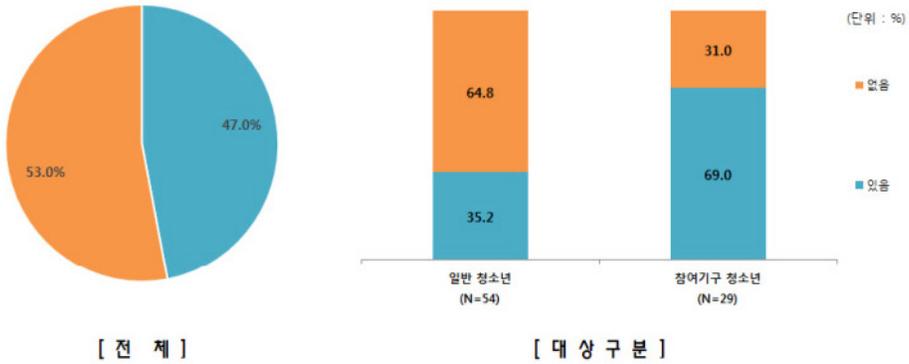


그림 Ⅲ-187 청소년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표 Ⅲ-200 청소년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83)	47.0	53.0	
일반 청소년	(54)	35.2	64.8	
참여기구 청소년	(29)	69.0	31.0	
성별	남자	(47)	44.7	55.3
	여자	(36)	50.0	50.0
연령	9~12세	(5)	60.0	40.0
	13~18세	(44)	47.7	52.3
	19~24세	(34)	44.1	55.9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쉼터 이용 시 접촉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3.1%만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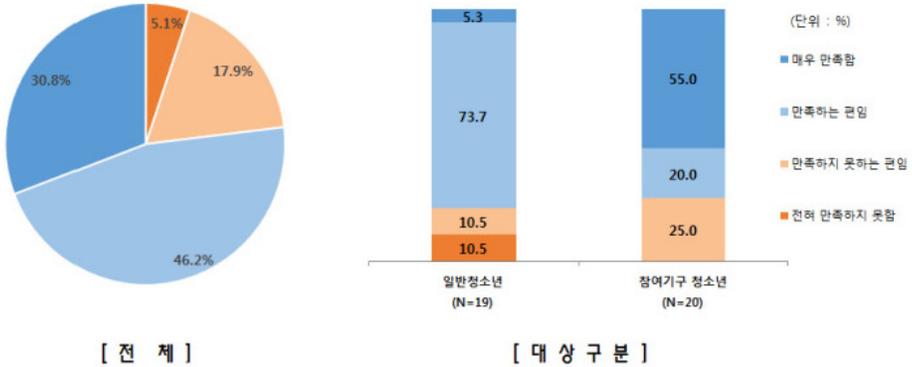


그림 III-188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III-201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9)	5.1	17.9	46.2	30.8	23.1	76.9	
일반 청소년	(19)	10.5	10.5	73.7	5.3	21.1	78.9	
참여기구 청소년	(20)	-	25.0	20.0	55.0	25.0	75.0	
성별	남자	(21)	4.8	23.8	38.1	33.3	28.6	71.4
	여자	(18)	5.6	11.1	55.6	27.8	16.7	83.3
연령	9~12세	(3)	-	-	100.0	-	-	100.0
	13~18세	(21)	-	19.0	33.3	47.6	19.0	81.0
	19~24세	(15)	13.3	20.0	53.3	13.3	33.3	66.7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90.6%는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오직 9.4%만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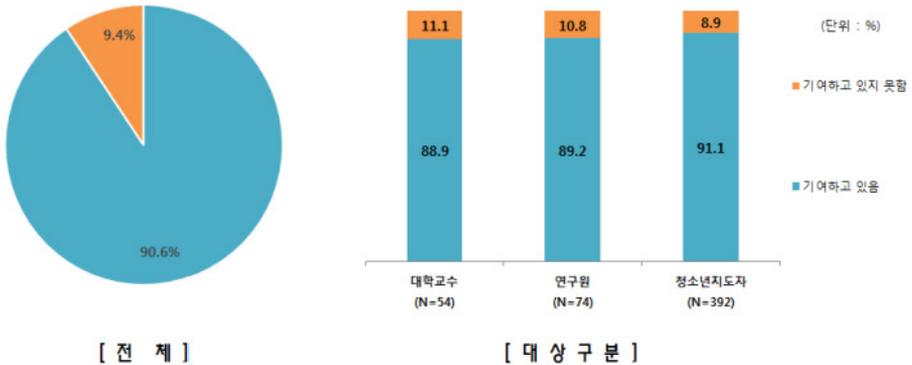


그림 III-189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기여도

표 III-202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90.6	9.4	
직군	대학교수	(54)	88.9	11.1
	연구원	(74)	89.2	10.8
	청소년지도자	(392)	91.1	8.9

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㉞ 인지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65.4%는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34.6%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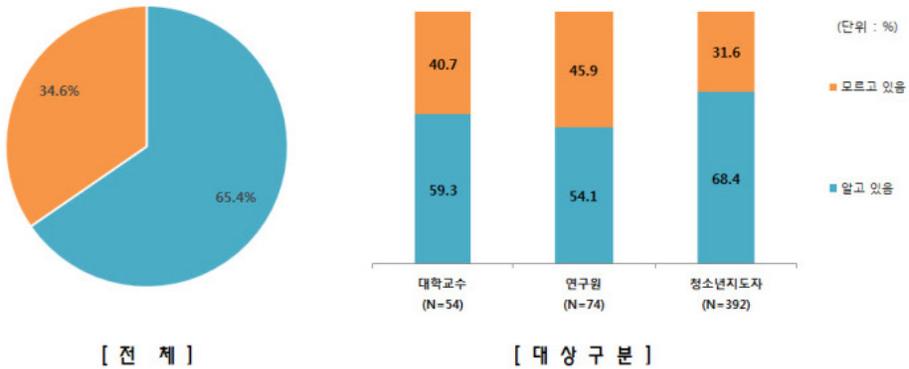


그림 III-19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지도

표 III-20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520)	65.4	34.6	
직군	대학교수	(54)	59.3	40.7
	연구원	(74)	54.1	45.9
	청소년지도자	(392)	68.4	31.6

㊦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는 긍정적 평가를, 39.8%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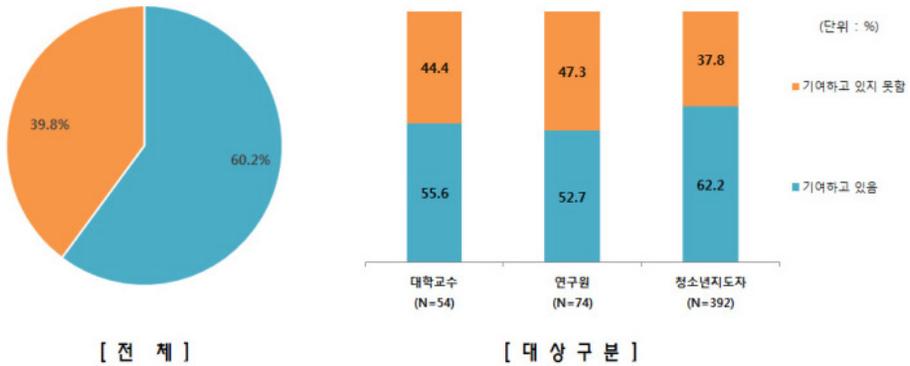


그림 III-19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여도

표 III-20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0.2	39.8
직군	대학교수 (54)	55.6	44.4
	연구원 (74)	52.7	47.3
	청소년지도자 (392)	62.2	37.8

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㉞ 인지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9%만이 인지도가 있었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66.1%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68.3%, 33.8%가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일반 청소년은 오직 18.8%만이 특별지원 사업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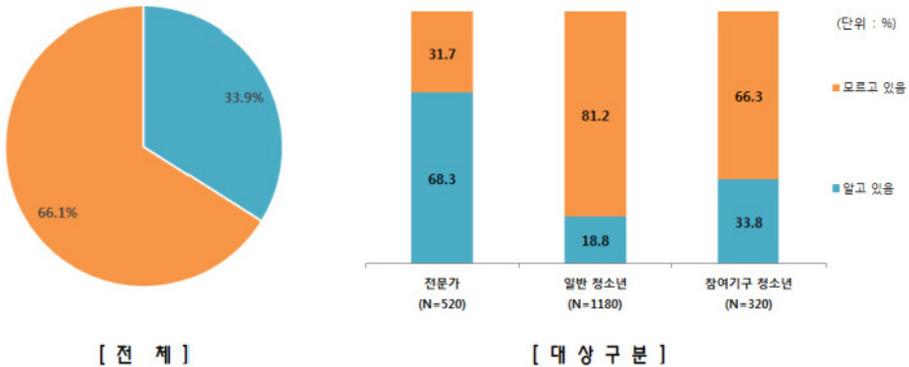


그림 III-19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인지도

표 III-20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3.9	66.1
전문가	(520)	68.3	31.7
청소년	(1,500)	22.0	78.0
일반 청소년	(1,180)	18.8	81.2
참여기구 청소년	(320)	33.8	66.3
성별			
남자	(741)	21.2	78.8
여자	(759)	22.8	77.2
연령			
9~12세	(215)	3.3	96.7
13~18세	(788)	26.8	73.2
19~24세	(497)	22.5	77.5

㊤ 이용 경험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중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87.8%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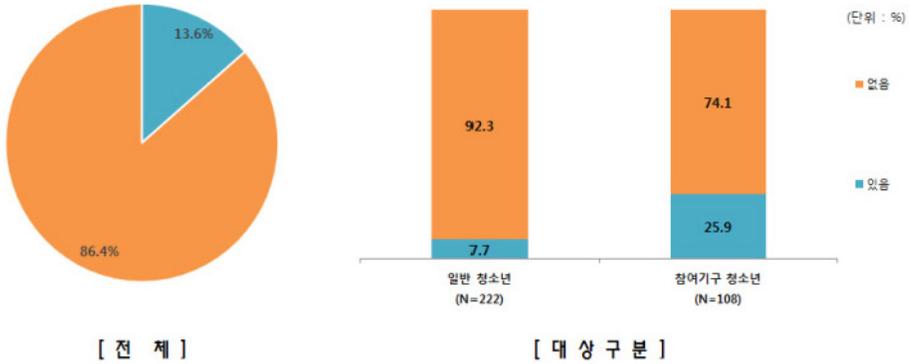


그림 III-193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경험

표 III-20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30)	13.6	86.4	
일반 청소년	(222)	7.7	92.3	
참여기구 청소년	(108)	25.9	74.1	
성별	남자	(157)	17.8	82.2
	여자	(173)	9.8	90.2
연령	9~12세	(7)	-	100.0
	13~18세	(211)	14.2	85.8
	19~24세	(112)	13.4	86.6

㉔ 이용 만족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4%가 긍정적인 평가를, 35.6%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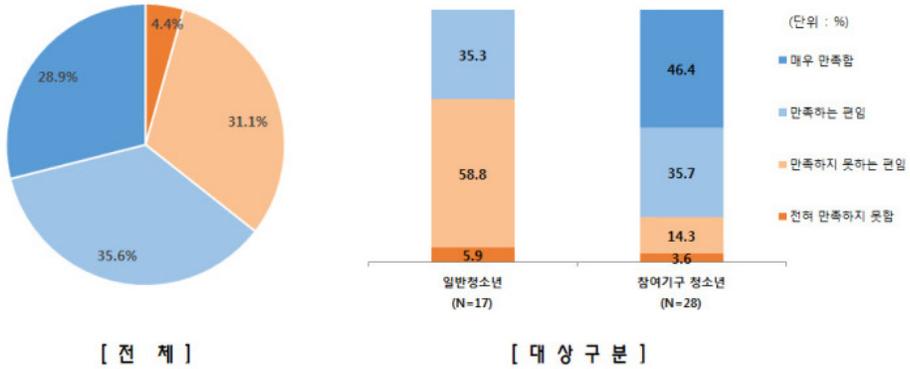


그림 III-19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표 III-20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5)	4.4	31.1	35.6	28.9	35.6	64.4	
일반 청소년	(17)	5.9	58.8	35.3	-	64.7	35.3	
참여기구 청소년	(28)	3.6	14.3	35.7	46.4	17.9	82.1	
성별	남자	(28)	7.1	35.7	32.1	25.0	42.9	57.1
	여자	(17)	-	23.5	41.2	35.3	23.5	76.5
연령	9~12세	(-)	-	-	-	-	-	
	13~18세	(30)	3.3	30.0	26.7	40.0	33.3	66.7
	19~24세	(15)	6.7	33.3	53.3	6.7	40.0	60.0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이용한 청소년 중 51.1%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48.9%는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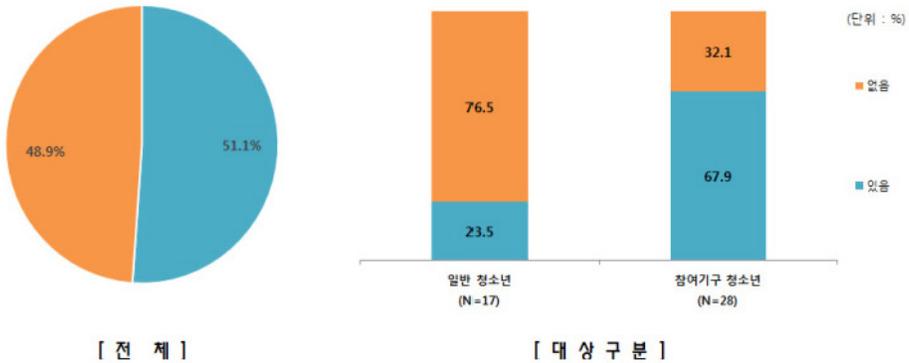


그림 III-19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III-208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5)	51.1	48.9	
일반 청소년	(17)	23.5	76.5	
참여기구 청소년	(28)	67.9	32.1	
성별	남자	(28)	60.7	39.3
	여자	(17)	35.3	64.7
연령	9~12세	(-)	-	-
	13~18세	(30)	60.0	40.0
	19~24세	(15)	33.3	66.7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접촉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9%는 해당 상담사에 대해 만족하였고 30.4%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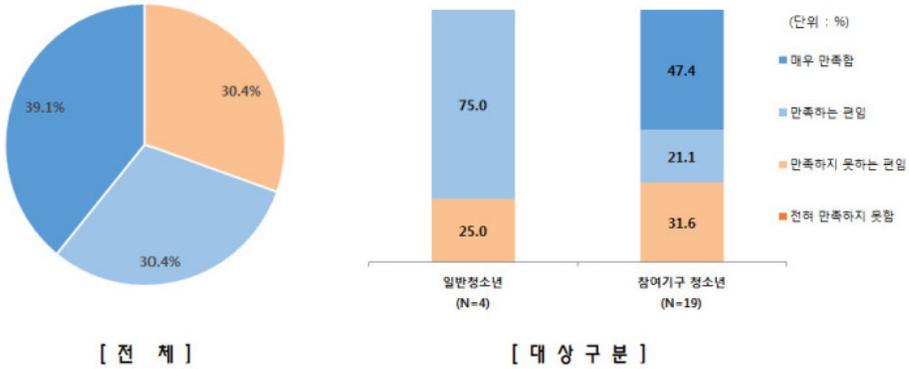


그림 III-19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III-209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23)	-	30.4	30.4	39.1	30.4	69.6	
일반 청소년	(4)	-	25.0	75.0	-	25.0	75.0	
참여기구 청소년	(19)	-	31.6	21.1	47.4	31.6	68.4	
성별	남자	(17)	-	41.2	17.6	41.2	41.2	58.8
	여자	(6)	-	-	66.7	33.3	-	100.0
연령	9~12세	(-)	-	-	-	-	-	
	13~18세	(18)	-	27.8	33.3	38.9	27.8	72.2
	19~24세	(5)	-	40.0	20.0	40.0	40.0	60.0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3%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42.7%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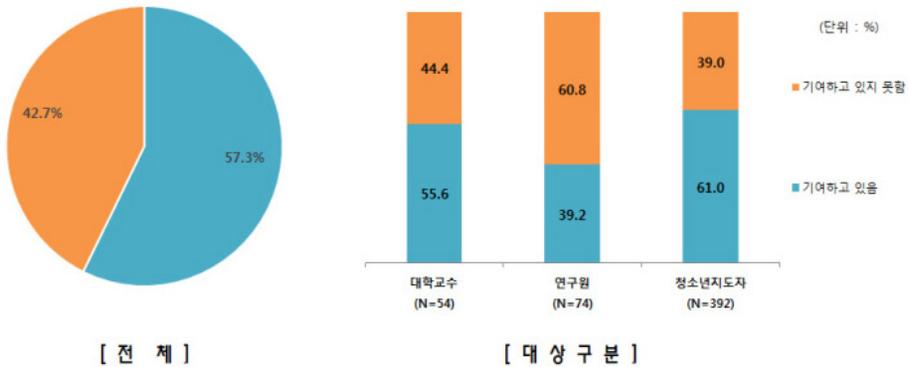


그림 III-197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기여도

표 III-210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57.3	42.7	
직군	대학교수	(54)	55.6	44.4
	연구원	(74)	39.2	60.8
	청소년지도자	(392)	61.0	39.0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

㉞ 인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0%는 지원센터를 알고 있었고 45.0%는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과반수에 달하는 96.5%, 74.1%가 지원센터를 알고 있었고 일반 청소년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1.6%만이 지원센터를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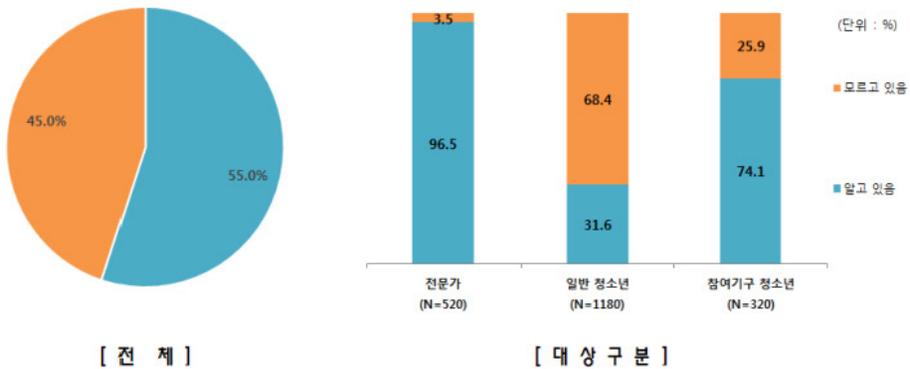


그림 III-1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표 III-2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5.0	45.0
전문가	(520)	96.5	3.5
청소년	(1,500)	40.7	59.3
일반 청소년	(1,180)	31.6	68.4
참여기구 청소년	(320)	74.1	25.9
성별			
남자	(741)	38.5	61.5
여자	(759)	42.8	57.2
연령			
9~12세	(215)	33.0	67.0
13~18세	(788)	46.6	53.4
19~24세	(497)	34.6	65.4

㉔ 이용 경험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가운데 실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8.1%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그림 Ⅲ-19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표 Ⅲ-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73)	11.9	88.1
일반 청소년	(336)	12.8	87.2
참여기구 청소년	(237)	10.5	89.5
성별	남자 (264)	13.6	86.4
	여자 (309)	10.4	89.6
연령	9~12세 (34)	11.8	88.2
	13~18세 (367)	10.4	89.6
	19~24세 (172)	15.1	84.9

㉔ 이용 만족도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청소년 가운데 86.8%는 자신의 이용 경험에 대해 만족한 반면 14.5%는 이용 경험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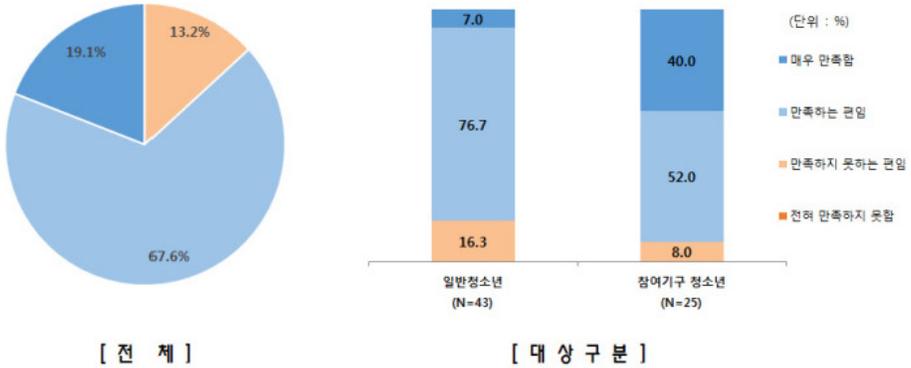


그림 III-2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표 III-2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68)	-	13.2	67.6	19.1	13.2	86.8	
일반 청소년	(43)	-	16.3	76.7	7.0	16.3	83.7	
참여기구 청소년	(25)	-	8.0	52.0	40.0	8.0	92.0	
성별	남자	(36)	-	16.7	61.1	22.2	16.7	83.3
	여자	(32)	-	9.4	75.0	15.6	9.4	90.6
연령	9~12세	(4)	-	25.0	75.0	-	25.0	75.0
	13~18세	(38)	-	5.3	65.8	28.9	5.3	94.7
	19~24세	(26)	-	23.1	69.2	7.7	23.1	76.9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6%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29.4%는 접촉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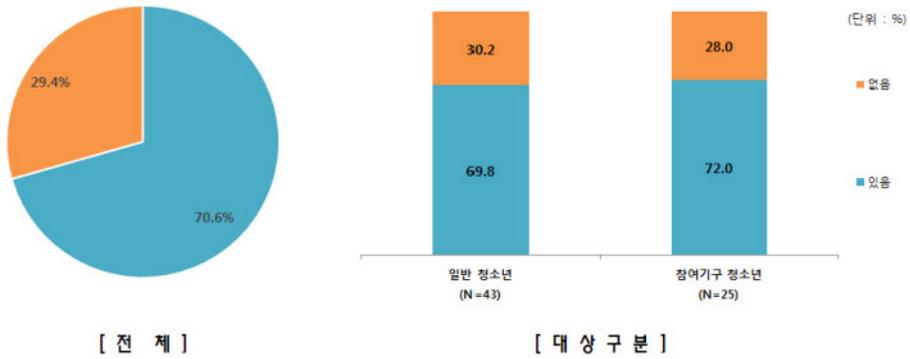


그림 Ⅲ-2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Ⅲ-2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68)	70.6	29.4	
일반 청소년	(43)	69.8	30.2	
참여기구 청소년	(25)	72.0	28.0	
성별	남자	(36)	66.7	33.3
	여자	(32)	75.0	25.0
연령	9~12세	(4)	75.0	25.0
	13~18세	(38)	71.1	28.9
	19~24세	(26)	69.2	30.8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접촉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4%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부정적 평가는 14.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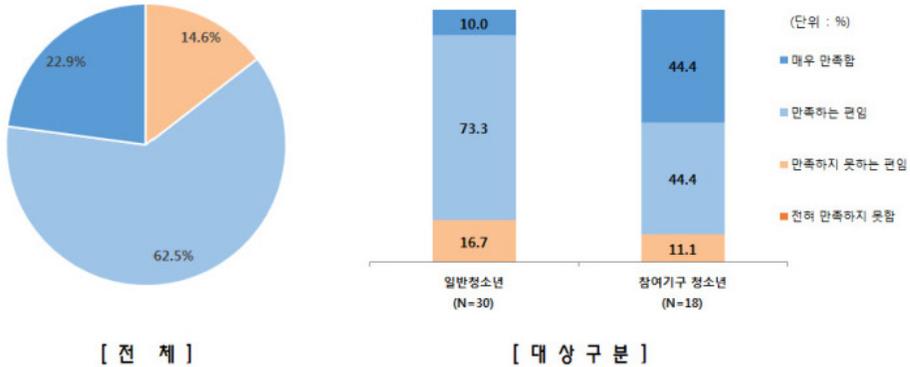


그림 Ⅲ-2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Ⅲ-2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8)	-	14.6	62.5	22.9	14.6	85.4	
일반 청소년	(30)	-	16.7	73.3	10.0	16.7	83.3	
참여기구 청소년	(18)	-	11.1	44.4	44.4	11.1	88.9	
성별	남자	(24)	-	16.7	58.3	25.0	16.7	83.3
	여자	(24)	-	12.5	66.7	20.8	12.5	87.5
연령	9~12세	(3)	-	-	66.7	33.3	-	100.0
	13~18세	(27)	-	3.7	74.1	22.2	3.7	96.3
	19~24세	(18)	-	33.3	44.4	22.2	33.3	66.7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2%가 지원센터의 기여도를 긍정하였고 13.8%는 반대로 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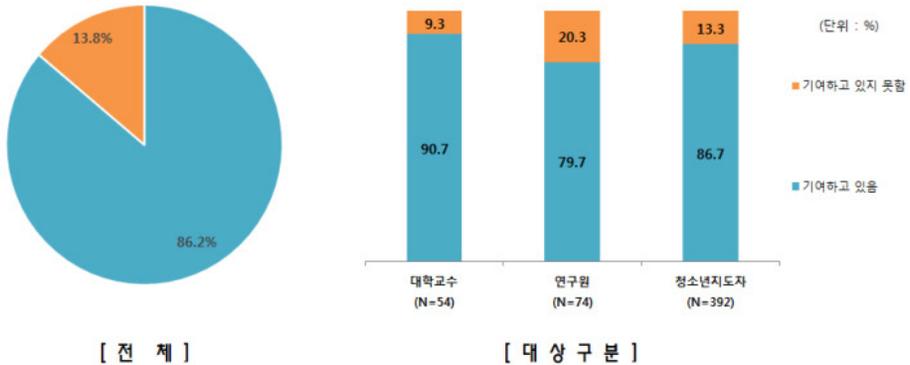


그림 Ⅲ-203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여도

표 Ⅲ-216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86.2	13.8
직군	대학교수 (54)	90.7	9.3
	연구원 (74)	79.7	20.3
	청소년지도자 (392)	86.7	13.3

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국민행복카드)

㉞ 인지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5%만이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고 나머지 61.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인지도 비율은 각각 69.4%, 37.5%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인지도는 25.1%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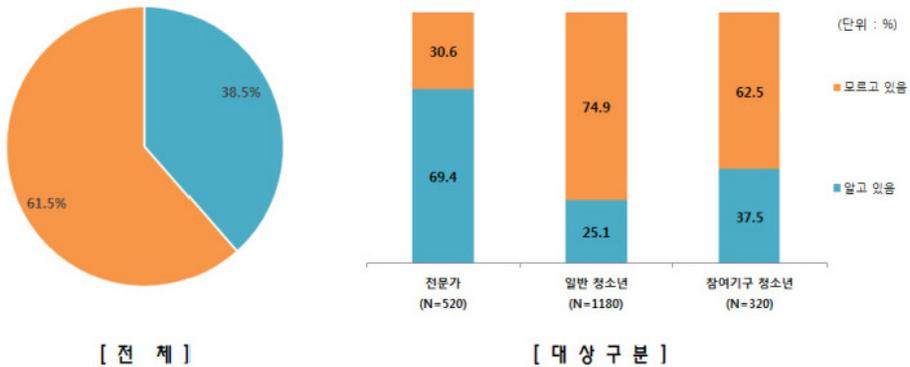


그림 III-20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인지도

표 III-21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8.5	61.5
전문가	(520)	69.4	30.6
청소년	(1,500)	27.7	72.3
일반 청소년	(1,180)	25.1	74.9
참여기구 청소년	(320)	37.5	62.5
성별			
남자	(741)	18.4	81.6
여자	(759)	36.9	63.1
연령			
9~12세	(215)	13.5	86.5
13~18세	(788)	29.9	70.1
19~24세	(497)	30.4	69.6

㉔ 이용 경험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여성 청소년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우는 19.6%에 불과했고 나머지 80.4%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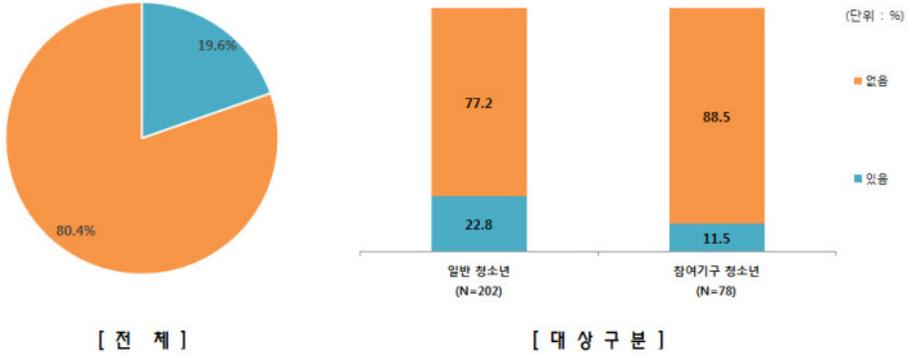


그림 Ⅲ-20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여성청소년 기준)

표 Ⅲ-21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여성청소년 기준)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80)	19.6	80.4	
일반 청소년	(202)	22.8	77.2	
참여기구 청소년	(78)	11.5	88.5	
연령	9~12세	(19)	5.3	94.7
	13~18세	(160)	20.0	80.0
	19~24세	(101)	21.8	78.2

㊤ 이용 만족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응답자의 72.7%는 긍정적 평가를, 27.3%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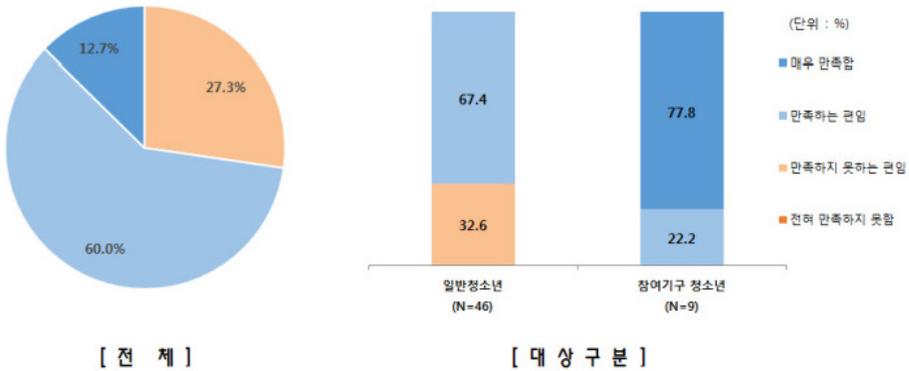


그림 III-20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표 III-21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5)	-	27.3	60.0	12.7	27.3	72.7
일반 청소년	(46)	-	32.6	67.4	-	32.6	67.4
참여기구 청소년	(9)	-	-	22.2	77.8	-	100.0
연령	9~12세	(1)	-	100.0	-	100.0	-
	13~18세	(32)	-	15.6	62.5	21.9	84.4
	19~24세	(22)	-	40.9	59.1	-	59.1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6%는 긍정적 평가를, 30.4%는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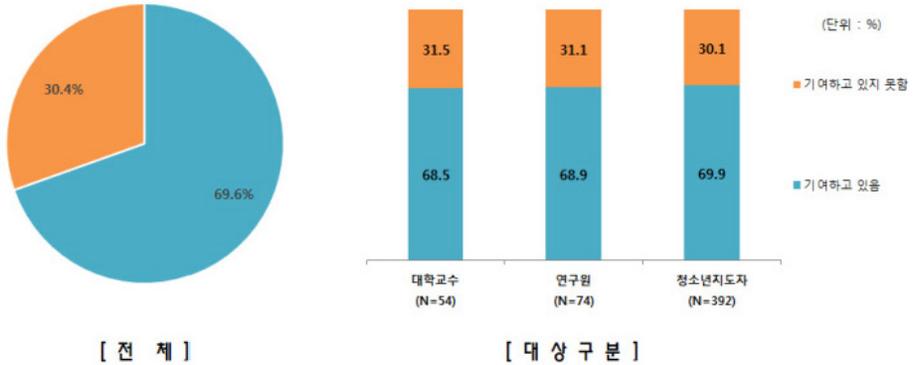


그림 III-20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표 III-22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9.6	30.4	
직군	대학교수	(54)	68.5	31.5
	연구원	(74)	68.9	31.1
	청소년지도자	(392)	69.9	30.1

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㉞ 인지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0%는 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44.0%는 인지도가 없었다.

전문가들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 비율은 각각 80.4%, 58.8%로 일반 청소년의 44.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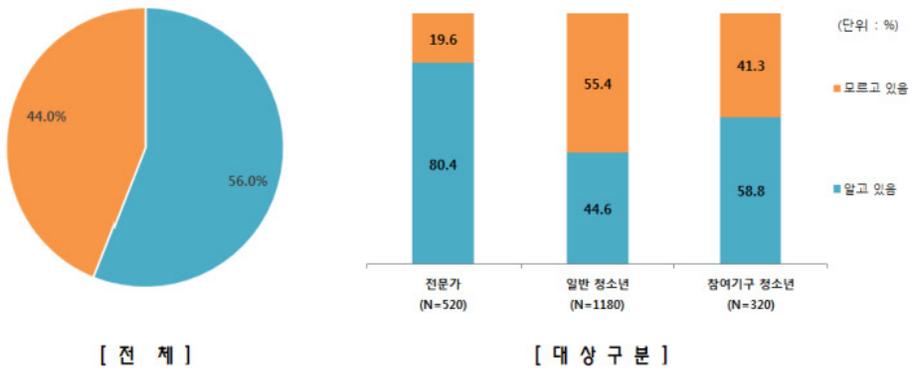


그림 III-20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인지도

표 III-22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인지도

구분	사계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56.0	44.0
전문가	(520)	80.4	19.6
청소년	(1,500)	47.6	52.4
일반 청소년	(1,180)	44.6	55.4
참여기구 청소년	(320)	58.8	41.3
성별			
남자	(741)	45.7	54.3
여자	(759)	49.4	50.6
연령			
9~12세	(215)	31.6	68.4
13~18세	(788)	52.4	47.6
19~24세	(497)	46.9	53.1

㊤ 이용 경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이용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1.1%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88.9%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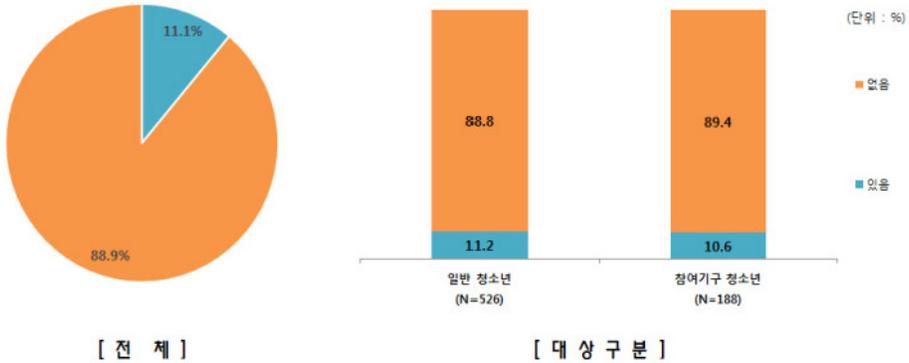


그림 Ⅲ-20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경험

표 Ⅲ-22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714)	11.1	88.9
일반 청소년	(526)	11.2	88.8
참여기구 청소년	(188)	10.6	89.4
성별	남자 (339)	12.1	87.9
	여자 (375)	10.1	89.9
연령	9~12세 (68)	11.8	88.2
	13~18세 (413)	9.4	90.6
	19~24세 (233)	13.7	86.3

㉔ 이용 만족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3.3%는 이용에 대해 만족을, 36.7%는 이용에 대해 불만족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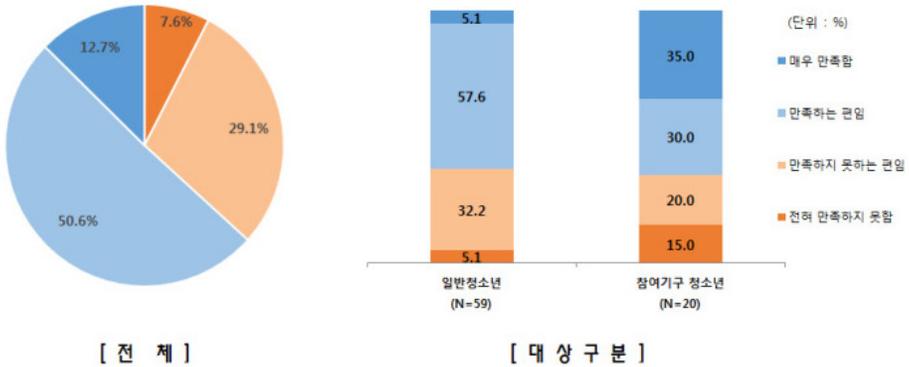


그림 Ⅲ-210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표 Ⅲ-22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79)	7.6	29.1	50.6	12.7	36.7	63.3	
일반 청소년	(59)	5.1	32.2	57.6	5.1	37.3	62.7	
참여기구 청소년	(20)	15.0	20.0	30.0	35.0	35.0	65.0	
성별	남자	(41)	9.8	34.1	48.8	7.3	43.9	56.1
	여자	(38)	5.3	23.7	52.6	18.4	28.9	71.1
연령	9~12세	(8)	-	12.5	75.0	12.5	12.5	87.5
	13~18세	(39)	12.8	30.8	38.5	17.9	43.6	56.4
	19~24세	(32)	3.1	31.3	59.4	6.3	34.4	65.6

㉔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용 시 청소년상담사와의 접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57.0%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0%는 청소년상담사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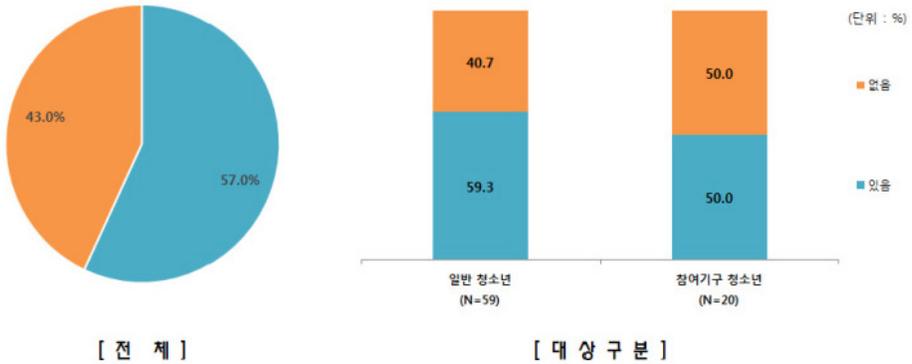


그림 Ⅲ-21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표 Ⅲ-22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79)	57.0	43.0	
일반 청소년	(59)	59.3	40.7	
참여기구 청소년	(20)	50.0	50.0	
성별	남자	(41)	53.7	46.3
	여자	(38)	60.5	39.5
연령	9~12세	(8)	50.0	50.0
	13~18세	(39)	61.5	38.5
	19~24세	(32)	53.1	46.9

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접촉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3.3%는 긍정적 평가를, 46.7%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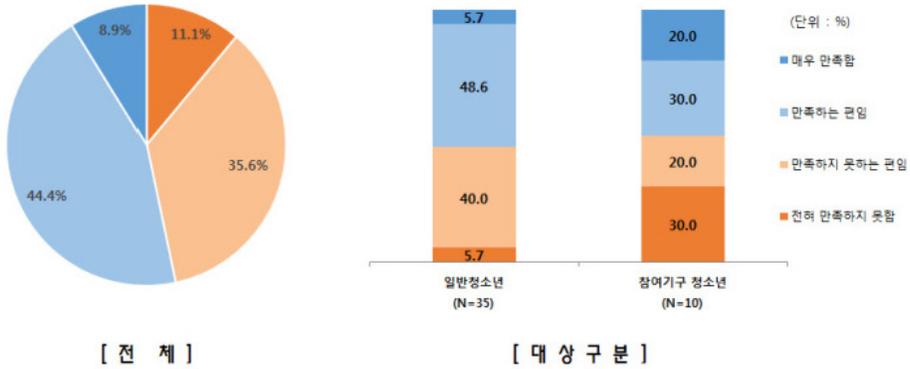


그림 III-21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표 III-225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5)	11.1	35.6	44.4	8.9	46.7	53.3	
일반 청소년	(35)	5.7	40.0	48.6	5.7	45.7	54.3	
참여기구 청소년	(10)	30.0	20.0	30.0	20.0	50.0	50.0	
성별	남자	(22)	13.6	40.9	40.9	4.5	54.5	45.5
	여자	(23)	8.7	30.4	47.8	13.0	39.1	60.9
연령	9~12세	(4)	-	50.0	50.0	-	50.0	50.0
	13~18세	(24)	20.8	33.3	33.3	12.5	54.2	45.8
	19~24세	(17)	-	35.3	58.8	5.9	35.3	64.7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7%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1.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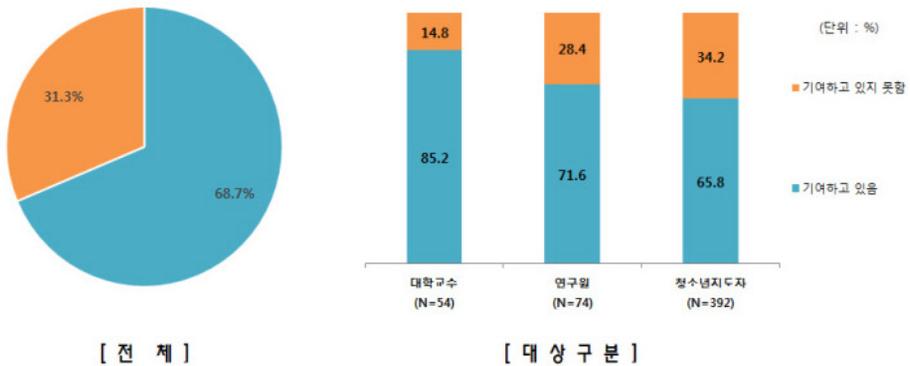


그림 III-21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표 III-22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620)	68.7	31.3	
직군	대학교수	(54)	85.2	14.8
	연구원	(74)	71.6	28.4
	청소년지도자	(392)	65.8	34.2

④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

가.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

온오프라인 상의 영화, 게임, 음악, 공연, 방송, 잡지, 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의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는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15.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와 청소년의 평가는 달랐는데 전문가의 76.5%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은 각각 43.3%, 24.1%만이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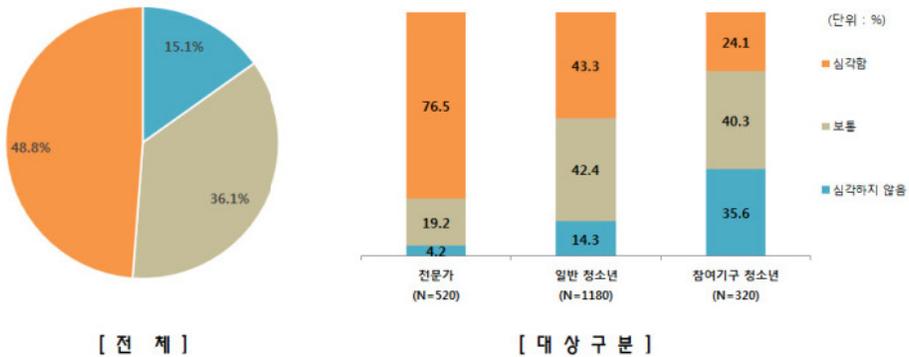


그림 III-214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III-227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15.1	36.1	48.8
전문가	(520)	4.2	19.2	76.5
청소년	(1,500)	18.9	41.9	39.2
일반 청소년	(1,180)	14.3	42.4	43.3
참여기구 청소년	(320)	35.6	40.3	24.1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성별	남자	(741)	20.0	44.7	35.4
	여자	(759)	17.8	39.3	43.0
연령	9~12세	(215)	9.3	40.9	49.8
	13~18세	(788)	18.9	41.4	39.7
	19~24세	(497)	22.9	43.3	33.8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만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고, 53.1%는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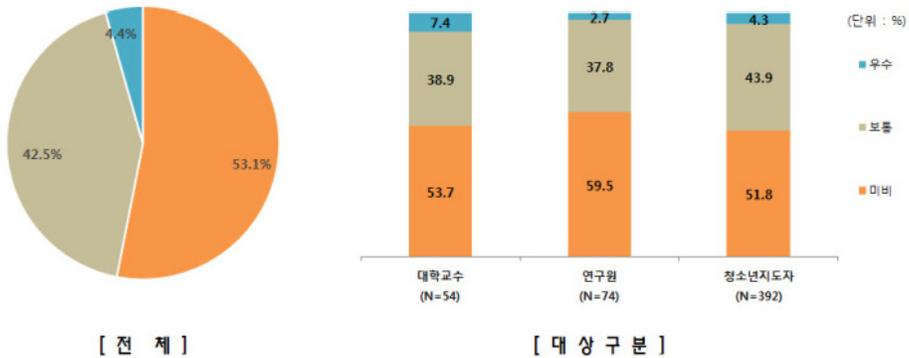


그림 III-215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III-228 매체물 접촉 및 이용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620)	53.1	42.5	4.4	
직군	대학교수	(54)	53.7	38.9	7.4
	연구원	(74)	59.5	37.8	2.7
	청소년지도자	(392)	51.8	43.9	4.3

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1%는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17.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75.6%는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50.9%, 37.2%가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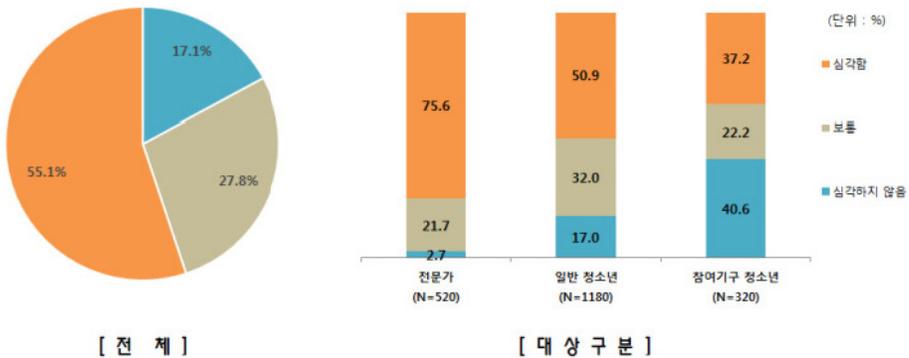


그림 III-216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III-229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17.1	27.8	55.1
전문가	(520)	2.7	21.7	75.6
청소년	(1,500)	22.1	29.9	48.0
일반 청소년	(1,180)	17.0	32.0	50.9
참여기구 청소년	(320)	40.6	22.2	37.2
성별				
남자	(741)	19.6	35.4	45.1
여자	(759)	24.5	24.6	50.9
연령				
9~12세	(215)	11.6	25.1	63.3
13~18세	(788)	24.5	29.4	46.1
19~24세	(497)	22.7	32.8	44.5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만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고, 51.9%는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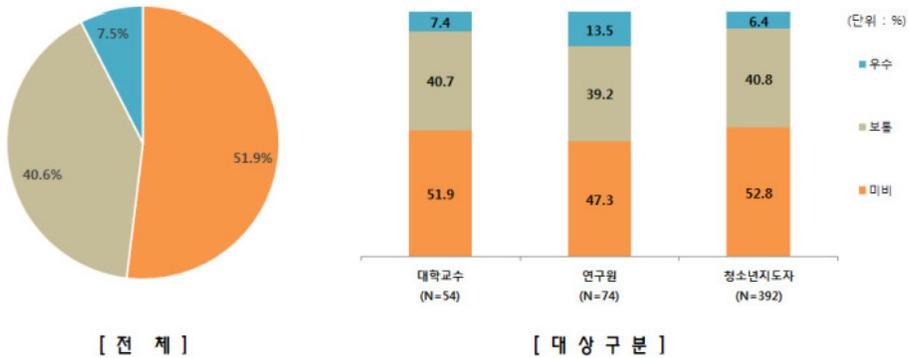


그림 Ⅲ-217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Ⅲ-230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51.9	40.6	7.5	
직군	대학교수	(54)	51.9	40.7	7.4
	연구원	(74)	47.3	39.2	13.5
	청소년지도자	(392)	52.8	40.8	6.4

다.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 위험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완구 등의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3%는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고 20.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64.8%가 해당 위험의 심각성에 동의하였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46.5%, 28.1%가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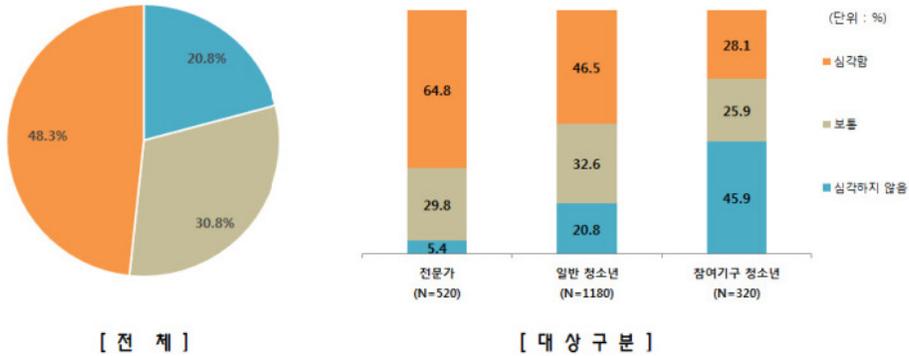


그림 Ⅲ-218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Ⅲ-231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20.8	30.8	48.3
전문가	(520)	5.4	29.8	64.8
청소년	(1,500)	26.2	31.2	42.6
일반 청소년	(1,180)	20.8	32.6	46.5
참여기구 청소년	(320)	45.9	25.9	28.1
성별				
남자	(741)	25.5	36.0	38.5
여자	(759)	26.9	26.5	46.6
연령				
9~12세	(215)	13.0	29.3	57.7
13~18세	(788)	30.1	31.2	38.7
19~24세	(497)	25.8	32.0	42.3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3.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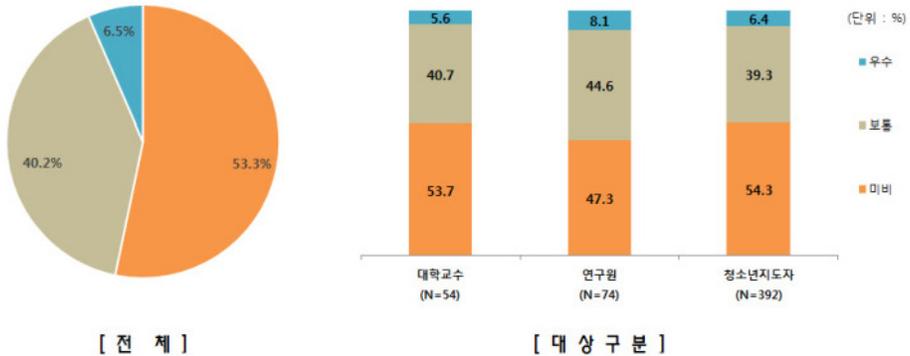


그림 Ⅲ-219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Ⅲ-232 음란 기구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53.3	40.2	6.5	
직군	대학교수	(54)	53.7	40.7	5.6
	연구원	(74)	47.3	44.6	8.1
	청소년지도자	(392)	54.3	39.3	6.4

라. 업소 이용 및 노출 위험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비디오/DVD방 등의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는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20.0%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58.5%는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44.9%, 28.1%가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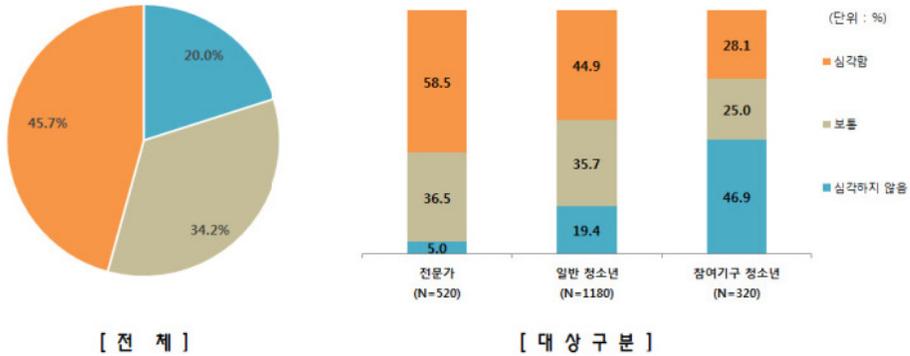


그림 III-220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III-233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20.0	34.2	45.7
전문가	(520)	5.0	36.5	58.5
청소년	(1,500)	25.3	33.4	41.3
일반 청소년	(1,180)	19.4	35.7	44.9
참여기구 청소년	(320)	46.9	25.0	28.1
성별				
남자	(741)	24.2	38.2	37.7
여자	(759)	26.4	28.7	44.9
연령				
9~12세	(215)	11.2	31.6	57.2
13~18세	(788)	29.8	34.3	35.9
19~24세	(497)	24.1	32.8	43.1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8.3%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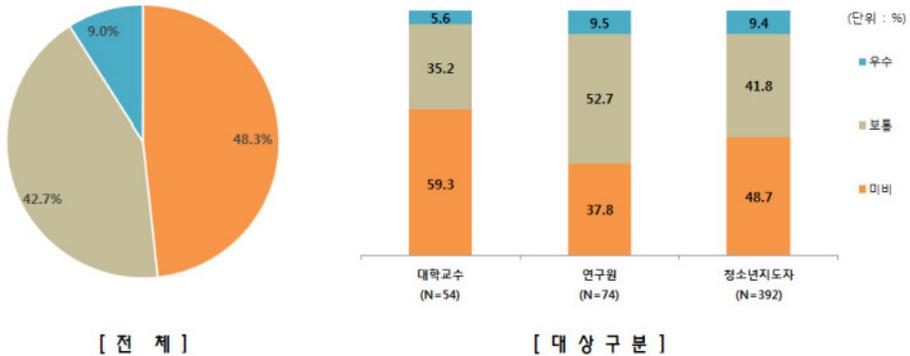


그림 Ⅲ-221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Ⅲ-234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48.3	42.7	9.0	
직군	대학교수	(54)	59.3	35.2	5.6
	연구원	(74)	37.8	52.7	9.5
	청소년지도자	(392)	48.7	41.8	9.4

마.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안전사고 등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는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18.2%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72.3%가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47.2%, 35.9%가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에 동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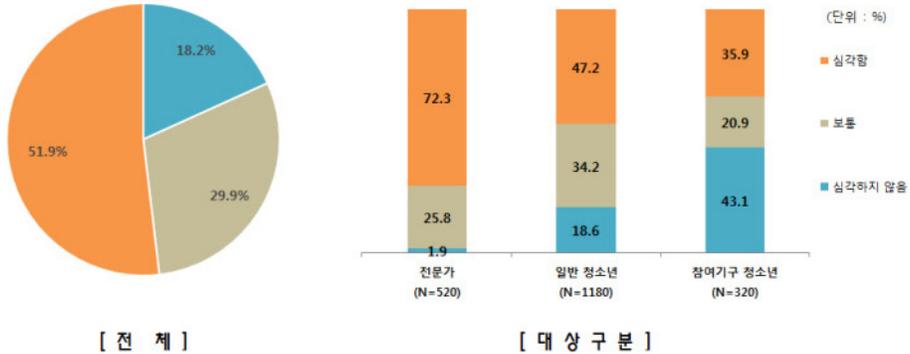


그림 III-222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III-235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18.2	29.9	51.9
전문가	(520)	1.9	25.8	72.3
청소년	(1,500)	23.9	31.3	44.8
일반 청소년	(1,180)	18.6	34.2	47.2
참여기구 청소년	(320)	43.1	20.9	35.9
성별				
남자	(741)	22.3	34.0	43.7
여자	(759)	25.4	28.7	45.8
연령				
9~12세	(215)	13.0	37.2	49.8
13~18세	(788)	29.4	30.2	40.4
19~24세	(497)	19.7	30.6	49.7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6.7%만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57.7%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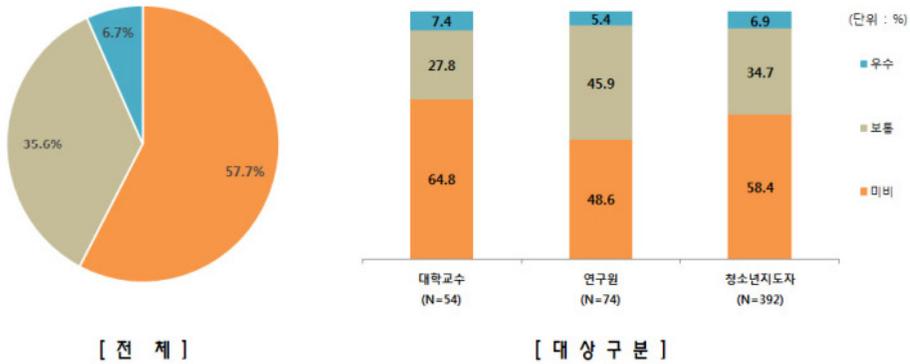


그림 III-223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III-236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57.7	35.6	6.7	
직군	대학교수	(54)	64.8	27.8	7.4
	연구원	(74)	48.6	45.9	5.4
	청소년지도자	(392)	58.4	34.7	6.9

바.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8%는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17.8%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72.5%는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47.2%, 35.0%가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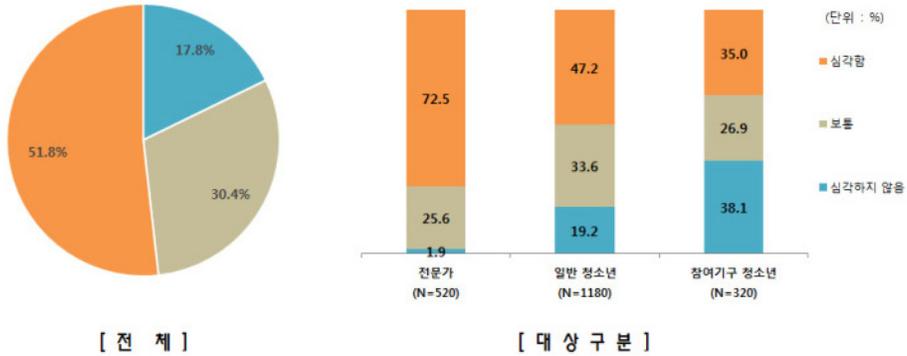


그림 III-224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표 III-237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17.8	30.4	51.8
전문가	(520)	1.9	25.6	72.5
청소년	(1,500)	23.3	32.1	44.6
일반 청소년	(1,180)	19.2	33.6	47.2
참여기구 청소년	(320)	38.1	26.9	35.0
성별				
남자	(741)	20.4	36.2	43.5
여자	(759)	26.1	28.2	45.7
연령				
9~12세	(215)	13.0	29.8	57.2
13~18세	(788)	26.8	34.3	39.0
19~24세	(497)	22.1	29.8	48.1

전문가 집단에게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를 내릴 전문가는 4.6%에 불과했고 48.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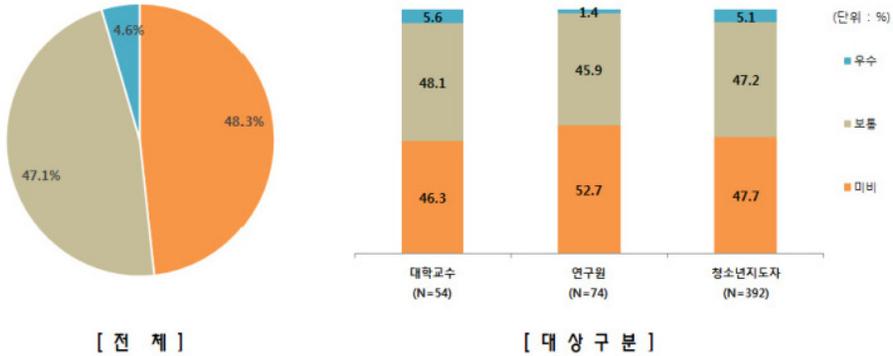


그림 Ⅲ-225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Ⅲ-238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48.3	47.1	4.6	
직군	대학교수	(54)	46.3	48.1	5.6
	연구원	(74)	52.7	45.9	1.4
	청소년지도자	(392)	47.7	47.2	5.1

사.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0%는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24.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52.5%가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31.2%와 26.9%만이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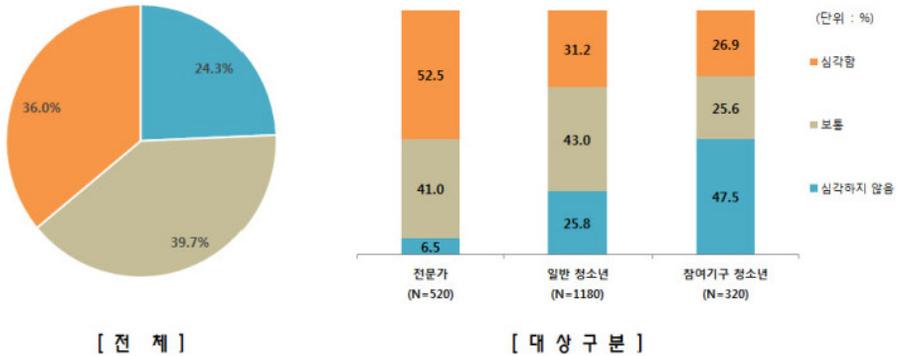


그림 Ⅲ-226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표 Ⅲ-239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의 심각성

구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전체	(2,020)	24.3	39.7	36.0	
전문가	(520)	6.5	41.0	52.5	
청소년	(1,500)	30.5	39.3	30.3	
일반 청소년	(1,180)	25.8	43.0	31.2	
참여기구 청소년	(320)	47.5	25.6	26.9	
성별	남자	(741)	28.1	42.6	29.3
	여자	(759)	32.8	36.0	31.2
연령	9~12세	(215)	17.7	47.9	34.4
	13~18세	(788)	37.7	36.4	25.9
	19~24세	(497)	24.5	40.0	35.4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만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36.3%는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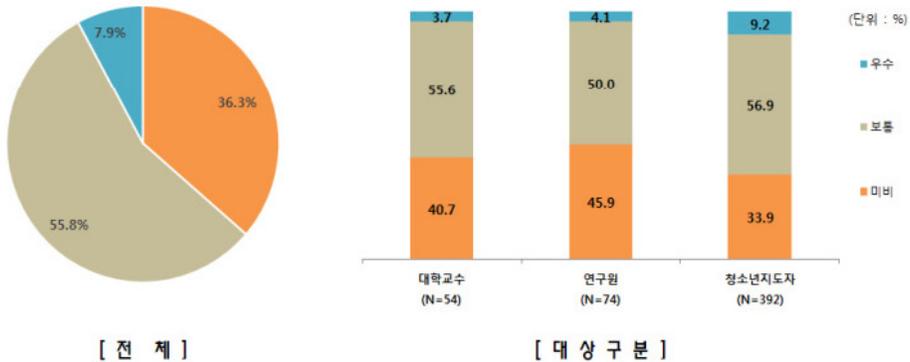


그림 Ⅲ-227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표 Ⅲ-240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사례수	미비	보통	우수	
전체	(520)	36.3	55.8	7.9	
직군	대학교수	(54)	40.7	55.6	3.7
	연구원	(74)	45.9	50.0	4.1
	청소년지도자	(392)	33.9	56.9	9.2

⑤ 청소년보호 서비스와 시설

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㉞ 인지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2%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8%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88.7%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경우 각각 25.2%, 20.6%만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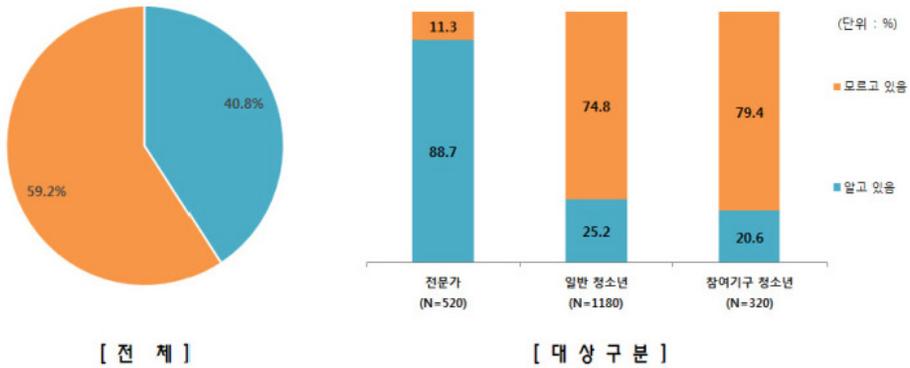


그림 Ⅲ-22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지도

표 Ⅲ-24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40.8	59.2
전문가	(520)	88.7	11.3
청소년	(1,500)	24.2	75.8
일반 청소년	(1,180)	25.2	74.8
참여기구 청소년	(320)	20.6	79.4
성별			
남자	(741)	25.1	74.9
여자	(759)	23.3	76.7
연령			
9~12세	(215)	27.0	73.0
13~18세	(788)	27.9	72.1
19~24세	(497)	17.1	82.9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6%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9.4%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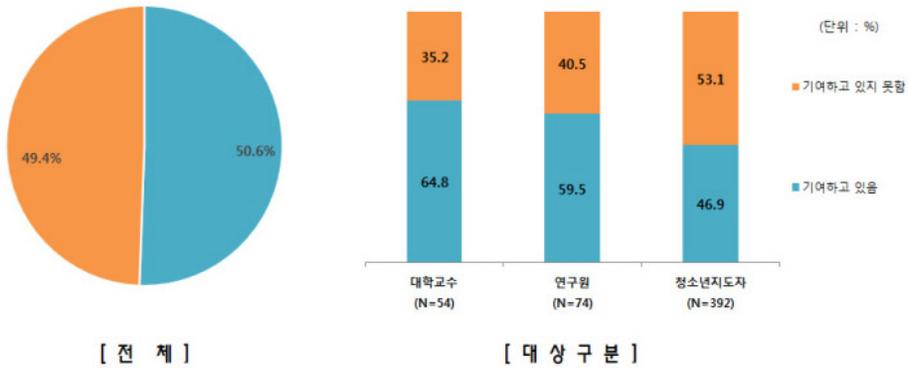


그림 Ⅲ-229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기여도

표 Ⅲ-242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50.6	49.4	
직군	대학교수	(54)	64.8	35.2
	연구원	(74)	59.5	40.5
	청소년지도자	(392)	46.9	53.1

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㉕ 인지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3%는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52.7%는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의 경우 78.1%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데 반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은 각각 34.4%, 44.7%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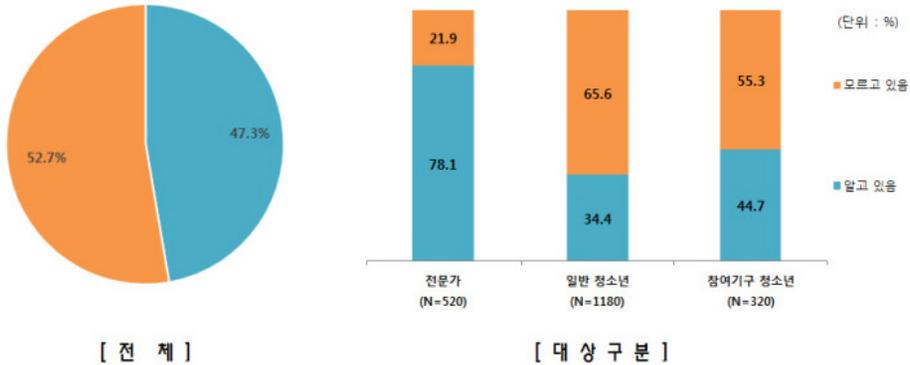


그림 Ⅲ-23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인지도

표 Ⅲ-24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47.3	52.7
전문가	(520)	78.1	21.9
청소년	(1,500)	36.6	63.4
일반 청소년	(1,180)	34.4	65.6
참여기구 청소년	(320)	44.7	55.3
성별			
남자	(741)	35.2	64.8
여자	(759)	37.9	62.1
연령			
9~12세	(215)	34.9	65.1
13~18세	(788)	40.0	60.0
19~24세	(497)	32.0	68.0

㉔ 이용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0.4%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89.6%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그림 Ⅲ-23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경험

표 Ⅲ-24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49)	10.4	89.6
일반 청소년	(406)	10.1	89.9
참여기구 청소년	(143)	11.2	88.8
성별	남자 (261)	11.5	88.5
	여자 (288)	9.4	90.6
연령	9~12세 (75)	4.0	96.0
	13~18세 (315)	7.9	92.1
	19~24세 (159)	18.2	81.8

㉔ 이용 만족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결과,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5.4%는 긍정적 평가를, 24.6%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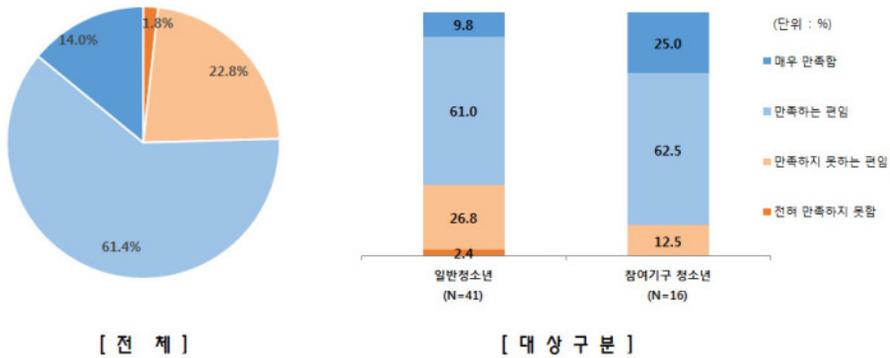


그림 Ⅲ-2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표 Ⅲ-24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57)	1.8	22.8	61.4	14.0	24.6	75.4	
일반 청소년	(41)	2.4	26.8	61.0	9.8	29.3	70.7	
참여기구 청소년	(16)	-	12.5	62.5	25.0	12.5	87.5	
성별	남자	(30)	3.3	23.3	60.0	13.3	26.7	73.3
	여자	(27)	-	22.2	63.0	14.8	22.2	77.8
연령	9~12세	(3)	-	33.3	66.7	-	33.3	66.7
	13~18세	(25)	4.0	24.0	56.0	16.0	28.0	72.0
	19~24세	(29)	-	20.7	65.5	13.8	20.7	79.3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39.8%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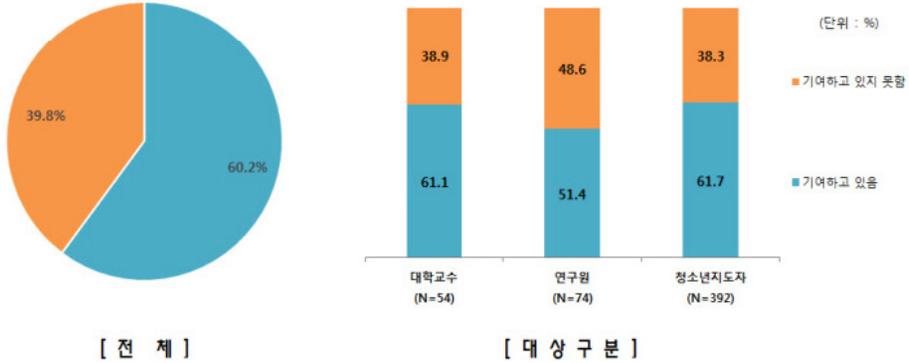


그림 III-23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기여도

표 III-24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0.2	39.8	
직군	대학교수	(54)	61.1	38.9
	연구원	(74)	51.4	48.6
	청소년지도자	(392)	61.7	38.3

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㉔ 인지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5%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3.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는 66.5%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는 각각 11.5%, 16.6%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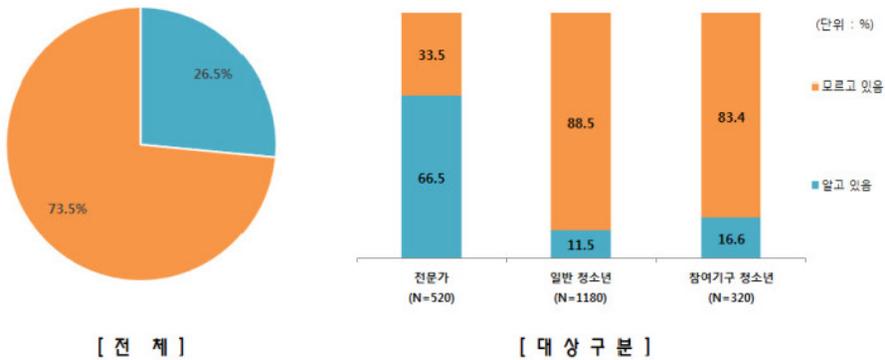


그림 Ⅲ-23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지도

표 Ⅲ-24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26.5	73.5
전문가	(520)	66.5	33.5
청소년	(1,500)	12.6	87.4
일반 청소년	(1,180)	11.5	88.5
참여기구 청소년	(320)	16.6	83.4
성별			
남자	(741)	11.1	88.9
여자	(759)	14.1	85.9
연령			
9~12세	(215)	3.3	96.7
13~18세	(788)	14.2	85.8
19~24세	(497)	14.1	85.9

㉔ 이용 경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이용 경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18.5%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인 81.5%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그림 Ⅲ-23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경험

표 Ⅲ-24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89)	18.5	81.5	
일반 청소년	(136)	19.9	80.1	
참여기구 청소년	(53)	15.1	84.9	
성별	남자	(82)	19.5	80.5
	여자	(107)	17.8	82.2
연령	9~12세	(7)	14.3	85.7
	13~18세	(112)	16.1	83.9
	19~24세	(70)	22.9	77.1

㉔ 이용 만족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2.9%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37.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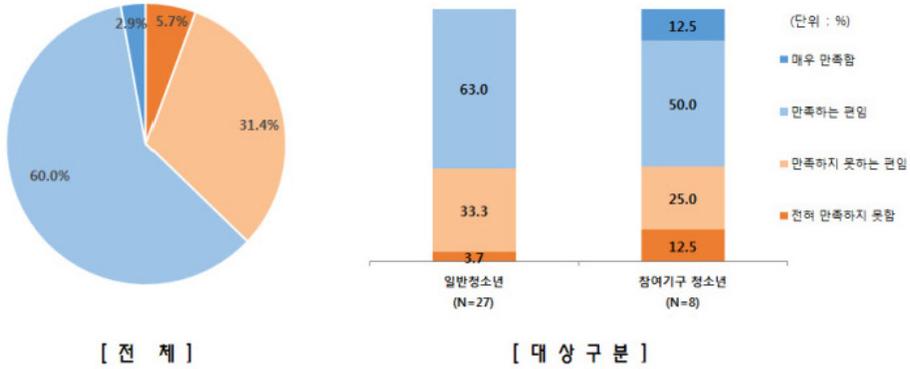


그림 Ⅲ-236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만족도

표 Ⅲ-249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35)	5.7	31.4	60.0	2.9	37.1	62.9	
일반 청소년	(27)	3.7	33.3	63.0	-	37.0	63.0	
참여기구 청소년	(8)	12.5	25.0	50.0	12.5	37.5	62.5	
성별	남자	(16)	12.5	25.0	56.3	6.3	37.5	62.5
	여자	(19)	-	36.8	63.2	-	36.8	63.2
연령	9~12세	(1)	-	100.0	-	-	100.0	-
	13~18세	(18)	5.6	22.2	66.7	5.6	27.8	72.2
	19~24세	(16)	6.3	37.5	56.3	-	43.8	56.3

㉞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긍정적으로, 38.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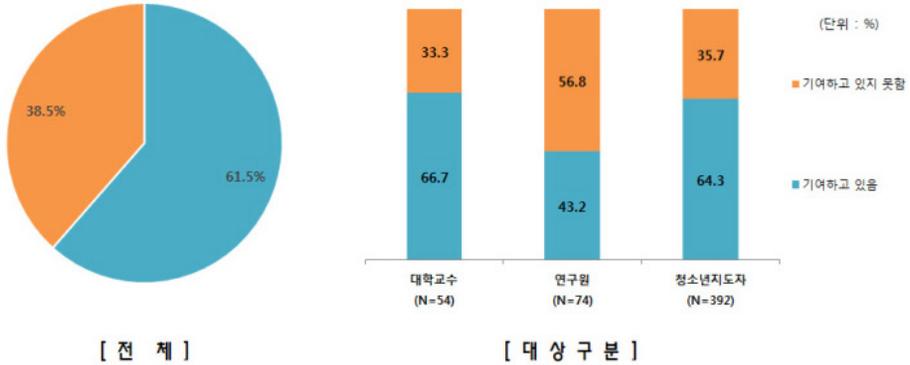


그림 Ⅲ-23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표 Ⅲ-25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구분	사례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1.5	38.5	
직군	대학교수	(54)	66.7	33.3
	연구원	(74)	43.2	56.8
	청소년지도자	(392)	64.3	35.7

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㉞ 인지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4%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3.6%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의 인지도는 73.5%로 높은데 반해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의 인지도는 각각 24.0%, 21.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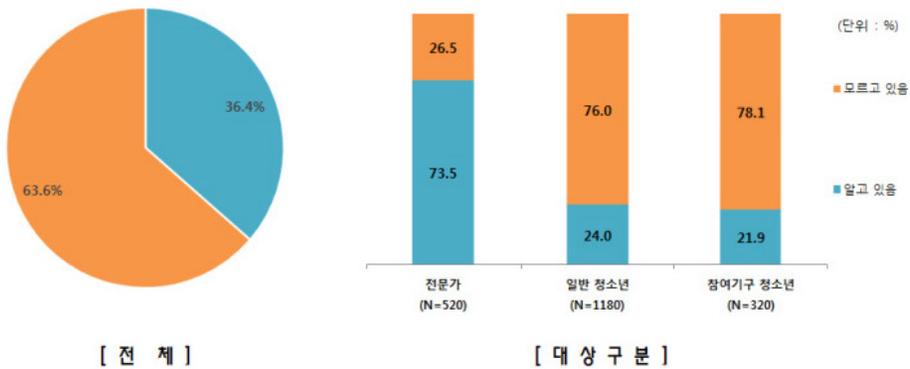


그림 III-238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인지도

표 III-25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36.4	63.6
전문가	(520)	73.5	26.5
청소년	(1,500)	23.5	76.5
일반 청소년	(1,180)	24.0	76.0
참여기구 청소년	(320)	21.9	78.1
성별			
남자	(741)	23.1	76.9
여자	(759)	24.0	76.0
연령			
9~12세	(215)	20.0	80.0
13~18세	(788)	24.4	75.6
19~24세	(497)	23.7	76.3

㊤ 이용 경험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가운데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6%였고 나머지 88.4%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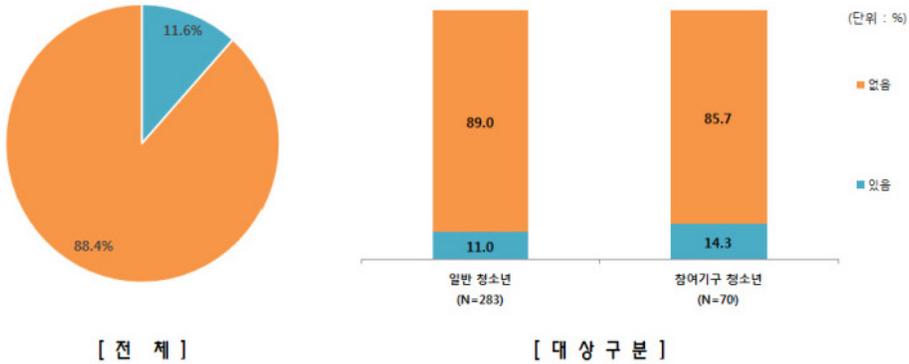


그림 III-23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경험

표 III-25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경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53)	11.6	88.4	
일반 청소년	(283)	11.0	89.0	
참여기구 청소년	(70)	14.3	85.7	
성별	남자	(171)	13.5	86.5
	여자	(182)	9.9	90.1
연령	9~12세	(43)	-	100.0
	13~18세	(192)	10.4	89.6
	19~24세	(118)	17.8	82.2

㉔ 이용 만족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이용 만족도와 관련해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63.4%는 긍정적인 평가를, 36.6%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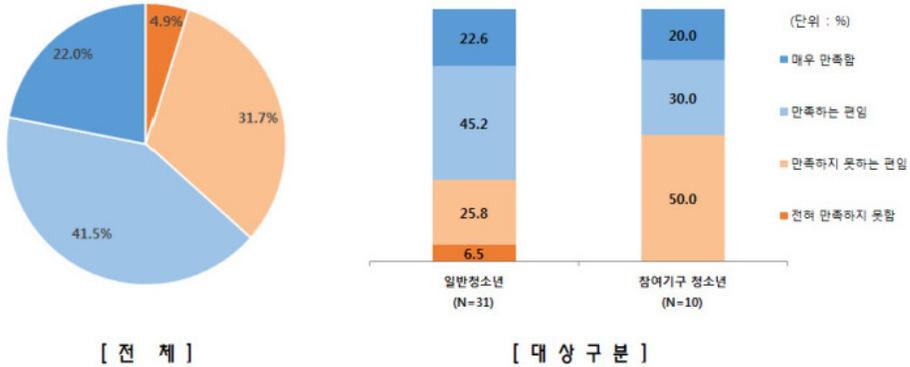


그림 III-24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만족도

표 III-25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1)	4.9	31.7	41.5	22.0	36.6	63.4
일반 청소년	(31)	6.5	25.8	45.2	22.6	32.3	67.7
참여기구 청소년	(10)	-	50.0	30.0	20.0	50.0	50.0
성별	남자 (23)	4.3	34.8	34.8	26.1	39.1	60.9
	여자 (18)	5.6	27.8	50.0	16.7	33.3	66.7
연령	9~12세 (-)	-	-	-	-	-	-
	13~18세 (20)	10.0	40.0	35.0	15.0	50.0	50.0
	19~24세 (21)	-	23.8	47.6	28.6	23.8	76.2

㉞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2%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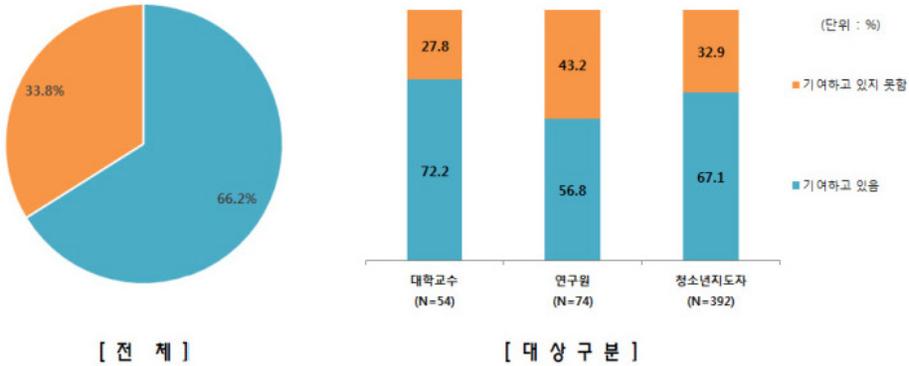


그림 Ⅲ-241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여도

표 Ⅲ-254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여도

구분	사계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66.2	33.8	
직군	대학교수	(54)	72.2	27.8
	연구원	(74)	56.8	43.2
	청소년지도자	(392)	67.1	32.9

마.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㉞ 인지도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9%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5.1%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2.5%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은 각각 12.4%, 11.6%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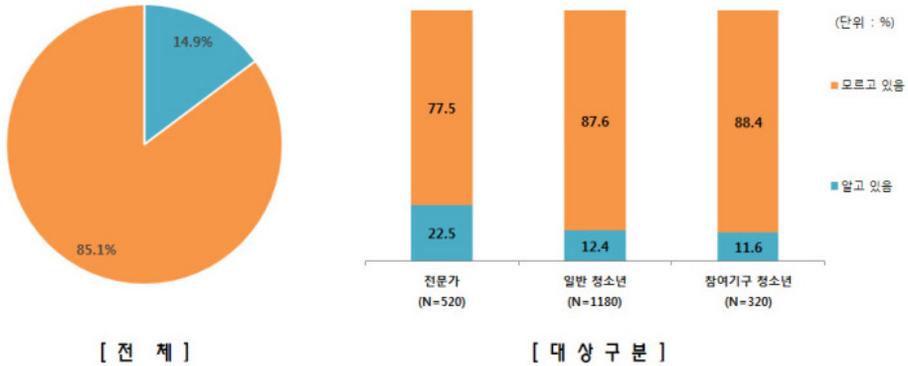


그림 Ⅲ-242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인지도

표 Ⅲ-255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인지도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2,020)	14.9	85.1
전문가	(520)	22.5	77.5
청소년	(1,500)	12.2	87.8
일반 청소년	(1,180)	12.4	87.6
참여기구 청소년	(320)	11.6	88.4
성별			
남자	(741)	12.3	87.7
여자	(759)	12.1	87.9
연령			
9~12세	(215)	7.4	92.6
13~18세	(788)	12.4	87.6
19~24세	(497)	13.9	86.1

㉔ 이용 경험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24%만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고 나머지 76.0%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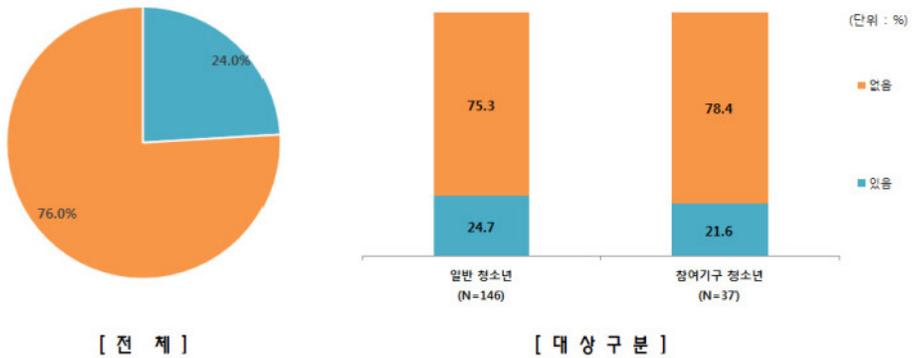


그림 III-243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표 III-256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사계수	있음	없음	
전체	(183)	24.0	76.0	
일반 청소년	(146)	24.7	75.3	
참여기구 청소년	(37)	21.6	78.4	
성별	남자	(91)	26.4	73.6
	여자	(92)	21.7	78.3
연령	9~12세	(16)	6.3	93.8
	13~18세	(98)	24.5	75.5
	19~24세	(69)	27.5	72.5

㊤ 이용 만족도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와 관련해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72.7%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머지 27.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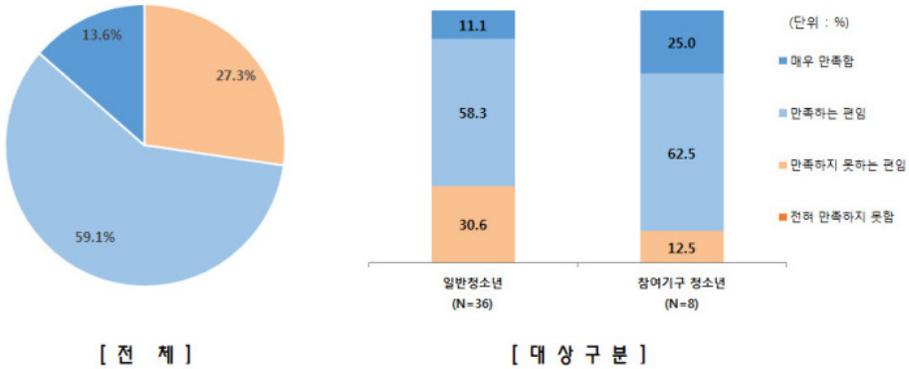


그림 Ⅲ-244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표 Ⅲ-257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44)	-	27.3	59.1	13.6	27.3	72.7	
일반 청소년	(36)	-	30.6	58.3	11.1	30.6	69.4	
참여기구 청소년	(8)	-	12.5	62.5	25.0	12.5	87.5	
성별	남자	(24)	-	33.3	50.0	16.7	33.3	66.7
	여자	(20)	-	20.0	70.0	10.0	20.0	80.0
연령	9~12세	(1)	-	-	100.0	-	-	100.0
	13~18세	(24)	-	20.8	70.8	8.3	20.8	79.2
	19~24세	(19)	-	36.8	42.1	21.1	36.8	63.2

㉔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과반수인 69.2%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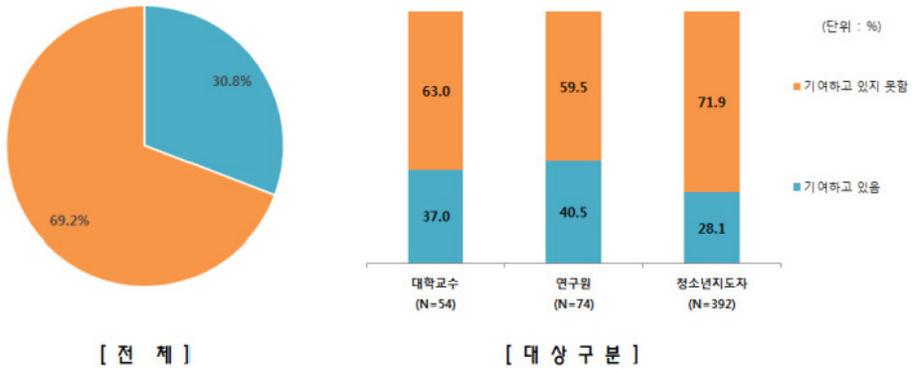


그림 Ⅲ-245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기여도

표 Ⅲ-258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기여도

구분	사계수	기여하고 있음	기여하고 있지 못함	
전체	(520)	30.8	69.2	
직군	대학교수	(54)	37.0	63.0
	연구원	(74)	40.5	59.5
	청소년지도자	(392)	28.1	71.9

⑥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관심 및 참여 의향

가. 생명존중

생명존중(자살·자해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7.7%는 해당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8.6%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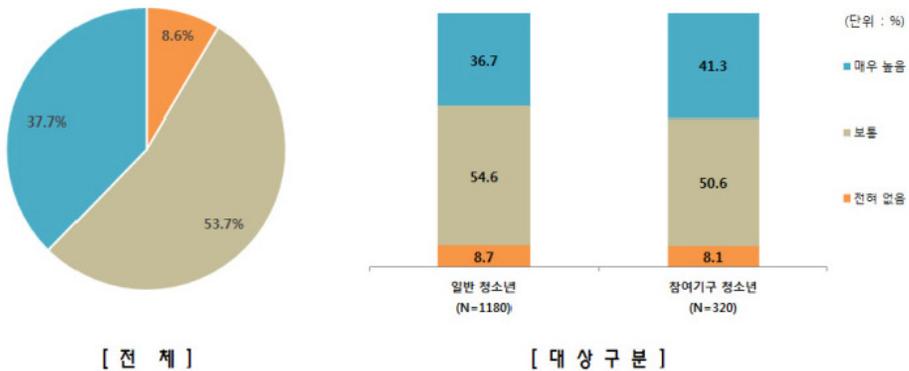


그림 III-246 생명존중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III-259 생명존중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8.6	53.7	37.7	
일반 청소년	(1,180)	8.7	54.6	36.7	
참여기구 청소년	(320)	8.1	50.6	41.3	
성별	남자	(741)	9.3	54.9	35.8
	여자	(759)	7.9	52.6	39.5
연령	9~12세	(215)	1.9	53.5	44.7
	13~18세	(788)	10.0	53.4	36.5
	19~24세	(497)	9.3	54.3	36.4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3.3%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6.7%는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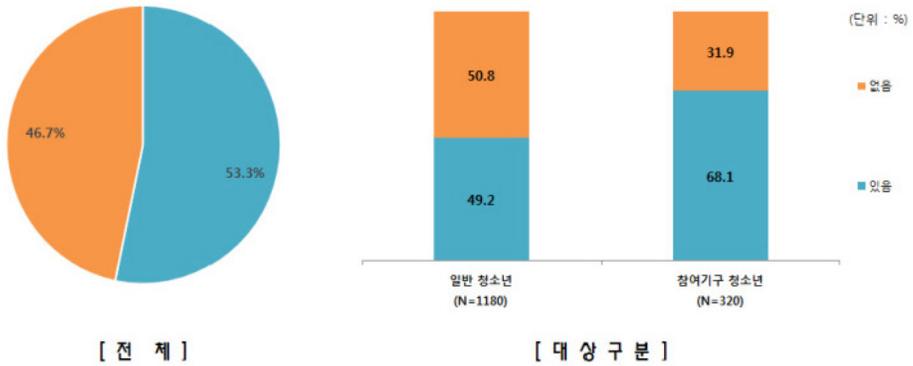


그림 III-247 생명존중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I-260 생명존중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3.3	46.7	
일반 청소년	(1,180)	49.2	50.8	
참여기구 청소년	(320)	68.1	31.9	
성별	남자	(741)	50.7	49.3
	여자	(759)	55.7	44.3
연령	9~12세	(215)	65.1	34.9
	13~18세	(788)	55.5	44.5
	19~24세	(497)	44.7	55.3

나. 비행예방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6.7%는 해당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16.5%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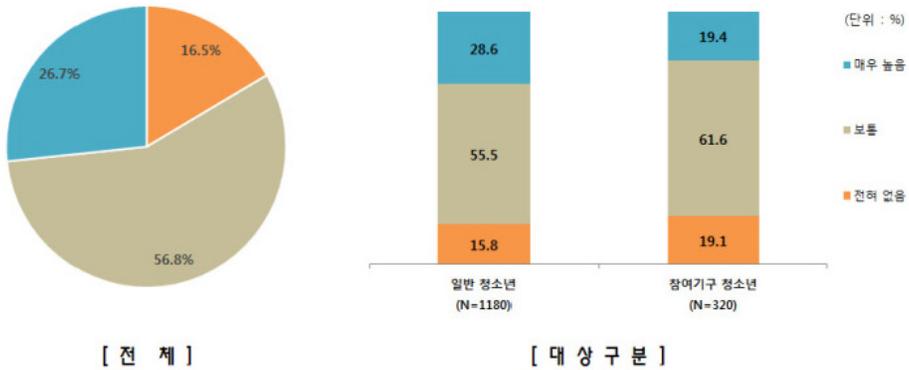


그림 III-248 비행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III-261 비행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16.5	56.8	26.7	
일반 청소년	(1,180)	15.8	55.5	28.6	
참여기구 청소년	(320)	19.1	61.6	19.4	
성별	남자	(741)	15.5	57.2	27.3
	여자	(759)	17.5	56.4	26.1
연령	9~12세	(215)	6.5	55.3	38.1
	13~18세	(788)	17.1	57.6	25.3
	19~24세	(497)	19.9	56.1	23.9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8.3%는 비행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반수인 61.7%는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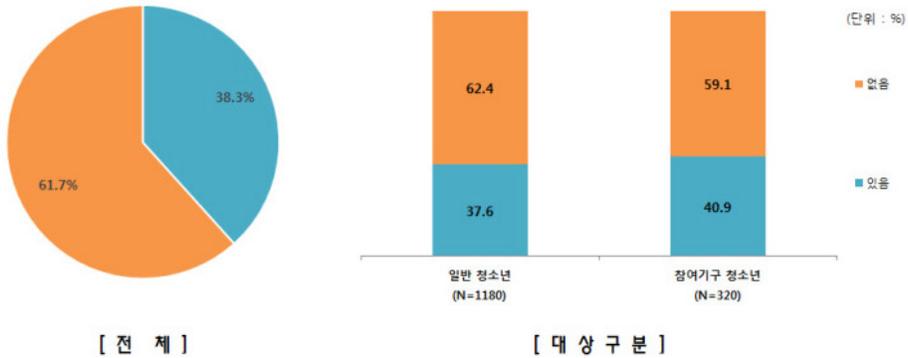


그림 III-249 비행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I-262 비행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38.3	61.7	
일반 청소년	(1,180)	37.6	62.4	
참여기구 청소년	(320)	40.9	59.1	
성별	남자	(741)	37.8	62.2
	여자	(759)	38.9	61.1
연령	9~12세	(215)	54.9	45.1
	13~18세	(788)	41.0	59.0
	19~24세	(497)	27.0	73.0

다. 진로(발달) 설계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의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1.9%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고 6.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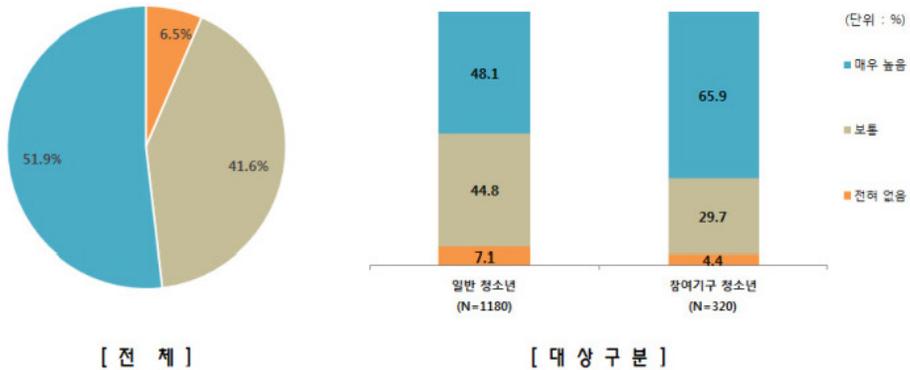


그림 Ⅲ-250 진로 설계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Ⅲ-263 진로 설계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6.5	41.6	51.9	
일반 청소년	(1,180)	7.1	44.8	48.1	
참여기구 청소년	(320)	4.4	29.7	65.9	
성별	남자	(741)	7.4	41.3	51.3
	여자	(759)	5.7	41.9	52.4
연령	9~12세	(215)	4.7	42.3	53.0
	13~18세	(788)	5.6	39.5	54.9
	19~24세	(497)	8.9	44.7	46.5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70.1%는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29.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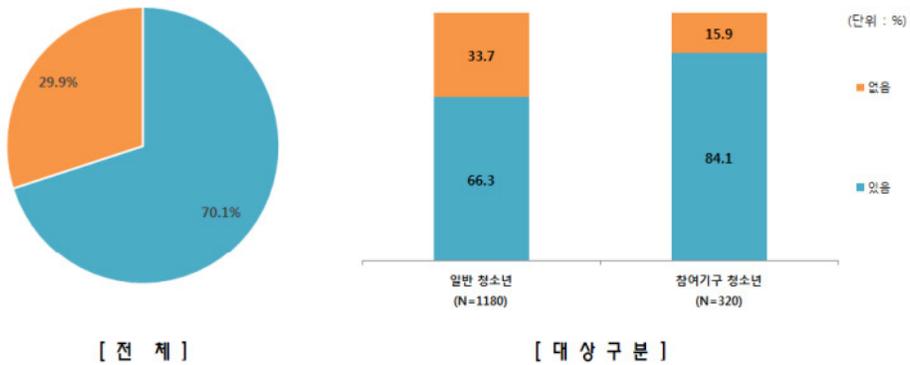


그림 III-251 진로 설계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I-264 진로 설계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70.1	29.9	
일반 청소년	(1,180)	66.3	33.7	
참여기구 청소년	(320)	84.1	15.9	
성별	남자	(741)	69.6	30.4
	여자	(759)	70.5	29.5
연령	9~12세	(215)	78.6	21.4
	13~18세	(788)	75.9	24.1
	19~24세	(497)	57.1	42.9

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4.5%는 해당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9.3%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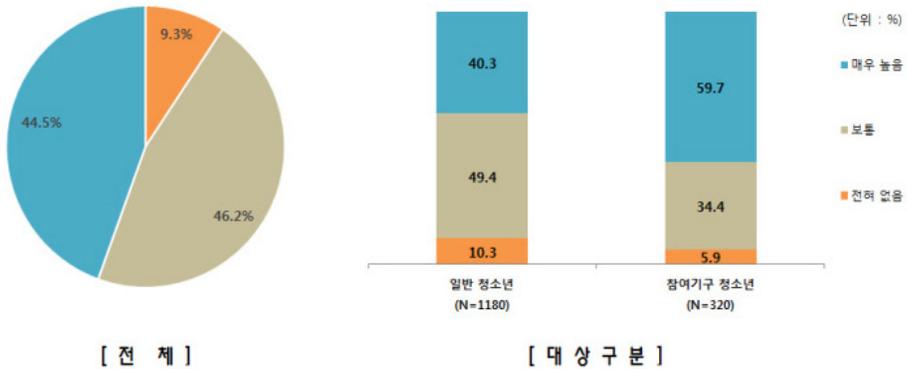


그림 III-25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III-265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9.3	46.2	44.5
일반 청소년	(1,180)	10.3	49.4	40.3
참여기구 청소년	(320)	5.9	34.4	59.7
성별	남자 (741)	9.7	49.9	40.4
	여자 (759)	9.0	42.6	48.5
연령	9~12세 (215)	5.6	53.5	40.9
	13~18세 (788)	9.4	44.9	45.7
	19~24세 (497)	10.9	45.1	44.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6.1%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3.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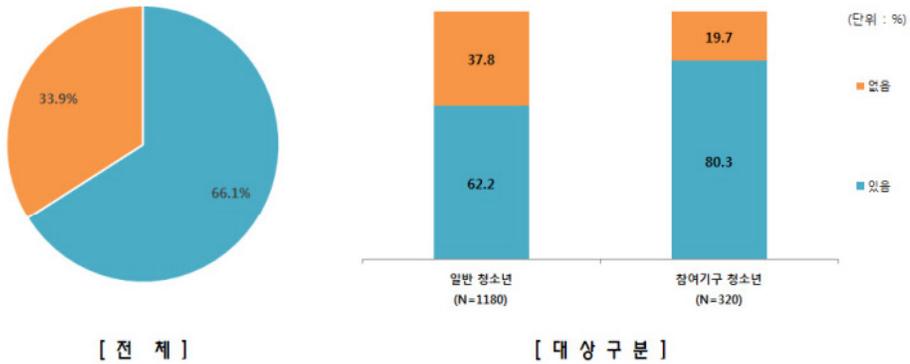


그림 Ⅲ-253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Ⅲ-266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66.1	33.9	
일반 청소년	(1,180)	62.2	37.8	
참여기구 청소년	(320)	80.3	19.7	
성별	남자	(741)	63.0	37.0
	여자	(759)	69.0	31.0
연령	9~12세	(215)	58.6	41.4
	13~18세	(788)	72.2	27.8
	19~24세	(497)	59.6	40.4

마.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4.3%는 높은 관심을 보였고 10.3%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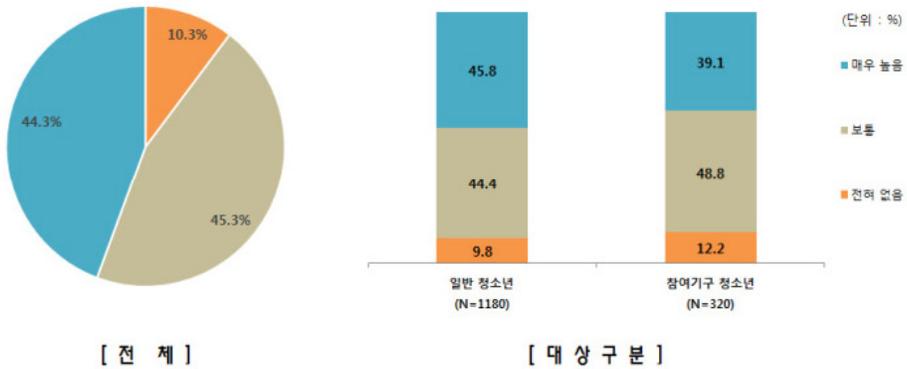


그림 III-25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III-26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10.3	45.3	44.3	
일반 청소년	(1,180)	9.8	44.4	45.8	
참여기구 청소년	(320)	12.2	48.8	39.1	
성별	남자	(741)	10.5	46.3	43.2
	여자	(759)	10.1	44.4	45.5
연령	9~12세	(215)	3.3	36.3	60.5
	13~18세	(788)	11.7	44.8	43.5
	19~24세	(497)	11.3	50.1	38.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5.3%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4.7%는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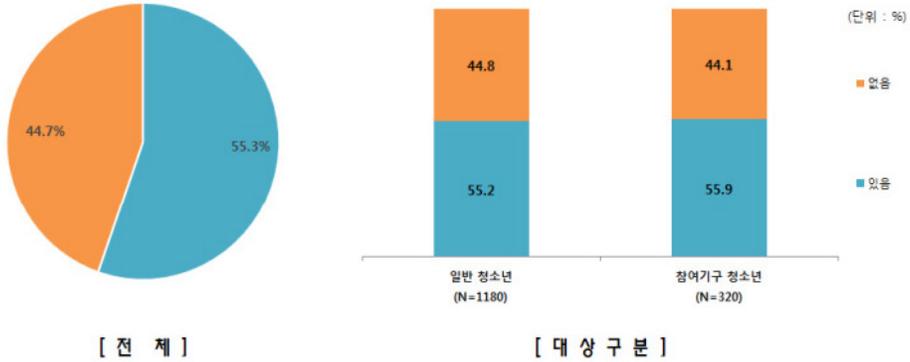


그림 Ⅲ-25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Ⅲ-26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5.3	44.7	
일반 청소년	(1,180)	55.2	44.8	
참여기구 청소년	(320)	55.9	44.1	
성별	남자	(741)	57.9	42.1
	여자	(759)	52.8	47.2
연령	9~12세	(215)	76.3	23.7
	13~18세	(788)	59.9	40.1
	19~24세	(497)	39.0	61.0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5.1%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9%는 반대로 관심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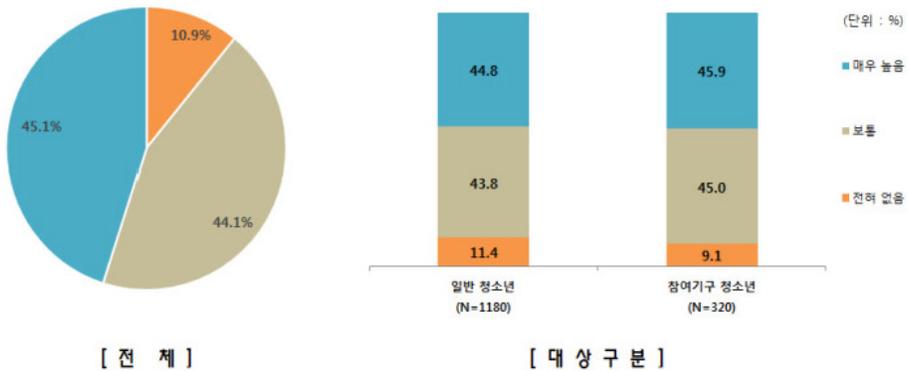


그림 Ⅲ-256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Ⅲ-269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10.9	44.1	45.1
일반 청소년	(1,180)	11.4	43.8	44.8
참여기구 청소년	(320)	9.1	45.0	45.9
성별	남자 (741)	11.1	47.5	41.4
	여자 (759)	10.7	40.7	48.6
연령	9~12세 (215)	6.0	34.9	59.1
	13~18세 (788)	12.9	43.3	43.8
	19~24세 (497)	9.7	49.3	41.0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5.5%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4.5%는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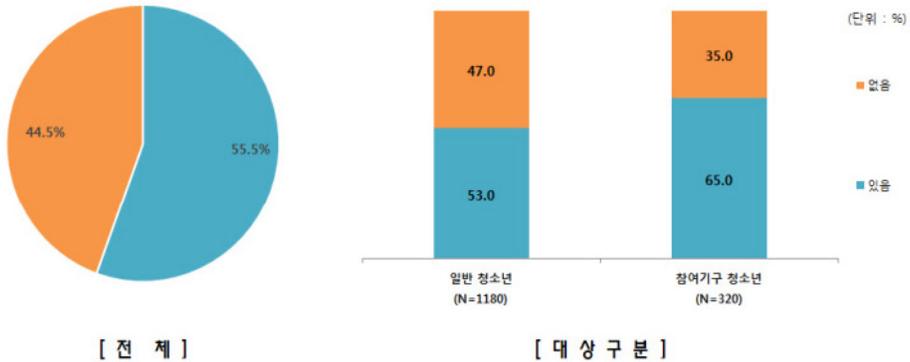


그림 III-257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I-270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5.5	44.5	
일반 청소년	(1,180)	53.0	47.0	
참여기구 청소년	(320)	65.0	35.0	
성별	남자	(741)	53.4	46.6
	여자	(759)	57.6	42.4
연령	9~12세	(215)	67.0	33.0
	13~18세	(788)	58.9	41.1
	19~24세	(497)	45.3	54.7

사. 또래상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26.9%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5.2%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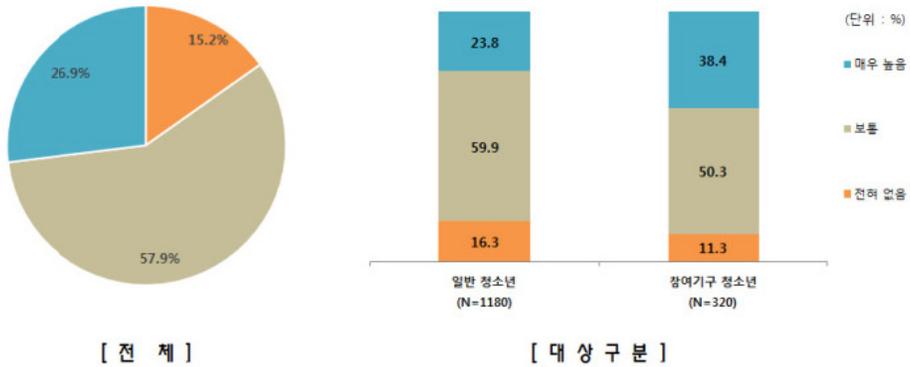


그림 Ⅲ-258 또래상담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Ⅲ-271 또래상담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15.2	57.9	26.9	
일반 청소년	(1,180)	16.3	59.9	23.8	
참여기구 청소년	(320)	11.3	50.3	38.4	
성별	남자	(741)	16.3	57.8	25.9
	여자	(759)	14.1	58.0	27.9
연령	9~12세	(215)	7.9	67.9	24.2
	13~18세	(788)	15.9	57.9	26.3
	19~24세	(497)	17.3	53.5	29.2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1.5%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8.5%는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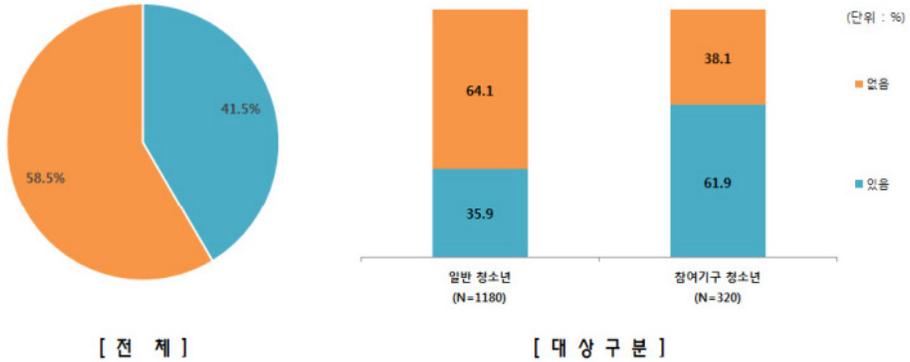


그림 Ⅲ-259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Ⅲ-272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41.5	58.5
일반 청소년	(1,180)	35.9	64.1
참여기구 청소년	(320)	61.9	38.1
성별	남자 (741)	38.6	61.4
	여자 (759)	44.3	55.7
연령	9~12세 (215)	45.1	54.9
	13~18세 (788)	44.2	55.8
	19~24세 (497)	35.6	64.4

아. 청소년 근로 및 인권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31.9%가 해당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9.8%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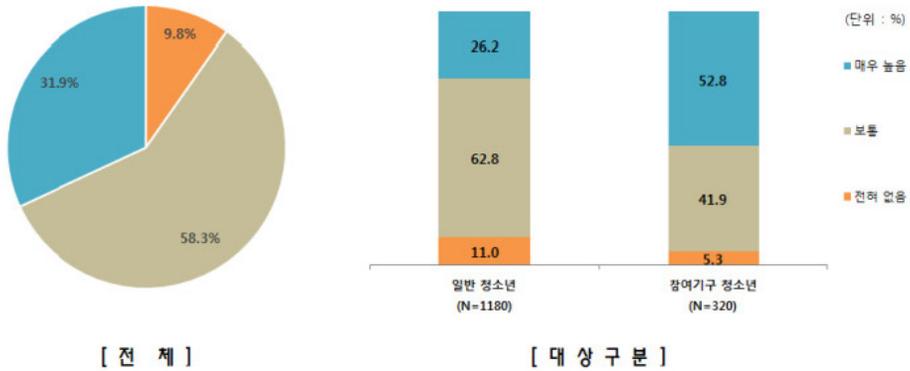


그림 III-260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관심 정도

표 III-273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관심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전체	(1,500)	9.8	58.3	31.9
일반 청소년	(1,180)	11.0	62.8	26.2
참여기구 청소년	(320)	5.3	41.9	52.8
성별	남자 (741)	10.5	58.6	30.9
	여자 (759)	9.1	58.1	32.8
연령	9~12세 (215)	4.2	70.7	25.1
	13~18세 (788)	11.0	54.3	34.6
	19~24세 (497)	10.3	59.4	30.4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4.6%가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고 나머지 45.4%는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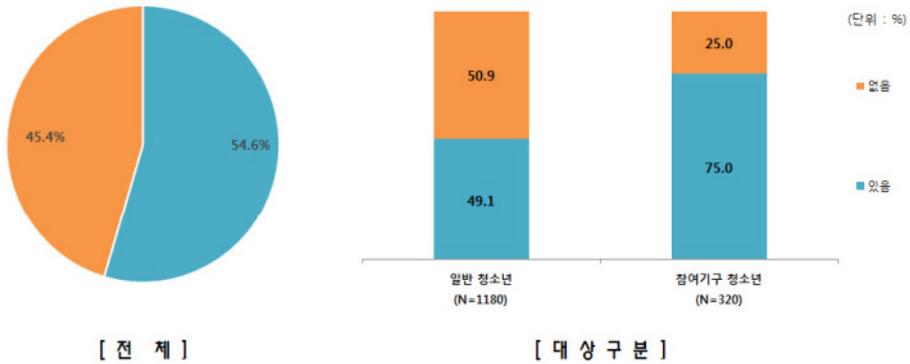


그림 III-261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II-274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500)	54.6	45.4	
일반 청소년	(1,180)	49.1	50.9	
참여기구 청소년	(320)	75.0	25.0	
성별	남자	(741)	54.7	45.3
	여자	(759)	54.5	45.5
연령	9~12세	(215)	50.7	49.3
	13~18세	(788)	59.3	40.7
	19~24세	(497)	48.9	51.1

⑦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요도 및 성과

가. 생명존중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생명존중(자살·자해 예방)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5%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0%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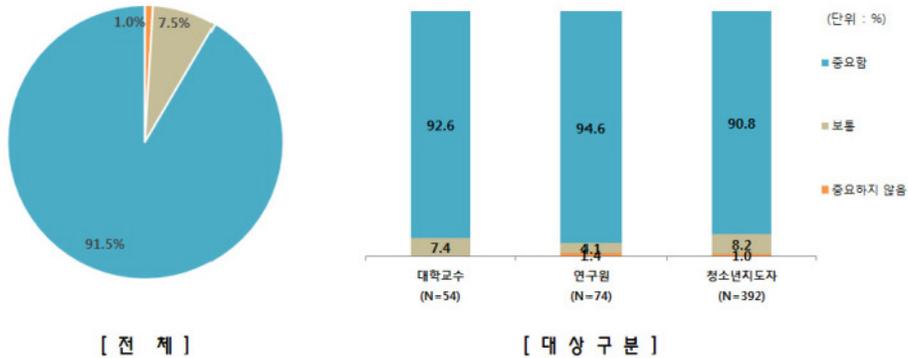


그림 III-262 생명존중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75 생명존중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0	7.5	91.5	
직군	대학교수	(54)	-	7.4	92.6
	연구원	(74)	1.4	4.1	94.6
	청소년지도자	(392)	1.0	8.2	90.8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실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5%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5%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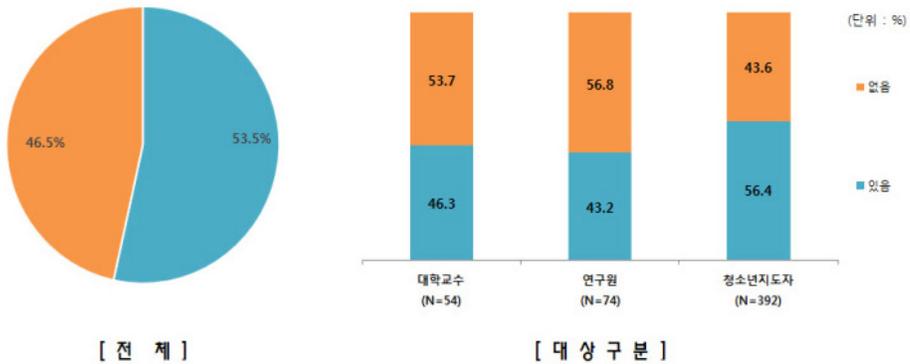


그림 III-263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76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53.5	46.5	
직군	대학교수	(54)	46.3	53.7
	연구원	(74)	43.2	56.8
	청소년지도자	(392)	56.4	43.6

나. 비행예방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를 전문가에게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5%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1%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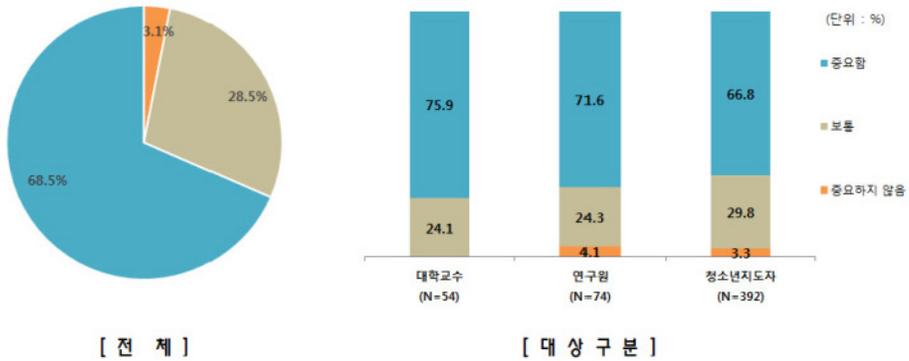


그림 III-264 비행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77 비행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계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3.1	28.5	68.5	
직군	대학교수	(54)	-	24.1	75.9
	연구원	(74)	4.1	24.3	71.6
	청소년지도자	(392)	3.3	29.8	66.8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45.2%가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8%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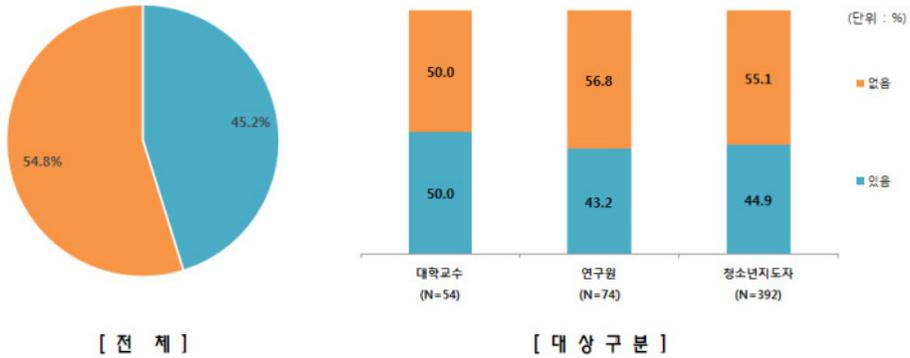


그림 III-265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78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45.2	54.8	
직군	대학교수	(54)	50.0	50.0
	연구원	(74)	43.2	56.8
	청소년지도자	(392)	44.9	55.1

다. 진로(발달) 설계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에 대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1.7%는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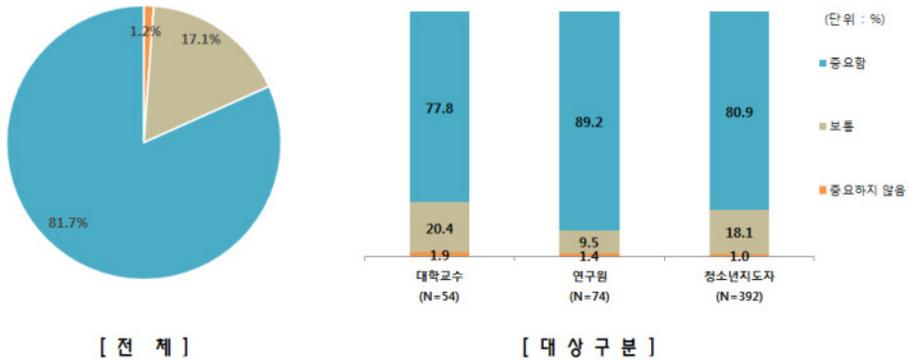


그림 Ⅲ-266 진로 설계 프로그램 중요도

표 Ⅲ-279 진로 설계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2	17.1	81.7
직군	대학교수 (54)	1.9	20.4	77.8
	연구원 (74)	1.4	9.5	89.2
	청소년지도자 (392)	1.0	18.1	80.9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62.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7.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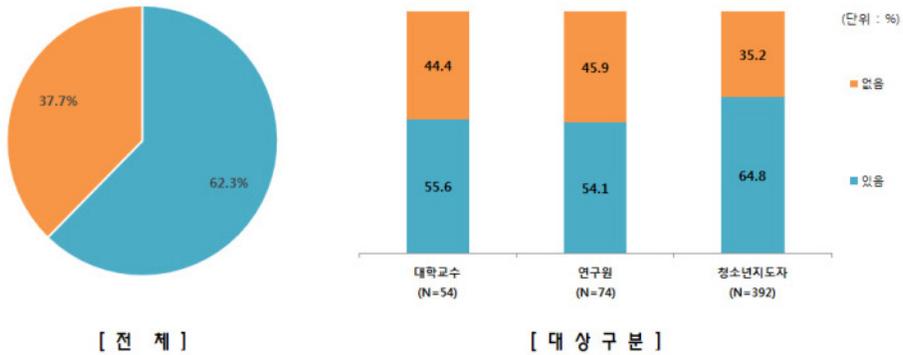


그림 III-267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80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62.3	37.7	
직군	대학교수	(54)	55.6	44.4
	연구원	(74)	54.1	45.9
	청소년지도자	(392)	64.8	35.2

라.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2.7%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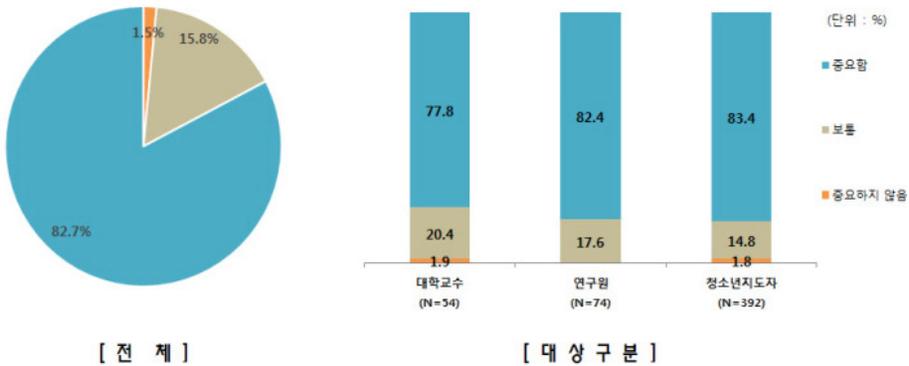


그림 Ⅲ-268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요도

표 Ⅲ-28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5	15.8	82.7	
직군	대학교수	(54)	1.9	20.4	77.8
	연구원	(74)	-	17.6	82.4
	청소년지도자	(392)	1.8	14.8	83.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64.4%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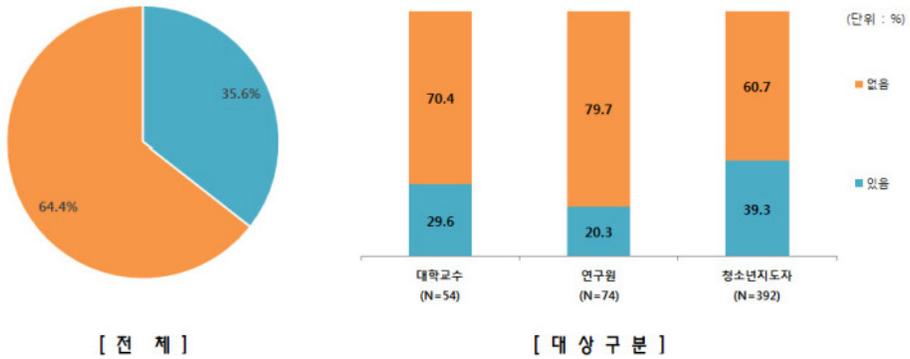


그림 III-269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8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35.6	64.4	
직군	대학교수	(54)	29.6	70.4
	연구원	(74)	20.3	79.7
	청소년지도자	(392)	39.3	60.7

마.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8.5%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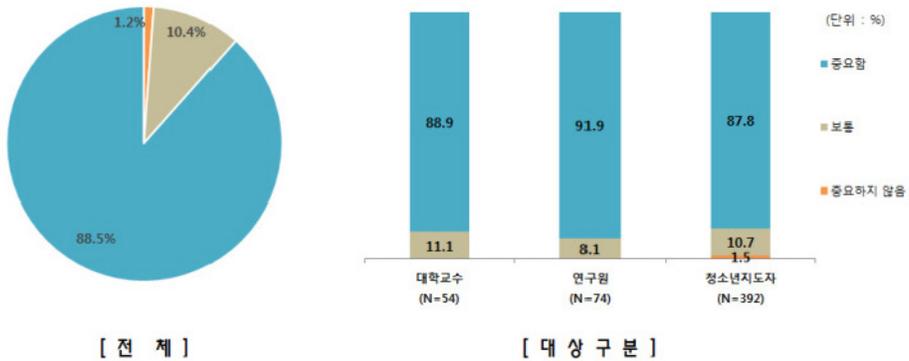


그림 III-27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8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2	10.4	88.5	
직군	대학교수	(54)	-	11.1	88.9
	연구원	(74)	-	8.1	91.9
	청소년지도자	(392)	1.5	10.7	87.8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6.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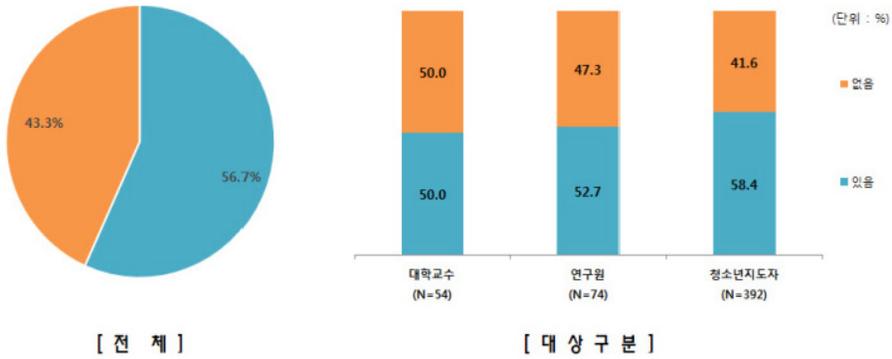


그림 III-27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8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56.7	43.3	
직군	대학교수	(54)	50.0	50.0
	연구원	(74)	52.7	47.3
	청소년지도자	(392)	58.4	41.6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88.5%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5%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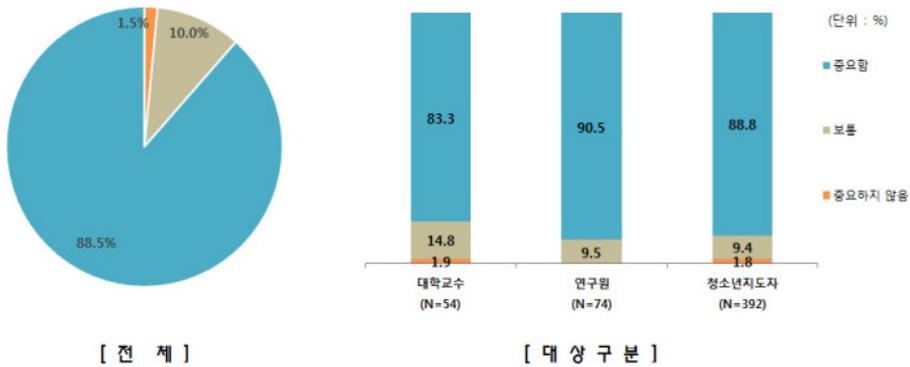


그림 III-272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85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5	10.0	88.5	
직군	대학교수	(54)	1.9	14.8	83.3
	연구원	(74)	-	9.5	90.5
	청소년지도자	(392)	1.8	9.4	88.8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9.0%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0%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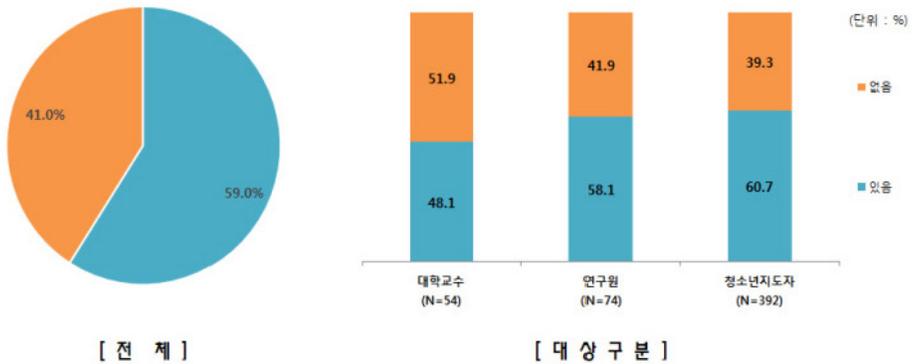


그림 III-273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86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59.0	41.0	
직군	대학교수	(54)	48.1	51.9
	연구원	(74)	58.1	41.9
	청소년지도자	(392)	60.7	39.3

사. 포래상담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포래상담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55.6%는 포래상담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1%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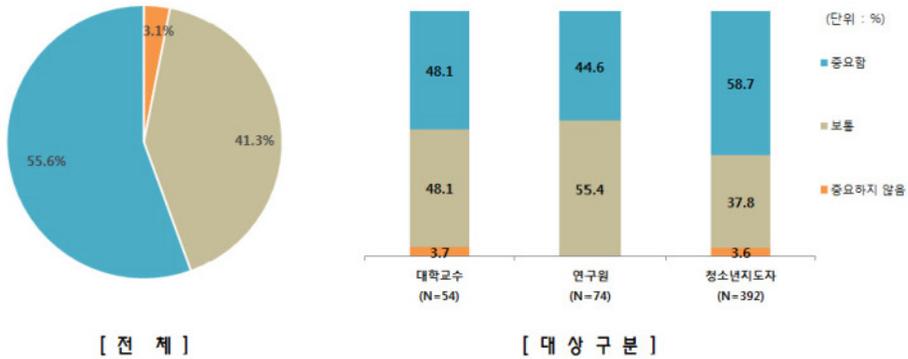


그림 III-274 포래상담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87 포래상담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3.1	41.3	55.6	
직군	대학교수	(54)	3.7	48.1	48.1
	연구원	(74)	-	55.4	44.6
	청소년지도자	(392)	3.6	37.8	58.7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64.0%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6.0%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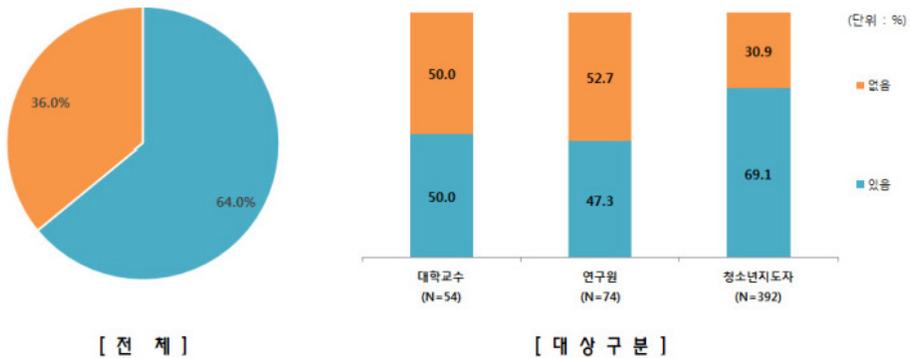


그림 III-275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88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64.0	36.0	
직군	대학교수	(54)	50.0	50.0
	연구원	(74)	47.3	52.7
	청소년지도자	(392)	69.1	30.9

아. 청소년 근로 및 인권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76.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1.5%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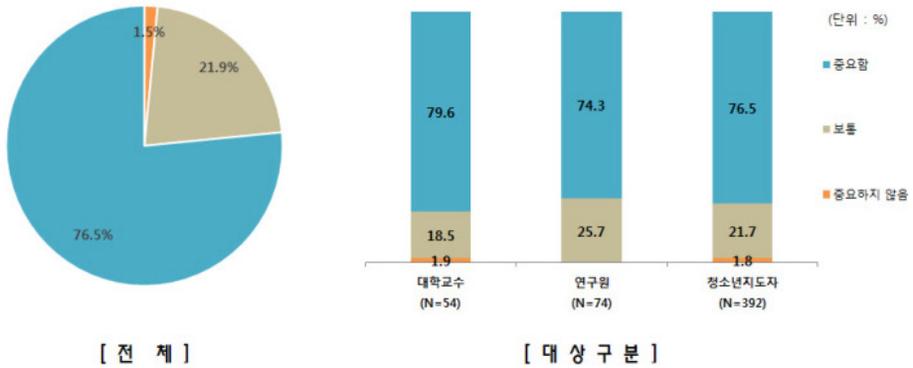


그림 III-276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중요도

표 III-289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전체	(520)	1.5	21.9	76.5	
직군	대학교수	(54)	1.9	18.5	79.6
	연구원	(74)	-	25.7	74.3
	청소년지도자	(392)	1.8	21.7	76.5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전체 전문가 응답자의 43.7%는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6.3%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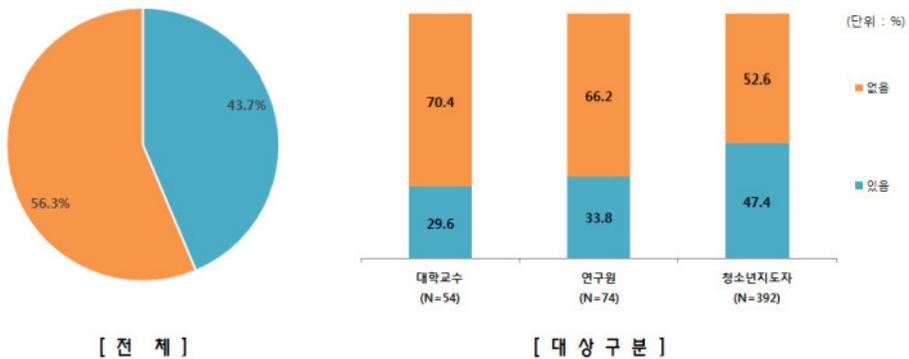


그림 III-277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의 성과

표 III-290 청소년 근로 및 인권 프로그램의 성과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20)	43.7	56.3	
직군	대학교수	(54)	29.6	70.4
	연구원	(74)	33.8	66.2
	청소년지도자	(392)	47.4	52.6

2. 지역사회 사례연구 : 세종시·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⁶⁾

여기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목표인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정책 전환을 통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여성가족부, 2019a)”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을 선정하여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청소년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연속적 정책추진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연구방법 및 단계별 연구내용

(1) 연구방법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 평가(Community assessment)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평가방법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진단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행계획을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체계적 자료수집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6) 이 절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다음 그림 III-279는 지역사회 평가의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조사대상 범위 규정 단계에서는 연구문제 설정, 조사범위 확인, 자료조사 계획을 수립하며, 둘째, 협업여부 결정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정한 자료의 범위와 종류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활동가 등과 협업할지를 결정한다. 이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결과와 함의를 도출한다. 5단계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확산한다(National Resource Center, 2010).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평가방법을 활용해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황과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역사회 평가에서는 협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지역사회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2차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III-278 지역사회 평가방법을 적용한 연구 추진 절차

(2) 단계별 연구내용

다음 그림 III-280은 단계별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단계별 과정	연구내용								
1	조사대상 범위 규정 및 협업 결정	- 문헌분석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문가 자문 기획								
2	자료수집 및 분석	<table border="1"> <tr> <td>정책 수요</td> <td>정책 공급</td> </tr> <tr> <td>청소년 현황</td> <td>시행계획</td> </tr> <tr> <td>청소년 정책욕구</td> <td>지역자원</td> </tr> <tr> <td></td> <td>청소년정책사업 계획, 실적 등</td> </tr> </table>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청소년 현황	시행계획	청소년 정책욕구	지역자원		청소년정책사업 계획, 실적 등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청소년 현황	시행계획									
청소년 정책욕구	지역자원									
	청소년정책사업 계획, 실적 등									
3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 현장전문가 지문(면담, 집담회, 서면지문)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성과와 한계 - 현장 관점에서 본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4	지역사회 사례분석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분석								
5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도출	-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제시								

그림 III-279 단계별 연구내용

① 조사대상 범위 규정

지역사회 사례조사 대상 선정은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통해 지역을 추천받고, 지역의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를 방문에 청소년정책 지역사회 사례분석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사례조사의 목적은 인구규모가 유사하지만 이질적인 여건을 가진 두 지역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정책을 집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하고, 각 지역의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들로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와 서대문구를 선정했다. 두 지역의 인구는 약 30만명으로 유사한 규모이지만,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세종시는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광역시·도 지역으로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고, 최근 청소년정책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다. 청소년참여 정책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로, 청소년인구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만 19~24세 후기 청소년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서대문구는 자치구가 직접 청소년대상 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자체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조사범위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으로 상정하였으며, 정책 수요(청소년 현황, 정책 욕구)와 공급(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자원(예산, 인프라 등), 정책사업) 측면으로 나누어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②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 수요와 정책 공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지자체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 중 아동 청소년계획, 청소년정책사업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수요 측면은 세종시와 서대문구의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에 따른 복지욕구조사 혹은 개별 기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하였다.

정책 공급 측면은 세종시와 서대문구의 청소년시행계획과 행정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청소년정책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정책 정책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현장전문가에게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우수사례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표 III-291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자료 구성

대분류	소분류	내용
지역 여건	지리적 위치 인구사회 특성	지리적 위치 인구구성 및 변화 가구특성 등
정책 수요	청소년 현황	만 9세-24세 인구,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초·중·고, 대학 현황 등
	청소년정책 욕구	아동, 청소년정책 욕구, 자원 현황 등
정책 공급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서울시(서대문구), 세종시 행정추진체계
	청소년정책 자원	청소년정책 예산 여성가족부가 취합한 청소년정책시행계획('18년 성과, '19년 계획) 청소년 관련 시설(청소년 보호·복지 기관, 청소년활동 기관) 주요사업내용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성과	우수사례 등

③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청소년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청소년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두 지역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I-292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자문대상 섭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서대문구의 청소년정책 네트워크 담당자(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네트워크 담당자,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공무원)를 통한 자문위원 추천 •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연구 자문 참여 의사 및 동의 확인→자문 일정, 방식, 장소 협의→ 자문내용 송부 및 동의 후 최종 확정
자문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분야별 기관 일선 담당자 및 총괄 책임자 14인 - 청소년활동, 참여, 보호·복지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센터, 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현장전문가 총 8인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복지센터 현장전문가 총 6인
자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담회 방식의 자문회의, 1:1 자문, 서면 자문
면담 시간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1회, 1:1 개별자문 4회, 서면자문 4회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내용 녹음 후 전사 • 서면자문 내용 분석
면담자	연구진

④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분석

현장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청소년정책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2차자료 분석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특성과 지역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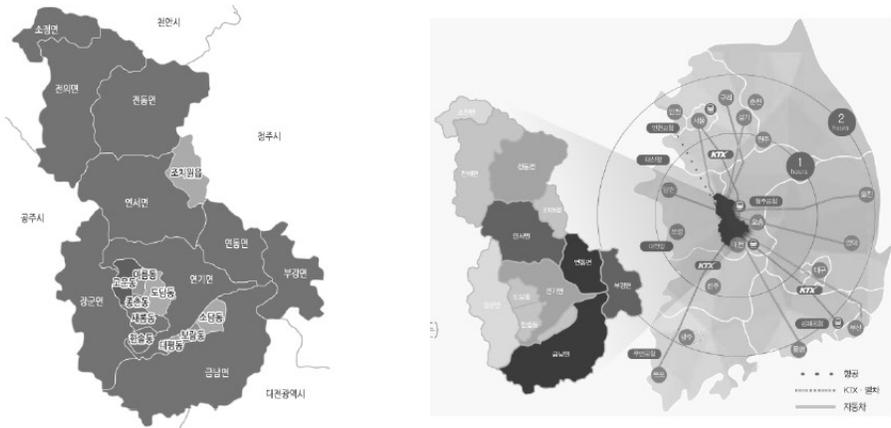
⑤ 지역사회 관점에서 본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도출

마지막으로, 2차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우수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관점에서 본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 분석결과

(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현황

① 지역사회 여건



* 출처 : 송미영 외(2018a)의 p.23 <그림 2-1-1> 발췌

그림 III-280 세종시의 지리적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하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세종시의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1조 7,231억 원이다. 2018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⁷⁾는 69.21%로, 2018년 예산 기준 전국 평균인 53.4%보다 높고,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송미영 외, 2018a, p.26).

7) 재정자립도 : 지자체의 전체 자원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강병노 외, 2018, p.53 각주2 발췌).

2018년 12월 말 기준, 세종시의 총인구는 319,134명이며,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인구증가율이 27.5%, 35.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15%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해왔다(송미영 외, 2018a, p.28). 이 같은 인구의 증가는 전학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세대구성비를 보면 2세대 가구(50,024가구, 48.0%)가 가장 많았는데, 2세대 가구 중에서도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3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송미영 외, 2018a, p.31).

세종시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하며, 지역 내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6월 현재, 세종시 전체 인구의 68.2%(207,935명)는 동 지역에, 31.8%(96,735명)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읍면 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동 지역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송미영 외, 2018a, p.32).

② 청소년정책 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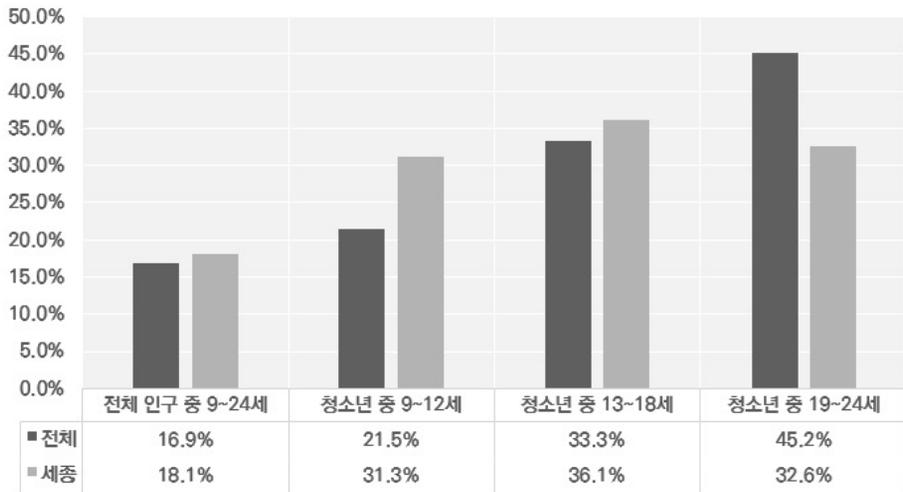
청소년정책 수요는 청소년 인구, 학업중단율, 사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광역시, 도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가. 청소년인구 및 학업중단율

2019년 현재 세종시 인구 33만8,647명 중 만 9세~만 24세 청소년 인구는 6만1,3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1%가 청소년이다. 이는 전국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율인 16.9%보다 높은 수준이다(행정안전부, 2019).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후기 청소년 비율은 전국보다 낮고(전국 45.3%, 세종시 32.6%), 9세~12세 청소년과 13세~18세 청소년 비중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역특성에서 세종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구 대부분이 미혼자녀를 둔 2세대 가구인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대학교 4개교(종합대학 3개, 전문대학 1개)가 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3%로 전국 학업중단율(0.9%)보다 높다(교육통계, 2019).



*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 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1 9세~24세 청소년 인구 현황 : 전국 및 세종시 비교

나.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해 본 세종시 청소년정책 욕구

송미영 외(2018b)의 '제4기(2019~20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별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27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욕구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사 가구 중 만 9세~24세 청소년 자녀가 있는 315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복지 분야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였다(송미영 외, 2018b,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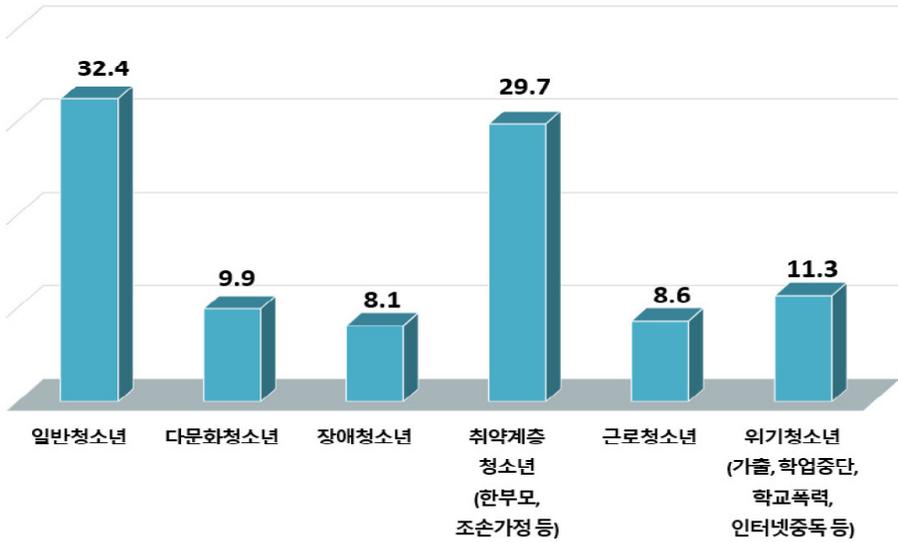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향후 청소년복지 분야 추진과제를 조사

하였다. 청소년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방과후 학교(46.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5.2%), 초등 돌봄교실(7.6%), 드림스타트(6.7%), 지역 아동센터(2.5%)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8b, p.111).

향후 추진해야 할 청소년 복지분야 과제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확충(30.2%), 청소년복지센터 확충(27.5%), 청소년도서관 확충(18.5%), 꿈드림센터 확충(13.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남성은 청소년 복지센터(31.7%), 여성은 청소년수련관(38.8%) 확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8b, p.126). 세종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동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 확인한 결과, 동 지역 주민은 청소년수련관 확충(36.3%)과 청소년복지센터 확충(28.1%)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읍면 지역 주민은 청소년 복지센터 확충(26.3%), 청소년도서관 확충(21.1%), 꿈드림센터 확충(19.7%)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8b, p.126).

성폭력 및 성보호 분야, 체험활동, 위기예방 청소년정책의 필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정책 전반적인 필요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8b, p.127). 성폭력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95.9%),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94.6%), 청소년 위기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94.1%)의 필요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영 외, 2018b, p.127).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대상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일반 청소년(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29.7%), 위기 청소년(11.3%), 다문화 청소년(9.9%), 근로청소년(8.6%), 장애청소년(8.1%) 순으로 높았다(송미영 외, 2018b, p.128). 일반 청소년이 최우선 대상이라는 응답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주민들은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특정 상황에 놓인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송미영 외, 2018b, p.128).



* 출처 : 송미영 외, 「제4기(2019~20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별책」, p.128, <그림 2-83> 발췌.

그림 III-282 청소년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대상 : 세종시

③ 청소년정책 현황

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가, 2010년 1월부터 아동·보육·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이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 관련 행정은 각 지역별 행정조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 시·도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오해섭 외, 2004, p.19).

청소년 대상 정책의 관련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활동, 참여, 보호복지 등의 정책사업을 직접 추진, 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 복지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복지지원 등을 통해 취약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급식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활동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출처 : 세종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3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및 세종시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 조직

세종시의 청소년정책 담당 실·국은 행정복지국, 청소년 분야는 아동·청소년과 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다음 그림 III-5는 세종시 보건복지국 조직도이다. 정책 추진체계는 중앙부처에서는 분절되었다가, 지자체 단위에서는 하나의 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과가 담당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과는 아동정책, 청소년 청년, 아동 친화도시 관련 업무로 구분되는데, 아동 정책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교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입양 및 가정 위탁지원, 아동복지교사업무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 아동 친화도시 업무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과제 총괄, 5개년계획, 정책백서, 아동권리영향평가, 놀이터 조성사업), 시민주권회의,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등이 있다. 청소년정책 소관 업무에는 청소년사업 법인 허가 업무,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진로체험카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청소년건강지원,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증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나. 청소년정책 자원 현황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청소년정책 총예산(국비와 시도예산 포함)은 421억 3천6백만 원이다. 2019년 과제 수는 총 63개로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관련 과제가 27개로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2019b, p.47).

표 III-293 세종시 청소년정책사업 영역별 예산 현황(2019년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주요사업	과제 수	국비	시·도비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8	1,629	28,625.8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12	498.6	883.4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27	1,673.8	1,786.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6	4,852	2,187.5
계	63	8,653.4	33,483.5

* 출처: 여성가족부 (2019), p.47 표 발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는 시도지사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표 III-301). 2019년 신도심 지역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고운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보람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9b, p.49).

표 III-294 세종시 청소년정책사업 현황

영역	주요사업	
참여 및 권리증진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증진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 제고	교사 대상 교육
청소년 주도활동 활성화	아동 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공공시설 청소년 이용 및 지원 활성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학생 상담 치유 프로그램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양성평등 의식 제고	성평등 교육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발송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2019금강 청소년 버스킹 축제, 전통악기 가야금 교육, 꿈의오케스트라“세종” 2019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영역	주요사업	
청소년 주도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15-24세 후기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교류활동, 문화탐방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중학교 1학년 재학생)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육성활성화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고운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안전강화	학교폭력예방 뮤직비디오 콘테스트 및 뮤지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아름다운 사랑과 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 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총총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운영	(CYS-Net)을 활용, 위기 청소년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거리·사이버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상담서비스제공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안전강화(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사업,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아웃리치, 학업, 취업,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비행청소년 재범예방 및 회복지원	비행 예방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청소년 어울림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및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

영역	주요사업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저소득층청소년자립기반 마련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강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강화 나홀로 청소년활동·돌봄 지원 강화(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청소년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효과적 상담·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내실화 청소년증을 활용한 어울링 결제도입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 출처 :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Ⅱ) - 지방자치단체.

표 III-295 세종시 청소년정책 관련 시설 현황

분류	기관명	주요사업	운영
청소년기관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지원 봉사,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참여, 기능사업, 안전관리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기관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성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세종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심리검사, 청소년 활동지원, 사이버상담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기관	세종시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검정고시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세종시 청소년문화의집	문화활동, 여가활동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활동, 교육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삼동청소년회

분류	기관명	주요사업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자원봉사, 문화프로그램	세종YMCA에서 수탁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고운청소년센터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세종시 직영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굴림쇠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초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아름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중등)	전문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가운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중등)	전문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서 위탁운영
청소년 단체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동아리지도, 청소년문화행사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청소년 단체	(사)세종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청소년 심신성장, 청소년자기개발, 사회공헌, 청소년국제교류 및 탐방, 국제봉사단, 연수 및 연구 활동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청소년 단체	(사)삼동청소년회 세종지회	-	-
청소년 단체	(사)세종기독교 청소년협회	-	-
청소년 단체	세종YMCA	청소년지원활동, 지역학교와 연계활동, 청소년정책개발 및 연대활동, 청소년자원봉사 개발 및 시상, 한국YMCA 전국연맹 청소년Y, 대학Y 전국공통과제 실천	-
청소년 단체	세종YWCA	청소년운동	-

* 출처 : 세종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5_06_05.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다. 세종시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세종시 청소년정책의 주요 성과는 청소년 참여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네트워크이다.

세종시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9세부터 24세 청소년 20명을 선발하여, 정기회의 및 프로젝트 준비, 정책 발굴과 역량강화 워크숍, 청소년참여예산제 심의,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홍보캠페인, 정책제안서 전달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 발견, 아젠다 형성, 기획,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주도의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238개 참여위원회 중 최우수상(1위)을 수상하였다(유금봉, 2019).



* 출처 : 세종인뉴스(2019.11.27.).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공모 1위 쾌거.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4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

세종시는 청소년정책 실무추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지역 내 모든 청소년 기관·시설·단체의 대표실무자 1인이 참여해 공동의 주제를 논하고, 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반기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정책포럼에 연결해 정책 발굴과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 실무추진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현장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역량강화 교육연수의 공동 추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온라인으로 각 기관별 사업정보의 공유와 통합적인 홍보를 빠르게 추진해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인지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유금봉, 2019).

(2) 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① 지역사회 여건



* 출처: 강병노 외(2018)의 p.30 <그림 II-1> 발췌

그림 III-285 서대문구의 지리적 위치

2016년 12월 말 기준 서대문구의 총면적은 17.61km²로 서울시의 2.9%를 차지하고 있다(강병노 외, 2018, p.30). 학교용지는 서대문구 면적의 1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의 수가 8개교(종합대학 5개, 전문대학 3개)인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강병노 외, 2018, p.30).

서대문구의 공공재정을 살펴보면,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4천553억 원(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5천184억2천2백만 원)이며, 2018년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32.3%로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12위였으며 재정자주도⁸⁾는 58.2%로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10위인 중간 수준이었다.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2017년까지는 자치구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자치구 평균보다 낮아졌다(강병노 외, 2018, p.53 재인용).

서대문구의 총인구는 2018년 7월 기준 310,821명이었는데, 이는 2014년 7월 313,216명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2018년 7월 기준 서대문구 연령별 인구 분포를 1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57세(2.08%), 58세(1.94%), 55세(1.9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0세가 가장 적고(0.65%) 17세 이하 인구는 1%가 되지 않아 아동, 청소년 인구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강병노 외, 2018, p.31).

서대문구는 구도심과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되지 않은 구도심과 아파트 촌간의 격차,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위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육을 중단한 후기 청소년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8) 재정자주도 : 전체 재원 중에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비율로 10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강병노 외, 2018, p.53 각주2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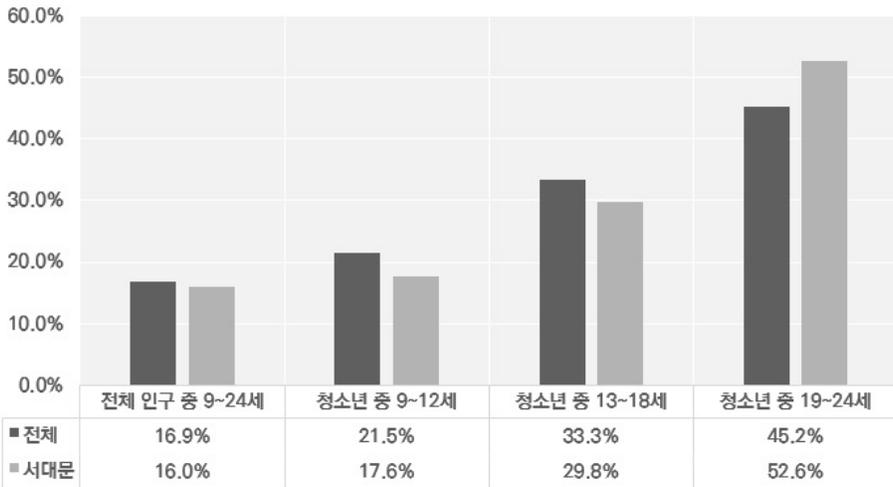
② 청소년정책 수요 현황

청소년정책 수요도 앞의 세종시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구, 학업중단율, 사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광역시, 도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가. 청소년인구 및 학업중단율

2019년 현재 서대문구 인구 30만9,312명 중 만 9세~만 24세 청소년 인구는 4만9,404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0%가 청소년이다. 이는 전국 인구 중 청소년 인구비율인 16.9%보다 낮은 수준이다(행정안전부, 2019).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후기 청소년 비율은 전국보다 높고(전국 45.2%, 서대문구 52.6%), 9세~12세 청소년과 13세~18세 청소년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특성에서 서대문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 비중이 높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교 8개교(종합대학 5개, 전문대학 3개)가 있다. 2018년 기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7%로 전국 학업중단율 0.9%보다 높은 편이다(학교알리미;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2018 재인용).



*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 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6 9세~24세 청소년 인구 현황 : 전국 및 서대문구 비교

나.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해 본 서대문구 청소년정책 욕구

‘제3기(2015~2018)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청소년정책 욕구를 확인하였다. 전체 419가구 중 청소년정책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관련 시설, 중고등학생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이용률과 향후 이용 의사를 조사하였다(서대문구, 2014, pp.68~71).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도서관,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의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77.8%), 청소년수련관(64.8%), 공부방(36.5%)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85.4%), 청소년수련관(85.4%), 공부방(70.4%) 순으로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대문구, 2014, pp.68~71.)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인지율(0. 잘 모름, 1. 조금 안다, 2. 잘 안다), 이용 경험,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인지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인지 수준이 평균 1.55점이었으며, 이어서 청소년공부방(1.47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도서관(1.41점)순으로 높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인지수준은 각각 0.60점, 0.78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 경험은 청소년도서관(72.2%), 청소년수련관(56.9%), 청소년 문화의 집(40.3%) 순으로 높았고, 이용의향 역시 청소년도서관(68.1%), 청소년수련관(55.7%), 청소년 문화의 집(45.7%) 순으로 높았다(서대문구, 2014, pp.68~71).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비 지원(28.8%), 체험학습활동(23.1%), 방과 후 학습지도,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12.5%)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22.2%), 진로상담과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20.8%)에 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상담 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 의사가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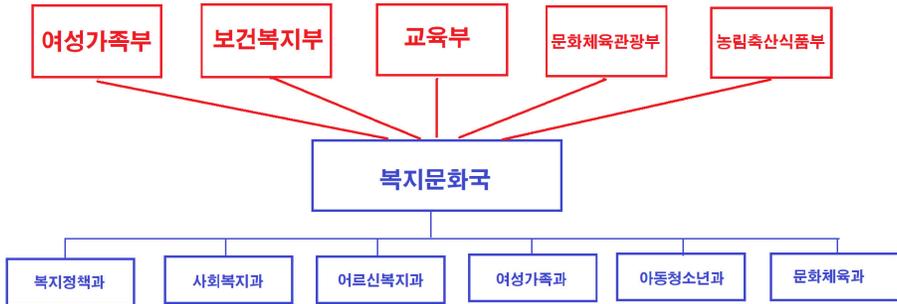
표 III-296 서대문구 주민의 청소년 관련 서비스 욕구(2014)

구분	비율(%)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	22.2
진로상담	20.8
성격, 대인관계 등 개인고민 상담	20.8
문화·취미 활동	16.7
문제행동(음주, 흡연, 비행 등) 개선프로그램	11.1
자원봉사활동	2.8
아르바이트 연계 프로그램	2.8
기타	2.8

* 출처 : 서대문구 (2014), p.71 표 발췌.

③ 청소년정책 현황

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 출처 :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s://www.sdm.go.kr/wesdm/info/organization.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7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처 및 세종시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 조직

서울시의 담당실·국은 평생교육국,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정책과이며, 서대문구는 복지문화국에 아동청소년과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팀, 드림스타트팀, 청소년정책팀, 아동돌봄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친화팀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꿈나래통장 관련 업무수행,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업무, 아동수당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드림스타트팀은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정책팀은 청소년정책 계획수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관리,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활동공간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보호업무,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 청소년문화체험활동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팀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업무,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 관련업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s://www.sdm.go.kr/wesdm/info/organization.do#> (2019.12.05. 검색 및 인출).

나. 청소년정책 자원 현황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예산은 731억7천7백만 원이며, 총 과제 수는 29개이고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13개)이며, 예산 규모로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전체 청소년정책 예산의 57.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c, p.21).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2019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의 청소년 정책 예산은 21억9천5백만 원이다. 과제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역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이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이다.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재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예산(41억6천2백만 원)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63억 원으로 증가한다(서대문구 세입 세출예산공개, <http://openfinance.seoul.go.kr/seodaemun>에서 2019년 12월 22일 검색 및 인출).

청소년정책 영역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표 III-303이며, 서대문구의 청소년시설 현황은 표 III-304와 같다.

표 III-296 서대문구 청소년정책사업 영역별 예산 현황(2019년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주요사업	과제 수	총예산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7	242.9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5	1,150.2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8	802.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0	0
계	20	2,195.5

* 출처: 여성가족부 (2019). pp.211~214 표를 반영해 재구성함.

표 III-297 서대문구 청소년정책사업 현황

과제영역	주요사업
참여 및 권리증진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지원사업(청소년모의유엔외2건) 청소년연합축제 청청페스티벌 서대문구학생회연합
청소년 주도활동 활성화	서대문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청소년활동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지원 청소년증발급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지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운영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공부방(독서실)운영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9~18세 청소년) 지원사업 (타법지원을 못 받는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생활, 건강, 학업, 자립, 활동지원 9명) 청소년건강지원(저소득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교육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관내 14개동 지도위원 및 동대표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캠페인 위촉장, 정기회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 pp.211~214 표를 반영해 재구성함.

표 III-298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현황

분류	기관명	주요 사업	운영
복지 시설	서대문 꿈나무 복지센터	취약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센터	서대문구
복지 시설	서울시립 서대문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복지 시설	서대문 종합사회 복지관	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 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서대문구
	L 병·부설기관 : 연희노인 여가복지시설 L 병·부설기관 : 서대문 병과 후 교실	초등학교 대상 - 기본생활학습지도 - 특기교육특별활동 - 연간행사	
복지 시설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18 청소년 지원, 심리치료 지원, 청소년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	(사) 한국청소년재단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친화 시설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활동: 자치활동, 참여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전용공간 '들락날락'	(사) 한국청소년재단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친화 시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시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친화 시설	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자치 참여, 지역특화봉사, 교육 문화체험, 기타사업	(사) 한국청소년재단
친화 시설	가재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자치 참여, 지역특화봉사, 교육 문화체험, 기타사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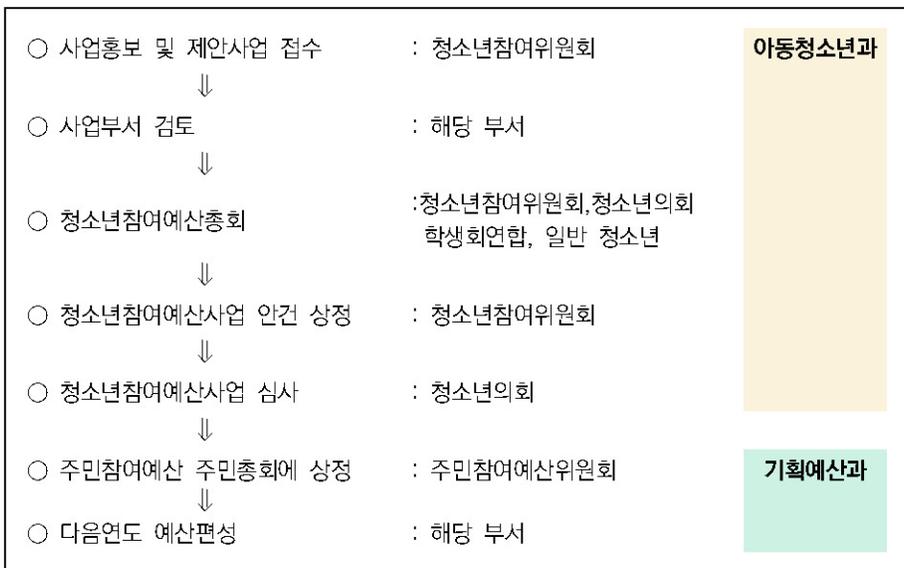
분류	기관명	주요 사업	운영
친화 시설	서대문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학교연계사업, 개인진로 체험, 교육사업	(사) 한국청소년재단
친화 시설	서대문 형무소	역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친화 시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전시, 교육, 현장체험	공립
친화 시설	홍제동 꿈다락	청소년 활동공간	사단법인 러빙헨즈
친화 시설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 도서관	도서관서비스, 독서가이드, 문화강좌, 도서관행사	서대문구
친화 시설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대출, 열람	서대문구
친화 시설	홍은도담도서관	대출, 열람	서대문구
친화 시설	찾아가는도서관	서대문구 19개소 순회운영	서대문구
친화 시설	SF&판타지 도서관	열람, 강연	개인
친화 시설	서대문도서관	영화상영, 독서캠페인, 교육문화강좌, 동아리, 지역문화정보	서대문구

* 출처: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뽕맵 검색 <https://www.somemap.kr/map/14043>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다. 서대문구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서대문구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에 모두 조직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직접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첫 사례이다(서대문구, 2019.12.06.).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13세~18세 청소년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7년 4월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뒤 5월 한 달간 총 46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이어 7월 제안 사업들에 대한 토론회와 8월 현장조사를 거쳐 「2018년 청소년참여예산제 결정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이를 통해 결정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서대문구, 2019.12.06.).



* 출처 : 서대문구 (2019.12.06.). p.1, 운영흐름도 발췌.

그림 III-288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추진 절차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대상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학생회연합, 일반청소년 등이며 2019년 청소년참여예산총회 참가자는 총 65명으로 초등학교 2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29명으로 중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 19명, 여성 46명으로 여성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서대문구, 2019.12.06.).

표 III-299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편성 현황

연도	사업 수	총금액	사업내용
2018	2	5,000만원	· 사각지역 가로등 보완 설치 : 비예산 · 청소년카페 조성 : 5,000만원
2019	3	2,450만원	·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 2,000만원 · 청바지(이게 청소년 바자회지!) : 150만원 · 청소년 진로 연계 봉사 동아리 : 300만원
2020	3	4,400만원	·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 : 2,200만원 · 청소년 참정권 UCC 공모전 : 1,000만원 · 청소년 능력 증진 대회 : 1,200만원
2021 (예정)	2	3,800만원	· 서대문 청소년 1인 미디어 지원사업 : 2,500만원 · 청소년 역사캠프 : 1,300만원

* 출처 : 서대문구 (2019.12.06.). p.1, 예산사업 편성현황 발췌



* 출처 : 서대문구자치신문(2018.07.02.). 청소년이 바꾸는 서대문구.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0>에서 2019년 12월 11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I-289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총회

3)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시와 서대문구의 인구 규모는 3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청소년 인구 비중과 특성, 청소년정책 자원 규모와 현황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었다. 세종시는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지역격차와 각기 다른 정책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활동 정책과 보호, 복지정책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었다. 서대문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청소년 인구 구성의 특이성(후기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음)을 보였는데, 재개발이 추진된 지역에 부족한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 자유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소년 주도성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두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집행해 온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여,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조정, 청소년정책의 주요 개념,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방안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였다.

표 III-300 지역사회 현장전문가 자문 추진 개요

자문방식	세종	서대문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 - 참석자 : 세종시 현장전문가 6인 고운청소년센터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조치원청소년수련관 가운청소년센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1:1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 대상 :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1:1 자문, 3회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12.06.) -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12.11.) - 서대문청소년센터(12.12.)

자문방식	세종	서대문
서면 자문	- 기간 : 2019년 12월 9일~16일 - 대상 :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도자 네트워크 담당자(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기간 : 2019년 12월 12일~18일 - 대상 : 현장전문가 3인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흥은청소년 문화의집 서대문교육복지센터
자문내용	(1)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조정 (2) 청소년정책 주요 개념 (3) 청소년정책 통합전달체계 관련 의견 (4)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 (5)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방안	

(1)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조정

청소년 연령 조정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현장전문가들은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을 청소년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후기 청소년 당사자들 스스로가 청소년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며, 현장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 대상 연령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19세 이상 사회초년생이 경험하는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복지, 취업진로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9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청소년정책을 통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의 하한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초등학생인 아동들도 스스로를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들 역시 청소년과는 다른 정책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복지 전문가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상담 욕구가 증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조기에 진로, 교육, 교우관계 등의 고민이 있는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은 연령상한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한해 대상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상담 등 정책 욕구 변화를 고려할 때 하한 연령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III-301 청소년 연령 조정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청소년 연령 조정	연령 상한 하향 조정 (19세 이상 제외)	(보호·복지) 대학생 상담은 대학상담 센터에서 담당하므로 후기 청소년 상 담 많지 않음	(활동·참여) 욕구조사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함. 20세 이상 프로그램 거의 없고, 참여하지 않음 (복지) 일반인이 인식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14~19세임. 청소년 대상 프로 그램의 기획 시 20~24세 포함하기 어려움.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 필요가 있음 (복지)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초등학교 입학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연령까지, 즉 학년기의 범위를 청소년 연령범위로 간주하여야 사회통념상 일치될 것으로 보임 (참여) 청소년과 청년 정책 대상을 구 분해야 함(고등학교 졸업 시기를 기준으 로 구분)
	연령 상한 상향 조정 (25세 이상 포함)		(보호·복지) 대학생 상담서비스 부족함. 24세 이후 상담 연계하기 어려움 (활동·참여) 현재 대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점을 볼 때 청소년 연령대를 대학교 졸업 및 취업을 통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28세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청소년 연령 조정	연령 하한 조정 (아동 분리)	(보호·복지) 초중고 학력에 맞춰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나눌 필요성이 있음 (활동) 인간 신체발달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활동·참여) 연령을 만나이로 해서 같은 학년이어도 참여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조정 필요 (보호·복지) 상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초등학교 상담 증가하는 경향. 세종만의 특성 아님	(활동) 9세로 연령 제한을 뒤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복지) 현장에서 8~13세는 아동이며, 청소년으로 불리우는 것 어색하게 여김. 욕구도 학습, 봉사, 진로 등으로 목적이 달라짐
	조정 필요 없음	(활동·참여) 청소년기본법은 상위법으로 모든 사업 영역 포괄해야 하므로 연령중첩 큰 문제 안 됨. 아동, 청소년, 청년 포괄하는 통합적 방식이 변화한 환경에 적합함	-

(2) 청소년정책 주요 개념에 관한 의견

청소년정책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련, 육성, 지도 등의 개념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 현장전문가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해당 용어가 현재 청소년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성이라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추진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수련, 육성, 지도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되 현재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302 청소년정책 주요 개념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청소년 정책 개념	수련 육성 지도	<p>(활동) 청소년, 사회복지정책, 교육 정책이 다 다른 현실에서 육성, 지도, 수련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건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를 반영한 것임. 교육 정책이면 육성, 지도, 수련 맞을 것. 청소년정책 방향성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참여와 주도가 시대적 필요라면, 용어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p> <p>(보호·복지) 육성도 불편한 단어임.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성장하는 시기가 청소년임.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나, 육성은 지도자가 누군가를 길러내는, 옛날 고리타분한 용어임. 성장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성장지원체계 이런 단어가 정책 안에 있는데 기본법에 없으니까 일원화될 필요가 있음</p> <p>(보호·복지) 학생이라는 용어도 차별이 될 수 있음. '청소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p> <p>(활동·참여) 현재 사용되는 육성, 수련, 지도는 그 기원과 어감, 뜻 등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어 청소년을 피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다분함</p> <p>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용어 선택이 중요함</p>	<p>(활동·참여)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차이 일반인 잘 모름. 명확한 용어 정의 필요함.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함. 긍정적이라고 생각함</p> <p>(활동 참여)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란 단어는 80년대 청소년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돌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여겨짐. 현재 청소년들은 주체적이고 자존감도 강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세대이므로 용어 변경 필요</p> <p>(보호·복지) 수련, 육성 와닿지 않음. 변화해야 함. 아이들은 '육성'재 연예인을 생각하고, "우리를 누가 키운다는 거야?" "꼰대들이 어려운 애들한테 선물 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함. 피부로 와닿지 않음. 시대에 동떨어져 있음</p> <p>(복지) 육성, 수련, 지도라는 단어는 강압적이며 공정한 무게를 지닌 용어가 아님. 아동청소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도적인 색깔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의 용어 필요</p> <p>(참여) 옛날 말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맞지 않음. 영어로 '퍼실리테이터'라 하기도 함. 청소년의 내재된 잠재력을 키워주는 '육성'의 긍정적 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함</p>

(3)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

청소년의 주도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로 집행해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 주도성이 청소년참여기구와 활동정책뿐만 아니라 보호, 복지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키워줄 때 청소년정책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전문가 다수는 청소년 주도성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다수가 학교, 학원에서 주된 시간을 보내지만,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기관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공간 제안을 반영해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던 교실을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개조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세종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유로운 활동,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 현장전문가는 “공간사업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상주하는 청소년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 예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공간을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공간의 마련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고, 이는 수익사업의 포기, 즉 운영예산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의 청소년 주도성 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 III-303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청소년 주도성 증진 방안	청소년 현실	<p>(활동·참여) 청소년 자기 주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청소년이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프로그램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참여율이 정말 저조함.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신청함</p> <p>(보호·복지) 애들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음.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동아리랑 자원봉사까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상황임</p>	<p>(활동·참여) 아이들이 수동적임 자발적으로 와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음. 접수도 부모가 다 하고, 고등학교도 부모가 자원봉사 문의 전화를 하는 상황임. 중1까진 엄마가 접수함. 2학년부턴 시켜도 안 옴. 초6은 활동프로그램 위주임</p>
	현장 어려움	<p>(보호·복지)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 아동센터가 3년마다 평가하는데 주도성 불. 아동이 센터에서 얼마나 회의에 참여했는지 횡수가 중요함. 초등 저학년 자기 주도성 따지기 어려움</p> <p>(활동·참여) 청소년 주도성 높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청소년에게 다 물어보고 진행할 정도였음</p>	<p>(활동·참여) 자유공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데, 기관 재정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보호·복지) 꿈드림이 상담복지센터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음. 상담복지센터 활동 등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움</p>
	주도성 증진 전략	<p>(활동·참여) 주도성을 높이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축제기획단을 운영함. 지도자들은 '지원'만 했음. 아이들 만족도 높음</p> <p>(보호·복지)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주도성 높이는 방법임</p> <p>(보호·복지) 취약청소년에게는 주도성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 현재 정책은 주도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됨. 진짜 주도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 청소년이 누구인지 고민해야 함. 취약, 위기청소년의 활동, 참여도 관심 기울여야 함</p>	<p>(활동·참여)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도성임. 어울림마당 (지역축제)은 처음에 지도자들이 다 준비해놓고 아이들이 참여하다가, 작년 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 참여함. 명칭을 '청하벌야'(청소년 하이, 벌처럼 아이)로 바꿈. 청소년 스스로 제안한 사업 현실화되는 것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p> <p>(활동·참여) 기관 내 예산사용에 관한 참여예산제 운용. '찾아가는 법차', '청소년 공간' 등 '실명제 예산 사업 운용' 만족도 높았음</p> <p>(참여)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의사결정한 예산이 직접 사업화 되는 과정 경험. 정책 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만드는 사업 성과를 거둬</p>

(4) 청소년정책 통합전달체계

청소년정책 통합전달체계와 관련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의 분절에서 비롯되는 현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완전한 통합보다는 기능과 역할의 조정,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호자나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기진입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304 청소년정책 통합전달체계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통합 전달 체계	전달 체계 분절로 인한 한계	(보호·복지) 부처가 나뉘져 있어서 결국 지역 전달체계도, 위에서, 밑에 와서도 난립되고 잘 모름 (보호·복지) 아이들은 학교, 가족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모름.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 어디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임	(활동·참여) 청소년 포털 운영하지만 정보종합제공할 뿐임. 청소년정책 안전망은 포커스가 위기청소년에 맞춰짐. 청소년센터는 활동 중심임 (활동·참여) 같은 지역에 있으나 시직영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력하는데 제약이 있음 (보호·복지)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유관 기관 목록에도 상담복지센터가 빠져있는 실정임
	통합 전달 체계 필요성	(보호·복지) 전달체계는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발달단계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욕구가 다름 (활동·참여) 지역사회의 보호, 복지,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실천환경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함	(활동·참여)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따라 특화할 필요가 있음.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함. 청소년센터 진로, 취학지도 혹은 위기청소년 상담 전문성 갖추기 어려움. 중소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함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통합 전달 체계	통합 전달 체계 필요성		(보호·복지) 물리적 통합은 어려울 수 있음. 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 설치한 다면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활동 청소년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 (복지) 아동청소년의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의 모든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면, 현장의 실무자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간소화 가능하며, 이로 인한 혜택은 현장의 아동청소년에게 돌아갈 것임

(5)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방안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중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려면, 지도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규직 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 청소년지도자들이 사업기반의 단기 계약직이 다수인 종사자 인력 운영방식은 당사자와의 라포르 형성과 신뢰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청소년정책 현장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것이다.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II-305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세종	서대문
지도자 역량	지도 현장 어려움	(보호·복지) 상담사 대부분이 비정규 직임. 상담 전문성, 연속성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활동·참여) 새롭게 지도사로 들어오는 신규인력들 새로운 세대로 주도성,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활동·참여) 청소년활동기관이지만 청소년 전담하는 지도사는 전체 인력의 20% 수준임. 기관운영,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보호·복지) 이직률이 매우 높음. 상담복지센터와 수련시설 간에 처우도 다름. 사업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높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함
	지도자 역량 증진 방안	(보호·복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성'을 키우기 위한 분야별 워크숍 추진 (보호·복지) 상담사의 고용안정성 높여야 함 (활동·참여)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이뤄져야 함	(활동·참여) 청소년 전공 학생 대상 현장실습이 중요함 (참여) 청소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 해서 정책 추진, 집행에 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보호·복지) 사업기반으로 인력이 운용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4) 소결

여기서는 두 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세종시와 서대문구는 청소년 주도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라는 점에서 청소년 현장전문가들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지역의 청소년정책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조정, 청소년정책의 개념,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통합전달체계, 청소년 지도자 역량증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 표 III-313과 같다.

청소년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청소년정책 개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지도, 수련, 육성이라는 개념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구시대적 개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접근,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공간의 마련, 취약 청소년의 주도성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합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통합으로 완전한 정책추진체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단위의 물리적·기능적 통합은 정책영역별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도자 역량 증진 방안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전담공무원의 배치, 청소년정책 지도자의 고용안정성 증진(사업 단위 인건비 집행 방식 개선), 기관간, 영역간 지도자 처우 불균등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306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청소년 연령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견] 청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복지, 활동, 참여 등 정책사업 영역에 따라 연령 하한, 상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사회 특성(세종의 경우 초등학교 인구 비중 높음, 서대문구의 경우 대학생 인구 비중 높음)에 따라 청소년정책 공백이 매우 다른 연령 구간에서 발생함. 정책대상 연령을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견] 청소년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을 유지하여, 아동-청소년-청년 과도기, 전환기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청소년정책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그에 맞는 단어로 대체해야 함 ■ 청소년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육성, 수련은 현재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함.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새로운 용어 혹은 기존 용어(성장 등)로의 대체가 필요함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정책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주도성 의미와 다층적 수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참여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정책에서 주도성의 의미와 개념 정의 재검 - 생애발달단계 측면에서 주도성 증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이 아닌 권한 부여 방식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기회 제공 - '권한 부여'에 초점을 둔 자기주도성 필요 ■ 청소년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 마련
통합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분절이 정책 집행단위인 지역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다수의견] 통합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의 통합, 물리적 통합은 어려움 - 전문성 갖되 연계, 협력, 소통해야 함 ■ [소수의견] 행정적 통합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처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통합이 효율적임
지도자 역량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 처우 개선 ■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투자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체계화

○ ————— IV.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 1. 청소년활동 재구조화 방안
- 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 방안
- 3. 청소년지도자 재구조화 방안

1. 청소년활동 재구조화 방안⁹⁾

1)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포럼

(1) 개요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의 결성,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사업의 런칭 등 2019년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물론 청소년정책(사업)의 인적, 물적 쇄신을 도모하는 원년이 됐다. 이러한 쇄신의 움직임 기저에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결정권과 주도권을 부여해 청소년이 어른과 동등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존 청소년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쇄신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1월 1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포럼’이 개최됐다.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포럼의 취지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금의 다원화된(그리고 앞으로 더욱 다원화될) 수요와 욕구에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었다. 포럼에는 7명의 여성가족부 관계자, 25명의 청소년정책 전문가, 수련시설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다.

9) 이 절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 쟁점

포럼은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명칭 포함) 및 정책 전달체계’, ‘평가·신고·인증 등 규제사항’,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관련 내용’ 등 크게 4개의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놓고 32명의 참석자들이 조를 이루어 분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명칭 포함) 및 정책전달체계

가. 용어 재정의

㉞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에 명시돼 있듯이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적극적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그러나 동법 제2조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대신 진흥법은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명시된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¹⁰⁾

이처럼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본법 나름의 조작적 정의가 만들어져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청소년활동의 외연과 내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19년 12월 23일 인출.

활동의 주체와 내용이 다원화된 지금의 실정에 비춰볼 때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개념 정립은 매우 필요하다. 토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크게 2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 1안 : 시대흐름에 맞춰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기존의 수련, 교류, 문화에서 보다 세분화시켜 제시함.

1안의 요지는 청소년활동의 유형을 지금처럼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국한시키지 말고 건강 및 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환경보존활동, 동아리활동 등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시키자는 것이다.

○ 2안 : 법에서는 간단하게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 정도로 정의하고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의 단어는 삭제

반대로 2안은 현행 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삭제하고 시행령 이하에 필요와 목적에 맞춰 활동의 세부적 유형을 명시하며 기본법에는 청소년활동의 큰 가치와 방향성(자율성, 창의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견 1안과 2안은 상충된 대안처럼 보이나 사실상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청소년활동의 외연이 확장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1안처럼 법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의 주체와 수요가 더욱 다원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에 모든 활동 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유형의 활동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2안처럼 법령에 청소년활동의 구체적 유형을 기재하기 보다는 청소년활동의 변하지 않는 취지와 방향성 정도를 명시하고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④ 육성과 지도(자)

청소년활동의 개념 재정의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육성’, ‘지도’ 등의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앞서 소개했듯이 2019년은 범청소년계가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도모한 원년이 된 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기본법에 남아있는 ‘육성’, ‘지도’와 같은 단어는 쓰임의 실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거부감을 자아낸다. 육성의 사전적 의미는 ‘길러 자라게 함’으로 육성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위계적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실제 기본법에서 육성이라는 단어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해 사전적 의미와는 뉘앙스를 달리한다.¹¹⁾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는 지도사, 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청소년의 육성, 즉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상의 용례만으로 놓고 본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지도자의 사전적 의미, 즉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또 다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위계적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사업, 관계 법령들 모두 육성과 지도라는 위계적 패러다임을 버리고 조력이라는 수평적 패러다임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19년 12월 23일 인출.

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면 수련시설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번 포럼의 분임 토의에서 수련시설의 개편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현행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수련원을 모두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법령상에는 각 시설들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차별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유사 시설들을 단일 명칭으로 통폐합할 경우 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설치기준을 보유한 각 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기존 시설의 통폐합이 신규 시설의 건립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자체별 최소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수련시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유공간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안됐다. 수원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유형의 자유공간이 운영되고 있고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최소한의 설치 규정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 청소년활동 진흥 전달체계 개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기관의 설립 취지에 비추 본다면 진흥원은 활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분임 토의에서는 진흥원이 활동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보다 시·도 청소년관련 사업(행사 등)을 위탁하고 있어 위탁사업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② 수련시설 평가, 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가. 수련시설 평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포럼의 분임 토의에서는 현행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시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 지표 상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 미조치 시 제재방안의 마련,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술지 등급제도와 같은 등급화 적용방안의 검토 필요 등이 제안됐다.

나.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포럼의 분임 토의에서는 현행 신고대상에서 수련시설이 제외되거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수련시설은 본래 시설물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인데 수련시설로 하여금 다시 수련활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중 허가를 받게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임 토의에서는 수련시설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활동 인증을 통해 스크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개별 단위프로그램

으로 인증하되 허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후속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제 운영 시 중앙정부는 프로그램 형식과 유형만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책임에 맡겨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내 기술 방향 개선

양질의 청소년활동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져있지 않다. 진흥법 제2조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활동’ 내 ‘청소년수련거리’로만 정의돼 있을 뿐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¹²⁾

이와 관련해 분임 토의에서는 2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우선 1안은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성취포상제 등 주요 프로그램의 이름과 지향점을 법령에 적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2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나열 대신 활동 프로그램의 가치, 실행방법,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거시적 틀만을 법령에 담는 것이다.

이 가운데 2안의 실효성에 더욱 무게 중심이 실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모든 활동 프로그램을 법안에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둘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할 예산지원사업들이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안에 적시됐을 때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즉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C%A7%84%ED%9D%A5%EB%B2%95#undefined>)에서 2019년 12월 23일 인출.

④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선

분임 토의 결과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인 조력자들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들이 (명칭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행 지도사 자격검정제도에 대한 질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다만 개선의 방향성과 전략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 수렴 과정이 특정 학계 또는 단체의 의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지위와 양성에 대한 조항(제20조에서 제27조까지)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지도사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상담사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시켜야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2)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청소년정책 포럼 2세션

(1) 개요

앞서 소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포럼’은 청소년활동의 법적 기반 쇄신을 위해 중앙부처가(여성가족부)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면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청소년정책 포럼의 2세션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교류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및 단체 관계자 112명 내외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¹³⁾. 포럼은 2019년 10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13) 당일 포럼의 1세션 주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평등 인식 제고’로 본 절에서 별도로 소개하지 않음.

본 포럼의 2세션에서는 현행 청소년 연령(9~24세)의 적정 여부, 청소년기본법에 등장하는 육성, 수련, 지도 등의 용어의 적정성, 그리고 청소년 기본계획의 핵심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 쟁점

① 청소년의 연령 규정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고 청소년과 청년, 아동의 연령 중복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주는 중기 청소년(15-18세) 후기 청소년(19-24세)이 청년으로 정의되는 15-29세 연령대와 중복되고 있다. 생애전반기 연령의 중복문제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분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광호, 2008).

이날 포럼에서도 청소년 연령 규정 개정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 연령에 대한 구분(전기, 후기 청소년 등)이 필요함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 감소함에 연령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입직 전까지의 청년층을 포함하거나, 아동·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연령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현재 9-24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과 인식은 매우 부족하고 청년 정책이 청소년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과정이 지속되면 초등-고등(13-18세)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에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연령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분화를 통한 선긋기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령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② 육성·수련·지도에 대한 재정의 또는 대체

육성, 수련, 지도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앞서 소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포럼’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도 현장 지도자들은 수련, 육성, 지도가 공급자 중심의 용어들이고 지도자들이 청소년들보다 성숙하고 우위에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지금의 청소년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개념들로 새로운 용어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육성정책에서 수련활동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의 수련활동은 단순 수학여행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수련활동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

현장 활동가들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청소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수련활동이 학교 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 등)과 유사한 유형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가 ‘수련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의 청소년 육성’이 돼야 하며,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 방안¹⁴⁾

1)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연계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1) 개요

청소년의 참여 증진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4대 정책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 회복을 도모하는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사업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단 범청소년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청소년의 주도성과 주체성 회복으로 선회하고 있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참여가 일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요한 것은 참여 당사자인 청소년의 공감과 참여 인프라의 확충이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 하자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은 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와 참여 인프라의 개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포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고 주최 기관의 관계자들, 청소년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패널리스트와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운영됐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참여 현실’로 참여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패널리스트로 나와 청소년의 참여 현실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과 개선안을 공유했다¹⁵⁾. 제2세션의 주제는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증장기 발전 방향’으로 먼저 청소년 참여의 증장기적 발전 방향과 청소년 특별회의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뒤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4) 이 절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5) 제1세션에는 총 4명의 패널리스트가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이 청소년이었고 나머지 1명이 성인이었다.

(2) 쟁점

① 청소년이 진단하는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참여 현실¹⁶⁾

먼저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 청소년 패널리스트들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참여가 청소년의 일상에서 구현 되기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참여기구가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기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부지기 수며 고등학교로의 진학과 함께 시작되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교내 활동을 수행하기에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참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정리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 가치는 물론 필요성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결코 참여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참여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가져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청소년 패널리스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시키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홍보 개선, 온라인 참여 포털의 활성화, 학교와 청소년 기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외연 확장,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기구에서의 청소년 위원 비중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청소년 패널리스트는 청소년의 참여 방식을 지금과 같이 참여기구에 제한하기보다는 교내의 동아리 활동과 접목시켜 참여가 학교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자신의 지역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을 고민하고 시도 단위로 취합된 정책 제안서가 직접 국회에 전달되도록 전국 단위의

16) 청소년 패널리스트들의 토론 전문은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19-S34)의 pp.15-26 참조 요망.

청소년정책 제안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청소년의 참여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②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증장기 발전 방향¹⁷⁾

먼저 청소년 참여 증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은 1. 참여기구의 체계성과 대표성 강화, 2.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 3. 입법부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 외연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쟁점인 '참여기구의 체계성과 대표성 강화'에 대해 부연하면 현재 참여기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구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낮은 인지도가 말해주듯이 지금의 참여기구는 청소년들의 일상과 괴리돼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참여기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앞서 한 청소년 패널리스트가 제안했듯이 참여가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참여기구 사이의 연계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또한 참여기구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제공돼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쟁점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대해 부연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참여가 구현된 것일 뿐 결코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이 낸 의견들이 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해야 비로소 참여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즉 의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의 부여야말로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다.

17)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증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전문은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19-S34)의 pp.35-78 참조 요망.

마지막 쟁점인 입법부를 통한 참여 확대의 골자는 지금처럼 행정부, 즉 중앙의 행정 부처를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입법부, 즉 의회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유럽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현안을 논의하며 필요에 따라 입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욕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으로 충족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발표를 통해 부각된 상기의 세 가지 쟁점들은 후속 토론 자리에서 토론자들로 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청소년참여기구를 관장하는 실무자들은 현행 참여기구들이 설립 취지와 달리 뚜렷한 방향성과 활동 목표의 부재로 인해 형식적인 운영으로 끝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참여기구들이 대표성을 상실한 채 소수 참여 청소년들의 '스펙' 채우기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기구를 학교와 연계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특히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구축은 참여를 일회성 체험 활동이 아닌 일상의 활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의 참여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참여기구 운영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표 내용인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에서 부각된 쟁점 역시 첫 번째 발표의 쟁점 사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운영 근거를 둔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5차례 운영돼 왔다. 지난 14년간 총 492개의 정책과제가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됐고 이중 87.6%에 해당하는 436개의 정책과제가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성과에 비춰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소기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특별회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은 많다. 첫째, 특별회의 또한 여타 참여기구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소수의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청소년들의 일상과는 괴리가 크다. 대표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둘째, 청소년 참여위원들의 정책과제 발굴 역량이 부족하며 제안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위원들은 나름 전국 시군구 및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들로 일반 청소년보다는 현행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기획할 정도의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위원들이 활동 기간 그러한 역량을 주도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행 운영 체제 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활동 기간 참여위원들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중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의 소통 창구 또한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

결국 지금의 참여기구들이 청소년의 주도성과 주체성 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참여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참여기구에서 수렴된 정책과제들이 단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책 입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 청소년지도자 재구조화 방안

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¹⁸⁾

(1) 개요

청소년의 주도성과 주체성 회복이라는 정책목표의 구현에 있어 인적 인프라의 쇄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의 혁신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에는 지도사,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공인된 자격검정을 거쳐 청소년 전문가로서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지도사와 상담사다.

2019년 9월 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가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18회 청소년 정책포럼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은 청소년 전문 인력의 양대 축인 지도사와 상담사의 양성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법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포럼에는 두 주최 기관의 관계자들, 학계,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였다.

(2) 쟁점¹⁹⁾

먼저 청소년상담사의 양성 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에서 부각된 쟁점은 세 가지로 1.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제도 개선, 2.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18) 이 절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9)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의 발표 및 토론 전문은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19-S27) 참조 요망.

향상, 그리고 3. 청소년상담사 인력 선발 및 처우개선으로 요약된다. 상담사의 청소년 위기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사의 상담 전문성 담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무 중심의 연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상담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수퍼비전의 기회가 특정 지역 및 소속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 내 Wee-center, 보호교정시설 등의 공공기관 내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청소년상담의 모형을 개발해 상담의 전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자격증 수당 지급 및 보수교육 관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정규직 비율의 증가, 그리고 급여 안정화가 역설했다.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는 1. 2005년에 결정된 과목 수와 과목명이 지금의 급변하는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 자격검정과정에서 2급 및 3급 자격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우며, 3. 유사자격에 비해 검정과목 이수 학점 수가 부족하고 학점기준이 부재하며, 4.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5. 2급 자격검정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 등이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모두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자격검정제도가 현행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대학의 학생 유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자격검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년현장에서 실습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실습이 자격검정의 필수요건이 되기 위해 현장실습 지도 인력의 확보 및 연수, 현장실습 내용 표준화, 현장실습 운영 체계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표준보수기준표의 도입 및 관련 내용의 입법화 필요성이 제안됐다.

2)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²⁰⁾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은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 내용으로 2020년에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가 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²¹⁾

(1) 청소년상담사 개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상담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상담사의 전문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을 선발하고자 시행되었다. 최근 청소년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인터넷)중독, 자살·자해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자격검정의 기본적인 틀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 세미나, 공청회를 거치며 법안이 개정되었고 2003년부터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과 연수가 실시되었다. 2019년 기준 청소년상담사의 국가자격검정은 18회, 국가자격연수는 17회 실시되었다.

20) 이 절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1) 이 절은 정지희 부장이 작성하였음.

청소년상담사 응시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분야의 학위 또는 실무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100시간 이상을 마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수여된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1급(청소년상담복지분야 박사 수준)은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지도 인력이며 2급(청소년상담복지분야 석사 수준)은 청소년상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3급(청소년상담복지분야 학사 수준)은 2급 청소년상담사를 지원하며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000명이 넘는 청소년상담사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국가정책분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등), 교육 분야(초등·중등·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민간 분야(기업 상담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청소년상담복지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격취득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했다. 보수교육(8시간 이상)으로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청소년 현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전문직으로서의 청소년상담사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IV-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²²⁾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9604&lNm=%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표 IV-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²³⁾

등급	검정과목		검정 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시간 이상으로 이론 강의와 실습 등의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연수 업무를 위탁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는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9604&lsNm=%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2019년 기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는 1~3급 모두 집합교육 56시간, 사전과제 45시간으로 법에서 정한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사전과제를 포함하여 이론과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은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위기개입Ⅱ, 청소년 문제세미나,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2~3급 청소년상담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청소년상담사 2급은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지역사회상담, 부모상담, 청소년 위기개입Ⅰ, 청소년진로·학업상담의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상담사 3급은 청소년상담의 기본인 청소년개인상담, 청소년집단상담, 청소년매체상담, 청소년 상담현장론, 청소년 발달문제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IV-3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구분	과목	세부 내용
1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슈퍼비전	이론, 실습, 윤리세미나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	이론 및 실습
	청소년위기개입Ⅱ	외상후, 경계성, 은둔형, 따돌림, 강박
	청소년 문제세미나	학업중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청소년관련법 적용사례, 청소년정책, 조직관리·경영,
2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실습, 윤리세미나, 심리평가 이론·실습
	지역사회상담	이론 및 세미나
	부모상담	이론 및 실습
	청소년위기개입Ⅰ	성폭력, 자살, 인터넷중독, 품행, 정신병리, 외상후 스트레스
	청소년진로·학업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청소년 진로상담
3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개인상담	실습, 윤리
	청소년집단상담	이론 및 실습
	청소년매체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청소년상담현장론	세미나
	청소년발달문제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 내부규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주 : 1~3급 공통 특강으로 인권교육(3H)과 양성평등교육(3H) 실시

③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성장 환경 변화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목표로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 2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에 의거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 여성가족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며, 의무대상기관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등록 현황

기관명	등록 기관(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
청소년쉼터	1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1
청소년 단체	102
학교	2,136
Wee센터	186
Wee스쿨	5
교육청 산하기관	12
합계	2,798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2018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직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보수교육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시행 및 교육 효과성 검증을 위한 Kirkpatrick(1967)의 4단계 평가방법 중 1단계 반응 측정, 2단계 학습효과 측정, 3단계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 효과성 평가는 1단계 평가로 집합, 이러닝 교육 만족도는 교육 종료 후 측정하고 있고, 2단계 평가는 집합 교육에서 사전·사후 형성평가를 교육 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의 지식습득 및 이해 정도를 측정한다. 3단계 행동평가로는 교육 후 현업적용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 3개월 후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청소년상담사 관련 선행연구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연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의 결과에서는 3등급 체제 변경과 함께 1급의 수퍼바이저 기능 부여, 실무경험 중심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 상담관련 학과의 인증제 도입, 시대 흐름을 반영한 과목 추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2013) 요약

구분	내용 (요약)
등급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등급 체제를 2등급 체제로 변경 ▶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기회를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주어 상담관련 학부 졸업생을 포함 ▶ 1급 대상 수퍼바이저 기능 부여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중심 응시자격 기준을 실무경험 중심으로 변경 ▶ 학과중심 응시자격 기준을 이수과목 중심으로 변경 ▶ 상담관련 학과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구분	내용 (요약)
자격검정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급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수 축소 ▶ 상담관련 학과 인증제 등 도입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요 과목(예시, 상담 정책) 추가

* 출처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영석 외, 2013)에서는 등급과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3등급 제도를 유지하며, 대신 3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할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응시자격 요건에 실무경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비상담관련 분야 응시자를 위한 과목 이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자격검정 과목은 각 급별 선택과목의 수를 줄이거나 급별 역할에 따라 과목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상담사 현장 수요에 따른 상담사 배출 인원을 도출하고 청소년상담사 취업 시 우대정책이 제공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위급수로 올라갈수록 실무경력 및 현장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연수시간이 차등을 두어 운영되어야 할 것과 함께 상담 경력의 차이에 따른 연수시간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표 IV-6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요약

구분	내용 (요약)
등급 및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등급 제도 유지, 3급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응시자격을 실무경력 강화 ▶ '상담관련분야' 외 비상담관련 분야 응시자를 위한 과목 이수제도 도입
자격검정 과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의 통합 및 축소 등 과목 구성 체계화 ▶ 면접시험 과정과 내용의 체계화 ▶ 자격검정 인원 수급과 선발인원 조정 방안 마련 필요
연수 및 보수교육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별 연수시간 차등 ▶ 상담실무경력에 따른 급별 연수시간 차별화 ▶ 연수 인원의 증감에 대응 방안 모색

* 출처 :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및 상담관련 학과 신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연구 결과(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영역으로 개선내용이 정리되었으며 첫 번째 응시자격 요건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의 '상담학' 및 '심리치료학'의 관련 분야 추가와 함께 시행령에서 제시한 상담관련 분야 해석 기준을 분야명 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장기적으로는 상담관련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목이수제, 학과인증제 등의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자격검정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급수별 검정과목을 대학 커리큘럼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과 기존 선택과목을 통폐합하여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총 5과목(125문항)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상담 현장의 필요 역량을 모니터링 하고 변화 사항에 부합하도록 검정과목 개편이 있었다.

세 번째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1~2급 취득자의 경우 현장 실무 경력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시간을 축소하는 한편 3급은 상담 입문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검정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기한(예시 : 5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논의하였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처우에 대하여 연구진의 의견은 자격 취득자의 취업 활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상담사가 최근 5년간 적어도 2,0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효용성 측면에서도 청소년상담사가 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기관인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무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최근 청소년유입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도 의무배치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상담사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2017) 요약

구 분	내 용 (요 약)	
	단 기	장 기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 분야(상담학, 심리치료학) 추가 ▶ 동일 유사과목 제도 유지 ▶ 상담관련 학과 관련 응시가능학과 사전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이수제 및 학과인증제 도입 ▶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
자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별 검정과목 변경 및 문항 수 통일 ▶ 각 급수별 선택과목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현장 변화에 따른 검정 과목 개편
자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급 집합교육 시간 축소(70h→56h) ▶ 3급 집합교육 시간 유지(70h→70h) ▶ 자격연수 이수 기한(5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별 자격연수 과목 및 시수 변경 등 ▶ 청소년상담사 인턴십 도입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준 확대 ▶ 청소년상담사 보수 인상 ▶ 급수별 자격증 수당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상담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채용 가산점 부여 검토

* 출처 :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②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관련 연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된 청소년상담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자격 및 보수교육 등 자격제도 운영 및 정책 반영을 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가 3년마다 수행되고 있다.

인력현황은 자격취득자 대상 전수조사로 진행되며 김창대 등(2013)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32.38%가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 중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되고 있어 지역별 청소년상담사 부족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근무형태로 비정규직(전일+시간제)이 50% 이상이 나타났고 이직 고민이나 경험이 68.3%로 안정적인 청소년상담사 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직이유로 나타난 '연봉'과 '비정규직'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사의 현장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도 제기되었다.

표 IV-8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3) 요약

구분	내용 (요약)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자 총 6,097명 대상('03~'12년) 중 1,974명 응답 (설문참여율 32.38%) ▶ 1급 99명, 2급 640명, 3급 1,235명 ▶ 성별 여성(90.1%)이 압도적으로 많음 ▶ 연령대별 40~49세가 36.6%로 가장 많음 ▶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931명(47.2%)
업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관은 아동·청소년 상담기관(25.3%), 초·중·고등학교(22.7%) 순 ▶ 근무형태는 비정규직(전일) 37.4%, 정규직 29.1%, 비정규직(시간제) 20.4% 순
상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경력 2~5년 이하가 37.6%, 5~10년 이하가 27.2% ▶ 청소년 상담 유형으로 '대인관계(27.9%)'와 '가정문제(17.8%)'가 많은 응답 ▶ 평균 사례 수는 55% 이상이 '11사례 이상', '10사례 이하' 45%
자격 및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고민 및 경험이 '있다'는 68.3%, 자격급 별로 2급, 3급, 1급 순 ▶ 이직이유로 '연봉문제' 30.7%, '비정규직 문제' 35.7%

* 출처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년에 수행된 인력현황 조사(이동혁 등, 2016)에서는 자격취득자 11,774명 중 3,880명이 응답하여 설문참여율 33%를 보였으며, 이중 성실하게 응답한 3,14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3년과 유사하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비율이 높아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격증 취득 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근무형태가 비정규직(전일+시간제)이 60%이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도 200만 원 미만이 70% 이상의 응답을 보여 청소년 상담사의 직업안정성 문제와 연봉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줬다. 한편으로 청소년 상담사의 상위등급 취득에 희망을 나타내며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보였다. 진로개발에 기여도의 세부사항으로 살펴보면 취득자의 내적동기를 신장하는 성취감, 지식 및 능력 향상 인식의 내용이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표 IV-9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6) 요약

구분	내용 (요약)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자 총 11,774명 대상('03~'15년) 중 3,880명 응답(설문참여율 33%) ▶ 1급 99명, 2급 895명, 3급 2,154명 ▶ 성별 여성(90.1%)이 압도적으로 많음 ▶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1,438명(45.7%) ▶ 자격증 취득 이유로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42.2%)
취업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관은 Wee 스쿨·센터·클래스(16.9%), 청소년상담복지센터(15.6%) 순 ▶ 근무형태는 비정규직(전일) 40.8%, 정규직 32.7%, 비정규직(시간제) 20.9% 순 ▶ 월평균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42.9%, 100만원 미만 29.9% 순 ▶ 이직고민 및 경험이 '있다'는 59.7%, 이유 - 열악한 월급수준, 비정규직
자격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80%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기여한다고 인식 ▶ 2~3급의 대부분의 자격취득자가 상위자격 취득을 희망 / 자기발전을 위하여 ▶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 > 다양한 기관 지원 자격요건 > 구직과정 기여 > 대내외적인 인정 > 직장내 법적 신분 보장

* 출처 : 이동혁, 이송하, 정혜윤, 차지숙(2016).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는 자격 취득자 중 조사에 임한 3,006명을 대상으로 인력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여성이 비율이 높았으며(91.1%), 학력으로 살펴볼 때 석사취득자가 51%로 응답율이 높았다. 청소년상담사의 전공으로는 심리학이 33.1%였고 상담관련학과가 24.9%, 교육학 15.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취업자는 82.1%(상담복지분야 63.8%, 분야 외 18.3%)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47.0%)이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이 29.9%로, 응답자의 77% 가까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였다. 상담복지분야 취업자의 근무기관은 초·중·고 상담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Wee센터가 많았으며, 이는 미취업자의 취업희망기관과 유사한 응답이었다. 단, 상담복지분야

외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정부 부처 관련기관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2016년 결과와 유사하게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여도에서도 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2019) 요약

구분	내용(요약)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자 총 18,112명 대상('03~'18년 상반기) 중 3,006명 응답(설문참여율 16.6%), 응답자의 67% 정도가 '15~'18년도 자격취득 ▶ 응답자 중 급수별 1급 4.8%, 2급 36.4%, 3급 58.7%, 성별 남성 8.9%, 여성 91.1%, 최종학력별 석사취득 51%, 학사취득 27.2%, 석사 재학 9.9%, 박사재학 8.1%, 전공학과별 심리학 33.1%, 상담관련 24.9%, 교육학 15.7%, 사회복지(사업)학 10.7%
취업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중 청소년상담복지분야 취업(63.8%), 분야 외 취업(18.3%), 미취업(17.9%)로 나타남 ▶ 상담복지분야 근무기관은 초·중·고 상담실(3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6%), 교육청 Wee센터(9.3%) 순 ▶ 분야 외 취업자의 이직 희망 기관은 정부 부처 관련기관(35.4%)이 가장 높음 ▶ 취업자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47.0%, 100만원~200만원 미만 29.9% 순 ▶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기관은 초·중·고 상담실(4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42.1%) 순 ▶ 청소년상담복지분야 취업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저임금(23.4%)이 가장 높았고, 적은 일자리(16.7%), 낮은 처우(10.8%) 순
자격증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이유로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49.8%),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49.5%),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48.0%)로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급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비율이 비교적 높음 ▶ 응답자의 82.1%가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기여한다고 인식 ▶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 청소년상담 역량 향상 > 전문가로서 대내외적인 안정 > 다양한 기관 지원 자격 요건 > 새로운 직장 구직 > 현 직장 내 법적 신분 보장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내부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재구조화 방안

① 청소년상담사 양성인원 규모 및 사후지원 방안 마련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인원이 2019년 11월 기준 22,9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전에는 연 1,000명이 안되게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상담사 수급에 대한 걱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인구 급감이 예상되고 있어 기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수급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학교상담협회에서는 250명의 학생당 1명의 학교 상담사가 배치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을 충족시키는 주는 미국에서도 와이오밍과 버몬트 뿐이었다(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1;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p.245 재인용). 청소년 250명당 1명의 청소년상담사의 기준을 따를 경우, 매년 3,000명이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된다는 가정 하에 2024년이며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고려하면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청소년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할 수 있는 상담현장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청소년상담사 배치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사 양성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증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와 자격검정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19년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상담사 미취업자와 이직희망자가 자격취득 후 원하는 사후지원방안의 희망사항으로 상담전문 교육, 취업기관 정보 정보제공, 상담관련 NCS 정보제공 등으로 나타나 자격취득 후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이 필요함을 보였다.

② 청소년 위기개입 증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성 담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8.12.24)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이 6.4%로 2015년 5.1%에서 1.3%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교육부의 자료에서는 청소년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건수가 7.7명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해 상담 건수도 2015년 4,000건에서 2018년 28,000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상담의 위기문제 영역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이 갖는 위기 상황에 청소년 상담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 응시자격에서는 청소년상담분야의 학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실무 경력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위가 있어도 청소년상담 현장의 실무 경력이 없이 청소년 위기문제를 개입하게 될 경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 경력이나 경험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을 통해 실무경력의 '기간'만을 규정해 놓고,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상담실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고 있어 응시자격 실무경력 기준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수교육의 과정에 위기문제 영역 전문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위기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18년부터 전문과정(청소년 자살·자해, 인터넷중독)을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살·자해, 청소년폭력, 인터넷중독, 청소년 도박, 분노조절 등 4개의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위기 영역별 대응능력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 전문과정 운영을 확장하여, 총 전문영역 3단계(기초, 심화, 전문강사)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영역의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인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에게 강의 의뢰 및 전문 개입이 필요한 지역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 위기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관 및 교육 확대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기준은 현행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채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탈하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전문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함께 청소년상담사 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는 향후 청소년상담사 수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으므로 청소년상담사의 사후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 규정 신설은 의미 있다 하겠다. 단,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배치를 고려하되, 신규채용 시 청소년상담사를 우선으로 하도록 현장과 소통을 통해 배치 확대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상담사 의무교육대상 기관이나 의무배치가 아닌 타 부처 산하기관(사업) 중 청소년상담사가 의무배치 되거나, 채용 시 우대가 되도록 하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의무배치와 함께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기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군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나 소년보호 사건대상과 관련한 보호관찰소의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의 비율이 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역량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상담사 취업 및 인력 현황조사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기관의 청소년상담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적 교육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

청소년상담사가 종사하거나 배치되어 있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의 보수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거나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상담사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2019년 발간한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p.429) 팀원의 1호봉 기본급이 1,857,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청소년상담사와 유사한 자격증을 채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타 기관(예 : 사회복지시설 1,928,000원, 해바라기센터 2,200,000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다.

실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③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²⁴⁾과 센터종사자 자격 기준에 따르면 팀원의 경우에도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를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 테이블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 수당 지급을 통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의 책무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나 이와 관련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23조③.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재정비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2003년 자격제도 도입 후,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고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와 대학커리큘럼 등을 기반으로 검정 과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의 연구 결과(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274-278)는 급수별 검정과목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1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변경(안)

등급	구분	현행 검정과목	수정안 검정과목
1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1.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1.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4. 청소년위기상담(비행, 성 등) 5. 청소년정신병리(중독, 불안, 우울 등)
	선택	비행·성·약물·위기 상담 중 2과목	삭제
2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1.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 이상심리	1.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2. 이상심리 3.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개인, 집단, 가족) 5. 청소년교육상담(학업, 진로 등)
	선택	진로·집단·가족·학업 상담 중 2과목	삭제
3급 청소년 상담사	필수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1. 상담이론 2. 집단상담의 기초 3. 발달심리 4. 심리측정 및 평가 기초 5. 청소년이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삭제

* 출처: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pp.274-278 재구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현행에 시행하는 선택과목을 통합하여 필수과목을 변경 할 시, 응시자의 부담이 예상되어 다수의 민원 발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검정과목의 필수과목 변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격과목 변경 시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사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⑥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이수연한 도입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장기간 자격연수 미이수자가 해마다 누적되어 2,700명이 넘는 적체인원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절차는 자격검정(필기, 면접)과 자격연수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자격검정 합격 후 장기간 자격 연수에 미참여할 경우 표준화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상담사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심리상담 관련 주요 자격증과 동일한 '5년'의 이수 기한은 청소년상담사 질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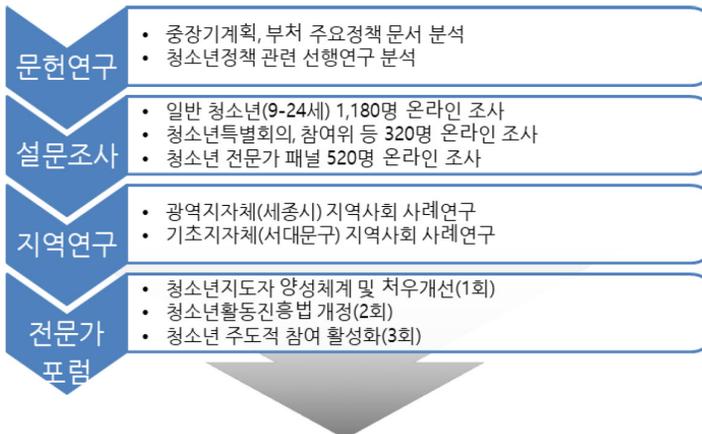
단, 자격연수 이수 기한 내 본인이 원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검정 합격 취소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수기한 적용에 앞서 자격검정 합격자들이 원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연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이수 기한 도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 V. 정책제언

- 1.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 3.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

1.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계획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부처의 주요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그림 V-1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25)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특히, 이 연구의 2장에서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행정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해방이후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정책의 형성기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2단계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가 생기고 중단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시기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정책의 성장기로 정의하였다. 3단계는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복지·보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던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정책 전환기로 정의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이 교육을 비롯하여 아동, 가족, 여성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진 2008년 이후로 청소년정책의 확장기로 정의하였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 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연령 정의에 따라 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1,180명을 온라인 조사하였다. 이어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취업과 대학입시, 학업성적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대상별로 보면 진로라는 응답은 청소년이나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전문가가 볼 때 만족도 평균이 4.62점으로 낮았으나 참여기구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당사자들의 응답이 5.69점으로 1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율을 보면, 전문가들은 91.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들은 37.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기구 청소년들도 56.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정책 총괄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지율을 전문가를 제외하고 일반 청소년과 참여기구 청소년에게 물어보았다. 일반 청소년 중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으며 참여기구 청소년들도 54.4%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가 아닌 교육부라는 응답이 일반 청소년 중 51.5%로 29.2%에 그친 여성가족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명에 청소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청소년이든, 참여기구 청소년, 전문가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일반청소년들은 27.7%만이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삶에 기여한다고 응답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구 청소년들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정책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청소년과 전문가 모두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일반청소년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라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에게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8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63.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9세에서 24세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걱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59.0%로 걱정하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56.4%가 걱정하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을 보여주었고 참여기구 청소년들 중 74.1%가 걱정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걱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연령을 물어본 결과 하위 연령은 10세에서 11세, 상위 연령은 19세에서 21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정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청소년의 경우 48.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51.8%)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64.8%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찬성이 청소년의 경우 61.0%였고 전문가는 83.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18세를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으로는 17.4세였다. 전문가들에게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물어본 결과 찬성(25.0%)보다는 반대(75.0%)가 많았다.

이어서 활동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일반 청소년 응답자의 7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여기구 청소년들은 다소 낮은 5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이 역시 긍정응답이 더 많았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받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활동사업 및 제도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35.2%에 그쳤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DOVOL에 대해서도 24.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인지도는 9.7%,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0.6%, 청소년 국제교류는 4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6.9%, 상상학교 14.7%, 청소년활동 안전법률 상담 서비스 18.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30.0%,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5.7% 등으로 나타나 50%가 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들은 활동시간 보장을 최우선으로 뽑았고 참여기구 청소년도 활동시간 보장을 1순위로 제시했으나 일반 청소년들은 활동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정성, 재미 강화를 1순위로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에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미래대응 정책방안 마련이 42.1%로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미래대응방안 설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문가들에게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53.7%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왜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의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사업의 기획과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견 수렴이 부재해서가 21.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사례연구로 정한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시였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대문구였다.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청년 정책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통념과 일치하는 연령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청년기

본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정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한 연령 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 개념에 대해서는 청소년 참여와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육성, 수련, 지도라는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라는 개념은 80년대 청소년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돌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사업 운영에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예산제 운영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만족도 역시 높았다.

청소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역사회 단위로 가면 결국 전달 체계가 모여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접근이 필요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지도자 역량 증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문가 포럼과 함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증을 통합하는 유스 페이(youth pay)를 비롯하여 청소년 안전을 위한 심야버스(올빼미) 운영, 학생회(학생참여위원회) 운영 개선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2가지와 접근 방식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였다.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기능 중심 정책보다 정책 대상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 추진 과정, 사업 평가와 개선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로 공급자인 정부와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추진체계가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청소년정책을 당사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심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지역사회이다. 정책 대상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성과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중앙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작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해 정책 대상인 청소년들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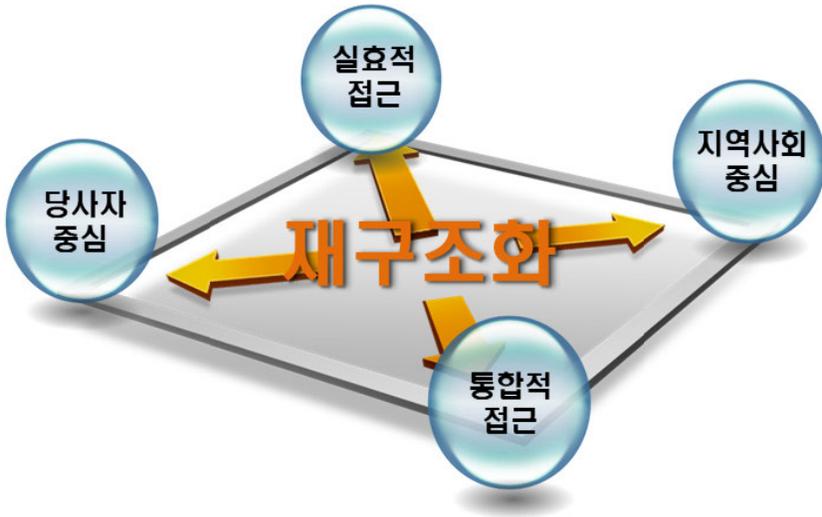


그림 V-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안)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효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정책 사업들은 시범사업에 머물거나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보다는 투입이나 산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향후 청소년정책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청소년정책은 이슈별로 쟁점이 될 때 마다 정책 사업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책 추진 방향도 정책주관 부처에 따라 활동에서 보호·복지 등으로 옮겨 가면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향후 청소년정책은 기능별로 세분화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청년과 같이 정책 대상별로 달리 가져가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기능 통합뿐만 아니라 연령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외에서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같이 생애전반기 연령

집단을 세분화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경우 독립적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기능 및 연령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각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와 활동, 정책 추진 체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다. 청소년 참여 영역에서는 1-1.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확대, 1-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1-3. 청소년 의회 활성화, 1-4.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등이다.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2-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2-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2-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2-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등 4개 과제이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는 3-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과 3-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 2개 과제이다.

표 V-1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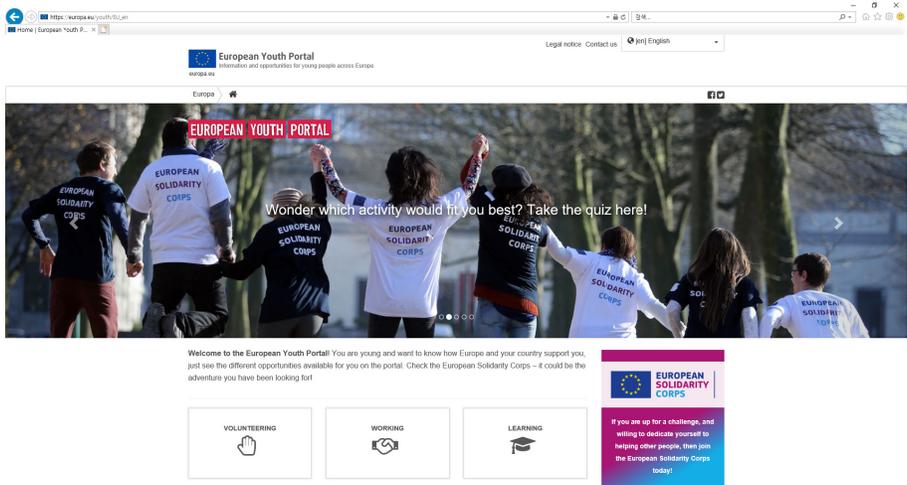
구분	정책과제(안)
청소년 참여	1-1.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 강화 1-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1-3. 청소년의회 활성화 1-4.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청소년활동	2-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2-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2-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2-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3-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 3-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 출처 : 자체 작성

1) 청소년 참여

(1)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 참여기구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생회나 학생자치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공동의제를 다루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참여기구만이 아니라 아동과 청년 참여기구도 함께 1년에 1회 모여 공동의제를 다루고 공동선언을 이룬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European Union(https://europa.eu/youth/EU_en)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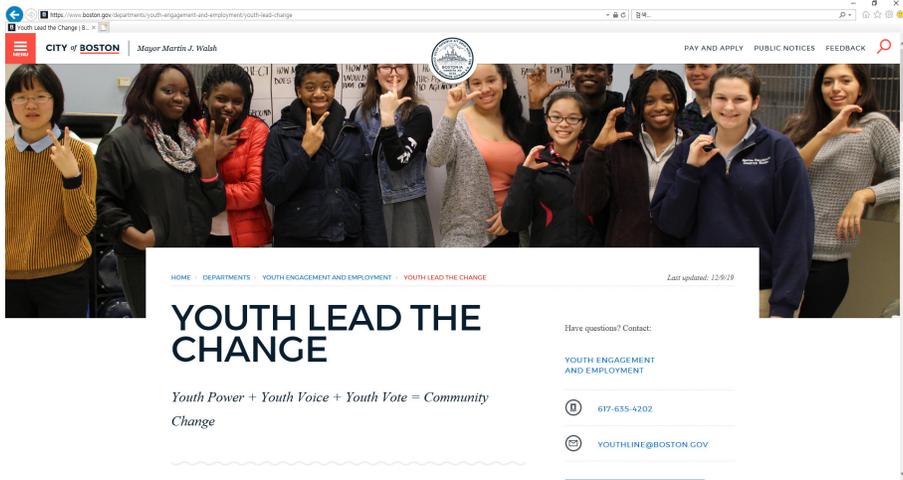
그림 V-3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홈페이지

대표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식은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와대의 신문고와 더불어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제안하는 정책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 참여 포털인 위드 유스(with youth)를 진정한 의미의 참여 포털과 확장한다면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청소년들이 참여기구 활동에 대해 보람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곧 청소년들이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의사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City of Boston(<https://www.boston.gov/>)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출.

그림 V-4 보스턴 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Youth Lead the Change) 홈페이지

현재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 위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에 청소년들이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 정부위원회나 지자체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원회 중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 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 보스턴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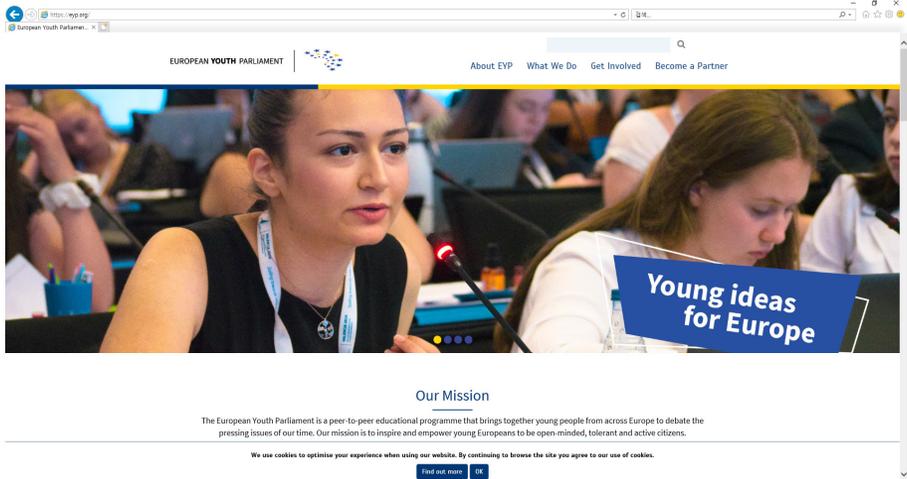
동시에 청소년 및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이하 역시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선거 인하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인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여성가족부를 조속히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회 활성화

현재 청소년참여기구는 여성가족부에 추진 중인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를 비롯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참여기구가 다른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에도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부 외에 입법부에도

청소년참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회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아동의회나 아동·청소년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이나 주로 교육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출처 : European Youth Parliament(<https://eyp.org/>)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출.

그림 V-5 유럽의 청소년의회(EYP: European Youth Parliament) 홈페이지

유럽연합의 청소년의회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증진뿐만 아니라 유럽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청소년의회는 18세에서 25세를 대상으로 40여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35,000여 명이 참여해 매년 600여개의 행사를 진행 중이다.

(4) 청소년특별회의의 재구조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해 개최·운영되고 있다. 특별회의는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

부처에 제안할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채택·점검하는 대표 참여기구로 역할을 수행중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대표적인 참여기구로 자리를 잡았으나 15년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의 특별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과제 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함께 반복적인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안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특별회의는 정책 제안과제 발굴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청소년 여론 동향 및 이슈를 발굴하는 원탁회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소통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정책제안팀과 의제기획팀, 그리고 온라인소통팀으로 개편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정기간 운영된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정책 제안 시스템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상시 자문체제를 구축해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들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기구와의 연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이번 연구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본 결과,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8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63.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활동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서도 수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을 표시하였다. 현행 육성, 수련, 지도는 청소년들을 대상화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잡을 때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청소년육성은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을 개념화한 것으로 육성이라는 특정 용어로 이를 지칭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청소년성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림 V-6 청소년정책 개념의 재정립(안)

수련은 청소년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활동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청소년활동은 교류활동, 문화활동과 더불어 수련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시설 유형에서 수련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련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 수련이라는 표현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 유형에서 사용되는 수련활동이라는 용어문제는 다음 과제에서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 역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굳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활동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청소년지원가, 청소년플래너, 청소년코치, 청소년교육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활동전문가, 청소년활동가, 청소년활동사, 청소년컨설턴트, 청소년협력자, 청소년현장활동가, 청소년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자격 검정제도와의도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청소년계는 물론 일반청소년이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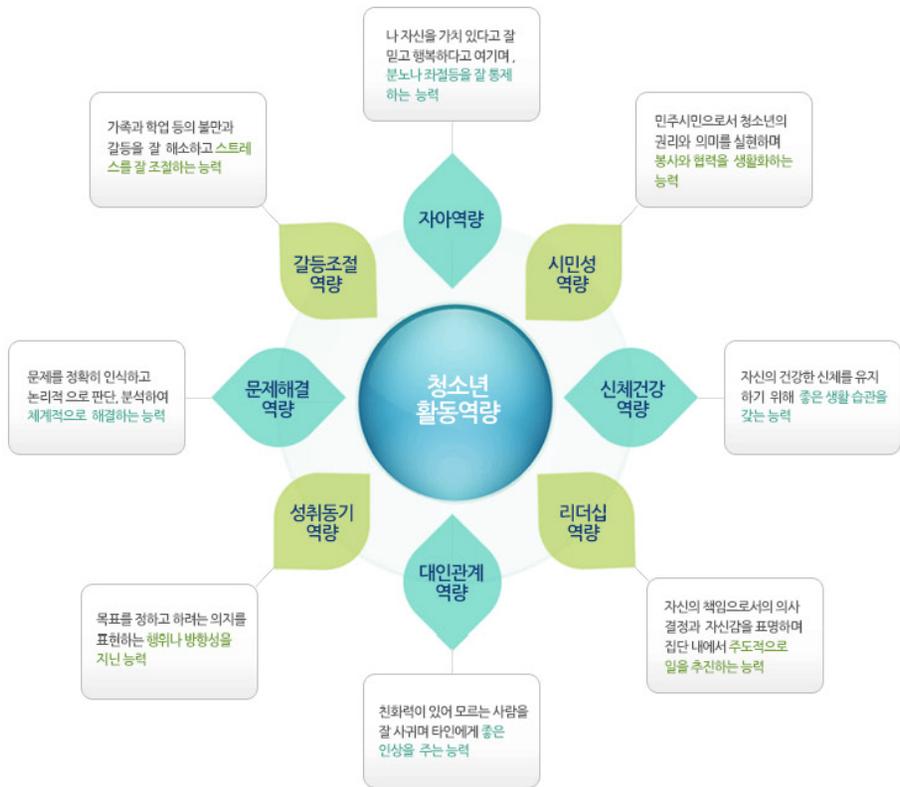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정의와 더불어 유형을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 표시인 ‘등’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세 가지 활동 유형이 청소년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표 V-2 청소년활동 개념 및 유형

현행 법률 청소년활동 정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1안)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을 말한다. (2안)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9년 11월 5일 검색 및 인출.

특히 수련활동은 활동유형이 아니라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소 개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일관성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활동 영역을 굳이 법령에 제시해 혼란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활동 유형을 법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nyc.kywa.or.kr/youth_activity/youth_activity01.jsp에서 2019년 10월 4일 검색 및 인출.

그림 V-7 청소년활동 핵심 8대 역량(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 다른 개선 방안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8대 청소년 역량을 정의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6대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교육에 있어서 역량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나 유사한 시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완전히 다를 수 없으므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 역량을 정의해 법률에 담는 과정도 필요하다.

(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청소년시설 유형에 대한 재구조화는 먼저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각 시설별로 설치 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경우 기존 설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유공간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제공 및 문서 작성을 위한 전달 체계를 갖추면서도 그리고 자유로운 청소년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 매우 더디게 청소년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 단위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기준을 완화해 시설 건립 방식이 아닌 주민자치 센터나 복지관, 아파트단지의 주민 센터 등을 활용해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간단면 청소년 친화적인 활동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청소년시설 평가는 시설 유형에 대한 개편과 맞물려 현행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시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 상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 및 미 조치 시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제도는 신고 대상에서 청소년시설을 제외하거나 혹은 간소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수련활동 신고는 국토대장정과 같은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시설물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임에도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수련시설을 수련활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활동 인증을 통하여 걸러내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시 프로그램 형식·유형만 정하여 관리하고,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자체 책임에 맡겨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수련활동인증제 내용을 모두 국가 책임으로 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

청소년지도자 중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무시험 전형제도가 지도사 자격증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지만 활용가치가 낮은 자격

제도로 격하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상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경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으로는 청소년상담분야의 학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실무 경력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위가 있어도 청소년상담 현장의 실무 경력이 없이 청소년 위기문제를 개입하게 될 경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 경력이나 경험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을 통해 실무경력의 '기간'만을 규정해 놓고,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상담실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고 있어 응시자격 실무경력 기준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수교육의 과정에 위기문제 영역 전문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위기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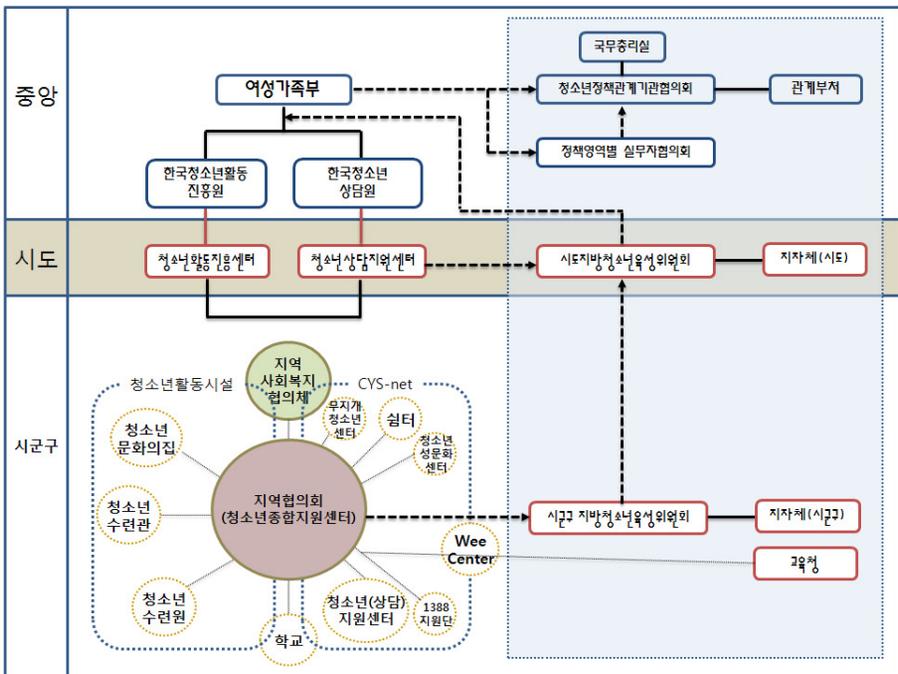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모두 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인력 수급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인구 급감이 예상되고 있어 인력수요 및 공급 기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수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활동분야와 보호·복지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초기에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시설 접근으로 이루어져 전달체계에 관한 고민이 크지 않았으나 청소년 보호 및 복지영역이 확장되면서 전달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활동영역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을 지역사회까지 전달하는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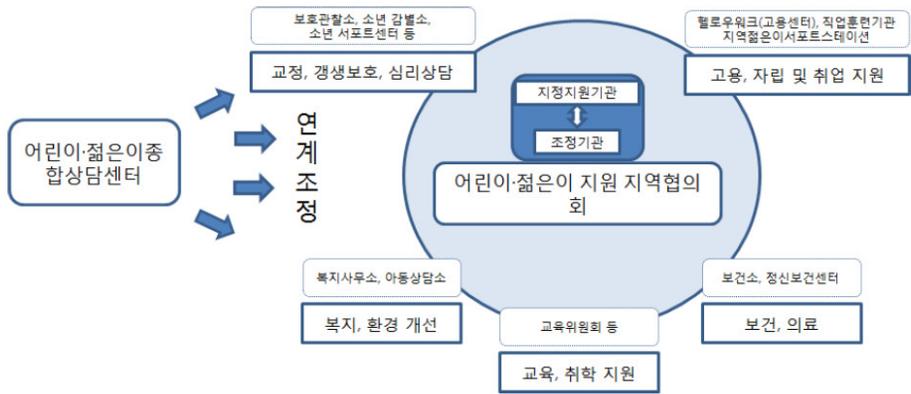
청소년 보호 및 복지영역 전달체계는 참여 정부 시기에 처음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중앙조직의 성격을 갖는데 시도 센터나 시군구 센터의 상위 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기 보다는 센터 간의 연계와 협력, 컨설팅과 지원을 주로 맡아 운영 중이다.

활동 분야 전달체계의 시작은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중앙조직에서 지역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1996년 5개 광역시에 중앙조직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현재 기존의 국립청소년수련원과 통합되어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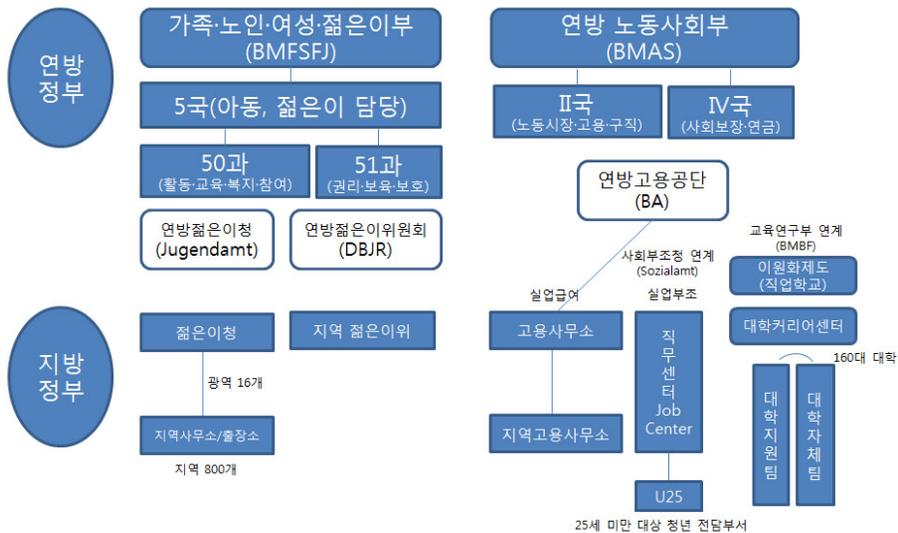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그림 V-8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정방향(4차 수정·보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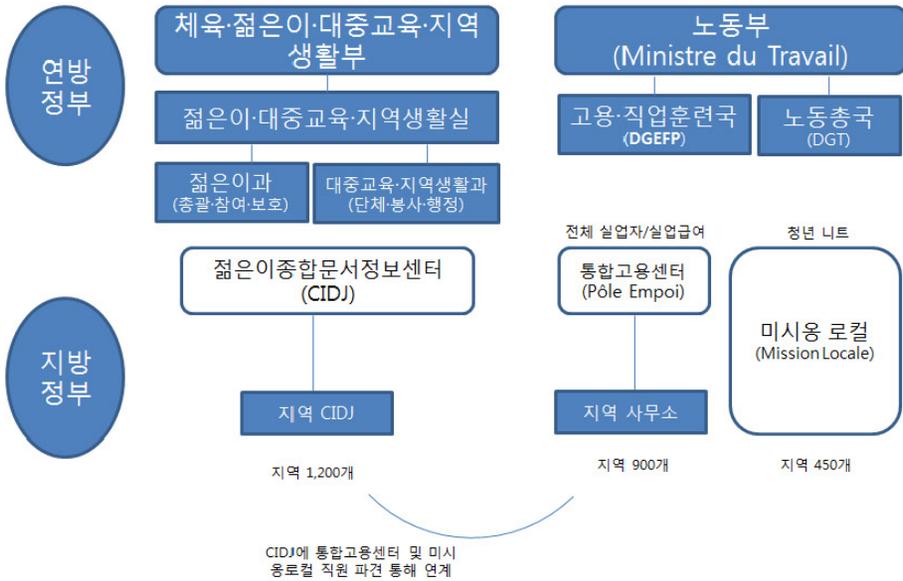
* 출처 : 김기현 (2018) [그림 2], p.4. 원 출처는 内閣府(2018),「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 p.29

그림 V-9 일본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 출처 : 김기현 (2018) [그림 5], p.8. 원 출처는 독일부처 홈페이지(<https://www.bmfsfj.de/>).

그림 V-10 독일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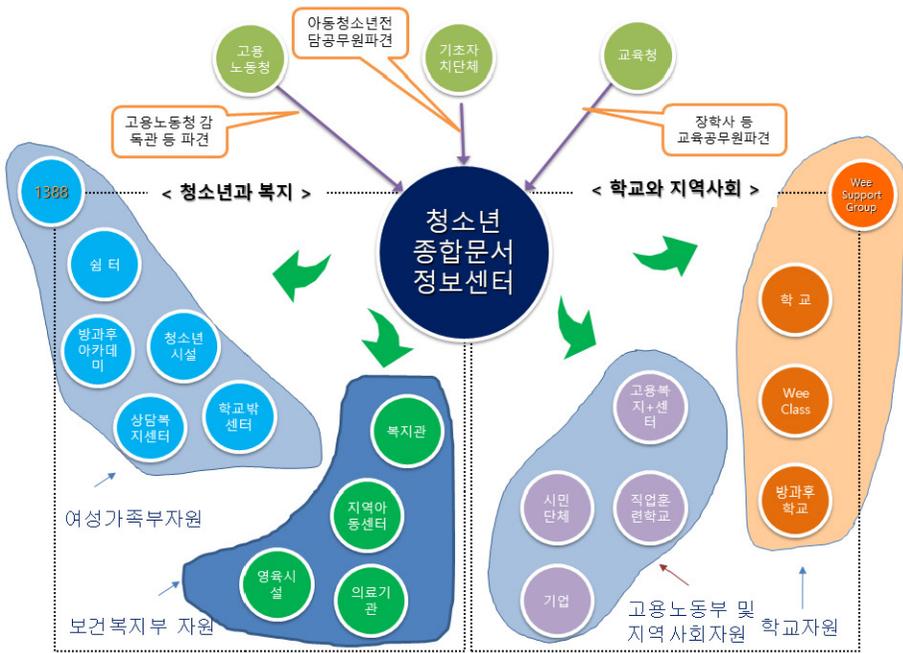
* 출처 : 김기현 (2018) [그림 6], p.10.

그림 V-11 프랑스의 청소년(아동·청년) 전달체계 현황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주요 선진국처럼 체계적으로 구축방안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정책이 이관된 후 수립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0). 이 기본계획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앙전달체계는 이원화하되 지역사회에 내려갈수록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방식은 이미 오래 전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 중심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대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같이 특정 기능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는 지역사회 전달체계는 교육, 취업,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제4차 수정·보완 기본계획으로 적절한 접근 방식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실제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은 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p.11의 그림을 수정·보완함.

그림 V-1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지역사회 종합문서정보센터 구축(안)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나 전달체계 구축 방향은 4차 기본계획의 틀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시군구부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전달 체계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정보와 문서가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 정책의 특성 상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종합문서정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허브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하되 우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중에 민간위탁 형식이 아닌 직영이나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방향을 정해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종합문서정보센터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종 정부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각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청소년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아래 지방노동청과 교육지원청의 근로감독관, 장학사 등의 파견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처 간 협업 형태의 방식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협의를 처음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청소년 전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부처의 지역 전달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병노, 김효정, 박윤주, 이용표, 박유림 (2018). 제4기(2019~2022)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본책). 서대문구.
- 관계부처 합동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세종: 교육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2006.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용교, 길은배, 전명기 외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18).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고용 서비스발전포럼(2018년 9월 11일, 서울 메트로빌딩 10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3호실) 발표자료(내부자료).
-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부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민 (2008). 한국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순천향 인문 과학논총, 21, 155-185.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호순, 변윤언 (2006). 청소년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4), 103-125.
- 김희순 (2003). 청소년정책과 행정, 그 틈을 위해 필요한 노력. **청소년문화포럼**, 7, 108-156.
- 문화관광부 (1998a). **청소년백서 1989**.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1998b).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백서 1993**. 서울: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백서 1997**. 서울: 문화체육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1989**.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09**.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대문구 (2014). **제3기(2015~2018)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서대문구청.
- 서대문구 (2019.12.06.).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운영내용**.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2018). **2018 서대문구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송미영, 안수영, 박민아, 류진석, 김은혜, 이상열 (2018a). **제4기(2019~20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본책)**. 세종특별자치시.
- 송미영, 안수영, 박민아, 류진석, 김은혜, 이상열 (2018b). **제4기(2019~20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별책)**. 세종특별자치시.
- 여성가족부 (2019a).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 계획(II) -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c).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 계획(I) -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오해섭, 김진화, 정재민 (2004). 지방 청소년 행정기능 강화 및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금봉 (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서면 의견. (2019.12.16.)
- 이광호 (2008).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 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재설계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연구, 10(2), 49-72.
- 이동혁, 이승하, 정혜윤, 차지숙 (2016).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용교 (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서울: 인간과 복지.
- 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법론. 서울: 교학사.
- 조혜영 (2018). 한국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변화 동향 분석과 과제. 인문사회 21, 9(5), 1125-1140.
- 천정웅, 김정주 (2009).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특성 비교연구 - 청소년정책과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6(2), 101-122.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백서 2005. 서울: 청소년위원회.
- 체육부 (1989). 청소년백서 1989. 서울: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백서 1991. 서울: 체육청소년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24).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2018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결과 보고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내부보고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 내부규정.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미래세대 빅뱅전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19-S27): 청소년 지도자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19-S34):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연계”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소년이 희망이다 - 청소년정책 30년, NYPI 30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Kirkpatrick, D. (1967). Evaluation of training. In Craig, R. & Bittel, L. (Ed.), *Training and development handbook* (pp.87-112). New York: McGraw-Hill.
- National Resource Center (2010). *Conducting a Community Assess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by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인터넷 자료]

- 교육통계 (2019).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19년 11월 5일, 12월 23일 검색 및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9604&lsNm=%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9604&lsNm=%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23조③.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0년 1월 14일 최종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C%A7%84%ED%9D%A5%EB%B2%95#undefined>에서 2019년 12월 23일 검색 및 인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s://www.sdm.go.kr/wesdm/info/organization.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공개. <http://openfinance.seoul.go.kr/seodaemun>에서 2019년 12월 22일 검색 및 인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썬맵 검색. <https://www.somemap.kr/map/14043>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서대문구자치신문(2018.07.02.). 청소년이 바꾸는 서대문구. <http://www.newsj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0>에서 2019년 12월 11일 검색 및 인출.

세종인뉴스(2019.11.27.).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공모 1위 쾌거.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세종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세종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5_06_05.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nyc.kywa.or.kr/youth_activity/youth_activity01.jsp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 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9년 12월 5일 검색 및 인출.

City of Boston (2019). City of Boston Youth Lead Change Homepage. <https://www.boston.gov/>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출.

European Youth Parliament (2019). European Youth Parliament Homepage. <https://eyp.org/>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출.

European Union (2019). European Union Youth Homepage. https://europa.eu/youth/EU_en에서 2019년 12월 6일 검색 및 인출.

○ ————— 부 록

- 1. 청소년 대상 정책 제안
공모와 결과
- 2. 설문지 전문가용
- 3. 설문지 청소년용

부록

1. 청소년 대상 정책 제안 공모와 결과²⁶⁾

1) 배경

정책개발에는 수혜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강력한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변화,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수 정책이 청소년 참여 없이 실행되며 이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참여권리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행복나눔 정책제안 공모·참여 이벤트'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분야로 ① 청소년 인권, ② 양성평등, ③ 학교 밖 청소년, ④ 안전, ⑤ 경제활동의 5가지 분야로 이는 '19년도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 총40건의 제안 검토를 하였다.

26) 이 절은 이민정 부장이 작성하였음.

분야별 청소년인권 16개, 양성평등3개, 학교 밖 청소년 9개, 안전 8개, 경제활동 4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과제 중 수혜자들로부터 공감, 조회수 등을 가장 많이 받은 과제를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하였다.

표 부록-1 정책제안 공모 현황

합계	청소년인권	양성평등	학교 밖 청소년	안전	경제활동
40	16	3	9	8	4

표 부록-2 세부 정책제안 현황

순위	영역	제목	공감수	조회수	반영여부
1	청소년인권	청소년시설 '청소년 공감(共感) 공간' 리-디자인	152	1,395	반영
2	안전	청소년 범죄 대응 전문기관(또는 부설) 설립	128	1,942	
3	청소년인권	청소년 가정폭력 정책	121	1,558	
4	경제활동	유스 페이(Youth pay)	103	802	
5	청소년인권	Refresh, 청소년 여가 플랫폼 '동행'	100	663	반영
6	청소년인권	사교육 제한을 위한 방안	94	801	
7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	81	589	
8	안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휴교 및 수업단축 의무화	48	746	
9	청소년인권	그만 무서울래요. 지켜주세요.	38	1,582	
10	학교 밖	일로온나	35	654	
11	청소년인권	석식 먹는 요일만 돈을 내면 어떨까요?	24	717	
12	학교 밖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다.	17	387	
13	양성평등	회사도 남녀로 가를 것입니까?	17	351	
14	안전	우리의 성교육 안녕한가요?	16	154	
15	경제활동	청소년들의 텅장, 이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16	328	
16	청소년인권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13	445	

순위	영역	제목	공감수	조회수	반영여부
17	안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심야버스 운영	10	87	
18	안전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보호	9	196	
19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한 정책제안	7	98	
20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6	60	반영
21	청소년인권	학교 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 보장	6	91	
22	학교 밖	기업의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5	359	
23	안전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방송 생활 보장	5	66	
24	청소년인권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위한 정책	4	132	
25	경제활동	금융문맹률 퇴치를 위해 우리는 금융교육이 절실...	4	46	
26	학교 밖	공모전 속 차별, 알고 계셨나요?	4	110	
27	청소년인권	정책 수요자와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	3	285	
28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 검정고시 교육과...	3	38	반영
29	안전	청소년 학급문제 센터	2	135	
30	청소년인권	고교통학버스제도 확대	2	46	
31	경제활동	국가근로장학금 청소년 확대시행	2	68	
32	청소년인권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교육감 선거...	2	73	
33	학교 밖	청소년들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학교 밖...	1	103	
34	청소년인권	청소년들은 행복하고 싶다.	1	17	반영
35	청소년인권	'에프티스콜레' 한국판	1	57	
36	양성평등	성교육표준안제정	1	57	
37	청소년인권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의 의무화	1	70	
38	양성평등	우리 주변의 사례를 보서는 양성평등이 정말로...	1	129	
39	청소년인권	청소년의 꿈	0	125	
40	안전	학교에서 듣는 각종 예방교육 운영방식을 바꿔...	0	21	

2) 추진결과

총 40건의 제안과제 중 분야별 최대 공감정책제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위	영역	제목	공감수	조회수
1	청소년인권	청소년시설 '청소년 공감(共感) 공간' 리-디자인	152명	1,395
2	안전	청소년 범죄 대응 전문기관(또는 부설) 설립	128명	1,942
3	청소년인권	청소년 가정폭력 정책	121명	1,558
4	경제활동	유스 페이(Youth pay)	103명	802
5	청소년인권	Refresh, 청소년 여가 플랫폼 '동행'	100명	663

또한 '19년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반영된 정책제안 내용은 40개 중 7개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17.5%에 해당한다.

연번	영역	공모전 정책제안 제목 및 제안내용	특별회의 정책과제명
1	경제활동	금융문맹을 퇴치를 위해 우리는 금융 교육이 절실하다. * 체험식 경제 금융교육 필요	1-2-1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경제 및 금융 교육 활성화 ③ 청소년 생활 경제 및 금융 교육 의무화
2	안전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보호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숙박 장소 마련 등	2-2-1 청소년 안전 인프라 확대 ⑨ 학교폭력,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제도 강화 ⑩ 청소년 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
3	청소년인권	청소년들은 행복하고 싶다. * 기존 상담 전화 외 문자, 카카오톡 등 지속적 홍보 운영 및 다양한 채널 홍보 강화	4-1-1 청소년 인권 소통 채널 다양화 ⑱ 가칭 '청소년 인권 119'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존 소통채널 확대
4	청소년인권	청소년시설 '청소년 공감 공간' 리-디자인 *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리-디자인 공간 제안	4-2-1 청소년시설 이용환경 개선 ㉑ 청소년시설 내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

연번	영역	공모전 정책제안 제목 및 제안내용	특별회의 정책과제명
5	청소년 인권	Refresh, 청소년 여가 플랫폼 '동행' * 제안배경 및 여행 플랫폼 제안	4-2-2 청소년 관광지원 ㉓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관광 지원
6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 전문 인력 투입 확대	5-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확대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력 확대
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 검정고시 교육과 직업교육 활성화 * 직업인 초청 진로 탐색 및 전문 진로 상담 등	

5개 분야 중 '인권'에 대한 과제 제안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함께함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설문지 전문가용

설문 개요

연구과제명 :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되니까?

지금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일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전문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 참여 및 활동 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500명, 일반 청소년 1,000명,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활동, 참여, 보호,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도, 경험, 만족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로부터 수집된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답례품 제공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김기현 , 전화번호 : 044-415-2234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설문 조사(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조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응답 원료지에 대한 담례품 지급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거주지역, 성별, 연령, 연령, 교육수준, 근무기관 형태(전문가)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 조사(전문가)

【선문】귀하의 직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쿼터 확인)

1. 대학 교수
2. 연구원
3. 청소년 지도자

【선문】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학
2.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3. 정부 또는 지자체 산하 준정부기관
4.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 시설(상담복지센터,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복지관 등)
5.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수련관, 수련마을, 수련원, 문화의 집, 활동진흥센터, 문화센터, 농생명센터, 유스타운 등)
6. 청소년 관련 연맹 또는 재단
7. 기타

【선문】귀하가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년 ()개월

【선문】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선문】현재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무학 | 4. 고등학교 |
| 2. 초등학교 | 5. 대학(2년제) |
| 3. 중학교 | 6.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 포함) |

【선문】현재 귀하의 재학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졸업 2. 재학 3. 수료 4. 휴학 5. 중퇴

I.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와
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문】귀하는 현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업성적
2. 대학입시
3. 진로
4. 취업
5. 외모
6. 건강
7.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8. 친구와의 관계
9. 이성과의 관계
10.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11. 경제 사정
12. 기타_____

【문】귀하는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혀 만족하지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만족)
-------------------------	---	---	---	---	-----------	---	---	---	---	------------------

【문】「청소년 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난 1993년부터 5년 단위로「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제6차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음
2. 모름

【문】귀하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청소년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혀 기여하지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기여하고 있음)
-------------------------	---	---	---	---	-----------	---	---	---	---	--------------------------

【문】귀하는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개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2. 청소년의 권한 부여
3. 청소년의 역량 강화
4.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5. 청소년의 수련 활성화
6.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문】청소년정책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의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념	중요도			
	전혀 안 중요함	안 중요한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수련 활동				
2. 청소년 육성				
3. 청소년 지도				

【문】귀하는 청소년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어 다음 중 어떤 정책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문】청소년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어 귀하는 _____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목표	과제1	과제2	과제3
1.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3.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문】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당 부처의 종합적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② 미래역량 중심의 전문교육 확대
- ③ 임금기준 상향으로 양질의 인력은 유인하고, 인재 유출은 방지
- ④ 지역별 학습 동아리 장려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 ⑤ 기타 ()

【문】귀하는‘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정함

1. 찬성
2. 반대

【문】만약 찬성하시면 귀하는‘청소년지도자’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관식)

【문】「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연령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정함
2. 적정하지 않음

【문】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적정 연령은 무엇입니까?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의 사람

II.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 영역

[참여]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육감,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만약 찬성하는 경우, 귀하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몇 세 이상의 국민부터 선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세 이상의 국민

【문】만약 반대하는 경우, 귀하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만 19세 이상’에서‘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각 기구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청소년 자치권의 실현에 대한 기여도, 확대 필요성을 차례대로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구	1)인지도	2)청소년 자치권의 실현에 대한 기여도	5)확대 필요성
	1. 있음 2. 없음	1. 기여 2. 미기여 3. 모르겠음	1. 필요 2. 불필요 3. 모르겠음
1) 청소년참여위원회			
2) 청소년운영위원회			
3) 청소년특별회의			
4) 학급회의			

【문】귀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찬성
2. 반대

【문】만약 찬성한다면, 어떻게 온라인 참여 포털을 운영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주관식).
()

[활동]

【문】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활동들이 청소년의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활성화돼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세요.

활동	1)일상에서의 충족 여부	2)행복 기여도
	1. 전혀 충족되지 못함 2.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 충족되는 편임 4. 매우 충족되고 있음	가장 활성화돼야 할 활동 택1
1) 스포츠 활동		
2) 문화 및 예술 활동		
3) 학습 및 훈련 활동(교육 방면)		
4) 경제활동(아르바이트, 취직 등)		
5) 사교 및 친목 도모 활동		
6) 자원봉사활동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활동사업과 제도입니다. 각 사업과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와 해당 사업과 제도가 실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주세요.

항 목	1)인지도	2)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2) 청소년자원봉사 DOVOL		
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5) 청소년국제교류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 상상(相翔)학교(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8)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0) 공공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문】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활동 시간 보장
2.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의사 반영 강화
4.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전성, 재미 강화
5. 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6. 활동 참가비용의 지원 강화
7. 기타(주관식)

【문】현행 청소년증은 현재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행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함 ② 불필요함

【문】만약 필요하다면, 귀하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세 이상 만()세 이하

【문】현행 청소년증은 1)공적 신분증, 2)청소년 우대(할인) 증표, 3)선불형 교통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증의 기능이 지금보다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만약 예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주관식)

()

【문】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 미래대응 정책방안 마련
 - ②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미래대응방안 설계
 - ③ 4C(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력, 협업, 창의력)와 같은 역량 중심의 활동 및 교육 설계
 - ④ STEAM, Maker, Coding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의 확장
 - ⑤ 기타 ()

【문】귀하는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문】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청소년사업이 지역 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과 정보 부족
2.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인프라 부족
3.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역 사회의 예산 및 인력 확보 부족
4.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출대
5. 청소년사업의 기획과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견 수렴 부재

【문】귀하는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의 종합 시설(허브)로 개편하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
- ② 비동의

【문】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설 간 통폐합에 따른 기존 시설 종사자의 정원 감축(구조조정)
2. 시설 간 통폐합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삭감
3. 시설 간 통폐합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축소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활동 위축
4. 명칭 변경과 시설 개편의 실효성 부재

Ⅲ.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

【문】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복지 영역들이 청소년의 일상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복지 영역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세요.

복지 영역	1)일상에서의 충족 여부	3)행복 기여도
	1. 전혀 충족되지 못할 2.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 충족되는 편임 4. 매우 충족되고 있음	가장 기여도가 큰 복지 영역 택1
1) 생활복지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		
2) 건강복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 검진 및 치료)		
3) 학업복지 (안정된 학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자립복지 (취업과 진로 결정을 위한 서비스)		
5) 상담복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 스)		
6) 활동복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복지 지원사업과 시설입니다. 각 사업과 시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와 해당 사업과 시설 이 실제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 목	1)인지도	2)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3) 청소년전화 1388		
4) 모바일 상담 #1388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6) 청소년쉼터		
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		
1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국민행복카드)		
1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일상에 가하는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얼마나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 목	위험의 심각성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미비	보통	우수
1) 온오프라인 상의 영화, 게임, 음악, 공연, 방송, 잡지, 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의 매체물 접속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2) 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3)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원구 등의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4)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비디오/DVD방 등의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5)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안전사고 등 부당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6)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폭력, 따돌림, 학대 등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7)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①	②	③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보호 서비스와 시설입니다. 각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와 해당 서비스와 시설이 실제 청소년의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 주세요.

항 목	1)인지도	2)청소년의 보호 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1. 있음 2. 없음	3. 있음 4. 없음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를 위한 지속형 치유캠프)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5)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문】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그리고 처하게 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각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도와 실제 각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의의			프로그램의 성과 1. 있음 2.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1) 생명존중(자살·자해 예방)	①	②	③	
2) 비행예방	①	②	③	
3) 진로(발달) 설계	①	②	③	
4) 스트레스 관리	①	②	③	
5) 학교폭력 예방	①	②	③	
6)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②	③	
7) 또래상담	①	②	③	
8) 청소년 근로 및 인권	①	②	③	

IV. 응답정보 보안 관련 내용

귀하의 성함은?		연락처는? (휴대폰)	
<p>귀하께서 응답하신 성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조사의 응답 여부 확인용 및 기프티콘 발송용으로만 활용됩니다. 그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입력하신 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설문지 청소년용

설문 개요

연구과제명 :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지금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일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전문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 참여 및 활동 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500명, 일반 청소년 1,000명,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활동, 참여, 보호,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도, 경험, 만족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로부터 수집된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3(업주)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결과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답례품 제공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김기현 , 전화번호 : 044-415-2234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설문 조사(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조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응답 원료지에 대한 담례품 지급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거주지역, 성별, 연령, 연령, 교육수준, 근무기관 형태(전문가)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 조사(청소년)

【선문】귀하는 현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선문】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

【선문】귀하의 세부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역 중 ⑨~⑰ 응답자만]

- ① 시지역
- ② 군/읍지역

【선문】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선문】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선문】현재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무학 | 4. 고등학교 |
| 2. 초등학교 | 5. 대학(2년제) |
| 3. 중학교 | 6.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 포함) |

【선문】현재 귀하의 재학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졸업
2. 재학
3. 수료
4. 휴학
5. 중퇴

【선문】현재 귀하의 가정 형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0(매우 못 산다) 1 2 3 4 5(보통) 6 7 8 9 10(매우 잘 산다)

【선문】귀하의 2019년 1학기 기준 학업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매우 못하는 수준 | 4. 잘하는 수준 |
| 2. 못하는 수준 | 5. 매우 잘하는 수준 |
| 3. 중간 | |

I. 청소년 정책 수요

【문】귀하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1. 학업성적
2. 대학입시
3. 진로
4. 취업
5. 외모
6. 건강
7.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8. 친구와의 관계
9. 이성과의 관계
10.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
11. 경제 사정
12. 기타 _____

【문】귀하는 요즘 자신의 일상(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0 (전혀 만족하지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만족)
-------------------------	---	---	---	---	-----------	---	---	---	---	------------------

【문】「청소년 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제6차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음
2. 모름

【문】귀하는 정부의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음
2. 모름

【문】만약 알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선택해주세요.

1. 교육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보건복지부
4. 여성가족부

5. 행정안전부

【문】귀하는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귀하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혀 기여하지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기여하고 있음)
-------------------------	---	---	---	---	-----------	---	---	---	---	--------------------------

【문】귀하의 일상(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어 다음 중 어떤 정책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혁신

【문】청소년정책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2. 청소년의 권한 부여
3. 청소년의 역량 강화
4.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5. 청소년의 수련 활성화
6.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문】「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연령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정함
2. 적정하지 않음

【문】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적정 연령은 무엇입니까?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의 사람

II. 청소년활동 및 참여 정책

[참여]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

【문】귀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만약 찬성한다면 귀하는 온라인 참여 포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다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한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구	1)참여 경험	2) 향후 참여 의향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모르겠음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3)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		
4) 집회 및 시위 참여하기		
5) 항의 전화하기		

[활동]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다음의 활동들에 대한 귀하의 참여 욕구, 일상에서의 충족 여부, 그리고 행복 기여도를 평가해 주세요.

활동	1)참여 욕구	2)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3)행복 기여도
	1. 전혀 없음 2. 없는 편임 3. 있는 편임 4. 매우 있음	1. 전혀 충족되지 못함 2.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 충족되는 편임 4. 매우 충족되고 있음	가장 기여도가 큰 활동 택1
1) 스포츠 활동			
2) 문화 및 예술 활동			
3) 학습 및 훈련 활동(교육 방면)			
4) 경제 활동(아르바이트, 취직 등)			
5) 사교 및 친목 도모 활동			
6) 자원봉사활동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활동사업과 제도입니다. 각 사업과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참여 경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청소년활동사업과 제도	1)인지도	2)참여 경험	3)참여 만족도 (참여 경험자 한정)
		1. 알고 있음 2. 모르고 있음	1. 있음 2. 없음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2) 청소년자원봉사 DOVOL			
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5) 청소년국제교류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 상상(相翔)학교(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8)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0) 공공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문】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활동 시간 보장
2.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의사 반영 강화
4.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안전성, 재미 강화
5. 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6. 활동 참가비용의 지원 강화
7. 기타_____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각 시설에 대한 귀하의 이용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청소년수련시설	1)이용 경험	2)만족도	3)향후 이용 의향	4)청소년 지도사와의 접촉 여부	5)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만족도 (지도사의 지도를 받은 응답자 한정)
	1. 있음 2. 없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 만족하는 편임 4. 매우 만족함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 만족하는 편임 4. 매우 만족함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문화의 집					
4) 청소년야영장					
5) 유스호스텔					

【문】귀하는 청소년증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귀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만약 없다면, 귀하가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 ②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③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 ④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 ⑤ 기타(주관식)

III.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

【문】귀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다음의 영역들에 대한 귀하의 복지 욕구, 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행복 기여도를 평가해 주세요.

영역	1)복지욕구	2)일상에서의 충족 정도	3)행복 기여도
	1. 전혀 없음 2. 없는 편임 3. 있는 편임 4. 매우 있음	1. 전혀 충족되지 못함 2. 충족되지 못하는 편임 3. 충족되는 편임 4. 매우 충족되고 있음	가장 기여도가 큰 영역 택1
1) 생활복지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			
2) 건강복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 검진 및 치료)			
3) 학업복지 (안정된 학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자립복지 (취업과 진로 결정을 위한 서비스)			
5) 상담복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			
6) 활동복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각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이용 경험을 평가해주세요.

서비스	1)인지도	2)이용 경험	3)만족도 (이용 경험자 대상 한정)	4)청소년 상담사와의 접촉 여부	5)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상담사와 접촉한 응답자 한정)
	1. 알고 있음 2. 모르고 있음	1. 있음 2. 없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 만족하는 편임 4. 매우 만족함	1. 있음 2. 없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 만족하는 편임 4. 매우 만족함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전화 1388					
3) 모바일 상담 #1388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5) 청소년쉼터					
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					
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다음의 위험 요인들이 귀하의 일상에 가하는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해 주세요.

항 목	위험의 심각성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1) 온오프라인 상의 영화, 게임, 음악, 공연, 방송, 잡지, 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의 매체물 접속 및 이용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2) 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3)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완 구 등의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4)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비디오/DVD방 등의 업소 이용 및 노출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5)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안전사고 등 부당 근로 처우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6)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폭력, 따돌림, 학대 등 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7) 불안정한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위험	①	②	③

【문】다음은 대표적인 청소년보호 서비스와 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각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귀하의 이용 경험을 평가해주세요.

서비스 및 시설	1)인지도	2)이용 경험	3)만족도
	1. 알고 있음 2. 모르고 있음	1. 있음 2. 없음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3. 만족하는 편임 4. 매우 만족함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진단에 따른 병원 치료 및 상담 제공 서비스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를 위한 지속형 치유캠프)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5)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서비스			

【문】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귀하의 관심 수준과 참여 의향을 평가해 주세요.

프로그램	관심 정도			프로그램 참여 의향 1. 있음 2. 없음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높음	
1) 생명존중(자살·자해 예방)	①	②	③	
2) 비행예방	①	②	③	
3) 진로(발달) 설계	①	②	③	
4) 스트레스 관리	①	②	③	
5) 학교폭력 예방	①	②	③	
6)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②	③	
7) 또래상담	①	②	③	
8) 청소년 근로 및 인권	①	②	③	

Ⅳ. 응답정보 보안 관련 내용

귀하의 성함은?	연락처는? (휴대폰)
<p>귀하께서 응답하신 성함과 연락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 정책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의견조사의 응답 여부 확인용 및 기프티콘 발송용으로만 활용됩니다. 그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입력하신 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structuring plan for youth policy in an effort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facing youth policy. This article will focus on youth participation and youth ac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tection and welfare areas of youth policy, and treat a restructuring plan of youth leaders and delivery systems in regard to infrastructure.

This study first outlines how Korean youth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study, youth administration and policy chang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period of youth policy (until 1987), the second stage is the growth period of youth policy (1988 to 1997), the third stage is the transition period of youth policy (1998 to 2007), and the last stage is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after 2008). Currently it can be said on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 However, if the linkage with other policy areas stays on a mere physical bond instead of a chemical bond, problems such as confusion and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in policy direction may occur rather than synergistic effects. Since it is the reality that show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policy areas in restructuring youth polic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the opinions of experts and identify policy needs together with youth as policy parties.

In addition, community assessm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realities of youth policy progress through group or individual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participating youth in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hearings of opinions on how to restructure youth polic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case studies showed dominantly that the image of Korean youth policy is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the core concepts of youth policy, such as nurturing, training and guidance, are also behind the times. As for th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opinions were gathered at the community level, resulting in confusion and overlapping problems, and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youth. It wa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adolescent leaders and counselors needs to be improved, and that there is a need to organize supplement education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four policy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 were selected based on review of previous studies, surveys, community case studies, and expert forums. First of all, the restructuring of youth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 access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community, and the effective and integrated approaches in promoting youth policy. This study proposed ten proposal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

Key words : youth policy, restructuring, youth participation, youth activity, youth leader,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 · 윤철경 · 서고운 · 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 · 임정아 · 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 · 유민상 · 김창환 · 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 · 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 · 백혜정 · 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 · 정연 · 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 · 최정원 · 변금선 · 이종원 · 이민정 · 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 · 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 · 이종원 · 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 · 김현철 · 문호영 · 이윤주 · 박지숙 · 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 · 이윤주 · 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층)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규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로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64-259-9 93330